

민주화운동 연구보고서 2003
한국 학생운동 관련
문헌 해제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연구총서 최종보고서

한국학생운동관련문헌해제

2003년 1월 21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총서 최종보고서

한국학생운동관련문헌해제

2003년 1월 21일

작성자: 송병헌 · 전재호 · 엄관용

- 목 차 -

I. 연구논문 : 한국 학생운동연구의 현황과 과제	1
II. 해제 문헌 차례	13
III. 문헌 해제	16
1. 학생운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 및 연구동향	16
2. 학생운동의 역사·이념·조직	23
3. 학생운동과 한국사회(여타 운동부문, 정치변화, 사회구조 등 환경과의 관련성)	103
4. 학생운동 비판 문헌(대공관련, 기타)	111
5. 학생운동의 의식 및 의식형성과정	118
6. 학생운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	140
7. 각국 학생운동 비교분석	153
IV. 참고문헌	157
1. 학생운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 및 연구동향	157
2. 학생운동의 역사·이념·조직	159
3. 학생운동과 한국사회	169
4. 학생운동 비판 문헌	172
5. 학생운동의 의식 및 의식형성과정	177
6. 학생운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	180
7. 각국 학생운동 비교분석	183
8. 기타	184

발 간 사

오늘날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국내외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민주화운동이 특별한 사명과 과제를 지니고 있고, 특별한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지구상 최후의 분단국가로서 세계화시대에 새로운 평화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시험무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국민의 동의를 확대하여 평화의 토양을 더욱 더 다져야 하는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여전히 전쟁과 파괴, 독재와 야만으로 얼룩져있는 세계에서, 한국의 민주화과정은 특별한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한국 민주화역사는 민주화를 향한 평화적 이행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작은 발걸음이지만 한국은 87년 민주항쟁 이후 지속적으로 민주화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민주 이전의 어두운 과거로 되돌아가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심화'를 논의할 만큼 과거 어느 때보다 진전된 민주주의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세기에 걸쳐 치열하게 전개된 민주화운동의 결과입니다. 한국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지닌 나라에서 피어난 민주주의는, 전쟁과 불안, 독재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의 민중들에게 한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 민주화운동의 기반은 굳건하지 못합니다. 민주화의 진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거청산을 위한 동의와 합의의 토대가 아직은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민주화운동의 미래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모호한 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지금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수행해야 할 우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자신있게 말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여전히 채워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가 처한 또하나의 현실인 듯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그 토대인 과거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고 복원하는 것, 오늘의 문제를 진단하고 전망을 모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지평과 합의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민주화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거나 역사 속에 묻혀버린 과거 민주화운동을 발굴·복원하는 것은 민주화운동에 힘 입어 설립된 저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먼저 시작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저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여러 이론적 논의들을 연구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밝혀내어 향후 새로운 민주주의 상과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 가운데 하나가 연구총서의 발간입니다.

연구총서 발간은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논의 등을 연구하고 그 성과를 총서로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첫 발을 내딛은 연구소로서 본격적인 연구 이전의 선행연구로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 현황을 조사하고 그에 기초하여 향후 연구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내실을 다져가는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민주화운동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문이 많지만 연구소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노동운동, 학생운동, 정치운동, 교회운동 4개 부문을 먼저 조사·연구했습니다.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부족함이 많은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이 땀과 노력을 기울여 이뤄낸 작은 성과임은 분명합니다. 이번 민주화운동 연구 현황과 과제에 관한 조사·연구를 토대로 향후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오늘에 되살려내는 일을 차근차근 해나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저희의 이번 조사·연구가 민주화운동 연구에 작은 도움이 되고, 더 심화된 연구를 위한 자극이 될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연구에 참여해 귀찮고 힘든 작업을 성실히 해주신 연구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간된 연구총서 기초조사사업을 토대로, 향후 한국민주화운동의 과거복원과 미래전망의 정립에 기여하는 여러 이론

적 성과들이 축적되어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질정을 부탁드립니다.

2003. 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1. 연구논문 : 한국 학생운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송 병 현

1. 한국 학생운동 연구문헌 조사의 의의

주지하다시피 한국학생들은 한국현대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군부를 중심으로 한 30여년간의 억압통치와 싸운 주력이었고, 학생운동은 민주화운동의 견인차이자 주된 추진력이었다¹⁾. 4.19에서 1960-70년대 엄혹한 시기에서의 선도적 투쟁들과 현장참여, 1980년대 한국사회의 모순에 대한 일깨움과 반군부파시즘 투쟁, 그리고 87항쟁, 나아가 최근의 반미시위와 대선에서 보여준 응집력까지, 한국의 학생운동은 거의 언제나 한국의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최전선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학생운동에 대한 연구는 과거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고 규명하는 중요한 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미래 한국 민주화운동의 진로를 가늠하는 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즉 과거 학생운동이 사회운동의 이슈를 가장 선진적이고 이론적으로 제기해왔다는 점에서, 한국 학생운동의 궤적과 구호는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적 모순과 사회세력의 역관계, 개혁세력 및 민중의 당면과제를 응집시켜 보여주는, 사회운동역사의 축소판이다. 또한 학생운동 양상의 변화와 약화 혹은 부활이 사회환경의 변화와 사회운동을 이끄는 주요 동력의 재편성 및 변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학생운동의 미래는 미래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사회운동의 진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 보여진 바 ‘붉은 악마’의 응원에 대거 참여하는 학생들, 반미 촛불시위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학생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높은 참여열기와 개혁의지를 보인 학생들의 ‘운동’형태는 과거 한국의 학생운동의 운동형태와 어떻게 다른가? 이러한 새로운 학생‘운동’의 형태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무엇이고, 그것이 향후 한국 민주주의의 진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한국의 학생운동은, 비록 학생집단이 사회계급은 아니지만, 여전히 집단적 결집과 의사표현의 힘과 잠재성을 지닌 가장 대규모 집단의 하나라는 점에서, 한국 학생운동에 대한 물음은 한국사회의 향후 개혁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물음인 것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한국에서 나온 학생운동에 대한 연구문헌을 제시하고 중요 문헌의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학생운동의 연구현황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제까지의 연구문헌에서 과제로서 강조되었던 연구대상을 검토함으로써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한 연구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본 연구는 향후 학생운동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며, 그러한 시사점이 향후 학생운동의 위상정립과 발전전망을 위한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무릇 현실과 이론은 상호 교호작용을 한다. 학생운동의 현실과 연구 및 이론도 마찬가지다. 학생운동의 현실은 연구와 이론에 반영되며, 학생운동에 대한 연구동향은 다시금 학생운동을 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학생운동이 반응해야 할 지적 환경을 구성한다. 따라서 어떤 시각에서 어떤 측면에 주목하여 학생운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는가,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향후 학생운동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가의 문제는 학생운동의 역

1) 서중석, “1960년대 이후 학생운동의 특징과 역사적 공과”, 『역사비평』 39집, 1997.

사를 평가하고 학생운동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 먼저 학생운동에 대한 기존연구의 현황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2. 연구의 현황

(1) 해제 및 참고문헌의 구성²⁾

해제 및 참고문헌은 문헌이 담고 있는 주제별로 1.학생운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 및 연구동향 검토문헌(해제 3종, 참고문헌 28종), 2.학생운동의 역사, 이념, 조직(해제 45종, 참고문헌 297종), 3.학생운동과 한국사회(해제 5종, 참고문헌 64종), 4.학생운동비판 문헌(해제 4종, 참고문헌 141종), 5.학생운동의 의식 및 의식형성과정(해제 9종, 참고문헌 55종), 6.학생운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해제 7종, 참고문헌 50종), 7.각국 학생운동 비교분석(해제 2종, 참고문헌 16종) 및 기타(참고문헌 40종)로 구성되어 있다.

각 주제별로 연구문헌이 다루는 범위와 문헌형식을 중심으로 세부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표1 : 학생운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 및 연구경향>

<표2 : 학생운동의 역사·이념·조직>

연구 범위	문헌 종류 별 구분				
	단행본	학위논문		일반논문	잡지·저널·기타
		석사	박사		
개괄	11종	2종		11종	1종
1960~70년대				1종	
1990년대이후				2종	

2) 해제 및 참고문헌의 배열은, 1) 대주제별 구분 2) 개괄 -> 시기별 분석문헌 3) 단행본 -> 학위논문 -> 일반논문 -> 잡지·저널·기타 구분 4) 발행연도 순으로 제시되어 있다.

연구 범위	문헌종류별구분				
	단행본	학위논문		일반논문	잡지·저널·기타
		석사	박사		
개괄	48종	10종		42종	12종
1960년대·4·19이전	5종	1종	1종	4종	1종
1960~1970년대	17종	3종		13종	12종
1980년대	26종	1종	1종	35종	32종
1990년대이후	4종			1종	28종

<표3 : 학생운동과 한국사회>

연구 범위	문헌종류별구분				
	단행본	학위논문		일반논문	잡지·저널·기타
		석사	박사		
개괄	20종	2종		18종	8종
1960~1970년대		1종	1종	1종	1종
1980년대	3종	2종		2종	1종
1990년대이후	1종			1종	2종

<표4 : 학생운동 비판문헌>

연구 범위	문헌종류별구분				
	단행본	학위논문		일반논문	잡지·저널·기타
		석사	박사		
개괄	17종	2종		12종	
1960~1970년대					2종
1980년대	6종	1종		18종	5종
1990년대이후	1종			57종	20종

<표 5 : 학생운동의 의식 및 의식형성과정>

연구 범위	문헌종류별구분				
	단행본	학위논문		일반논문	잡지·저널·기타
		석사	박사		
개괄	8종			15종	1종
1960~1970년대	1종			1종	1종
1980년대	1종	2종	1종	10종	4종
1990년대이후	1종	1종		2종	6종

<표 6 : 학생운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

연구 범위	문헌 종류 별 구분				
	단행본	학위논문		일반논문	잡지·저널·기타
		석사	박사		
개괄		1종		5종	1종
1960~1970년대				2종	
1980년대				3종	3종
1990년대이후	6종			16종	13종

<표 7 : 각국학생운동 비교분석>

연구 범위	문헌 종류 별 구분				
	단행본	학위논문		일반논문	잡지·저널·기타
		석사	박사		
개괄	4종	2종		8종	1종
1980년대				1종	

<표 8 : 기타>³⁾

연구 범위	문헌 종류 별 구분				
	단행본	학위논문		일반논문	잡지·저널·기타
		석사	박사		
개괄	8종			6종	
1960~1970년대					1종
1980년대	1종			2종	12종
1990년대이후					10종

먼저 전체적인 연구현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주제별 분류와 이 분류에 속하는 문헌의 현황을 통해, 그동안 한국 학생운동 연구의 주된 관심사를 알 수 있다. 우선 ‘한국 학생운동의 역사 및 이념과 조직’을 다룬 문헌들이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주제 속에서는, 개괄적 내용을 다루고 있는 문헌과, 그리고 특히 1980년대를 다룬 문헌

3) 상기 분류 속에 넣기 어려운 문헌, 즉 사회구성체논쟁 등 이론논쟁을 다룬 글, 학생운동사를 포함하는 역사개설서, 청년학생축전·박종철열사·미문화원사건 등 학생운동 관련 특정주제·사건·인물을 다룬 문헌, 학내갈등·학원민주화 등 대학 관련 특정 이슈를 다룬 문헌 등을 포함.

의 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다른 시기를 다룬 문헌의 양은 1980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떨어지며, 특히 1960년대-4·19 이전을 다룬 문헌의 수가 부족하다.

1980년대를 다룬 문헌이 많다는 사실은, 1980년대가 학생운동이 이념적·조직적으로 성장하고 분화되었던 한국 현대사에서 학생운동의 정점시기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시기별 문헌의 다과는 해당 시기 한국학생운동과 관련하여 발생했던 실제 사건의 경중과 어느 정도 비례하는 것 같다. 즉 학생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조직화되었던 1980년대를 다루고 있는 문헌이 가장 많으며, 이어 4·19와, 엄혹한 상황을 뚫고 반독재민주화운동의 불꽃이 타올랐던 1960-1970년대를 다루고 있는 문헌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1990년대이후를 다룬 문헌의 양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 사실은, 1990년대 이후가 상대적으로 최근의 시기이기 때문에 평가나 분석대상이 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시기적 근접성의 측면과 함께, 1990년대 이후 한국의 학생운동이 과거 시기에 비해 '퇴조'했었다는 현실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사실은, 학생운동의 연구경향과 관련하여 일정한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실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학생운동의 '퇴조' 상황에 직면하여 그동안의 학생운동의 과거를 분석하거나 평가하여 새로운 학생운동의 진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이론적 경향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학생운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 관련 문헌의 양이 부족한 사실과도 연관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론은 현실의 변화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만, 현실의 변화를 단지 추수할 뿐 현실변화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거나 대안을 모색하는 데 소홀했던 한국의 그간의 연구경향의 일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소홀히 넘길 수 없는 면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 주제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것은, 학생운동의 역사를 주로 이념적-조직적 분화의 관점에서 단순개괄하고 있는 문헌이 많다는 점과, 역사를 통사적으로 개괄하고 있는 개설서나 일반논문이 많다는 점이라고 본다. 이 사실은 위에서 지적한 연구경향의 문제점과 상통하는 것이지만, 한국 학생운동을 다루고 있는 기존의 문헌들이 나름대로 엄밀한 판단준거에 입각하여 운동사를 다루고 있기 보다는, 현상적 사실을 단순히 수용하는 연구경향을 보여왔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역시 문제점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 주제 뿐만이 아니라 학생운동 관련 문헌의 다른 모든 주제에도 적용되는 점으로서, 학위논문의 빈약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빈약함은 우선적으로 양의 문제이며, 특히 박사학위 논문 수의 절대 부족을 의미한다. 이번 연구문헌 조사과정에서 연구진들은 가급적 박사학위 논문들은 모두 포함시키려 하였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박사학위 논문현황이 기존 박사학위급 연구의 거의 모든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학생운동을 다룬 학위논문, 특히 박사학위 수의 절대부족은, 학생운동에 관한 심도있고 전문적인 연구가 의외로 많이 이루어져오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학생운동이 한국민주화운동에 미친 그간의 영향과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예상 밖의 결과인 동시에 기존 연구현황의 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는 '학생운동 비판 문헌' 관련 연구이다. 이 주제 관련 문헌현황에 관해서 특이한 점은, 총 문헌(141종)에서 일반논문 및 잡지·저널·기타가 차지하는 큰 비중(114종)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사실은, 한국사회에서 그간의 학생운동 비판이 전문 연구자나 학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로 공안기관이나 보수단체 관련 저널(『공안논총』, 『한국논단』 등)을 중심으로 발표되었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물론 이러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나온 비판문헌의 양은 매우 방대한 양에 이르며, 이러한 문헌의 상당수는 연구적인 성격이나 깊이를 전혀 담고 있지

못한 글이라 보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일부만을 수록한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학생운동비판'을 담고 있는 학위논문은 단 2종(석사학위)에 불과하다. 나아가 또한 지적할 사항은, 학생운동 비판문헌이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학생운동이 '퇴조'국면에 접어 든 199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학생운동관련 연구문헌의 현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지니며 어떠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인가? 이 사실이 지니는 의미와 문제점은 중대한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는, 그동안 한국에서 학생운동 비판문헌의 다수가, 전문적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치판단 준거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한국역사과정에서 배태되고 확대재생산된 '레드컴플렉스'와 '과잉보수주의'의 지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학생운동세력과 개혁세력의 예봉을 둔화시키고 이들을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고려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그동안 학생운동을 보는 정부 당국의 시각이 일면적이고 안이한 시각으로 일관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할 것이다.

물론 그동안의 '학생운동비판문헌'의 이러한 상황에 대한 비판은, 그동안의 한국학생운동의 궤적이 대한 비판이 불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학생운동의 그동안의 역사와 궤적 속에서 우리는 많은 비합리성과 독단성과 지적 편향성, 사회와 학생운동의 관계에 대한 성찰의 부족, 한국 및 세계 사회운동사와 진보이념의 역사에 대한 일면적 이해 등 많은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학생운동에 대한 비판은 한국사회와 세계사, 사회운동의 발전방향에 관한 거시적인 인식과 냉철한 통찰력에 기초해서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러한 비판은, 궁극적으로 학생운동의 소멸론이나 무용론이 아니라 대안적 학생운동의 모색을 위한 이론적 기초제시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학생운동비판문헌'의 다수는 '연구'문헌으로서의 학문적 가치가 있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며, '근본적인 면에서 재성찰'한다는 '비판'의 원래 의미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빈약한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운동비판' 관련 문헌의 이러한 '연구'경향은 향후 반드시 교정되고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향은 끊임없는 궁극적으로 학생운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대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고, 학생운동을 고립화시키고 발전가능성을 가로막는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생운동의 의식형성과정 및 의식의 실태를 다룬 문헌들을 보자. 이는, 행태주의적이고 실증적인 의식조사를 중시하는 사회과학의 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음과 동시에, 문화와 의식, 일상생활을 강조하는 90년대 이후의 새로운 학생운동과 포스트모던적 사고의 경향 및 과거의 학생운동 방식에 대한 학생운동 내부의 자성적 움직임이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헌들은 과거처럼 사회구조나 사회구성체, 변혁의 목표에 대해 말하기 보다는, 학생운동의 주체들이 그러한 목표를 어떻게 '느끼고 의식하는가',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하위문화 속에서 학생운동의 목표는 어떠한 긴장을 일으키는가와 같은, '주체'와 문화의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연구경향은 학생운동의 '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동시에, 1980년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정통' 마르크스주의적 사회분석을 '포스트마르크스주의' 혹은 '탈구조주의-문화주의'적인 새로운 사회과학 패러다임이 점차 대체하게 된 그동안의 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회운동이 객관적 사회현실의 상황 및 변화와 이에 대한 주체의 반응과 이해 사이의 교호작용을 통하여 진행되는 것이라고 할 때, 이러한 '주체'와 '문화'에 대한 연구는, 현단계 한국학생운동의 '위기' 국면에서 매우 긴요하고 적

절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연구들은 그동안 진보진영 내에서 거의 금기시되다 싶이 했던 학생운동의 내부동학과 운동문화, 현실양태에 대해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는 점만으로도 신선하다. 즉 이러한 연구는, 학생운동 내부의 비민주성, 학생회조직운영의 엘리트주의, 학생운동문화 내부의 '성차별'과 '가부장성', 학생운동내부의 '권력관계' 등 기존 학생운동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이 연구들의 '비판'은 기존의 공안당국의 비판과는 성격이 다르다. 왜냐하면 이 연구들은, 학생운동의 내부 당사자들의 고뇌와, 학생운동의 새로운 모색에 대한 이들의 원망(願望), 그리고 학생운동의 쇄신을 통한 한국사회의 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믿음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연구문헌들은, 그동안의 학생운동 양태를 다시금 반성하게 하는 지적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특히 1980년대의 한국학생운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마르크스주의의 특정한 형태에 수반된 독단적인 사회해석을 극복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연구경향이라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아직 이러한 연구경향을 담은 의미있는 연구문헌의 수는 많지 않다. 앞서서도 지적했지만 학위논문 특히 박사학위논문은 많이 씌여지지 않았다. 또한 학생운동 주체들의 고민을 담아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는 단행본도 많지 않다. 나아가 내용적으로도 학생운동의 양태와 문화에 대한 성찰을 넘어, 새로운 학생운동 방향의 대안에 대한 모색과 탐구를 위한 노력은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학생운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다룬 문헌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특징적인 점은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문헌이 1990대 이후에 발간된 것들이라는 점(총 50종 중 39종)이다. 이는 87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제도적·절차적 민주변혁의 단초가 마련된 후 민주·반민주의 전선이 후퇴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가져 온 학생운동의 일정한 퇴조상황 및 이 상황에 맞물린 고민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1990년대 이후 학생운동의 퇴조상황 속에서 이제까지의 학생운동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고 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고, 이러한 인식하에 학생운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담은 문헌들이 나오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헌종류에 따른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여타 분야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학위논문은 매우 빈약하며(1종), 일반논문 및 잡지·저널·기타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비록 학위논문의 양은 부족하지만, 단행본 및 일반논문 등에서 신선한 문제의식과 치열한 고민과 반성을 담은 글들이 보이는 점은 반가운 일이다. 즉 가부장성 등 기존 학생운동 문화의 문제점을 반성하고, 사회과학의 현대이론과 정치적 문제의식을 수용하여 지난 학생운동을 평가하고 새로운 개혁의 방향을 나름대로 모색하고 있는 문헌(『오래된 습관 복잡한 반성1, 2』 등), 학생운동의 위기상황에서 학생운동의 다변화와 시민운동과의 연대라는 새로운 운동방식을 모색하고 있는 글(『다시 출발하는 학생운동』), 최근의 '붉은악마 현상'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는 글 등이 그것이다.

기존의 학생운동을 반성하고 새로운 학생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러한 글들이 더욱 더 많이 씌여지고 알려졌으면 한다. 학생운동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과거 운동사에 대한 연대기적 기술을 넘어 학생운동에 대한 반성과 전망을 담은 연구성과들이 발간되고 축적되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새로운 학생운동의 방향모색을 위해서는 사회개혁·변혁이념, 특히 사회주의이념에 대한 재성찰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운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담은 기존의 글들은 아직, 학생운동의 이념에 대한 본격적인 성찰과 모색을 담고 있지는 못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향후 연구의 주요 과제의 하나가 될 것이다.

한편 학생운동과 한국사회를 다룬 문헌도 일정한 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기존의 관련 문헌은 그다지 깊이있

4) 이러한 경향의 대표적인 연구성과 중 하나로서 김원, 『잊혀진 것들에 대한 기억』을 들 수 있다.

는 분석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는 그동안 한국 학생운동을 다룬 문헌들이 보다 총체적이고 거시적인 시야를 결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운동은 전체 사회구조 속에서 한 부문운동으로서 기능하고 여타 부문운동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한국 학생운동이 한국의 사회구조, 여타 부문운동의 상황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왔으며, 정치변동의 과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분석과 연구는 많지 않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의 학생운동은 한국의 정치·사회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으며 동시에 영향을 받아왔다. 학생운동의 역사적 궤적과 미래진로를 가능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도, 학생운동을 둘러싼 사회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향후에 더욱 더 철저히 수행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한편 한국의 학생운동과 여타 나라의 학생운동을 비교론적 관점에서 조명한 문헌의 수는 매우 빈약한 상황이다 (16종). 즉 한국의 학생운동과 여타 나라의 학생운동의 전개와 특징, 공통점과 차이 및 그 차이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있는 문헌이 많지 않으며, 특히 한국 학생운동과 동남아시아 등 제3세계의 여타 나라의 학생운동을,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사례를 들어 분석하고 있는 문헌은 발견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학생운동 연구의 현상이 지닌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설사 연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주로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의 전형적인 외국 선진사례와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비교대상이 되는 나라의 학생운동에 대한 기술은 상대적으로 개괄적이고 일반론적인 반면에 한국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상례이다. 과연 한국의 학생운동은 세계사적으로 특수한 사례인가? 이 질문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동남아 등과의 비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동일한 구체적 수준에서 비교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비교분석 관점의 연구는 특정 부문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해명하는 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의 사례를 통해 간접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연구영역이다. 학생운동분야의 경우, 다른 지역 특히 서구 및 일본의 학생운동과의 비교연구는 한국학생운동의 미래를 가능하는 한 준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동남아시아 및 남미지역의 학생운동의 역사와 경험에 대한 연구는 한국과 비슷한 상황 속에서 전개되어 온 학생운동의 고뇌와 희망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나아가 학생운동 관련 비교연구는, 각국 학생운동의 공통성과 특수성 및 차이의 원인에 대해 탐구하고 해명하는데 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현상분석이 아니라 현상의 원인에 대한 해명까지 제시한다면, 한국 학생운동을 분석·평가하고 전망하는 데 귀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운동은 주체들의 노력과 반성, 모색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지속되고 발전한다. 여타 지역의 민주화운동 및 학생운동의 경험 - 민주화운동의 발전, 지체, 때로 있게 되는 역전 - 은, 한국의 학생운동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민주화운동의 '위기'에 대처하여 민주화운동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귀중한 선행사례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운동에 관한 비교연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운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 및 연구동향'을 담은 문헌을 살펴보자. 이 분야의 문헌의 양 역시 매우 빈약한 편이다. 학위논문을 위시한 보다 전문적인 연구도 부족하며, 많은 부분이 일반논문 등이지만 그나마 일반논문도 많지 않다. 또한 연구문헌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연구의 경향이라기 보다는 운동의 경향을 연대기적으로 소개하는 식의 문헌이 다수를 차지하고, 반면 학생운동 연구의 이론적 경향과 연구방법론을 소개하고 평가하고 있는 글은 매우 적다(「한국학생운동의 연구경향과 역사적 전개에 관한 연구」 등). 또한 이 분야의 연구현황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점은 기존 연구들이, 학생운동 연구의 동향과 연구방법론을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기존 연구와 동향과 방법론을 의식적으로 평가하고 바람직한 연구방향을 제시하려는 노력은 많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학생운동에 관한 기존의 연구문헌은 심층적이고 치밀한 탐구경향과 치열한 문제의식, 거시적인 역사적 안목을 담고 있지는 못한 문헌이 다수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즉 개괄 분석이 다수를 차지하며, 시기별 심층분석을 담은 문헌은 많지 않다. 또한 학위논문의 수는 매우 적은 편이며, 일반논문과 잡지기사 등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의 단편적인 글이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학생운동 관련 현재의 연구현황이 지닌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즉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보다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세부 핵심주제별 연구경향

① (한국)학생운동의 배경, 동인 분석

학생운동의 배경과 동인을 다루는 기존 문헌은, 대체로 다음 네가지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기존 계층론적-심리학적 이론을 빌어 학생운동의 동인을 설명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사회불평등이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인식이 학생운동에 참여하게 하는 배경으로 설명된다. 둘째는 학생운동 참여 동기나 학생운동을 보는 의식에 관한 실증조사를 통해 학생운동의 배경이나 동인을 설명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경향은 실증적 연구가 지니는 장점을 갖는 동시에, 정태적-현상적 연구가 갖는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셋째는 학생운동 발생과 참여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회구조적 모순과 경험을 강조하는 역사적-구조적 접근이다. 1980년대 이후 맑스주의적-비판적 사회과학적 인식들이 수용되게 된 이후, 이러한 시각에서 학생운동의 전개와 구조, 학생운동에의 참여를 분석하려는 연구들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민중의 정치세력화, 정치사회의 예외적 불안정성 때문에 학생운동의 예외적 역할이 가능”⁵⁾했다는 식의 분석이 그것이다. 즉 “우리나라에는 리버럴리스트 혹은 중간집단들이 정치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지형이 없었고, 그것이 그동안 학생운동을 극한적이고 단기적인 투쟁으로 이끌어난 기본동력이 아니었나”⁶⁾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의 연구들이 증가하게 된 것은 학생운동 관련 연구문헌의 질적인 성숙과 학문적 깊이를 가져오는 데 일조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해석학적 시각이라 할 수 있는 관점의 연구들이 있다. 이 관점은 위 세 번째 역사적-구조적 접근이 갖는 메타이론적 한계와 추상성을 극복 내지는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라 볼 수 있다. 이 접근은 역사적 배경을 중시하면서도 그 배경에 반응해야 하는 주체의 인식의 문제를 파고든다. 이러한 시각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진적 변혁론에 대한 일정한 반성을 배경으로 하여 제시되었다(김원, 『잊혀진 것들에 대한 기억: 1980년대 한국 대학생의 하위문화와 대중정치』 등). 이러한 시각을 담은 연구문헌들은 도식적인 변혁론에 대한 반성적 문제제기를 담고 있으면서도 진보적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질적 상승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 보인다.

② 한국 학생운동의 역사와 조직

한국학생운동의 역사와 조직을 다루는 연구문헌은, 사건과 팜플렛에 기초하여 학생운동의 역사를 단선적으로 기술하는 사건 중심의 연구가 있다. 이는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거나, 운동참여자의 시각을 단순히 반복하는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5) 조희연, “토론: 한국 학생운동의 역할과 새로운 모색”, 『역사비평』 39집, 1997.

6) 안병용, “토론: 한국 학생운동의 역할과 새로운 모색”, 『역사비평』 39집, 1997.

다른 연구경향은, 학생운동의 역사와 조직을 보다 큰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설명하고 평가하려는 시각이다⁷⁾. 이 시각의 연구는 학생운동의 배경과 전개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보다 큰 거시적 배경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각 역시 학생운동의 역사를 평가하는 기술(記述)적도 자체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한 관점이라 하겠다.

③ 학생운동의 목표와 사상

특히 1980년대 이후 학생운동이 지향하는 목표와 추구하는 사상에 관한 문헌이 다수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 주제를 다룬 문헌들의 상당수는 논쟁 또는 이론 중심으로 당시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는 대개 논쟁 또는 이론 중심으로 1980년대의 학생운동을 편집하였다. 1960년대건 1980년대건, 어떠한 여건 속에서 또는 병영화한 상태하에서 그것이 전개되었고, 학생들은 어떤 고민을 하였으며 어떠한 어려움에 부딪혔나, ‘위장취업’ 활동은 어떻게 했으며, 농활, 공활, 야학은 어떻게 했는가, 무슨 책을 읽고 어떠한 생활을 했는가가 다루어진 것은 적은 편이다⁸⁾. “80년대 이후의 학생운동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료가 풍부한 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책들이 학생운동권 출신의 저자들에 쓰여졌으므로 학문적인 접근은 적다. 주로 노선과 조직의 변화에 중점을 주면서 주요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많은 논문이 나왔다. 그러나 역시 이들 논문의 대부분도 학생운동 논쟁사에 많은 지면이 할애되어 있다. 위의 책들 정도면 학생운동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충분하다 하겠다. 다만 이러한 연구들을 취합, 발전시켜 일관된 시각으로 한국학생운동의 역사와 의미, 그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⁹⁾.”

④ 과거 학생운동에 대한 반성적 평가 및 모색

1990년대 중반 이후 과거 급진적 학생운동의 공과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학생운동의 역사를 반성적으로 평가하는 문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과거 학생운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이념적 경직성, 군사적 조직문화, 과도한 정치주의,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비타협적 완고성 등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80년대의 맑시즘이 공개적으로 논의될 때를 보면 굉장히 도식적인 스탈린주의적 논의들이 지배적이었는데, 그런 것들은 한국사회의 맥시말리즘적 지적 풍토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맥시말리즘적 경향이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경직된 태도를 만들고, 그런 지적 경직성이 행동에서의 격렬성, 전투성과 일정부분 연결된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¹⁰⁾. 그리하여 학생운동의 ‘위기’가 말해지며, 이 ‘위기’는 변화하는 시대상황에서 학생운동의 이념적 좌표상실을 의미하게 된다. “현재 학생운동이 가지는 위기가 단순히 80년대부터 비롯된 위기일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맞이하는 이념적 대안의 부재라는 측면과 맞물리는 것 아닌가¹¹⁾”라는 것이다.

이러한 학생운동의 ‘위기’의식을 반영하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새로운 학생운동을 모색하려는 문헌이 등장한다. “90년대 시대환경의 변화는 학생운동의 자기혁신을 요구하고 있다.....이런 점에서 앞으로의 학생운동은 과거와 같은 정치적 역할로부터 자기의 위상과 역할을 변경해야 한다. 학생운동이 특히 고민해야 할 지점은 민주-반민주의 전선이 분명하고, 뚜렷한 이념지향성이 존재했던 80년대와 달리, 90년대 들어 정치전선 자체가 불분명해지고 이념적 좌표를 상실함에 따라 학생대중의 관심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다¹²⁾. 이 문헌들은, 학생운동이 시대의 과제에 정

7) 김동춘, “민족민주운동으로서의 4.19시기 학생운동”, 『역사비평』 1집, 1988.

8) 서중석, “1960년대 이후 학생운동의 특징과 역사적 공과”, 『역사비평』, 39집, 1997.

9) 김도중, “학생운동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 한국학생운동을 중심으로”, 『연세대사회과학연구』 3(1992) 7.

10) 임지현, “토론: 한국 학생운동의 역할과 새로운 모색”, 『역사비평』 39집, 1997.

11) 위의 글.

12) 김기식, “80년대 이후 학생운동세력의 사회진출: 고민과 모색”, 『역사비평』 39집, 1997.

확하게 접근했을 때 가장 큰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역설한다. 이 때 새로운 시대의 변화는, 탈권위주의, 개인주의화, 거대메타이론의 붕괴, 즐거움의 추구 등 새로운 학생의식 및 행동양식의 성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한마디로 새로운 세대문화의 도래라는 것이며, 이제 학생운동의 동력도 이러한 새로운 문화에서 찾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문화는 인터넷문화, 즐거움의 문화, 다양한 개별적 관심에 집중하면서도 정서적으로 연대를 발견해가는 연대적 개인성의 문화이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서 학생운동 전선의 다양화가 보이며, 새로운 결집의 가능성을 획득한다고 제시된다. ‘붉은 악마’나 ‘촛불시위’도 그러한 새로운 학생‘운동’의 한 사례라는 것이다¹³⁾.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학생운동문화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의 필요를 강조해야 할 것이다. 즉 아직 이러한 새로운 학생운동의 문화는 구체적인 정향을 지니지 않은 상태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사회운동의 개혁과제와 연결되는 추동력으로 기능할지는 아무도 단언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새로운 문화는 학생운동의 자본주의적 질서로의 편입, 상업적 문화에 편승하는 현상과 연관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맺음말 - 향후 한국 학생운동 연구를 위한 제언

첫째로, 학생운동의 역사 재조명 및 역사발굴의 과제의 중요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학생운동 역사의 충실한 발굴과 재평가작업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의미한다. 우선 학생운동사와 관련하여 개괄적 통사기술 뿐만 아니라 세부 시기별 역사발굴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특히 세부시기와 관련된 조사와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이는 연구문헌의 현황과 관련하여 문헌적 균형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해방전후, 4.19연구, 6.3운동, 60-70년대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시기의 학생운동에 관한 자료가 발굴되고 정리되며 이 시기 학생운동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학생운동사의 발굴과 정리의 과제와 관련하여, 반드시 언급해야 할 사항은, 학생운동사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학생운동 주체들의 체험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학생운동 관련자들의 체험에 대한 구술작업을 의미한다. 즉 학생들의 현장활동(위장취업, 농활, 야학 등)의 체험에 대한 구술작업을 수행하여, 학생운동 주체들의 경험을 발굴·정리하여 보다 폭넓은 학생운동사 정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운동사의 본격적인 재해석 내지는 재평가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재평가 작업이 긴요한 이유는, 한국의 학생운동은 한국의 역사에 수반된 특정한 ‘편향’과 ‘불행’의 그림자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즉 한국 학생운동은 한국의 일제식민지시기, 분단과정, 독재시기 속에서, 특정한 이념적 편향성을 보여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념적 편향성은 특히 1980년대 학생운동을 지배했던 진보이념의 특정한 성격과 관련되는 것이다. 1980년대 학생운동의 주류 이념과 그 갈래들이 지닌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성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이념이 사회주의 이념의 일면적인 이해에 기초한 편향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동시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후 1990년대에 사회주의 위기라는 세계사적 상황의 영향을 받으며, 한국학생운동은 일정하게 ‘정체성 위기’와 침체국면을 맞게 되었던 것이다. ‘정체성 위기’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현재 한국의 학생운동은 진정 위기의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이 지나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위기’의 극복은 과거 학생운동 역사에 대한 본격적인 재평가 작업을 통해서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 한국 학생운동의 전망과 방향을 모색하고 정립하기 위해서, 한국 학생운동 역사 특히 1980년대 학생운동에 대한 총체적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관심을 기초로 한 연구성과들이 향후 축적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13) 김정훈, “‘붉은 악마’ 현상은 사회변동의 동력일 수 있는가”, 『기억과 전망』 창간호).

또한 한국 학생운동 역사연구의 방법론과 관련하여, 향후 한국 학생운동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순수 역사기술적 논문(평가 배제, 사건 나열)이나, 학생운동참여자 입장에서의 논쟁사를 넘어서서, 세계사적이고 거시적인 진보운동사와 진보이념사의 시각에서 학생운동의 배경 및 사상을 분석·평가하고, 학생운동을 배태시킨 한국역사와 사회구조적 모순을 고려하면서도, 참여주체의 동기와 갈등에 대한 사회학적·해석학적 분석틀을 결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로, 학생운동의 참여동인과 관련된 의식 조사연구는, 기존의 정태적 조사를 넘어서서, 동기의 심층적 규명과, 동태적 변화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장기적 조사 및 동기 규명작업이 병행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특히 학생운동이 변화했다면, 달라진 학생운동에 대한 실증적 조사가 더욱 이루어져야(의식, 행동, 동기) 할 것이며, 그 변화의 사회구조적·문화적 원인에 대한 총체적인 규명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로, 비교연구의 경우, 과연 한국의 학생운동은 세계사적으로 특수한 사례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동남아 등과의 비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동일한 구체적 수준에서 비교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학생운동의 특수성 문제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한국사회의 특수성이 제기하는 과제의 규명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 학생운동의 역사와 향후 진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연구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때 특수성을 규정하는 차원으로는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한국의 경제·사회구조의 성격(‘신식민지적’ 경제구조 등), 분단구조, 외교정책, 정치제도와 정치과정(지역주의, 파벌주의 등), 문화적 특수성(‘과잉보수주의’ 등)과의 관련성 속에서 학생운동의 특수성과 과제가 어떻게 규정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심층적이고도 이론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넷째로, 향후 한국 학생운동의 전망과 관련하여, 수행되어야 할 연구과제나 연구주제에 관련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사회주의의 이념과 역사에 대한 재평가작업이 병행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이는 과거 학생운동의 역사를 평가하거나 향후 학생운동의 전망을 모색하고자 할 때 그 평가와 해석을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학생운동의 이념의 방향을 고민하고 모색하는 어떤 시점에서 반드시 그 이념은 사회주의의 문제와 맞닥뜨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운동의 이념을 평가하고 새로운 이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를 어떻게 개념짓고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오늘날 사회주의의 문제는 역사적 유물과 같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며, 민주주의·민주화·민주화운동의 개념을 설정하고, 민주화운동의 진전을 위한 실천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명해야만 하는 오늘날의 살아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주의의 개념과 현재적 의미에 관한 연구들이 부단히 수행되고 축적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운동의 전망과 관련된 연구에 관하여, 오늘날 이른 바 ‘탈산업사회’ 시기에서 요구되는 학생운동의 전망이 과거와 어떤 연속성과 차별성을 지니는가의 문제를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다수의 학생대중을 포함하기 위한, 학생운동의 다면화를 위한 과제(학내, 대사회투쟁)와, 학생운동이 보다 많은 도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동의를 넓힐 수 있게 하는 학생운동의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비주류 학생운동의 양태와 가능성(비정치투쟁, 개량주의, 도시빈민운동, 야학운동, 교회운동, 학내학생권의 운동) 및 그 의미에 관한 연구, 그리고 (기존의) 주류 학생운동과 비주류 학생운동의 세력분포와 역관계, 이와 관련된 향후 전망, 또한 이른 바 ‘운동권’과 일반학생의 관계양상 및 그 관계의 변화양상을 탐구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II. 해제 문헌 차례

1. 학생운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 및 연구동향

- 김도중, 1992, 「한국학생운동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학생운동을 중심으로」, 『연세대 사회과학연구』 3집
김한구, 1989, 「한국학생운동의 사회인류학적 고찰」, 『한양대 한국학논집』 15집
이재봉, 1990, 「한국학생운동의 연구경향과 역사적 전개에 관한 연구」, 『춘천교대 교육연구』 8집

2. 학생운동의 역사·이념·조직

- 권형철, 1990, 『한국변혁운동논쟁사』, 일송정
배규한, 1999, 『학생운동과 대학생자치활동』, 나남
배규한·한도현·백진아, 1996, 「한국학생운동의 시위유형과 이념적 지향에 대한 연구」, 교육부
이재오, 1987, 『해방 후 한국학생운동사』, 형성사
일송정 편집부, 1988, 『팜플렛 조직노선』, 일송정
일송정 편집부, 1988, 『학생운동논쟁사』, 일송정
일송정 편집부, 1989, 『팜플렛 조직노선II』, 일송정
일송정 편집부, 1991, 『학생운동논쟁사2』, 일송정
조희연, 1993, 『현대 한국 사회운동과 조직』, 한울
김용재, 1995, 「학생운동의 변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한보, 1991, 「한국 학생운동 변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해영, 1976, 「한국학생운동의 사적 전개 : 일제하에서부터 한일회담반대까지」,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봉영, 1989, 「한국 학생운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중석, 1997, 「1960년 이후 학생운동의 특징과 역사적 공과」, 『역사비평』 39집, 역사비평사
유영익, 1987, 「한국학생운동사 개관」, 『고려대아세아연구』 77집
이희환, 1987, 「한국학생운동의 역사적 개관」, 『군산대논문집』 14집
전재호, 2002, 「한국민주주의와 학생운동」, 조희연 편,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 함께읽는 책
한인수, 1986, 「한국 학생운동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관한 소고: 특히 해방 이후 1974년까지를 중심으로」, 『인천교대 학생생활연구』 4집
김경옥 외, 1964, 「학생운동 20년」, 『고대문화』 6집
전남대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생회 편집부, 1986, 「한국 학생운동의 전개와 그 평가: 70년대를 중심으로」, 『전남대 무 등학총』 18집
정국로, 1995, 『한국학생민주운동사, 1945~1960: 전개과정중심』, 서울: 반
한국반탁·반공학생운동기념사업회, 1986, 『한국학생건국운동사: 반탁·반공 학생 운동 중심』, 한국반탁·반공학생운
동기념사업회
박재선, 1988, 「미군정기 학생운동에 관한 고찰」,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3동지회, 2001, 『6·3학생운동사』, 역사비평사
정계정, 1996, 「4월혁명기」 학생운동의 배경과 전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동춘, 1988, 「민족민주운동으로서의 4·19시기 학생운동」, 『역사비평』 1집
류영렬, 1995, 「육·삼학생운동의 전개와 역사적 의의」,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 88집
장용수, 1984, 「70년대 학생운동에 관한 일고찰」, 『고대문화』 24집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 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강신철, 1988, 『80년대 학생운동사: 사상이론과 조직노선을 중심으로』, 형성사
 김삼웅, 1984, 『민족 민주 민주선언』, 일월서각
 김삼웅, 1987, 『서울의 봄 민주선언』, 일월서각
 문용식 외, 1989,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사건』, 아침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1991, 『전대협』, 돌베개
 전대협동우회, 1994, 『불패의 신화: 전대협 이야기 6년사』, 두리
 한용 외저, 1989, 『80년대 한국사회와 학생운동』, 청년사
 황의봉, 1985, 『80년대 학생운동』, 예조각
 성용구, 1991, 「한국대학에서의 1980년대 학생운동과 의식화 학습과정 연구」, 충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형택, 1987, 「80년대 변혁운동에 있어서 학생운동의 역할과 과제」, 『전환: 6월 투쟁과 민주화의 진로』, 사계절
 김도중, 1997, 「1980년대 한국의 정치변동과 학생집단」, 『명지대 사회과학논총』 13집 2호
 김민호, 1998, 「80년대 학생운동의 전개과정」, 『역사비평』 1집, 역사비평사
 조진경, 1988, 「한국민족자주화운동사(II): 80년대 학생운동의 발전을 중심으로」, 『민족자주화운동론 I』, 백산서당
 최연구, 1990, 「80년대 학생운동의 이념적·조직적 발전과정」, 조희연, 『한국사회운동사』, 한울
 김정환, 1998, 『대중과 폭력: 1991년 5월의 기억』, 이후
 김태호, 1993, 『90년대의 도약 청년학생운동』, 힘

3. 학생운동과 한국사회(여타 운동부문, 정치변화, 사회구조 등 환경과의 관련성)

박종대, 1998, 「언론의 학생운동조직 관련 보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서정안, 1989, 「한국의 대중운동이 정치변동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국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국, 1991, 『민주화와 학생운동의 방향』, 대왕사
 노인영, 1989, 「1980년대 한국학생운동에서 나타난 반미문제 : 그 전개과정과 사상적 배경을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정수, 1995, 「80년 이후 한국학생운동의 정치이념 분석 : '민족문제'를 중심으로」, 서강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학생운동 비판 문헌(대공관련, 기타)

박홍, 1997, 『레드 바이러스』, 거목
 원천희, 2000, 「한국 좌익학생운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국가안전기획부, 1991, 『‘전대협’은 순수운동조직인가』, 국가안전기획부
 김병준, 1992, 「80년대를 중심으로 한 한국 좌경학생운동의 선도방향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학생운동의 의식 및 의식형성과정

이명영, 1988, 「학생운동의 사상적 배경분석」, 『성균관대 사회과학』 28집
 이병철·박양수, 1990, 「한국 대학생의 학생운동 이념 변천에 관한 정책 연구: 학생 운동에 관한 유인물, 전단의 내용별 계량 분석과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울산대 연구논문집』 21집 2호

- 김원, 1999, 『잊혀진 것들에 대한 기억: 1980년대 한국 대학생의 하위문화와 대중정치』, 이후
- 이준석, 2000, 「학생운동과 집단 창작에 대한 연구: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 문예운동과 집단 창작의 구조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 신명순, 1987, 「1980년대 학생운동의 성격분석: 대학생들의 학생운동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연구』 77집
- 이효선, 1987, 「한국의 학생운동에 관한 연구: 행동주의자의 의식과 태도를 중심으로」, 『고려대 아세아연구』 77집
- 이상수, 1989, 「변혁운동으로서의 청년학생 노동운동과 대학졸업생들의 사회진출사업의 필요성」, 『西江』 19호
- 91년 5월 투쟁 청년모임 편, 2002, 『그러나 지난 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게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1991년 5월』, 이후
- 신선영, 1997, 「삶의 전기(轉機-turning point)로서의 학생운동 경험과 일상생활」,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6. 학생운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

- 한흥수·김도중, 1993, 「한국 학생운동의 평가와 전망」, 『연세대 사회과학논집』 24집
- 이후 편집부, 1998, 『오래된 습관 복잡한 반성: 90년대 학생운동에 대한 성찰과 반성』, 이후
- 이후 편집부, 1998, 『오래된 습관 복잡한 반성2』, 이후
- 최진섭, 1999, 『희망에 반하여 희망하라: 한총련을 위한 변명』, 살림터
- 경실련 대학생회, 1993, 「새로운 학생운동을 위한 제안」, 『다시 출발하는 학생운동』, 비봉출판사
- 김기식, 1997, 「80년대 이후 학생운동세력의 사회진출: 고민과 모색」, 『역사비평』 39집, 역사비평사
- 김정훈, 2002, 「'붉은악마 현상'은 사회 변동의 동력일 수 있는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창간호

7. 각국 학생운동 비교분석

- 김도중, 1992, 「한·일 학생운동의 전개와 특징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32집 1호
- 한점수, 1992, 「한·일 학생운동의 비교 고찰」,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III. 문헌 해제

1. 학생운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 및 연구동향

1. 제목: 「한국학생운동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학생운동을 중심으로」, 『연세대 사회과학연구』 3집

2. 저자: 김도중
3. 발행연도: 1992년
4. 쪽수: 24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연세대학교

7. 목차

- I. 서론
- II. 학생운동연구의 어려운 이유
- III. 연구현황 및 경향
- IV. 한국학생운동의 특징
- V. 한국학생운동연구를 위한 제안

8. 연구목적

학생운동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한국학생운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함.

9. 연구내용

저자는 학생운동연구가 연구의 당위성과 현실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글을 시작한다. 저자에 따르면 우선 첫째로 당위적인 차원에서 학생은 미래사회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들의 성향과 행동규범을 관찰함으로써 그 사회의 미래모습과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둘째 현실적인 차원에서 학생운동은 현실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학생운동이 사회과학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못되고 소분야로 정착되지 못한 이유를 지적하는데, 저자는 학생운동의 한시성과 단절성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또한 그 동안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지난 6~70년대에 비교적 활발했던 학생운동연구가 계속 이어지지 않은데는 학생운동을 총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석들의 이론화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나아가 학생운동에 관련된 이론화가 어려운 것에는 기술적인 문제도 따른다고 하는데, 학생운동은 우발적으로 시작되어 그 후 조직화가 따르기 때문에 기록의 보존이 어려워서 연구의 이론화를 위한 기초자료의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학생운동의 세대교체가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학생운동연구는 특정국가의 특수상황을 고려한 접근방법을 택하는 것이 현재의 연구수준이라고 한다.

저자는 국내의 학생운동연구가 학술연구라기보다는 시론에 가까운 글들이 다수라는 점을 지적한다. 연구의 대부분은 관심의 시기가 80년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도 운동권 출신들에 의해 기록용으로 남겨진 것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학생운동을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 없다고 한다. 저자는 몇 가지 통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제를 통시적으로 서술한 것으로는 해방 후부터 유신 말까지의 운동을 정리해놓은 이재오의 『해방 후 한국학생운동사』(1984)가 있을 뿐이며, 그 전 시기의 운동, 즉 일제 하 학생운동은 김정식의 『일제하 한국학생운동독립운동사』(1974)와 정세현의 『항일학생민족운동사연구』(1975)에서 소상히 다루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한국학생들의 자발적이고 본격적인 정치참여가 이루어졌던 해방공간에서의 학생운동에 관한 연구로는 『한국학생건국운동사』(1986)를 추천한다.

80년대 이후 학생운동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자료는 비교적 풍부하지만, 대부분의 책들이 학생운동권 출신의 저자들에 의해 쓰여져 학문적인 접근은 적다고 평가한다. 이들 연구들은 주로 노선과 조직의 변화에 중점을 두면서 주요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들 연구만으로도 학생운동의 흐름을 파악하는데는 충분할 것이라고 한다. 다만 이러한 연구들을 취합, 발전시켜 일관된 시각으로 한국학생운동의 역사와 의미, 그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해방 이후 한국현대사의 전개과정에서 학생운동이 미친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학생운동에 대한 연구가 적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극도의 권위주의체제에서 양극화된 정치적 가치관이 팽배한 분위기 속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학생운동에 관한 연구는 거의 불가능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운동에 대한 대부분의 글은 본격적인 연구가 아니고 시론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마저도 상당한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스런 일이었다고 한다.

이어서 저자는 학생운동연구에 대한 주요 접근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고찰하는데, 그것은 구조적 분석방법과 심리적 분석방법이다. 구조적 분석이란 사회적 모순에 대한 저항이 학생운동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고, 심리적 분석이란 학생집단이 갖는 심리적 태도와 분출이 학생운동이라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학생운동 전개과정 중 일부분만을 분석하는 접근방법으로는 세대갈등론, 세력갈등론, 사회심리론, 구조-기능론, 사회발전론, 사회병리론, 계급갈등론, 다원이익집단론, 군중심리론 등을 제시한다. 저자는 이 많은 접근방법들이 명확히 구분되는 독자적인 영역을 갖고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많은 부분이 서로 중첩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것은 이러한 접근방법과 이에 적용되는 이론들이 전혀 일반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특수한 경우를 설명하는데 특정한 이론이 채용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새로운 분석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생운동에 대한 분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역사적·시대적 배경과 사회의 특수성, 운동의 목적 등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할 경우 성격파악에 보다 용이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자가 제시하는 한국학생운동연구를 위한 접근은 무엇인가? 저자는 한국학생운동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일천하다는 점에서 볼 때 이에 대한 연구는 먼저 연구주제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학생운동의 성격, 의미, 특징, 그 영향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선행되었을 때 각론으로서의 연구가 더 한층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우선 한국학생운동의 역사성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여야 하고, 그 다음으로 학생운동의 영향력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한국이 정권의 교체시마다 학생들의 정치적 움직임이 큰 변수로 작용하였음을 주시하고, 이러한 학생운동의 영향력은 다른 국가들의 학생운동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현상으로 본다. 또한 저자는 노동자와 학생들이 양자 모두 양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운동의 영향력이 더 큰 이유에 의문을 던지는데, 이러한 양 집단의 차이점은 구조적인 분석만으로는 만족할만한 설명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저자는 이상의 의문을 해명하는 것이 한국학생운동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연구과제라고 주장한다.

이상의 고찰을 결과로, 저자는 한국학생운동에 대한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는데, 그것은 첫째 왜 한국학생은 지

속적으로 권위에 도전하는 운동을 전개하여 왔는가이고, 둘째 왜 다른 사회계층이나 집단이 아니고 학생들이 그러한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만 했는가이다. 요약하면 학생운동의 지속성, 역사성에 대한 설명과 선도성, 주도성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얻기 위해서 저자는 학생운동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각론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것은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학생들의 정치사회화에 미친 영향이라고 지적한다. 그 다음에는 지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 문화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함을 말한다.

10. 연구의의

한국학생운동 연구의 현 상황과 수준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글로, 학생운동에 대한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비교적 정확히 지적하고, 학생운동 연구의 학문적 업적을 축적하는데 있어 필요한 논의들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글이다.

1. 제목: 『한국학생운동의 사회인류학적 고찰』, 『한양대 한국학논집』 15집¹⁴⁾

2. 저자: 김한구

3. 발행연도: 1989년

4. 쪽수: 85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한양대학교

7. 목차

I. 서론

II. 민족주의 문화혁신운동

1. 재일한국유학생운동

2. 3·1학생운동(1919)

3. 6·10만세운동(1926)

4. 광주학생 항일운동(1929)

III. 반식민지적/반관료적 문화혁신운동

1. 반탁·찬탁운동(1945~46)

2. 반국대안운동(1946~47)

IV. 반관료 문화혁신운동

1. 관료제와 관료의 개념

2. 1960년대 세계학생 반관료 운동

3. 4·19학생운동(1960)

4. 1970~80년대의 학생운동의 동향

V. 토론과 결론

8. 연구목적

14) 학생운동의 역사·이념·조직의 내용도 다루고 있음.

문헌조사와 역사적 사건의 비교분석, 그리고 설문조사와 면담으로부터의 자료에 기초하여 한국사회에서 1910년 대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지속되어온 한국학생운동의 특성을 사회인류학적 분석에 의해 파악하고자 함.

9. 연구내용

저자에 따르면 1910~80년대 한국학생운동은 대체로 민족주의, 사회주의운동으로부터 반관료주의운동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특히 1970~80년대에 들어와서는 한국학생운동이 점점 민족적(반외세) 반관료주의 성향을 매우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유형별로 보아, 민족주의 운동은 일련의 재일한국유학생운동—예컨대, 1919년의 동경유학생 2·8독립선언과 대판유학생 3·10독립선언, 그리고 1920~30년대 재일한국유학생들의 민족주의, 무정부주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한 독립사상운동—과 한편 국내에서 일어난 3·1학생운동, 6·10만세운동(1926)과 광주학생항일운동(1929) 등을 포함하며, 후자는 4·19학생운동과 70~80년대의 여러학생운동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다시 사회운동의 유형으로 보아 1940년대 반탁·찬탁운동(1945~46)과 반국대안운동(1946~47)은 한국학생운동의 전체흐름 속에서 민족주의, 사회주의운동으로부터 반관료주의운동으로의 교량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근현대 한국학생운동에 대한 저자의 거시적인 평가에 해당한다.

그간 여러 학도들에 의해 전자의 경우 독립운동, 민족운동, 항일운동 등으로 설명되어 왔으나, 저자의 이 연구는 이와 같은 협의의 정치사관에서 벗어나 보다 더 포괄적인 사회인류학적 안목에서 그리고 또한 비교사회학적인 의미에서 문화혁신운동으로 보고자 시도하고 있다. 저자의 연구에서는 문화혁신운동을 보다 더 훌륭한 문화를 이룩하려는 의도적이고도 조직적인 집단적 노력이라 정의하고, 또 문화혁신의 개념은 외래문화와의 접촉과 외래문화수용 및 사회변동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동경유학생들의 1919년 2·8선언은 그해 그들의 3·1독립운동의 「서곡」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내 3·1운동에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 의거들은 실로 일본을 통한 서구사회로부터의 이념적인 영향과 그 수용에서부터 기인되었던 것이다. 또한 위 의거를 계기로 1920년 동아일보사의 후원 하에 재일한국유학생들이 「학우회 하기 순회강연단」을 조직하여 개화사상과 한국문화혁신을 대대적으로 국내에서 대중들에게 유세하였다. 즉, 동년 7월 11일 김준연을 단장으로 하는 유학생 강연단은 동래를 출발하여 부산, 울산, 경주, 진주, 밀양, 마산, 대구, 전주, 청주 등지에서 애국계몽강연을 실행함으로써 국내에 서구사상(혹은 「신사상」)과 민족문화의식 그리고 혁신의 종대성을 널리 증진시켰다. 그리고 그후 1920~30년대 서구로부터의 사회과학연구와 동시에 민족, 무정부, 공산, 사회주의 이념을 주제로 하는 그들의 독립사상운동은 이 문화혁신계몽운동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저자는 6·10만세운동과 광주학생항일운동도 또한 항일과 독립을 전제로 하는 문화혁신운동이라 볼 수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이 운동의 모태가 반식민지교육과 민족문화연구를 강조하였던 정진회 및 민족문화와 사회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독서회였고 1920년대 당시 학생들이 서구사상인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사상을 일본을 통하여 한국에 도입하여 기존의 한국문화를 혁신하고 그것에 따라서 사회개조를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 운동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원래 의도하였던 전과정을 다 거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미수로 끝났기 때문에 문화혁신이나 사회개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운동구호를 통하여—예를들어 6·10만세때 일본을 자본제국주의로 규탄하는 격문이라든가 또는 광주학생운동때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구호, 예를 들어 「약소민족해방만세」, 「제국주의타도만세」, 「피압박민족해방만세」, 「무산계급혁명만세」 등의 구호들은 한국문화혁신의 시도를 제시하였다고 본다.

또한 비교사회학적 측면에서 저자의 연구에서는 4·19학생운동(1960)을 한국학생운동사상 최초의 거국적인 반관료 문화혁신운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4·19학생의거는 장기집권을 꾀하는 거대한 관료집단과 일부사회계층의 극심한 특권주의 남용이나 악용에서 나날이 극도로 소외되어가는 일반시민층을 대변하려는 변혁적인 반정부학생운동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운동의 본래적인 정신은 반독재를 전제로 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문화의 생활양식을 1960년대

한국사회에 정착시키며 또한 실천하려는 데에 있었다는 것이다.

끝으로, 1970~80년대 학생운동은 1960년대의 반관료 문화혁신운동의 연속으로서, 특히 금일에 이르러 명실상부한 민주화요구, 5공비리 척결, 반미 그리고 남북학생교류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일부 제도권의 정치인사들은 체제붕괴의 위기의식마저 느끼는 반면에 이 위기의식을 민주화과정의 큰 장애요인으로 관측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저자는 1960년대 세계청년학생 반관료운동을 거시적인 안목에서 참작하여 보았을 때, 금일의 한국학생운동의 비교적 정확한 사회·문화적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섣부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10. 연구의의

사회인류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한국 학생운동 100년사를 문화혁신운동이라는 일관된 흐름으로 포착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를 수행한 글이다. 특히 장기간에 걸친 역사를 일관된 주제로 포괄하여 분석함으로써 다소 과도한 일반화란 문제에서 벗어나기는 어렵겠지만, 거시적인 학생운동의 역사에 대한 의미있는 규정을 내렸다고 할 수 있다.

1. 제목: 「한국학생운동의 연구경향과 역사적 전개에 관한 연구」, 『춘천교대 교육연구』 8집¹⁵⁾

2. 저자: 이재봉

3. 발행연도: 1990년

4. 쪽수: 17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춘천교육대학교

7. 목차

I. 序

II. 한국학생운동의 연구경향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3. 연구의 이론적 접근

III. 한국학생운동의 역사적 전개

1. 조선시대의 학생운동

2. 일제시대의 학생운동

3. 해방 후 학생운동

IV. 結

8. 연구목적

학생운동 연구의 동향과 학생운동의 역사적 전개에 관하여 논하고자 함.

9. 연구내용

저자는 기존 학생운동 연구에서 소개하는 학생운동의 구성요소로 그 신분이 학생이라는 점, 기존체제나 세력에

15) 학생운동의 역사·이념·조직의 내용도 다루고 있음.

대한 비판 내지 반발 저항이라는 점, 조직적인 행동이라는 점, 어떤 이념이나 이슈에 의하여 동기유발 되었다는 점, 물리적 폭력을 수반한 힘의 행사라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기존 한국학생운동의 연구경향을 연구 내용, 연구방법, 연구의 이론적 접근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한국학생운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내용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학생운동의 발생원인 및 배경에 관한 것으로, 실상 대부분의 연구가 이것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법이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모든 연구가 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②학생운동의 특징 또는 성격에 관한 것이다. 특정시대 또는 시대별로 어떻게 변하고 바뀌었는가 또는 각국가간의 학생운동의 특징 또는 성격의 비교 등에 관한 것이다. ③학생운동의 양상과 이에 대한 대응 또는 대처방안에 관한 것이다. ④인간의 본질 청년의 심리 등에 관한 것이다. 즉 인간의 욕구, 스트레스, 반항, 저항, 항거, 집단심리, 집단행동, 청년문화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⑤의식화에 관한 것이다. 위 ④번이 그 자체 또는 무의도적인 것이라면 의식화란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나 의도적인 집단 또는 주체가 목적을 가지고 대상에 영향을 주는 적극적 활동이라 할 수 있는데 대학생들이 어떻게 정치의식을 형성해 가는가, 운동권 학생들의 의식화동기는 무엇인가, 대학생들이 어떻게 이른바 대학생화되는가, 대학생들이 어떤 요인과 과정에 의해 의식화되는가 등이다. ⑥대학생들의 사상, 이념, 이데올로기 급진성향 등에 관한 것이다. 학생운동의 사상 현황 분석, 대학생들의 의식과 이념, 대학생들의 급진성향,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도, 급진사상과 학생운동의 관련 등에 대한 연구이다. ⑦지역(각국)연구이다. 미국, 일본, 프랑스, 서독 등 유럽과 남미, 동구 등 각 나라의 학생운동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학생운동을 이해하는데 지침을 삼고자 하는 것이다. ⑧제3세계 지식인으로서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이다. 민주화, 근대화, 경제건설 등의 견인차로서 학생운동을 보는 시각이다. ⑨역사적 전개에 관한 것이다. 과거 연구의 대중을 이루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사건과 결과들을 나열하는 것으로 다른 연구의 자료와 근거가 된다. ⑩사례연구이다. 학생운동 중에서 특정사례에 포커스를 두고 연구하는 것이다. 일제하 광주학생민중운동사, 국대안반대시위, 4·19에 대한 연구 등이 그것이다. ⑪그 외 학생운동이 정치체제나 사회, 정부정책 등에 끼친 영향에 대한 것 등이다.

다음으로 저자는 국내 학생운동에 대한 연구방법을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첫째, 역사기술적 연구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연구된 대부분이 이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양하나 방법은 역사기술적 또는 연대기술적인 방법이다. 둘째로, 조사연구이다. 문헌조사연구도 있으나 주로 설문지를 통한 경험적 조사연구가 주종을 이루는데 의식 또는 의식화에 관한 것, 대학생의 성향(급진), 스트레스 등이 이 연구방법을 택하고 있다. 셋째로, 분석연구이다. 주로 문헌, 신문, 잡지 등 유인물 선언 구호 등의 내용을 분석해서 의미있는 결과를 얻어내는 연구이다. 넷째, 비교연구 방법이다. 이는 한나라의 시대별 비교와 각나라간의 비교연구 및 선진국, 제3세계 공산권의 비교와 같은 국제적인 지역간의 비교연구를 들 수 있다.

학생운동 연구를 위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방법들이 있는데, 저자는 올바른 이론적 접근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즉 한국학생운동은 한국적 토양인 역사적 유산과 현재의 정치사회적 환경 및 학생들의 욕구 이상 등의 내적 요인이라는 3각 관계망 속에서 운동으로 발전한다고 보고 종합적 조망 가운데서 해명의 실마리가 잡힐 수 있을 것이며 운동으로 나타날때의 모습은 이념 이슈표출양식과 이에 대한 대응양식으로 다시 구분지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저자는 한국학생운동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조선시대, 일제시대, 해방 후로 나누어 살펴본다. 우선 첫째로 조선시대의 학생운동의 이념은 유교였고, 이슈는 인륜, 경제적 이익, 사회적 권위 등이었으며, 시위양태는 유소제출, 시위, 집단행동, 투석, 구타, 방화 등이었고, 당국의 대응양태는 설득, 퇴교, 귀양, 하옥 등이었다.

둘째로 일제시대 학생운동의 이념은 민족, 민주, 자유, 사회주의 등이었고, 이슈는 반제, 반일, 민족독립, 해방, 학병거부, 차별 철폐 등이었으며, 시위양태는 회보, 계몽선언, 맹휴, 투석, 방화, 구타 등이었고, 당국의 대응양태는 휴교, 퇴교, 검거, 취조, 투옥, 사상통제, 노력 동원 등이었다.

셋째로 해방 후 대한민국 정체 하에서의 학생운동은 5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기는 1945~1952년, 2기는

1953~1960년, 3기는 1961~1979년, 4기는 1979~1986년, 5기는 1987년부터라고 볼 수 있다. 1기의 이념은 반공민주주의, 이슈는 신탁통치, 국대안찬반, 학도의용군 문제 등이었고, 시위양태는 시위투석, 집단싸움이었으며, 당국의 대응양태는 휴교, 검거, 제적, 제제조치 및 입법 등이었다. 2기의 이념은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였으며, 이슈는 반독재, 부정부패, 학원자유 문제였고, 시위양태는 시위, 항거, 투석, 방화 등이었으며, 당국의 대응양태는 휴교, 검거, 제적, 제제조치, 입법 및 발표 등이었다. 3기 학생운동의 이념은 민족, 자유, 민주, 사회주의였으며, 이슈는 한일회담 반대 개헌반대, 정권퇴진, 교련반대 등이었고, 시위양태는 시위, 투석, 결사(지하화) 등이었으며, 당국의 대응양태는 휴교, 긴급조치, 계엄령, 정보사찰 등이었다. 제 4기 학생운동의 이념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였으며, 이슈는 반미, 민족통일, 학내문제 등이었고, 시위양태는 시위, 투석, 결사, 점거농성, 방화, 자해, 유인물 등이었으며, 당국의 대응양태는 설득, 검거, 제적, 수감 등이었다. 제 5기 학생운동의 이념은 민족주의,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였고, 이슈는 직선제개헌, 광주사태, 올림픽 및 평창참가, 반미, 전교조, 기타 학내문제 등이었으며, 시위양태는 시위, 농성, 방화, 테러 등이었고, 당국의 대응양태는 설득, 검거, 제적, 수감 등이었다.

저자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의 운동 양태의 변화를 살펴보는데, 조선시대의 선비형, 일제시대의 지사형, 60년대의 후진국 엘리트형 그리고 “아침이슬”로 표현되던 70년대의 낭만적, 감상적, 열정적인 운동에서 80년대는 그 위에 “차가운 이성”을 엮어야 했다고 운동권에서 실토하듯이 체계적, 조직적, 이념적으로 심화되었다고 분석한다. 즉 80년대 이전의 학생운동은 뚜렷한 이념이 일관되게 주장되었다기 보다는 현실정치에서 아끼되는 사건이 비민주적일 때는 민주주의 수호라는 원칙 아래서 그리고 외국과의 관계에서 민족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민족주의적 성격에 의거하여 시위를 한 정도였다면 80년대의 학생운동은 정치적 이익집단적 성격, 사회심리적 집합행동적 성격, 정치, 문화, 종교 등 전반에 걸쳐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강하게 분출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저자는 80년대 학생운동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80년대 학생운동은 주사파와 마르크스-레닌파(ML)로 분리되어 이념논쟁을 불러 일으켰는데 이들은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구조 자체에 대한 변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들은 당국의 승인없이 북한에 학생대표(임수경)를 파견하는가 하면 (NLPDR) 민중의 무장봉기를 격렬하게 주장하는 등(ALAFPDR)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를 타도하고자 한다. 즉 학생운동이 반정부적 차원을 넘어 반체제적 차원으로 변모됨을 보인 것이다.

70년 이후의 경제적 불평등은 이전까지 상위가치로 인정되어 왔던 자유이념 보다도 평등의 이념을 강조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회의를 낳았으며 상대적으로 민중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이념운동 체제부정운동으로 변모되었다. 따라서 저자는 80년대의 학생운동은 강한 이념성, 연대성, 과격성, 조직성을 특징으로 한다면서 글을 맺는다.

10. 연구의의

한국학생운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경향을 비교적 간단히 잘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연구경향에 대한 논의와 후반부의 한국학생운동의 전개에 대한 간략한 서술의 유기적 구성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2. 학생운동의 역사 · 이념 · 조직

1. 제목: 『한국변혁운동논쟁사』

2. 저자: 권형철
3. 발행연도: 1990년
4. 쪽수: 285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일송정

7. 목차

1부 도입부

변혁운동논쟁의 단계구분

변혁론의 비교검토

2부 논쟁의 1단계

민주변혁논쟁

제1기 사회성격논쟁

경제주의 비판 논쟁

3부 논쟁의 2단계

제2기 사회성격논쟁

86~87년의 조직논쟁

개헌투쟁 논쟁

대통령선거 전술 논쟁

계급분석을 둘러싼 논쟁

4부 논쟁의 3단계

제 3기 사회성격논쟁

전민련 건설에 이르는 논쟁

통일운동론의 쟁점

전노협 건설논쟁

합법정당 논쟁

철학논쟁

8. 연구목적

80년대 이후 한국변혁운동 과정에서 진행된 제논쟁 중에서 운동을 추동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 실천적인 논쟁을 추출 · 정리함으로써, 80년대 논쟁의 흐름과 개괄을 이해하는데 일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9. 연구내용

이 책은 저자가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듯이, “80년대 이후 한국변혁운동 과정에서 진행된 제 논쟁 중에서 운동을

추동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 실천적인 논쟁을 추출·정리한 책이다.” 도입부인 제 1부에서는 변혁운동논쟁의 단계구분과 80년대의 주요한 변혁운동노선이었던 NL-CA 구도와 NL-PD 구도를 상호간 비교검토하고 있다. 논쟁의 1단계를 다루고 있는 제 2부에서는 C-N-P논쟁, 초창기 사회성격논쟁 및 경제주의 비판 논쟁 등을 다루고 있다. 3부에서는 논쟁의 2단계로서 2기 사회성격논쟁 및 87년을 전후한 조직논쟁 및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의 논쟁을 다룬다. 80년대말을 다루고 있는 4부 논쟁의 3단계에서는 제 3기 사회성격논쟁을 비롯해서 심화된 한국 변혁운동의 논쟁을 통일, 노동, 정치, 이론에 걸쳐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은 한국 변혁운동이 가장 성숙했던 80년대를 연대기적으로 다루되, 그것을 운동역량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단계를 구분하여 운동세력들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80년대 초·중·후반의 시간적 전개를 변혁운동의 단계적 발전과정과 연결시켜 일관된 흐름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다만 운동세력들을 분류하는 데 있어 분류의 기준을 변혁운동의 노선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학생운동계의 독자적인 변혁운동노선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80년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방 이후 70년대까지의 변혁운동의 흐름에 대한 소개는 미진한 편이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당시 변혁운동 주체들의 문건을 직접 인용하여 소개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생생한 당시의 현장의 소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저자의 해석과 1차 자료의 소개가 적절히 배합되어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이해를 돕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논쟁의 한계와 성과를 매 장마다 소개함으로써 일정한 관점 하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술했듯이, 80년대의 변혁운동의 흐름을 일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학생운동의 전개를 독자적으로 살펴보기는 어렵다. 다만 학생운동만을 다룰 경우, 당대 시대적 맥락을 정확히 읽기 어렵기 때문에, 당시 재야정치운동이나 노동운동을 비롯한 사회 각층의 운동과 연관된 학생운동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혁투쟁을 다루는 장에서는 여러 가지 당시의 개혁투쟁의 논의들 중에서 학생운동이 다른 사회운동과 같이 연대한 경우와 학생운동의 독자적인 흐름 등을 일별해서 살펴볼 수 있다.

학생운동의 위상이 전면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한 80년대 중반의 논의에서는 80년대 학생운동의 핵심적인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NL-CA, NL-PD의 논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다. 물론 학생운동 내의 논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변혁운동 전체의 노선으로서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학생운동의 대표적인 조직들의 변혁노선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이해는 4부에서 다루는 사회성격논쟁(일명 사회구성체논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80년대 사회구성체 논쟁의 핵심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으로서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논쟁의 맥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NL-PD 간의 입장의 차이를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책의 후반부에서는 한국의 변혁운동의 제도화가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전민련(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과 전노협(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 건설에 관련된 제논쟁을 다루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당시 운동주체들의 대립되는 의견들을 직접 소개하고, 동시에 이에 대한 저자의 정리를 덧붙이고 있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이 조직들의 건설에 대한 학생운동의 역할이나 입장표명이 소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후반부에서 학생운동과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부분은 “통일운동론의 쟁점”을 다루는 부분이다. 주로 학생운동 내 NL노선이 주도했던 통일운동은 분단국가의 특수성을 지닌 한국사회의 학생운동의 존재구속성에서 발현되었던 운동으로서 가장 대중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던 운동이다. 이 책에서는 통일운동에 관련된 쟁점들을 학생운동계의 NL노선의 입장을 중심으로 하고, 그에 대한 비판을 반(反)NL노선(PD와 ND 노선)으로 소개하여 논쟁의 현장감을 살리고 있다. 특히 이 부분은 오늘날 학생운동의 운동노선에도 크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통일문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비록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기는 하지만 많은 참고가 될만한 부분이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철학논쟁”을 담고 있다. 철학을 세계관의 응축이라 할 때, 철학논쟁은 곧 기본적인 세계

관의 차이, 운동의 관점에 대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도 명시적으로 말하듯이,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려는 세력 내에 크게 보아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삼는 측과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지침으로 삼는 측이 나뉘어져 있다.” 물론 이는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까지의 시대에 유효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의 학생운동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세계관의 차이에 따라서 첨예하게 대립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80년대 학생운동의 양대 조류인 NL론과 PD론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 운동조직들의 철학적 세계관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철학논쟁”이라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을 말미에 제공함으로써, 인식의 지평을 보다 확장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10. 연구의의

이 책은 80년대 한국변혁운동의 이론과 노선, 이념과 관련한 체계적인 통사라 할 수 있다. 특히 일정한 분류 기준에 근거하여 80년대를 3단계로 나누어 분석한 점이 탁월하다. 학생운동의 독자적인 성격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당시의 여러 운동조직들의 일반적인 성격과 연결하여 파악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80년대 학생운동의 양대 조류인 NL론과 PD론에 대한 간략한 정리와 이해를 원하는 독자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제목: 『학생운동과 대학생자치활동』¹⁶⁾

2. 저자: 배규한

3. 발행연도: 1999년

4. 쪽수: 440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나남출판

7. 목차

제1부 학생운동과 자치활동의 이해

제1장 학생운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2장 한국 학생운동의 성격과 대항문화

제3장 대학생 자치활동의 실상과 이상

제2부 한국 학생운동의 특징과 변천

제4장 학생운동의 전개과정과 특징

제5장 학생운동의 이념적 변화와 조직화

제6장 한총련의 조직과 활동

제7장 한총련의 연세대 점거사태 전말

제3부 한국·미국·일본의 대학생자치활동

제8장 1980년대 한국 학생운동과 학생회 조직의 접목

제9장 1990년대 환경변화와 학생운동의 퇴조

제10장 미국 대학의 학생자치활동

제11장 일본 대학의 학생자치활동

16) 각국 학생운동 비교분석의 내용도 다루고 있음.

제4부 학생운동에서 자치활동으로

제12장 한국 학생운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제13장 21세기 다원사회의 대학생 자치활동

제14장 지방자치시대의 대학생 자치활동

제15장 대학생 자치활동의 새로운 방향과 실천전략

제16장 새로운 대학문화 형성을 위하여

8. 연구목적

1990년대 후반까지 학생운동이 이룬 성과를 통해 현재 대학생들에게 그들의 의식구조, 학생운동의 방향, 그리고 미래 대학생자치활동의 지향 방향을 제공하고자 함.

9. 연구내용

제1부는 현재 한국에서 흔히 동일시되고 있는 ‘학생운동’과 ‘학생자치활동’을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개념과 성격, 현황 등을 개괄적으로 다룬다. 지난 30여 년간 학생운동 과정에서 형성된 대학의 대항문화적 성격을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전망하였다. 그리고 대학생자치활동의 실상을 분석한 다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부는 한국 학생운동의 연원과 전개과정을 고찰하면서, 이념적 변화와 조직화 과정, 그리고 조직과 활동내용 등을 분석한다. 특히 한국학생운동사에서 하나의 분수령으로 기록될 1996년 8월 한총련의 연세대 점거사태의 전말을 자세히 다루었다.

제3부에서는 최근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의 대학생자치활동을 비교 고찰한다. 먼저 1980년대 이후 한국의 학생운동이 어떻게 학생자치활동과 일체화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세계적 사회환경의 변화가 대학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한다. 이어서 미국과 일본의 대학생자치활동을 학생회, 동아리, 사회봉사 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학생자치활동에 시사하는 점들을 찾아보고자 노력하였다.

제4부에서는 현재 학생운동 위주인 대학생자치활동이 장차 사회봉사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대학문화의 방향과 그 형성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21세기에 전개될 다원사회, 지방화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인재를 그려보고, 여기에 대학이 어떻게 부응해야 할지 논하였다. 특히 15장에서는 대학생자치활동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들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학생회, 대학언론, 동아리, 대학당국, 정책당국 등 주체별로 노력해야 할 사항들을 적시하였다. 제16장은 이 책 전체의 요약과 결론으로서, 한국 학생운동의 본질, 새로운 대학문화의 방향, 대학생자치활동의 건전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0. 연구의의

대외적 투쟁에 전력해온 한국 학생운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생들이 지향해야 할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한 글이다. 학생운동과 학생자치활동의 개념적 구분을 통해 논의의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또한 한국 학생운동의 연원과 전개과정을 소개함으로써, 현재의 위상을 역사적으로 설명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3부에서 미국, 일본과의 자치활동 비교도 좋은 사례연구라 할 수 있다.

1. 제목: 「한국학생운동의 시위유형과 이념적 지향에 대한 연구」

2. 저자: 배규한, 한도현, 백진아
3. 발행년도: 1996년
4. 쪽수: 104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기관: 교육부

7. 목차

- 제1장 서론
- 제2장 한국사회의 구조 변화와 학생운동
- 제3장 한총련의 등장
- 제4장 한총련의 조직과 활동
- 제5장 한총련의 연세대 점거 농성
- 제6장 결론: 학생지도 및 새로운 대학문화 형성방안

8. 연구목적

1996년 한총련의 연세대 점거농성 사건을 중심으로 학생운동의 실증적 분석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학생 지도 방안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대학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9. 연구내용

기존의 학생운동 연구는 시위 참여자들의 주장이나 시위 행위의 사회 구조적 결정 요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종합적, 체계적 객관적 입장이 결여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 연구는 1996년 연대 사건을 기초로 학생운동 참여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인적 특성, 가치관, 의식성향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학생운동에 접근한다.

이론적으로 볼 때 학생운동은 사회운동의 일부인데, 그것은 특정집단의 한계를 뛰어넘어 현 지배질서에 대한 도전과 정의사회의 구현이라는 정치적 공감대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사회운동론과 유사한 성격을 띠었고, 조직 내 지도자와 대중 사이의 이질적 괴리감과 갈등이 학생운동의 과격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는 자원동원론에 부합되며, 비합리적 폭력성과 획일성이 나타났다는 점에서는 전통적 집합행동론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학생운동은 한국사회의 구조변화와 매우 밀접히 관련되는데, 그것은 한국 사회의 경제적 대외 의존성, 정치적 억압, 부문 및 지역간 불균형 발전 등 구조적 모순을 비판하면서 지속되었다. 특히 1980년대에 정부주도의 수출주도형 공업화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자 80년대의 학생운동은 이전의 학생운동과 달리 급진적 이념체계를 받아들이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투쟁을 강조하였고 현실 사회문제를 급진적 혁명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생운동은 학생회를 중심으로 대중적 저변을 확대시키고자 하였고 시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운동의 단결성을 강조하였다.

1987년 민주화 이후 6공화국의 노태우 정부가 민주적 형식을 도입하고 현실 사회주의가 붕괴하면서 학생운동은 대정부 정치투쟁에만 전념하는데서 벗어나 학생 대중의 일상생활과 학문영역까지 포괄하는 「생활·학문·투쟁의 공동체」를 내세우며 「통일투쟁」에 집중하였다.

한편 민주화 이후 학생운동을 장악하고 있던 NL(민족해방) 주사파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를 계승한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한총련)을 1993년에 결성한다. 1991년 5월 투쟁 이후 학생운동의 퇴조 및 대학문화의 소비문화로의 전환이라는 위기 상황은 한총련의 탄생을 가져왔다.

한총련은 출범 이후 계속 NL 주사파가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주체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곧 주체사상에서

강조하는 자주성과 사람중심, 대중 중심의 사상이 학생자치활동의 유용한 지침이 되었다.

한총련의 조직은 중앙조직체계(집행부)와 지역조직체계로 나누어지는데, 중앙조직은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와 이의 권한을 대행하는 '중앙위원회'가 있으나, 의장, 지역총련의장으로 구성되는 '중앙상임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그 아래에는 한총련의 정책과 노선을 입안하는 '중앙정책위'와 이를 집행하는 '중앙집행위'가 있으며, 특별기구로 '학원자주화투쟁위원회', '조국통일위원회'(조통위)가 있다. 조통위는 한총련의 핵심조직으로 '조국통일 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의 역할을 한다.

한총련의 활동은 5월 출범식과 8월 범민족대회를 정점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주로 '반미조통투쟁'(통일운동)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총련의 하층대중조직은 학과의 학회와 학술 동아리인데, 학회는 신입생들이 반강제적으로 가입하면서 유지되고는 있지만, 학술 동아리는 정체성의 문제, 안정된 커리큘럼의 부재, 전통적 학습풍토와의 단절감, 고학번 선배의 부족 등의 이유로 쇠퇴하고 있다. 더욱이 대학의 모집단위가 학부제로 변하면서 학과 체제가 약화되고 대학문화의 주류가 소비주의 문화로 전환되면서 한총련은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1996년 8월 한총련의 연세대 점거 농성은 한총련이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명의 대학생을 북한에 파견한 것을 계기로 벌어진 사건이었다. 정부는 이를 빌미로 대학의 원천봉쇄를 선언하고 강경 대응하였고, 이에 한총련은 일부는 연세대에 진입하였고 판문점 진출을 시도하는 시위를 벌였다. 10여 일에 걸친 한총련과 정부의 대치는 20일 새벽 경찰의 대규모 병력투입으로 마감되었고, 총 5,848명이 연행되어 465명이 구속되었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하면 우선 한총련의 동원조직으로 학생회, 동아리의 중요성이 드러났다. 학생회와 동아리 활동자가 전체 구속자의 과반수에 이른다. 학번상으로 보면 96, 95학번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이는 한총련이 신입생을 주요 동원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구속학생들은 첫 학기 성적이 대체로 양호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낮아지고 있다. 특이한 점은 복학생, 예비역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이런 경향은 지방대학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보호자의 학력이 매우 낮은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전공별 분포에 있어서는 여전히 인문사회계 학생들이 많지만, 종래에 비하면 이공계 학생들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연세대 점거농성 학생들의 요구사항은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철수와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구속된 남측의 통일애국인사 석방, 일본의 군국주의화 반대·배격운동, 국내외 모든 통일운동단체들 사이의 연대 강화 등이었다.

한총련 사건에 대한 사회의 여론을 살펴보면, 정부는 '친북주사파의 체제전복 투쟁'으로 규정하였고 정치권에서 신한국당과 자유민주연합은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는 반면, 새정치국민회의는 통일투쟁과 폭력투쟁에 대한 한총련의 주장에는 반대하고 해산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시위진압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사회단체들은 각기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종교계, 사회단체들은 정부의 무리한 진압과 학생들의 통일운동 방식에 대해 동시에 문제를 제기 하면서, 양자가 양보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정부에 조금 더 비판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반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한총련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당시 대학의 학생처장들은 대학을 학문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점거·농성, 한총련의 통일론 및 좌경 이념 및 폭력 행위에 대해 반대하고 점거사태의 법적 처리 과정에서 학생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저자들은 연세대 사건을 계기로 대학, 정부, 사회는 과격학생운동의 대중적 지지 메커니즘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구체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방안을 개발하며, 장기적으로 건전한 대학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구체적 학생지도방안으로는 전체교수들의 학생지도 의무 강화, 가치 '학사지도교수제' 도입, 효율적 학생지도를 위한 전국 대학들의 공조체제 형성, 학생운동권의 홍보활동 규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대학주도 예비대학으로의 전환, 학생

운동 조직의 자금원 통제, 비판적 사고 능력 함양, 민주시민 교육과 이념교육 강화, 해외 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다양한 경험 제공, 학생운동의 동원조직 규제, 학생들의 자치활동의 시민활동으로의 전환 지원 등이다. 새로운 대학 문화의 방향으로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대학생활과 자치활동의 조화, 새로운 질서와 행위양식을 탐구하는 실험 정신 함양, 질서있는 사회참여 등이다.

10. 연구의의

이 글은 1996년 연세대 사건을 중심으로 1990년대 중반 학생운동을 주도하였던 한총련을 분석하고 급진 학생운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글은 교육부의 지원을 받은 연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한총련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전제한 상태에서 학생운동의 이념과 활동을 분석함으로써 그런 이념과 활동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사회적 맥락을 간과했고, 한총련에 대한 대응방안이 학생들의 자율성을 기르는 대응이 아니라 학교당국에 의한 위로부터의 통제에 기초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1. 제목: 『해방후 한국학생운동사』

2. 저자: 이재오

3. 발행연도: 1987(1984)년

4. 쪽수: 437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형성사

7. 목차

서론

제 I부 1940년대 학생운동

1. 시대적 배경
2. 1940년대 학생운동에 대한 이해
3. 1940년대 학생운동의 전개
4. 1940년대 학생운동의 역사적 의의
5. 1950년대 암흑기의 학생동원

제 II부 1960년대 학생운동

1. 1960년대 학생운동 개관
2. 4월혁명
3. 방황과 각성
4. 한·일회담 반대 학생운동
5. 60년대 후반기 학생운동
6. 1960년대 학생운동의 역사적 의의

제 III부 1970년대 학생운동

1. 70년대 학생운동의 개관 및 배경
2. 70년대 학생운동 이해를 위한 전제

- 3. 70년대 초 학생운동의 전개
 - 4. 긴급조치 9호 시대
 - 5. 1970년대 학생운동의 역사적 의의
- 부록 해방후 학생운동 일지

8. 연구목적

해방 후 학생운동의 흐름을 파악하여 우리 나라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40년 간 학생들이 추구해 온 이념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학생운동사를 정리하고자 함.

9. 연구내용

이 글은 해방 후부터 1970년대까지의 한국학생운동의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정리한 방대한 저술이다. 저자는 학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존재론적 질문을 던지고, 시기 구분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글을 시작한다. 그는 한국학생운동의 시기 구분을 3단계로 제시하고 있는데, 해방 이후 48년 12월까지 좌·우 대립기의 학생운동을 제 1기로 규정한다. 그런데 1950년대는 학생운동의 암흑기로서 고찰의 대상에서 거의 제외되고 있다. 제 2기는 1960년부터 박정희 정권이 붕괴되는 1979년까지의 20년간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분석시기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 학생운동의 특성은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라는 전체 민주화 운동의 일환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제 3기는 1979년부터 80년대의 학생운동을 지칭하는데, 이 책이 저술된 시기가 1984년이라는 점에서 저자가 직접 다룰 수 없는 시기이다. 저자는 이 시기를 반외세 민족통일을 위한 투쟁이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이 책에서는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은 시기이다.

해방 직후부터 1940년대의 학생운동을 다루는 부분은 기존의 자료에 의거하여 상세한 고찰이 행해지고 있다. 기존의 연구와 당대의 1차자료에 근거하여 학생운동과 관련된 각종 사건, 주요 인물, 주요 단체, 운동이념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저자는 이 시기 학생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1) 반외세 민족주의 및 반독재 민주주의의 이념을 제시한 점, (2) 대외적 자주, 자립, 대내적 자유, 민주, 평등의 제도를 제시한 점, (3) 학생운동이 공개적, 합법적이었던 점, (4) 좌·우 대립이 가능했던 최초이자 마지막 시기였던 점, (5) 학교 연합운동이 가능했던 점, (6) 민족과 국가의 새로운 이상을 제시한 점, (7) 60, 70년대 학생운동 이념의 원천이 된 점 등으로 정리한다.

다음으로 저자는 1950년대를 학생운동에서 암흑기로 규정하는데, 그 이유는 학생들의 주체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각종 행사에 학생들이 동원된 시기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학도호국대로 대표되는 이 시기 학생동원 메커니즘에 의해 학생운동의 자치적 기능이 훈련교관에 의해 좌우되었다는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다.

60년대 학생운동은 4·19에서 3선개헌 반대 운동까지 지속되었다. 이 시기의 특징은 4·19로 표출된 반독재 민주화의 이념이 60년대 말까지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는 이 시기 학생운동이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분단된 조국의 평화통일의 문제를 절실하게 깨달았음을 지적하면서, 80년대에 핵심적인 문제로 등장하는 반외세 민족통일운동의 당위성을 암시한다. 저자는 한국학생운동의 역사를 세계 학생운동의 역사적 배경도 함께 소개하면서 이해를 돕고 있다. 이 시기 전반기의 주요한 사건인 4월혁명, 한·일회담 반대투쟁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학생운동의 발생배경, 구체적인 전개과정, 그것의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들 사건의 의의에 대해서는 4월혁명의 근본이념은 반외세 민족통일이었고, 한·일회담 반대투쟁의 운동이념 역시 굴욕적·노예적 굴종을 강요하는 신식민주의에 대한 민족수호 의지였다고 서술한다. 후반기에 대한 서술에서는 민비련사건 및 통일혁명당 사건들을 다루는데, 이에 대해서는 참여단체와 참가한 사람의 명단과 신분 등을 기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소략한 편이다. 이 시기 학생운동의 의의에 대해서 저자는, 60년대 학생운동은 분단 민족이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설정하여 주었고, 따라서 60년대 이후의 학생운동의 이념적 원류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제 III부에서는 1970년대 학생운동을 다루고 있다. 70년대의 학생운동도 60년대의 학생운동과 마찬가지로 반외세 민족주의 및 반독재 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였다. 저자는 70년대를 60년대와 구분해주는 특징으로, 비록 60년대의 4·19나 6·3 같은 거대한 반독재 학생항쟁은 없었으나, 전태일 분신자살사건과 민청학련사건을 계기로 학생운동이 노동현장과 농촌, 빈민운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동참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70년대의 학생운동을 서술하는 데에도, 시대적 배경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시기의 특징은 이른바 ‘긴급조치’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각 긴급조치의 배경과 내용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70년대 학생운동사에 대한 기술의 특징은 60년대와 같은 거대한 사건이 없었지만, 학생운동과 관련한 사건의 빈도는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매년 발생한 크고 작은 학생운동에 대한 내용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는 연도별로 발생한 학생운동을 때로는 운동단체별로, 때로는 운동이 발생한 장소와 인물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작은 사건이라도 되도록 기술하려는 저자의 노력이 엿보이며, 특히 긍정적인 것은 당대의 유인물과 같은 1차 자료 등도 상당히 인용되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저자는 70년대 학생운동을 근대화가 가져오는 외세의존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고, 유신체제가 가지고 있는 반민주주의적 독소를 제거하는 반외세 민족주의 및 반독재 민주주의의 실천적 투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사료적 가치가 높은 부분은 권말에 수록된 부록, “해방후 학생운동 일지”이다. 이 학생운동 일지는 년월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면서, 관련된 거의 모든 사건을 다루고 있어 세부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10. 연구의의

이 책은 해방 이후부터 70년대까지 학생운동의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통사라는 점에서 높은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학생운동 관련 문헌들이 대부분 80년대에 한정되어 서술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더욱 크다고 하겠다. 한계를 지적한다면, 한국 학생운동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인 80년 광주항쟁과 관련한 분석이 70년대 말의 학생운동과 이어지면서, 어떠한 계승과 발전의 과정을 거쳤는가에 대한 서술이 첨가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또한 1950년대를 학생운동의 암흑기로 처리하고 간단하게 넘어갔는데, 부록에서 확인되는 바로는 비록 미미하더라도 학생운동의 역사가 여전히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학계에서 특히 연구가 부족한 잊혀진 50년대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충해나가야 할 부분일 것이다.

1. 제목: 『팜플렛 조직노선』

2. 저자: 일송정 편집부

3. 발행연도: 1988년

4. 쪽수: 350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일송정

7. 목차

전위조직노선

해설

전국적 전위조직 건설

지역 전위조직 건설	
전위조직 건설의 조직적·사상적 기초 강조	
대중조직노선	
해설	
투쟁위원회론	
혁명적 대중조직론	
민주노조론	
정치적 대중조직론	
해설	
부록	
『공청회 자료집』(민중정당 결성에 대하여)	
『현 정세와 긴급한 과제』	
『우리들의 조직상 임무에 대하여 한 동지에게 보내는 편지』	

8. 연구목적

이 책은 변혁운동 내부에서 발행된 많은 소책자(팜플렛) 가운데 ‘조직’ 문제를 주제로 서술한 문건을 모은 자료집으로서, 변혁운동권 내부에서 진행된 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직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함.

9. 연구내용

이 책은 학생운동에 관련된다고 보다는 전체 운동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당시 조직운동의 많은 부분이 학생운동에 의해서 주도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학생운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조직문제가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더구나 일차자료를 직접 입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운동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조직노선에 대한 일차자료들을 편집해 놓았다는 이유만으로도 높은 사료적 가치를 지닌 책이라 할 수 있다.

본문의 구성은 크게 4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1장에서는 전위조직노선에 관련된 팜플렛들을 다루고 있으며, 2장에서는 대중조직노선, 3장에서는 정치적 대중조직론을 다루며,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부록으로 민중정당 결성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과 두 개의 팜플렛 문헌 전문을 실었다. 전체 내용이 거의 팜플렛 원문 혹은 원문의 발췌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의 첫 부분에서는 “해설”을 통해서 각 장의 내용 이해를 돕고 있다.

1장 전위조직노선에 관련된 팜플렛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즉각적인 전위조직의 건설을 주장하는 입장이고, 둘째는 전위조직 건설의 조건을 강화하는 흐름이다. 여기에서 다시 첫째의 즉각적인 전위조직 건설을 주장하는 입장은 전국적 전위조직 건설의 입장과 지역적 전위조직 건설의 입장으로 세분된다. 본문에서는 각각의 입장에 대한 구체적 문건이 소개되고 있다.

2장 대중조직노선에 관련된 팜플렛은 1986년 하반기 이후 노동자계급의 대중조직 건설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던 시기의 대중조직의 형태 및 위상에 관련된 논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대중조직에 대한 논의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정권의 탄압을 이유로 비합법 형태의 조직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소위 혁명적 노조론이고, 다른 하나는 합법성을 강조하는 민주노조론의 입장이다. 혁명적 노조론과 민주노조론은 현단계 노동조합의 역할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양자의 대중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민주노조 측이 “공장 대중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과 공장 대중의 자주성을 높이는 것을 모든 공장 활동 속에서 통일적으로 관철되어야 할 기본 원칙”임을 강조하는 데 대해 혁명적 노조 측은 이러한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대중노선이 대중추수적 경향으로 흐르고 있

다고 비판하면서 지도성과 대중성이 결합된 노조로서 혁명적 노조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3장 정치적 대중조직론에 관련된 팜플렛은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조직노선상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크게 '정치적 대중조직'이라는 독특한 조직을 내세워 해결하려는 입장과, '전위조직-대중조직' 즉, '당-노조'라는 원칙적인 틀 속에서 해결하려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10. 연구의의

일차자료를 엮어서 그대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일차자료를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각 문건의 주체에 대한 간략한 설명 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쉽다. 물론 각 장의 "해설"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각 문건의 주체세력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보충되었으면 한다.

1. 제목: 『학생운동논쟁사』

2. 저자: 일송정 편집부 편
3. 발행연도: 1990(1988)년
4. 쪽수: 322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일송정

7. 목차

제 1부: 이론투쟁의 준비기(70년대 중반~83년)

70년대의 정치투쟁론과 현장론

10·26이후 정세대응을 둘러싼 논쟁 - 단계적 투쟁론과 전면적 투쟁론

서울역 「회군」을 둘러싼 논쟁

무림-학림 논쟁

아비-전망 논쟁

주요운동 일지

제 2부: 이론투쟁의 1단계(84~85년)

C-N-P 논쟁

유화국면을 둘러싼 논쟁

2·12 총선 논쟁

깃발-반깃발 논쟁①

학생운동의 위상과 대중관을 둘러싼 논쟁: 깃발-반깃발 논쟁②

노학연대를 둘러싼 MC-MT 논쟁: 깃발-반깃발논쟁③

개헌운동의 전개(85년 9~12월)

주요운동일지

제 3부: 이론투쟁의 2단계(86년 이후)

자민투와 민민투(NL-CA)

개헌을 둘러싼 NL과 CA의 대립: 직선제와 제헌의회

대통령선거를 둘러싼 논쟁: 비판적 지지론, 후보단일화론, 민중후보론

NL과 CA의 계급분석 대비

NL과 CA의 철학적 입장 비교와 이론 및 실천상의 한계 문제: 유물론과 주체철학
학생운동 투쟁조직의 변화

NL I -NL II

CPC에 대하여

주요 운동일지

제 4부: 부록

야학비판

학생운동의 전망

8. 연구목적

이 책이 저술된 시기가 운동론의 심화와 논쟁의 질적 비약이 기대되는 시점인 바, 심화된 연구와 논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하나의 자료로써 지난 시기 논쟁의 의미와 한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학생운동 내부의 논쟁과 그 흐름을 정리해 보기로 함.

9. 연구내용

저자는 체계적인 논쟁사의 정리는 차후의 과제로 미루면서, 이 책의 구성에는 두 가지 원칙을 견지하며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한다. 그것은 첫째 순수하게 논쟁을 중심으로 서술한다는 것이고, 둘째 가능한 한 논쟁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자료적 가치의 의미를 높인다는 것이다. 물론 보다 심화된 연구가 나오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이 책은 현재의 수준에서도 체계적인 구성으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내용전개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책의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 책의 내용은 순수하게 학생운동 내부의 논쟁사를 담고 있다. 그 시기는 70년대의 정치투쟁론과 현장론으로부터 시작하여 87년 6월항쟁까지를 다루고 있는데, 본격적인 내용은 79년 10·26 이후 80년대 중반까지의 논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80년대 초중반 학생운동논쟁사가 핵심이라 할 것이다. 서술의 방식은 우선 연대기적으로 서술하되, 이를 이론투쟁의 준비기, 이론투쟁의 1단계, 이론투쟁의 2단계와 같이 학생운동의 논쟁이 발전과정을 거쳐왔음을 시사하는 질적 구분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광범위한 1차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하면서도, 1차자료에 대한 소개에만 그치지 않고 각각의 서술마다 저자의 의견을 첨가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주요운동일지를 권말에 한꺼번에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장마다 첨부하고 있는 것도 편집상의 특징이다.

제 1부 이론투쟁의 준비기(83년 말까지)에서는 70년대 중반 이후 야비-전망 논쟁까지 이어지는 물밑에서 일어났던 노선투쟁을 소개하고 있다. 이 시기 관점의 대립은 큰 틀에서 '직접투쟁' 대 '역량준비'라는 관점의 대립이었다. 70년대 현장론의 계보를 잇는 단계적 투쟁론, 회군파, 무림, 야비의 흐름과, 정치투쟁우위론의 계보를 잇는 정치투쟁론, 반회군파, 학림, 전망의 흐름이 그것이다. 기본이 되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입장을 축으로 다양한 입장들이 개진되면서 학생운동론을 넘어선 변혁이론 일반의 광범위한 쟁점들이 제기되고 변혁이론의 틀이 잡혀가는 본격적인 이론투쟁을 준비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 이론투쟁의 내용을 총화하는 문건인 「야학비판」과 「학생운동의 전망」은 권말에 부분 혹은 전내용이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다.

제 2부 논쟁의 1단계(84년~85년)에서는 C-N-P 논쟁과 유명한 깃발-반깃발 논쟁이 3단계로 소개되고 있다. 저자는 이 시기의 주요 쟁점을 세 가지로 소개한다. 그것은 첫째, 조직운동으로서 변혁운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의 문제, 특히 대중조직과 전위조직의 관계, 전위조직의 형성과 운영원칙 등이 실제적으로 논의되고 실천적으로 시도되었다. 둘째, 경제주의적, 자연발생적 운동관이 극복되고, 운동과 조직의 발전을 위해 운동주체의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일반적으로 공유되었다. 셋째, 변혁운동의 3가지 흐름으로 시민민주주의적 변혁론, 민족민주주의적 변혁론, 민중민주주의적 변혁론이 구별 정립되었다.

제 3부 논쟁의 2단계(86년 이후)에서는 87년 6월항쟁까지 나타난 학생운동의 논쟁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의 구성이 시기별 서술이기는 하지만, 그 시기적 구분과 동시에 질적 발전의 단계로 구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할 때, 어떠한 질적 구분보다도 이 시기 '자민투'의 등장으로 인한 '자민투(NL)-민민투(CA)' 논쟁은 새로운 국면의 핵심적인 고리라 할 것이다. 이는 85년 말부터 기존의 NDR론에 대해 실천적·이론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오던 '반제투쟁론' 진영이 86년 봄부터 '자민투'를 건설하여 학생운동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함으로써 기존의 NDR론을 계승한 '민민투'와 조직적인 논쟁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학생운동은 자민투와 민민투를 두 축으로 하여 매 시기, 매 쟁점마다 첨예하게 대립·논쟁하면서 변혁운동의 이론적 심화에 기여했다.

10. 연구의의

순수하게 학생운동의 이론적 논쟁을 다룬 글로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은 책이다. 논쟁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을 전달하고 그에 대한 저자의 해석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처음 접하는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또한 그 논쟁이 발생한 역사적 배경도 소략하기는 하지만 언급해 줌으로써 논쟁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권말의 부록인 「야학비판」과 「학생운동의 전망」이라는 문건은 일차자료로서도 활용도가 높은 문건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의 한계라고 하기보다는 이후의 연구과제로서 70년대 정치투쟁론과 현장론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고, 총론적인 연구경향에서 보다 구체적인 각론적인 연구로의 발전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1. 제목: 『팜플렛 조직노선 II』

2. 저자: 일송정 편집부

3. 발행연도: 1989년

4. 쪽수: 285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일송정

7. 목차

1. 전투적 학생회 노선
2. 민투학련, 통민학련 노선
3. (구)민민학련 노선
4. 민중민주학생회

8. 연구목적

1986~1989년 3월 기간동안 학생운동에서 '조직문제'와 관련되어 발간된 문건들을 수집하여 자료집을 발간하여 학생운동의 조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기 위함.

9. 연구내용

이 책에 실린 글들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전투적 학생회 노선과 이를 보완한 선진대중조직, 둘째, 학생회와 별도의 공개 대중정치조직을 주장하는 '민투학련'과 '통민학련', 셋째, (구)민민학련에서 주장하는 학생회 강화와 이에 대한 프락션체계로서의 정치조직, 넷째, 정치노선과 조직노선을 결합한 민중민주학생회 등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전투적 학생회 노선과 이를 보완한 선진대중조직 노선과 관련하여

『고대문화』 28호(1988년, 봄)에 실린 “전투적 학생회론의 제기”는 학생회의 성격을 사람중심의 노선에 입각한, ‘자치조직’이며 ‘정치조직’, ‘생활조직’으로서 서술하면서, 기본 대중활동 수행방도를 학생회의 전투적 강화와 학생회 중심의 대중 쫓기를 주장한다.

「자주언론」(6호)에 실린 “조직 -조직운동에 대한 약간의 고찰”은 1988년까지 학생운동의 개괄을 통해 선진대중조직론의 역사적 과정과 근원을 설명한다. “학생회의 현주소와 전망”과 “선진대중조직 - 활동가조직”에 대한 검토”에서는 전투적 학생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진대중조직을 제기한다.

둘째, 학생회와 별도로 공개 대중정치조직의 건설을 주장하는 ‘민주화투쟁학생연합’(민투학련)과 ‘통일민주학생연맹’(통민학련)의 노선과 관련하여

이 부분에는 민투학련 기관지 「전진」(1988년 10월 12일)에 실린 “반합법 공개 투쟁단체(소위 민주화운동학생투쟁연합) 건설에 대한 일 제언”과 통민학련 기관지 「진군」 창간호(1988년 11월 3일)에 실린 “진보적 학생대중의 공개적 정치조직을 시급히 건설합시다!” 및 보론에 실린 “학생회의 올바른 위상은 어떠하며 학생회와 (가칭) 통민학련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진군」 제2호(1988년 12월 23일)에 실린 “조합조직 만능주의”를 강력히 비판한다!, (가칭) 통일민주학생연맹 건설 추진위원회의 「진보적 학생의 반합 정치조직 대통합에 대한 제안문」(1989년 2월 18일)과 보론에 실린 “진보적 학생의 반합 정치 조직에 제기됐던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수록되어 있다.

두 조직은 학생회가 대중적 정치투쟁의 활성화를 이루는 데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규율과 단일한 집행력을 가진, 그리고 미제와 파쇼에 대해 신속하고 기동력 있는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하며 일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투쟁을 기동력 있게 담보할 수 있는 진보적 학생대중 정치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조직은 주체를 학생대중으로, 자신의 임무를 당면 변혁의 완수로, 주임무를 지속적, 신속·안정적인 대중 정치투쟁으로 내걸고 공개적으로 대중적 정치투쟁을 주도한다. 또한 학생회와는 ‘상호보조적 관계’를 설정한다.

셋째, (구)민민학련이 주장하는 학생회 강화와 이에 대한 프락션 체계로서의 정치조직 노선과 관련하여,

‘제헌의회’ 노선을 주장했던 구 민민학련 그룹은 기존의 좌편향을 극복하고자 ‘서울경기지역 민족민주 청년학생일동’ 명의의 “캠퍼스에서의 정치활동조직에 대하여”(1988년 10월 20일)를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학생회를 학생대중의 대표조직이자 대중투쟁조직으로 설정하고 학생회의 일관된 정치지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조직이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가를 서술한다.

이어 나온 “학생운동의 조직노선 정립의 기초”는 학생운동 내 정치조직이 학생회와 내용과 질에서 다르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선진대중조직과 통일민주학생연맹을 비판한다.

넷째, 정치노선과 조직노선을 결합한 ‘민중민주학생회’ 노선과 관련하여

「피디-H」라 불리는 “민중민주 학생회의 건설을 위하여”(1988년 12월 7일)는 반제반파쇼 민중민주주의의 대중적 정착 및 학생운동의 양·질적 발전은 과학적 대중노선에 입각해야 하고 학생회의 실제적 대표성과 정치성을 민중민주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학생회 내의 활동가들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비공개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구조가 소위 ‘피디-H 건설 추진위원회’이다.

“민중민주 학생회 건설을 위하여 II”(1989년 1월 20일)는 전체 혁명운동 속에서 학생운동의 위상과 임무, 조직노선을 중심으로 한 학생운동의 역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학생회의 민중민주적 강화의 당위성을 설명한다.

곧 이 노선은 전체 학생의 힘이 결집된 학생회가 반제반파쇼 민중민주혁명투쟁 노선에서 노동자계급의 강력한

동맹군이 되기 위해서는 전위조직과 대중조직을 분리하고 학생회 내의 '피디-H 건설추진위원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진보정당의 조직과 관련된 여러 문건들을 수록하였다.

10. 연구의의

1986~1988년 3월 기간동안 전대협·서총련의 조직노선의 제기과 내부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이에 반대하며 새로운 정치적 대중조직을 꾸미고자 하는 독자적 정치조직 노선의 주장, 그리고 이 양자를 비판하면서 학생회를 내용적으로 강화하고 그 속에서 정치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흐름 등 학생운동에서 조직문제와 관련된 문건들을 수록함으로써 당시 학생운동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였다.

1. 제목: 『학생운동논쟁사2』

2. 저자: 일송정 편집부 편

3. 발행연도: 1991년

4. 쪽수: 232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일송정

7. 목차

서언 - 기본구도와 논쟁의 추이

제 1부 투쟁노선 논쟁

제 2부 조직노선 논쟁

학생운동 조직논쟁

애국적 전위대론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론

민중당 전국학생추진위원회 위상론

제 3부 사상이론논쟁

NDR론과 PDR논쟁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론 대 식민지반자본주의론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대립

민족논쟁

페레스트로이카 평가논쟁

애국적 사회진출론

8. 연구목적

『학생운동논쟁사』의 후속편으로 80년대 후반기(88년~90년)의 학생운동 내부에서 진행된 전술·조직·사상논쟁을 정리함으로써, 80년대 후반 학생운동의 진행과 논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

9. 연구내용

이 책은 80년대 후반기(88년~90년) 학생운동 내부에서 진행된 전술·조직·사상논쟁을 정리하고 있다. 이전의 시기가 '주체사상의 유입기'로 특징된다면 이 시기는 '마르크스주의와 주체사상의 본격적인 논쟁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부에서는 투쟁노선 논쟁을 다루고 있으며, 제 2부에서는 조직노선 논쟁을, 제 3부에서는 사상이론논쟁을 다루고 있다.

제 1부 투쟁노선 논쟁을 다루는 부분은 88년 4·26 총선에서부터 90년말 학생운동 내 전술방침의 대립구도까지의 운동주체들간의 투쟁노선을 둘러싼 논쟁을 순차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88~90년까지의 학생운동주요투쟁일지를 정리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이 부분 서술의 특징은 이 시기에 발생한 주요 사건에 대한 학생운동 조직간의 논쟁을 대조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시기 후반기에 가면 사라지게 되는 ND노선으로부터 NL과 PD간의 투쟁방침을 둘러싼 논쟁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제 2부 조직노선 논쟁에서 주목할 부분은 87년 이후의 조직노선 논쟁을 다루는 부분으로서, NL, PD, ND의 조직노선 논쟁을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80년대 말 양대 학생운동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NL과 PD의 조직노선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참고할 만한 좋은 자료이다. 먼저 89년 NL진영에서는 88년에 정립된 활동가조직론과 그 문체점들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혁명적 대중조직론 간의 조직노선 논쟁이 진행되었다. 이들은 공히 NLPDR에 입각한 조직노선을 강조하였지만 특히 전위조직관, 통일전선관, 대중과의 결합방식 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NL내부의 양분파로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PD진영은 학생대중조직의 기본인 학생회를 민중민주주의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모색하는 과정에서 PD의 제분파가 연합하여 PDH건설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는데 이 건추의 위상을 둘러싸고 내부논쟁이 진행되었다. 90년에 조직노선논쟁은 주로 PD진영에서 건추, 민중당을 둘러싸고 진행되었다. NL진영은 90년 선거에서 PD의 부상으로 수적 감소를 가져 왔지만 91년 총학생회선거에서는 다시 이를 만회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특히 NL과 PD, ND 등 개별조직들의 내부에서 진행된 논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 3부 사상이론논쟁은 1부에서의 논의가 주로 사건별로 진행된 투쟁노선을 위주로 정리된 것에 비해서, 이론적 대립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시키고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NDR과 PDR논쟁에서부터,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론 대 식민지반자본주의론,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대립 등의 여러 주제를 쉽게 소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88년 학생운동의 사상이론투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과의 대립을 핵심으로 진행되었으며, 89년에는 통일운동의 대두로 인한 민족논쟁과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개혁으로 인한 논쟁 등이 진행되었다.

10. 연구의의

이 책의 내용들은 가급적 편견없이 논쟁의 진행과정을 정리·수록함으로써 논쟁의 흐름을 '객관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또한 80년대 후반기 학생운동의 최고 정점기에서 각 입장들간의 구체적인 대립 내용을 생생하게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고, 중간중간 그것을 도표화하여 정리하고 있어 내용의 이해를 더욱 쉽게 해준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제목: 『현대 한국 사회운동과 조직』

2. 저자: 조희연

3. 발행연도: 1993년

4. 쪽수: 374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한울

7. 목차

- 제1장 머리말
- 제2장 전제적 논의 및 분석틀
- 제3장 현대 한국 사회운동의 전개와 비합법 전위조직
- 제4장 현대 한국 비합법전위조직의 조직형성
- 제5장 현대 한국 비합법 전위조직의 조직확대
- 제6장 현대 한국 비합법 전위조직의 조직활동
- 제7장 현대 한국 비합법 전위조직의 조직구조와 그 변화
- 제8장 맺음말

8. 연구목적

1960년대 이후 1980년대까지의 비합법 전위조직인 통혁당·남민전·사노맹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서 그 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비합법전위조직의 실상을 규명하고 그것의 조직적 특성 및 그것이 한국사회 전반의 변화와 관련하여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밝히고자 함.

9. 연구내용

저자의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현대 한국 사회운동조직에 관한 연구 - 1960년대 이후 비합법전위조직을 중심으로」)의 개정본으로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사회운동을 정리하고 비합법 조직인 통혁당, 남민전, 사노맹의 조직형성, 조직확대, 조직활동 및 조직구도와 그 변화를 설명한다.

10. 연구의의

그간 공백으로 남아있던 비합법전위조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그 조직과 조직운동의 사실을 밝혔다.

1. 제목: 「학생운동의 변천에 관한 연구」¹⁷⁾

- 2. 저자: 김용재
- 3. 발행연도: 1995년
- 4. 쪽수: 72쪽
- 5. 형식: 학위논문(석사)
- 6. 발행처: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7. 목차

- I. 서론
- II. 학생운동의 의의 및 유형
- III. 학생운동의 변천

17) 각국 학생운동 비교분석의 내용도 다루고 있음.

IV. 학생운동의 배경요인

V. 요약 및 결론

8. 연구목적

올바른 대학교육을 지향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학내 급진적인 좌경학생운동을 올바른 교육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문제의식 하에 학생운동의 변천을 연구하고자 함.

9. 연구내용

논문의 제목에서는 “학생운동의 변천”을 다루고 있다고 하지만, 변천에 대한 특별한 관점 하에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기 보다는 학생운동의 전개를 특히 80년대 학생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쟁점별로 간략하게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 논문은 우선 학생운동의 일반이론적 정의를 시도하고, 학생운동의 유형을 여러 나라의 사례를 들어 소개하면서 자신의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학생운동을 선진국형과 후진국형으로 분리하고, 또한 서양과 동양의 학생운동으로 분리하고 소개하면서, 최종적으로 한국의 학생운동으로 논의를 이행하고 있다.

III장에서는 한국 학생운동의 변천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70년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90년대까지의 학생운동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70년대 이전의 학생운동에 관련된 부분은 너무 소략하게 정리되어 있어 흐름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80년대와 90년대의 학생운동에 있어서도 주로 학생운동의 중심 세력이었던 전대협-한총련으로 이어지는 NL계열의 운동에 집중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도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학생 운동권 각계파 노선의 특징”을 다루는 부분에서 학생운동의 주요한 대립적 논쟁을 다루고 있는데, ‘깃발-반깃발 논쟁’, ‘CNP 논쟁과 삼민투’, ‘자민투와 민민투’ 등이 그것이다. 물론 이러한 논쟁도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어 심화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IV장에서는 학생운동의 배경과 그 요인을 다루고 있는데, 학생운동의 발생 원인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학생운동의 원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주로 사회구조적 원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 논문에서는 운동주체의 심리적 수준과 제도적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서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저자는 이를 사회문화적 배경 및 원인과 정치적 배경 및 원인으로 나누고 있는데, 먼저 사회 문화적 측면은 ① 학생운동에 대한 자긍심, ② 권위주의 의식과 권위 불신 의식, ③ 과도한 정치지향성과 관료 지향성, ④ 사회 경제적 추진 정책의 불균형이고, 정치적 측면은 ① 정치 권위의 정당성과 정통성 시비, ② 남북 분단과 북한의 대남 선전 활동, ③ 범 집행 일관성의 문제이다.

학생운동의 발생과 과격화의 원인에 대한 이러한 총체적인 진단의 특징은,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의 억압성에 따른 순수한 저항이라는 세간의 통념과는 달리, 학생운동 주체들의 권력 지향성이라는 심리적 동기와 북한의 선전에 의한 외재적 영향력을 포함시킨다는 점에 있다. 운동권이나 진보진영의 논의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다루어 왔다는 점에서 저자의 지적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들 여러 가지 원인들간의 위계설정이나 상호연관관계에 대한 세심한 고찰이 보이지 않고, 단순한 열거에 그치고 있다.

다음으로 저자는 교육학 석사논문이라는 성격에 맞게 교육 정책면의 요인을 지적하고 있다. 교육 정책면에 관련한 진단은 학생운동과 관련된 한 분야인 교육계의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이 분야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성격이 강하다. 저자는 교육 정책면의 요인으로 ① 불공정한 학사 행정, ② 이상적인 교육 내용과 현실과의 괴리, ③ 대학 입시제도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부분은 학문과 현실과의 괴리에 대한 부분인데, 서양의 민주주의를 이상화시켜 교육해온 현실과 달리 역대정권이 대개는 독재정권이었던 모순 관계를 정확하게 집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80년대 중후반의 학생운동의 지향은 결코 서양의 자유민주주의적 이상을

추구하지 않고, 보다 사회주의적이거나 민족주의적인 이념을 띠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진단은 일면적이다. 저자는 전반적인 논의 속에서 학생운동권내의 사회주의적이거나 민족주의적인 세력들을 급진적이고 좌경적인 학생들로 치부하고 있는데, 그러한 평가는 다분히 편파적이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성격이 강하다. 말하자면 서구적 민주주의의 이상을 추구하지 않으면 과격, 좌경이라는 입장에서 비판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진지하게 학생운동권이 사회주의적 지향과 민족주의적 지향을 강화해온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10. 연구의의

이 논문은 학생운동 변천의 근본적인 원인이나 내용의 해명이라기 보다는 있는 사실의 간략한 정리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특히 이 글의 결론부에서 저자가 밝혔듯이, 일부 운동권 학생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되, 다수의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학칙을 엄하게 적용할 것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보이는 글이라는 점에서 학생운동의 전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는 어려운 글이다.

1. 제목: 「한국 학생운동 변천에 관한 연구」

2. 저자: 김한보

3. 발행연도: 1991년

4. 쪽수: 54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7. 목차

제 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장 학생운동 연구의 이론적 배경

제1절 한국학생운동의 특성

제2절 한국 학생운동의 제요인

제 3장 한국 학생운동의 성격 변천

제1절 일제식민시기 학생운동

제2절 해방후 ~ 1960년대 학생운동

제3절 1970년대 학생운동

제4절 1980년대 학생운동

제 4장 한국학생운동의 의식화과정

제1절 학생운동의 의식화 과정

제2절 의식화를 중심으로 한 학생운동의 실상

제 5장 결론: 바람직한 한국학생운동의 정향

제1절 외국의 학생운동과 대응논리

제2절 한국학생운동의 의식화요인과 대응방안

제3절 결론

8. 연구목적

한국학생운동의 변천과정을 면밀히 고찰해봄으로써 진정한 학생운동을 통한 교육발전과 함께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생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함.

9. 연구내용

저자는 한국학생운동의 특성을 소개하는 것으로 글을 시작한다. 한국학생운동은 첫째, 유구한 역사적 연원의 운동이다. 둘째, 한국의 학생운동은 가치지향적 정치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 셋째, 전통사상은 물론 기독교 자유주의, 민족자결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종속이론, 혁명이론 등 다양한 외래사상에 영향받는 관계로 인해 사상적 배경이나 표방하는 목표가 상이하다. 넷째, 한국의 정치사에서 학생운동은 전체 민중 봉기를 점화시키는 전위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단기적 안목에서 보았을 때 학생운동이 원래 지향했던 예는 극히 드물다.

다음으로 한국학생운동의 제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자는 이를 두가지로 나누어 외생적 요인과 내생적 요인으로 분석한다. 외생적 요인으로는 식민지 경험, 외세에 의한 분단, 권위주의적 정치풍토, 보수세력의 부도덕성, 급진이론의 확산, 압력단체의 부재, 산업화의 부작용 등이다. 내생적 요인은 학생신분의 특이성, 한국학생으로서의 사명감, 대학의 환경적 특이성, 기초교육과정의 제문제 등으로 제시한다.

다음으로 저자는 한국학생운동의 성격변천을 일제 식민시기, 해방후 ~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로 나누어 분석한다. 일제 식민시기의 학생운동은 2·8독립선언, 1929년 광주학생운동 등의 운동을 벌였으나, 1931년 이후 신간회가 해산되고 항일운동이 지하로 숨어 들어가게 됨에 따라 학생운동도 같은 행로를 걷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하의 학생운동은 한국 민족운동의 전위대로서 민족적 과제에 진지하게 임한 높은 사명감으로 인하여 이후 학생운동의 길잡이가 되었다.

해방후에는 학생운동도 좌우익간의 대립이 심하였던 시기이다. 민족 분단의 태동기인 이 때의 학생운동은 개화기로서 좌우 이념을 뚜렷이 내걸고 할 수 있었던 최초이자 마지막이란 운동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시대의 산물로서 학생운동이 해방 이후 통일된 정부의 수립을 위해 각자 이해에 따른 방법론은 달라도 운동의 중국적인 지향은 민족을 위한 것이었으며, 국기를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당시의 정치 상황은 이러한 학생들의 역량을 발전적으로 결과시키지 못하고 분단으로 치달음으로 인해 이후 남북한 양 체제는 이념논의 및 실천에 경직성을 띄게 된다.

1949년부터 59년까지의 기간은 암흑기라고 할 수 있다. 미·소간의 세계 전략에 냉전 체제가 심화되고 남북한에서는 이질적 체제가 확고히 되어 가는 가운데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무력에 의한 이데올로기의 강요는 이후 남한에서 반공,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일체의 도전을 허용치 않는 이념의 경직화를 초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자연 학생운동도 이러한 와중에 휩싸여 자율성을 상실한 암흑의 기간이 된다. 몇몇 학생운동을 제외하고 이 기간의 학생운동은 각종 행사 및 반공 쫓기대회에 동원되었을 뿐이다.

저자는 60년대 학생운동을 반독재 민주회복 투쟁기로 설정한다.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4·19학생운동은 민중이 강압적인 정권을 탄압하는데 성공한 한국사상 최초의 혁명이며 그 주체가 학생이었다는 점에서 그 이후의 모든 학생운동의 힘의 원천이요 이정표로 자리잡게 된다. 그러나 5·16 쿠데타로 인하여 이러한 학생운동의 분출이 좌절되고 말았다. 5·16 쿠데타 이후의 학생운동은 비록 1966년 반밀수재벌 규탄대회, 67년 부정선거 규탄 데모, 69년 3선 개헌 반대 데모 등이 있었으나 민족민주의 뚜렷한 방향을 갖고 전략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대의에 어긋나는 지배, 집권세력의 통치에 반대하는 소극적 운동에 그치고 말았다.

70년대의 학생운동의 이념은 1960년대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과 반외세 민족주의 운동을 계승하면서 보다 발전된 개념으로 전개해 나갔다. 이를 정리하면, 첫째 노동자의 양적 성장과 노동 조건의 극심한 악화는 전태일 분신자살 사건을 일으키면서 학생운동에 영향을 미쳐 민중노선을 뿌리박게 하였으며 “현장준비론”이라는 일정한 입장을 배태시켰다. 둘째, 1960년대 속에서 얻어진 학생운동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인식은 유신체제의 더욱 철저한 강압과 더불어 직접투쟁론(비합법 시위 우위론)에 의한 정치투쟁의 전개라는 입장을 더욱 견고하게 하였다. 셋째, 이러한 커다란 논리적 인식과 더불어 조직에 대한 중요성과 부문운동으로서의 학생운동에 대한 한계 확인 등 학생운동 과학화의 단초적인 검증과 인식들이 있었다.

저자는 80년대가 학생운동의 새로운 전환기임을 지적하고, 80년대 학생운동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첫째, 체계화된 이념으로의 철저한 무장이다. 80년대 학생운동은 마르크스주의, 종속이론, 해방신학, 신마르크스주의 그리고 근자의 김일성 주체사상 등을 분석의 틀로 하여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접근하고 그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둘째, 이념의 실천이란 측면에서 80년대의 학생운동은 뚜렷한 방향성을 지니고 사회제반의 문제를 개혁의 방법이 아닌 혁명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기에 그 수단의 과격함을 기피하지 않는다. 셋째, 각 대학 학생들의 시위 현상과 부문운동의 한계를 극복코자 학생운동과 타 운동의 연합으로 사회 혁명운동의 역량을 밀집시켜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종합적인 학생운동이 수행되었다. 넷째, 조직에 있어 대중조직과 투쟁조직의 상호 보완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86년을 기점으로 학생운동에서 민족문제를 주 쟁점으로 하는 반미운동이 전면화하며 이와 같은 급진적 이데올로기 운동이 더욱 강력히 전개되나 정치, 사회적 조류는 87년 6월 대항쟁을 선도해낸 공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운동의 본질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3저 호황에 힘입은 고도 성장으로 대외 경제적인 자생력의 점증, 부의 편재에 따른 노동운동의 상대적 비중 강화, 6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정통성 문제를 비롯한 기존의 강력한 쟁점들의 희석, 제도권의 민주화 추진역량 증가, 특히 대중사회에서 다원적 민주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극단적 대중운동을 규제하는데 기여하는 중간집단의 태동이 그 징조이다. 이러한 이유로 1980년대 한국 학생운동의 특성은 1980년대로 국한되어질 형편이며 운동의 새로운 역할이 정립되는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저자는 학생운동의 의식화 과정을 분석한다. 저자는 이론적, 역사적 배경을 통해 학생운동의 의식화 과정을 설명하고, 현 학생운동의 실체를 정리한다. 이에 따르면, 90년대 초반의 학생운동은 혁명성과 폭력성을 추구하고 친북적이라는 점에서 저자의 비판을 받는다. 이에 따라 저자는 학생운동권의 의식화에 대한 대응과 학생운동의 정도화를 주장한다. 즉 학생운동을 파괴적 과격으로 치닫게하는 핵심적인 문제인 의식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의 학생운동이 제자리를 잡아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요원을 양성하고, 학생교육을 강화하며, 신앙정신교육을 확충하고, 교육요원 양성을 위한 연수의 활성화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10. 연구의의

너무 큰 주제를 소략하게 다루어 명확하게 내용이 전달되지 않으며 학생운동에 대한 대안제시가 너무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학생운동의 전개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참고할 만하다.

1. 제목: 「한국학생운동의 사적전개: 일제하에서부터 한일회담반대까지」

2. 저자: 이해영

3. 발행연도: 1976년

4. 쪽수: 140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성균관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7. 목차

- 1) 일제하의 학생운동
- 2) 건국전후의 학생운동
- 3) 4·19 학생운동
- 4) 한·일회담반대 학생운동
- 5) 결론

8. 연구목적

한국 학생운동의 역사를 국제 및 국내 정치적 조건과의 관련 속에서 정리하고자 함.

9. 연구내용

이 논문은 한국의 학생운동의 역사를 시기적으로 정리하였는데,

첫째, ‘일제하의 학생운동’에서는 한국 학생운동이 독립운동의 한 부분으로 전개되었고, 처음부터 항거와 저항의 정신을 기본으로 독립과 번영을 그 이념으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한국학생운동의 본격적인 전개는 3·1운동이었고, 이 시기의 이념은 ‘민족자결주의와 계몽적 자유주의’였다. 1920년대 학생운동은 사회주의 사조의 유입에 따라 사회주의 혁명이론을 받아들였고, 이는 혁명적 공산주의세력과 계몽적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보수적 민족주의 세력으로 분화되었다. 1926년 6·10만세운동은 사회주의가 우세한 가운데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공통적 사조에서 이루어졌고, 1929년 광주학생운동은 신간회 학생운동의 통일된 기치 아래 이루어졌지만 반제, 민족해방, 무산계급혁명 이데올로기가 우세한 가운데 전개되었다. 일제가 강력히 탄압을 가한 1930년대에 보수적 민족주의자들은 민족계몽과 교육에 전념한 반면, 혁명적 공산주의자들은 지하활동과 결부되었다. 이런 이데올로기적 분화는 해방 이후에도 계속되어 분단의 한 원인이 되었다.

둘째, ‘건국전후의 학생운동’은 좌우간의 투쟁 속에서 좌익계열의 제거와 반관(半官)으로 체제화된 학생조직의 형성과정이라고 주장한다. 이 과정은 미소간의 냉전체제와 남북에 형성된 극단적 세력과 결부되어 이루어짐으로써 학생운동의 이념에서 민족주의가 쇠퇴하고 자유민주주의 또는 반공산주의가 부상하였다.

셋째, ‘4·19 학생운동’에서는 해방 후 외세에 의한 분단이 학생운동의 자율성을 극히 제약하였지만 4·19를 통해 부활하였다고 주장한다. 4·19 시기 학생운동은 해방 이후 한국을 지배해 온 보수세력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오랫동안 터부시 되어오던 민족주의를 재등장시켰고 보수세력의 자유민주주의에 비판을 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현실의 보수세력과 냉전체제의 논리로 말미암아 현실정치에서 계승되지 못하였다.

넷째, ‘한·일회담반대 학생운동’(1964-64년)은 대일예속화를 우려하는 한국민족주의의 표현이자 권력과 부정과 독선을 방지하려는 민주주의의 표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는 박정희 정권의 강제 진압으로 인해 실패하였고, 이는 한국 민족주의와 민주주의가 겪은 시련의 과정이었다.

다섯째, 결론에서는 한국의 학생운동이 민주주의와 민족주의가 전개되어 온 시련과 영욕의 과정이라고 평가한다. 학생운동의 비극은 국제관계에서 비롯되었지만, 다극화되는 국제정세는 학생운동의 이념이었던 민족주의와 민주주의가 보다 활발히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전망한다.

10. 연구의의

이 논문은 일제시기부터 박정희 정권 초기까지 학생운동의 발생 배경과 전개과정을 국내외적 조건과의 관련하여 정리하고 있다. 역사적 상황이라는 학생운동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1. 제목: 「한국 학생운동에 관한 연구」

2. 저자: 최봉영

3. 발행연도: 1989년

4. 쪽수: 240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7.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학생운동의 의미

제3장 한국 학생운동사

제4장 한국학생운동에 관한 유인물 및 전단의 내용별 계량분석

제5장 결론

8. 연구목적

급변하는 젊은 세대의 운동이념과 사상적 배경, 전략, 전술 등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이 요청되기 때문에, 한국학생운동의 흐름을 시대별로 분류하고 시대에 따른 학생운동의 변천과정과 학생운동의 주요쟁점 그리고 이것을 낳게 한 중요한 이념이나 배경, 운동조직관, 투쟁전략 등을 분석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좌표를 제시하고자 함.

9. 연구내용

이 연구는 1950년대 이후의 학생운동을 주 분석대상으로 삼으며 특히 1960년대 4·19 이후의 학생운동에서부터 1988년까지의 학생운동의 흐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가 취한 연구방법은 학생들이 작성하여 배포시킨 선언문이나 전단, 유인물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별 계량분석(Content Analysis)이다. 저자가 이러한 분석방법을 채택한 것은 학생운동 관련 자료의 미비성을 보완하여 주고, 학생운동의 부정기성, 불규칙성 그리고 이념적 흐름의 비일관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교정하여 객관적이고 상대적 보편성을 지니면서 이념적 흐름의 맥을 잡을 수 있는 문서분석법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내용별 계량분석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본격적인 계량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세계학생운동의 전개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한국학생운동을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학생운동의 전개과정을 정리하고 있으며, 한국학생운동사는 1980년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학생운동의 전개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예비적 고찰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개괄적인 수준에서의 소개에 머물러 있어, 여타의 연구성과와 큰 차별성이 없는 부분임에도 너무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정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반면에 이 논문의 가치는 내용분석의 기법을 통해서 학생운동의 유인물 및 전단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용분석이란 한 면으로는 사실 연구, 다른 면으로는 질문지의 중간 영역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의 문서화된

것들을 중심으로 그 연구 대상에 대한 필요 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이며 계량적인 방법에 의하여 측정 분석하는 양적 접근방법이다. 저자는 내용별 계량분석기법을 사용하여 학생운동에서 나타나는 사상, 이념, 투쟁노선을 제시한 전단 및 성명서 내용 등을 개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저자는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를 크게 삼분하여 전단이나 유인물을 모집하여 분석하고 있다. 분석이 된 유인물이나 전단의 수량만 보아도 이 연구에 사용된 1차 자료가 방대함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유인물 61종, 1970년대 유인물 116종, 1980년대 유인물 55종 등과 같이 상당히 많은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통계적 기법을 동원하여 분석함으로써, 학생운동관련 분석 문헌 중에서 독특한 분석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저자의 일차적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960년대에는 민주주의(19.7%), 헌법(16.7%), 그리고 자유(11.0%) 등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반해 70년대에는 민족주의(22.8%), 자유(19.2%), 투쟁(13.3%)이며 80년대는 재판(8.9%), 노동(8.2%), 투쟁(7.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60년대가 다소 당위적이고 이성적인 입장에서 민주주의나 자유,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표현하는 헌법에 관한 문제에 집착한 반면, 70년대부터는 물론 민주주의나 자유를 이상으로 하되 투쟁을 수단으로 한 현실참여라는 점을 학생운동에서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80년대에 와서는 이론이 보다 구체화되어 현실참여와 관련된 재판, 통일 및 노동문제에 관해 쟁점화하고 있고, 이러한 궁극적 목적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도 이성적이거나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투쟁을 수단으로 하는 좌파적 성향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 특기할만한 점이다. 그리고 60년대와 70년대는 주로 민주주의, 자유, 독재, 부정, 부패, 선거 등이 주요쟁점으로 제기되지만 80년대에 와서는 민주주의, 재판자본, 노동문제, 통일, 투쟁, 민족자결 등 보다 현실적인 대안모색이 나오고 있고, 모든 항목에 골고루 쟁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학생운동의 방향이 어느 한 특정한 이상적 쟁점의 범주에서 탈피하여 현실 적응적인 쟁점으로 다원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현사회 제도나 이념의 다원화 경향과 그 맥을 같이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학생운동의 흐름을 이해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저자는 심층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1960년에는 민주주의(43.8%)와 독재타도(28.1%), 그리고 자유평등(21.0%)이 주된 학생운동의 쟁점이었고, 1964년에는 경제, 재판(29.4%), 통일·민족(29.4%), 그리고 독재파소타도(23.5%)가 주된 학생운동의 쟁점이었다. 1967년에는 민주주의수호(52.2%), 독재파소타도(26.1%)가 주된 학생운동의 쟁점이었으며 1969년에는 민주주의수호(37.5%), 자유평등(37.5%), 그리고 독재타도(25%)가 주된 학생운동의 쟁점이었다. 이상으로 볼 때 60년대의 주된 쟁점은 민주주의의 수호와 독재정권타도로 집약되어 질 수 있다.

1970년에는 자유평등(36.7%), 통일민족(25.5%), 독재파소타도(22.4%)가 주된 학생운동의 쟁점이었다. 1973년엔 자유평등(54.5%), 독재파소타도(27.3%)가 주된 학생운동의 쟁점이었으며 1975년엔 민주주의수호(29%), 자유평등(29%), 독재파소타도(29%)가 주된 학생운동의 쟁점이었다. 이상으로 볼 때 70년대의 주된 쟁점은 자유평등으로 대변되는 민주주의의 수호와 이를 위해 독재정권을 타도하는 데 학생운동의 주 관심이 경주되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1982년에는 경제, 재판(29.4%), 통일민족(26.5%), 독재파소타도(26.5%)가 주된 학생운동의 쟁점이었고, 1983년에는 독재파소타도(48.8%), 통일민족(24.5%), 경제재판(20.1%)이 주된 학생운동의 쟁점이었다. 1984년에는 독재파소타도(39.2%), 통일민족(34.9%), 경제재판(18.1%)이 주된 학생운동의 쟁점이었고, 1985년에는 독재파소타도(41.8%), 통일민족(35.1%), 경제재판(16.9%), 1986년에는 통일민족(47.5%), 독재파소타도(41.3%), 민주주의수호(11.3%)가 주된 학생운동의 쟁점이었으며, 1987년에는 통일민족(39.2%), 독재파소타도(35.4%), 경제재판(17.4%)이 주된 학생운동의 쟁점이었다. 이상으로 볼 때 80년대의 주된 쟁점은 미국을 위시한 외세를 배척하고 남북을 통일된 국가체제로 승화시키기 위해 이를 방해하는 군사독재세력이나 재판자본가들을 혁명 등의 방법을 통해 제거시키자는 것이 학생운동의 관심사임을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저자는 보다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60년대나 70년대는 독재파쇼에 대한 저항, 그리고 낭만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자유, 평등, 정의의 구현, 이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다분히 이상적 의미에 있어서의 학생운동의 흐름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80년대에 와서 특히 5·17 광주사태를 커다란 학생운동의 분수령으로 하여 그러한 흐름에 커다란 전환의 획이 그어지게 된다. 즉, 미국에 대한 저항 그리고 이를 위시한 외세의 배척, 미제국주의의 앞잡이로서 군부를 인식하고 군부독재를 파쇼체제로 인정하여 이를 타도하게 되며, 이들에게 정치적 자금 등을 공여하고 농민, 노동자와 같은 기층민중을 착취하는 매관자본가들을 비판, 배척하는 운동의 흐름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1980년대초에는 60, 70년대에 달리 보다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이념이나 이론개발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이념과 이론의 기초 위에 형성된 학생운동의 목표를 달성키 위한 보다 구체적인 학생운동의 전략, 전술로 표현되는 방법론이 개발되었다. 이것의 기반은 폭력적 투쟁과 해방을 통한 사회 제모순의 해결에 기초를 두는 것이다. 이들은 광주사태의 실패가 기층민중과의 유기적 연계체계의 미확립에 따른 혁명역량의 부족, 미국의 효과적인 군부통제의 실패, 혹은 한국군부 개입의 묵인으로 인한 항쟁의 실패 등으로 해석하고 이를 해소키 위해선 군부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미제를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러한 목적이 학생운동의 주된 쟁점이 된다. 여기에 부가하여 기층민중을 착취하는 매관자본에 대한 철퇴를 가할 필요성이 또한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80년대 중반이 되자 이러한 양태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데 즉 남북통일의 문제가 크게 학생운동에서 부각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미국을 한반도 분단의 주범으로 인식하고 미제국주의의 배척을 위해서도 조선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적 귀결론을 내세우면서 미제축출과 민족적 통일론을 내세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양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화되어 독재파쇼타도보다 민족성회복이나 통일에 대한 쟁점이 크게 학생운동을 지배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러한 한국학생운동에 대한 평가를 덧붙이면서 글을 맺는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학생운동을 사를 회고해 볼 때 학생운동의 성과나 가치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왠지 산뜻하지 않고 묵직한 여운이 남는 것은 순수해야 할 학생운동에 급진적 사회주의이념이 접목되어 불순한 세력에 의해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민도의 향상을 통한 사회통제역량이 증진되어야 하고 또한 학생들 자신도 보다 올바른 운동이념과 역사적 신념을 가지고 국가발전을 위한 진정한 사회정화운동으로서의 학생운동으로 개화될 수 있도록 정신적 무장과 이념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진력하여야 할 것이다.

10. 연구의의

학생운동의 유인물과 전단과 같은 1차 자료를 통계적 기법을 도입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실증적 분석의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기법과 같이 학생운동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시각의 연구방법으로 확장될 필요성이 있다.

1. 제목: 「1960년 이후 학생운동의 특징과 역사적 공과」, 『역사비평』 39집

2. 저자: 서중석
3. 발행연도: 1997년
4. 쪽수: 30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역사비평사

7. 목차

1. 현대사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
 - 1) 학생운동의 의의와 역할
 - 2) 학생운동의 특성
2. 학생운동의 전개
 - 1) 1960년 3, 4월항쟁 ~ 1961년 4·16 쿠데타
 - 2) 1964년 3·24시위 ~ 1971년 10월 위수령
 - 3) 유신체제기
 - 4) 1980년대
3. 몇 가지 쟁점에 대하여
 - 1) 대중성
 - 2) 변혁의 지향
4. 맺음말: 학생운동 연구의 방향

8. 연구목적

이전 시기와 구분되는 한국현대사(1960년대 이후)의 학생운동의 특징과 역사적 공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근거하여 한국학생운동사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9. 연구내용

저자는 한국학생운동의 특수성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즉 세계에서 한국처럼 학생운동이 장기간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며 계속된 예는 찾기 어렵다. 특히 1960년 이후의 학생운동은 그 이전의 학생운동과도 명확히 구별된다. 1950년대에는 이승만정권의 '동원정치'에 학생들이 앞장섰으나 그것은 관권에 의한 것이었고, 학생운동이라 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다. 해방된 직후부터 1948, 49년경까지 학생조직은 상당한 활동을 하였으나, 대개는 좌익과 우익갈등의 첨병 역할을 하였고, 독자성이 약했으며, 영향력도 크지 않았다. 일제시기에 학생들은 계몽운동, 사회운동, 사회주의운동 등에서 활동을 많이 하였고, 항일학생운동도 계속 벌였다. 그러나 전자는 학생운동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었고, 후자의 경우 광주학생운동으로 통칭되는 1929, 30년의 전국적인 학생운동을 제외하면 1960년 이후의 그것과는 차이가 많다. 1960년 3, 4월항쟁 이후의 학생운동은 한국 근현대사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저자는 이러한 한국학생운동의 독특한 위상에 대한 의문을 던지면서 논의를 이어간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는 학생운동이 1960년 이후 30여 년이나 계속되었으며, 민주화·자주화와 사회운동, 시민운동, 문화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가? 저자는 이를 여섯가지로 정리한다. 우선 첫째로, 민주화·자주화운동 등을 주도해갈 정치 세력이 학생세력을 제하고는 미약하였다. 둘째, 다른 나라에서는 민주화운동이나 진보적 운동을 사회단체가 이끌어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기는커녕 노동자나 농민을 위한 활동이 불온시되고 언제 체포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사회운동단체나 시민운동단체의 존립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셋째, 한국은 1920년대 이래 신규 세대간에 갈등이 심하였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특징적인 것은 계급투쟁조차 신규 갈등의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기성세대가 수구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청년세대가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을 대행할 수밖에 없었다. 넷째, 극우반공체제의 전일한 지배, 봉건성이 다분히 잔존한 전근대적인 가부장적인 인간관계와 의식의 강인한 존재, '비정상적'인 산업구조 등은 한국에서 계급갈등보다 민주와 반민주의 구도를 훨씬 가시화시켰다. 다섯째, 위의 것들과 연결되지만 극단적인 반공정책도 학생들을 나서게 만들었다. 여섯째, 일제 무단통치기나 유신시기에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던 것은 3·1운동과 반유신운동이 말해주듯 학생과 종교인이었다. 즉 학생들의 강한 동질감이

학생운동의 강한 분출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어 저자는 학생운동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논하는데, 우선 대중성에 관련한 문제가 그것이다. 학생운동에서 대중성은 다수 학생들의 지지와 참여, 나아가서는 일반 사회인의 지지와 참여를 획득하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것은 과격성이나 모험주의로 인하여 학생대중과 유리되거나 고립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였고, 선도투쟁론과 대비되어 사용되었다. 실제로 1980년대 학생운동은 모험적이거나 과격하여 학우대중으로부터 유리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학생운동 성과조차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조금 지나, 지나친 것을 수정하여 대중성 또는 투쟁성을 확보하곤 하였는데, 이것은 이 시기의 투쟁이 역사의 방향에 맞아떨어져 상승세를 탔기 때문일 것이다. 대체로 1980년대 전반기에는 선도투쟁론이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학생운동이 대중적으로 성장하여 일정한 궤도에 오르면 선도투쟁의 의의는 약화되게 마련이다. 1980년대 후반기, 특히 1990년대에서는 더욱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저자는 변혁성의 문제를 지적한다. 1980년대 학생운동의 특징은 변혁지향성에 있다. 학생운동권 내의 변혁지향세력은 민중혁명 또는 민중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자유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를 개량주의적인 것으로 배척하였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주아민주주의와 동일시하여 18세기에 부르주아계급의 시민혁명에 의하여 이룩된 것으로 파악한 것은, 극우반공주의자들이 반공주의나 자유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억지부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이다. 사실 자유민주주의 하에서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사상·학문의 자유가 인정되고, 피지배계급이 자신들의 경제적·정치적 운동을 합법적·공개적으로 펼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장해준다. 이와 같은 자유민주주의는 1990년대에 민간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학생들이 공격한 파쇼통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치되는 정치체제이다.

이어서 저자는 현단계 학생운동에 대한 평가를 한다. 현재 학생운동이 하강기에 들어가고 있고,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변혁지향의 활동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또 그랜드 시오리(grand theory)와 강령적 비전의 제시, 구체적인 정책과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의 마련은 학생운동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변화시켜야 할 중요한 것이 산적해 있고 새로운 과제에 봉착해 있는 것도 많다. 학생운동이 해야 할 작업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우선 국가보안법의 폐기가 떠오르겠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은 4월혁명기도 시사하듯 중요하며, 6월항쟁이 지향한 바가 현실화되도록 고투를 거듭해야 할 것이다. 우리처럼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고, 부패하고, 적당히 살려는 사회도 드문데, 이 사회에 청신한 기풍을 계속 불어넣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한국학생운동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글을 맺는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학생운동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한국학생운동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야 한다. 우선 필요한 것은 여러 형태의 학생운동사이다. 지금까지는 대개 논쟁 또는 이론 중심으로 1980년대의 학생운동사를 편집하였다. 1960년대건 1980년대건, 어떠한 여건 속에서 학생운동이 전개되었고, 학생들은 각 시기마다 어떤 고민을 하였으며 어떠한 어려움에 부딪쳤나, '위장취업' 활동을 어떻게 했으며, 농활·공활·야학은 어떻게 했는가, 무슨 책을 읽고 어떠한 생활을 했는가가 다루어진 것은 작은 편이다. 특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동을 추진하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운동은 언더에서 진행된 것이 대부분인데, 일제 때의 지하투쟁이 기록을 남기지 못함으로써 역사에서 지워져버려 그만큼 우리 역사를 빈약하게 만들고 있듯이, 학생운동사도 상당부분이 그와 같이 사멸될 가능성이 있다. 또 상황을 반영해서 운동 관계자들이 변한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왜곡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도 빨리 학생운동사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학생운동을 새로 태어나게 하고 대중성을 갖게 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며, 학생운동세력의 대동결집이나 새사회 프로그램의 작성, 정치세력화 등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10. 연구의의

한국의 학생운동의 역사에서 1960년대를 이전 시기와 구분되는 전환점으로 설정하고, 이 시기 이후의 학생운동

의 특징을 잘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한국학생운동에서 문제가 된 쟁점인 대중성과 변혁성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주목할 만하고, 결론부에서 여러 형태의 한국학생운동사 간행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1. 제목: 『한국학생운동사 개관』, 『고려대 아세아연구』 77집

2. 저자: 유영익

3. 발행연도: 1987년

4. 쪽수: 46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고려대학교

7. 목차

- I. 서론
- II. 한국학생운동사 조감(鳥瞰)
 - 1. 조선시대의 학생운동
 - 2. 개화기의 학생운동
 - 3. 일제시대의 학생운동
 - 4. 해방 이후의 학생운동
- III. 한국학생운동의 제특성
- IV. 결론

8. 연구목적

80년대의 한국학생운동이 그 이전의 학생운동의 전통을 이은 것이며 이 전통이야말로 그 운동을 영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가정 하에 한국학생운동사를 개관함으로써 현대의 학생운동을 이해하는데 이바지 하려함에 목적이 있음.

9. 연구내용

이 논문은 한국학생운동사를 조선시대로부터 1970년대까지 통시적으로 고찰하되, 먼저 한국학생운동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조감하고, 다음으로 그러한 학생운동사에 나타난 특성에 관해서 몇가지 관찰을 시도하고 있다.

이 논문의 구성에서 특이한 점은 학생운동의 기원을 조선시대로까지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는 한국학생운동사는 조선시대 학생운동에서 그 근원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조선시대의 학생운동사를 근대 학생운동의 전사(前史)로 간주하여 이를 학생운동사의 일환으로 다루고 있다. 그 다음 근대 학생운동을 편의상 개화기의 학생운동, 일제시대의 학생운동 및 해방 이후의 학생운동으로 대별하여 서술하되 각 시대의 대표적인 학생운동을 골라 이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학생운동은 상소의 특권을 가진 성균관의 유생, 즉 태학생의 특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들이 조선시대에 적극적인 상소활동 등을 통해서 학생운동의 특성을 보여 왔다는 것이고, 이러한 민족사적 전통이 오늘날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개화기의 학생운동은 1894년 이후 근대적 의식을 가진 학생층이 형성되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근대적 학생운동

이 태동하게 되었다고 한다. 구한말에도 학생들이 일제의 침략 노골화에 반기를 들고 산발적이고 소극적인 저항운동을 벌였는데, 이러한 학생운동의 전통은 1910년 이후에 본격화된 학생들의 항일독립투쟁의 선구였다고 한다.

일제시대 학생운동의 대명제는 국가의 주권회복과 민족의 자주독립이었다. 저자는 2·8독립선언, 3·1운동, 6·10만세운동, 광주학생운동 등을 통해 학생운동의 전통이 면면히 이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학생운동은 사건별로 비교적 자세히 분석·소개되고 있다. 특히 한국학생운동은 특별한 사건을 계기로 폭발하는 특성을 보여주었는데,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성립(1948) 이전의 신탁통치와 국대안반대투쟁, 1960년의 4·19혁명을 정점으로 한 자유당정권하의 반독재 투쟁, 1964년의 공화당정권하의 한일회담 반대운동, 1970년대의 3선 개헌 및 유신체제반대운동 등은 학생운동의 두드러진 봉우리였다고 한다. 저자는 이들 주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학생운동의 전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중 4·19와 1970년대에 대한 저자의 평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4월혁명에 대해서 저자는, 역사상 처음으로 학생이 주체가 되어 기성 독재정권을 타도한 “이 땅에서 최초로 성공한 시민 민주혁명”이었다고 규정하고, 그것은 한국학생의 의식수준을 현저히 높여줌으로써 그 이후의 학생운동의 이념과 방향을 제시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4·19는 특히 한반도의 분단상황을 주체적으로 극복하고 통일을 성취하려는 운동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회의 근본적인 변혁을 이룩하지 못함으로써 “미완의 혁명”으로 남게 되었다.

저자에 따르면, 1970년대의 학생운동은 60년대의 4·19나 6·3과 같은 거대한 운동 양상을 띠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60년대의 학생운동과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었다. 1970년 11월의 ‘전태일 분신자살 사건’과 1974년 4월의 ‘민청학련사건’ 등을 거치며 기독교 학생운동자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학생운동이 노동현장과 농촌, 그리고 빈민에 깊은 연관을 갖고 민중운동에 동참함으로써 “민중의 역사창조에 기여하는 지식인 운동”으로 승화되어 갔다. 이것은 이후의 학생운동을 민중지향적 운동으로 성격 지우는 단서가 되었다. 그러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70년대의 학생운동은 여전히 한국 근대학생운동이 추구해 온 ‘민족’과 ‘민주’라는 두 가지의 기본이념을 여전히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저자는 이상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한국학생운동의 특징적 성격을 정리한다. 그것은 ①한국 학생운동은 장구한 역사적 연원을 갖는 운동이다. 한국학생운동은 그 근원을 줄잡아 17세기 말 조선조의 숙종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근대적인 학생운동의 시원도 1896년 「협성회」의 활동과 그 후의 「독립협회」운동 참여에까지 소급할 수 있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한국학생운동은 그 전통이 300여년이나 되며 좁은 의미의 학생운동, 즉 근대학생운동의 역사도 90년이나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한국근대학생운동은 많은 굴절과 기복을 거치면서 전개된 운동이다. 한국의 근대학생운동은 그것을 억제하려는 정권의 탄압이 심할 때에는 부득이 지하운동으로 잠복하여 그 위세를 감추었다가 어떠한 정치적 계기를 만나면 마치 휴화산이 터지듯 다시 폭발하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학생운동의 기복이 한국의 정치체제 내지 집권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③한국 근대학생운동은 한국의 전통사상은 물론 기독교, 자유주의, 민족자결주의, 사회주의, 종속이론, 해방신학 등 여러 가지 외래사상의 영향하에 추진·전개되었다. 그러나 그것의 사상적 배경이나 표방하는 목표를 기준으로 볼 때 근대학생운동은 크게 반외세 민족주의형, 반독재 민주주의형, 그리고 민중적 사회주의형 등 세 가지의 이상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④한국의 학생운동은 그 역사적 배경과 현실적 상황 때문에 ‘한국학생운동’으로서의 특수한 성격을 가진다. 그것은 한국학생운동이 강한 역사의식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 열렬한 선구자적 사명감과 순교자적 지사정신으로 추동된다는 점, 강렬한 민족애 내지 민족주의의식에서 출발한다는 점, 강렬한 저항정신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 등이다. ⑤한국 근대사의 학생운동은 원래의 목표를 달성한 예가 극히 드물다. 그러나 한국의 학생운동은 그것이 달성한 어떤 구체적, 직접적 결실로써 평가되지 않고, 오히려 운동을 일으킨 학생들의 동기와 그 운동이 당시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나아가 역사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정신사적 기준에서 평가되고 있다. ⑥이상과 같

이 조선시대로부터 1970년대까지의 한국학생운동을 검토한 결과, 한국의 학생운동은 그 뿌리가 유래없이 깊며 또 그것은 민족사에 괄목할 업적을 남긴 운동임을 발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약간의 회의적인 전망으로 글을 맺고 있다. 즉 한국학생운동은 이러한 역사적 타성에 힘입어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민주화·다원화되면 학생운동은 변질 내지 소멸할 운명에 있다는 것이다.

부록으로 한국 근대학생운동 연표가 1896년부터 1979년까지 실려 있다.

10. 연구의의

한국학생운동의 기원을 조선시대 유생 및 성균관 학생들에게까지 소급하여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조선시대로부터 1970년대까지의 학생운동의 전개를 간결하게 정리하면서, 다른 한편 한국학생운동의 특성을 잘 정리하고 있는 논문이다.

1. 제목: 「한국학생운동의 역사적 개관」, 「군산대 논문집」 14집

2. 저자: 이희환

3. 발행연도: 1987년

4. 쪽수: 19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군산대학교

7. 목차

서언

I. 학생운동의 전사

II. 일제시대의 학생운동

III. 해방이후의 학생운동

결어

8. 연구목적

학생운동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전개되어온 역사적인 운동인 만큼 그 기본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학생운동에 대한 역사적 조명을 시도하고자 함.

9. 연구내용

저자는 학생운동의 연구에서 역사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학생운동에 대한 역사적 조명을 시도한다. 학생운동의 원인은 직접적으로 당시의 현실적인 정치·사회적 상황에 기인한다고 하겠으나 그러한 현실적 상황 자체가 역사적 배경을 거쳐 조성된 것이라고 볼 때, 학생운동은 불가불 역사적 성격을 지니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자의 관점이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의 학생운동을 역사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의 학생운동을 역사적 관점에서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둘째 그러한 학생운동을 그 이념목표와 전개양상에 따라 실증적으로 분석하며, 셋째 그로부터 한국 학생운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추출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해방이후

학생운동에서부터 70년대까지를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의 근대 학생운동을 어느 면에서 조선왕조시대의 유학교육 및 사대부 지식층의 전통과 연결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성균관 유생들의 자치활동과 의사를 표시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유소(儒疏)와 권당(捲堂) 등의 방법 예로 제시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조선시대 유생들의 명분론적 선비정신의 전통이 근대 학생운동의 정신적인 배경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 저자의 추론이다.

한국의 근대 학생운동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시작되었다. 저자는 일제하 학생운동은 몇 개의 커다란 봉우리가 있었다고 보고, 그것을 1910년대의 '2·8독립선언'과 '3·1운동', 1920년대의 '6·10만세운동'과 '광주학생운동' 등으로 보고, 이를 차례대로 고찰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2·8독립선언은 순수한 학생운동으로서 한국 근대 학생운동의 시작이었고 항일 학생운동의 효시였으며, 또한 그것은 전근대적인 국권회복운동의 단계를 넘어서 서구적·시민혁명적 성격을 지닌 민족주의 운동이었다고 한다. 학생운동의 본격적인 전개는 3·1운동 과정에서 이루어졌는데, 저자는 학생들이 3·1운동에서 행한 역할이 지대한 만큼 학생운동이 항일 민족운동의 커다란 줄기였다고 주장한다.

3·1운동 이후 사회주의 사상의 보급과 함께 1923년에는 '조선학생회'가 조직되었고, 1924년에는 과학의 연구, 과학사상의 보급 및 학생사상의 통일 등을 목적으로 내세운 '조선학생과학연구회'가 성립하였는데, 후자는 학생운동을 사회주의의 방향으로 이끄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1926년의 6·10만세운동을 주도한 세력이었는데, 6·10만세운동은 많은 시민과 일반 백성이 참여하였지만 명실공히 학생층이 주체가 된 순수한 학생운동의 성격을 지닌 운동이었다고 한다.

6·10만세운동 이후 학생운동은 그 통일성을 모색하면서 반제국주의·반식민주의운동의 기본방향을 지향하게 되었다고 한다. 저자는 신간회의 학생부 설치와 이들의 학생맹휴 등의 활동을 소개하고, 이러한 학생운동의 배경이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운동에 영향을 주었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광주학생운동을 정점으로 하고 일제하의 학생운동은 전반적으로 침체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일제하의 학생운동이 항일 민족투쟁으로 일관했던 점에 비하여 볼 때, 해방 이후의 학생운동은 그 성격과 양상이 시대에 따라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의 학생운동은 그 이념에 있어 두 가지의 뚜렷한 흐름을 지니고 있다. 곧 해방 후 학생운동의 이념은 반외세 민족주의와 반독재 민주주의로서 해방 이후의 다양한 학생운동은 근본적으로는 모두 이 두 가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부터 70년대까지의 학생운동과 관련한 주요한 사건들은 해방 직후 신탁통치와 국대안(國大案)을 둘러싼 이데올로기 투쟁, 4·19를 정점으로 한 자유당정권하의 반독재 투쟁, 공화당정권하의 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및 유신체제 반대운동 등을 들 수 있으며, 저자는 이들 운동들의 전개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해방 직후의 학생운동은 신탁통치와 국대안을 둘러싸고 좌·우익계 학생들이 대립하는 가운데 전개되었는데, 이러한 진통은 외세의 간섭을 배제한 민족주체성의 확립과 학원민주화 내지 정치·사회의 민주화를 모색한 과정에서의 일이라고 한다. 저자는 이러한 학생운동의 이념이 그 이후의 학생운동에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본다. 다음으로 4·19혁명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데는 성공하였으나,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혁을 이룩하는데는 실패하였기 때문에 미완의 혁명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6·3운동에 대해서는 비록 박정권의 탄압으로 인해 이후 침체하게 되었지만, 6·3운동은 한국 학생운동의 전통을 내전으로 계승하면서 다음 단계의 학생운동을 예시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이후 3선개헌 반대운동과 유신독재의 성립 이후 반유신운동이 전개되었고, 이는 유신체제의 붕괴에 직접 연결되는 부마항쟁으로까지 이어졌다. 유신체제하의 학생운동은 긴급조치하의 제도적 탄압 속에서 부침하였고, 실패와 좌절로 점철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학생운동이 직접적으로 유신정권을 퇴진시키지는 못하였으나 그것이 붕괴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저자에 따르면 70년대 학생운동의 특징은 60년대와 질적인 차이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전태일분신자살사건'과 '민청학련사건' 등을 거치면서 학생운동이 농

촌과 노동현장에 깊은 관심을 갖고 동참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이후의 학생운동이 민중지향적 시각을 갖는 단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70년대의 학생운동은 '민족'과 '민주'의 이념을 추구해온 한국 근대 학생운동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이해된다고 한다.

저자는 이상과 같이 한국 근대 학생운동은 '민족'과 '민주'의 두 이념이 그 기초를 이루면서도 그것들은 시대상황과 함께 부침하였다고 보고, 7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학생운동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외적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일정한 통일성과 계기성을 지니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후속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한국 학생운동의 역사적 성격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의 후속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 학생운동을 그 이념·목표와 전개양상에 따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일과, 그로부터 한국 학생운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추출해 내는 작업이라고 주장하면서 글을 맺는다.

10. 연구의의

한국학생운동의 역사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생운동 연구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건의 서술에 그치고 있어 새로운 방법론의 개발에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

1. 제목: 『한국민주주의와 학생운동: 민주적 실천과 역사적 희생』, 조희연 편,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

2. 저자: 전재호

3. 발행연도: 2002년

4. 쪽수: 47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소(함께읽는책)

7. 목차

1. 머리말

2. 학생운동에 대한 국가폭력

3. 학생운동의 희생

4. 맺음말

8. 연구목적

1960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투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세력이었던 학생운동과 관련, 국가폭력의 기제와 학생들의 희생을 고찰하고자 함.

9. 연구내용

이 글은 민주화운동(그 중 학생운동)에 대한 국가폭력의 기제와 그에 따른 학생들의 희생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 이유는 한국의 민주화 과정이 권위주의 정권과 민주화운동 세력의 상호 투쟁 결과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성취는 다양한 기제의 국가폭력에 대해 민주화운동 세력이 끊임없이 투쟁을 벌인 피와 땀의 결과이다. 학생운동은 사익(私益)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공익(公益)을 위해 자신의 현재와 미래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내걸

고 투쟁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곧 학생운동의 자기 희생성이 일반 국민들을 민주화 투쟁의 대열에 동참하도록 만듦으로써 민주화로의 전환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 글은 이 과정에서 학생운동에 가한 국가폭력의 기제 및 그에 따른 학생운동의 희생을 자세히 고찰한다.

국가폭력은 이데올로기적, 법적, 제도적 폭력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데, 이데올로기적 폭력에 사용된 것은 반공주의와 반인륜 담론이다. 반공주의는 권위주의 정권이 저항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한 가장 대표적인 이데올로기적 폭력 기제로 많은 학생운동 조직을 용공으로 몰아 탄압하는데 이용하였다. 반인륜 담론은 민주화를 위한 학생운동을 반윤리적·반인간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왜곡시킴으로써 학생운동의 신뢰를 떨어뜨리는데 이용하였다.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 1990년 정원식 총리 밀가루 세례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법적 폭력에는 계엄령, 위수령, 긴급조치 등의 비상조치와 사상,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존재한다. 계엄령과 위수령이 박정희 정권 시기에 주로 동원되었다면 집시법, 공무집행방해및폭행, 반공법, 국가보안법, 긴급조치, 경범죄처벌법, 계엄포고령, 소요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현주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도로교통법, 화염병처벌법, 공문서 또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등은 권위주의 통치 시기 내내 학생운동을 탄압하는 법적 기제였다. 그 중 학생운동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전두환 정권 시기에 증가하였고 통일운동이 활발해진 노태우 정권 시기에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학원을 통한 제도적 폭력에 사용된 것은 국가공권력의 학원통제, 학생지도 및 학사징계, 학도호국단 및 학생군사훈련,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등이었다. 먼저, 권위주의 정권은 사복경찰이나 기관원들을 학내에 상주시켜 학생 시위를 원천 봉쇄하려 했고, 일부 학생들을 포섭하여 프락치로 이용하거나 학교 직원들을 통해 문제 학생들의 정보를 빼내었다.

다음으로 권위주의 정권은 학교 기구 및 제도를 통해 학생운동을 억압하였다. 박정희 정권의 학생생활지도위원회 구성, 학생선도방책 시달, 학생지도 질적 향상방안을 실시했고, 전두환 정권은 비상근무규정, 경제전단구역 설정 실시계획, 가정방문지도, 수시 지도, 각 단과대학별 집단지도, 징계 등을 통해 교수 및 교직원들을 동원하여 학생 시위를 방지하려 했다.

또한 권위주의 정권은 반공정책을 정당화하고 학생운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학생회를 학도호국단으로 전환시키고 학생군사훈련(교련)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권위주의 정권이 학생운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실시한 제도는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이다. 강제징집은 박정희 정권이 시작하고, 전두환 정권이 본격적으로 실시한 제도로 운동권 학생들을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방식으로 군에 입대시키는 제도였다. 또한 전 정권은 강제징집자들을 이용하여 학생운동에 대한 정보를 빼내기 위해 녹화사업까지 실시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기제를 사용한 국가폭력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은 정치적 사망, 상이, 인신구속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사망은 학생운동의 가장 극적인 피해 사례로,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항거의지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낸 자살, 국가공권력에 의한 타살, 그리고 사고사와 의문사로 나눌 수 있다.

자살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정치, 경제, 사회적 현실의 모순에 대한 항의 또는 절망의 표현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자살'로 부를 수 있는데, 박정희 정권 시기에는 2건이었던 것이 전두환 및 노태우 정권 시기에 급속히 증가하였다.

'정치적 살인'으로 지칭되는 타살과 사고사는 학생에만 한한다면 전두환 정권 시기 시작되었지만, 민주화 이행기였던 노태우 정권 시기에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권 시기에도 8명의 학생들이 사망하였다. 의문사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강제징집이 본격화되었던 전두환 정권 시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상이의 범주인 고문은 권위주의 정권이 반대세력을 침묵시키고 억압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였는데, 피해자들에게

좌절감, 수치심, 모멸감을 줄 뿐 아니라 심할 경우, 정신이상 그리고 이로 인한 사망, 고문 중 사망까지 발생시켰다.

경찰이 시위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상이는 전두환 정권 시기에 그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학생들은 경찰의 직격탄 발사 및 사과탄 투척에 의해 화상 및 찰과상을 입었고, 투석전에서 실명하거나 두개골 파열 등의 상이를 입었다. 노태우 정권 시기에도 경찰력에 대항하기 위해 학생들이 쇠파이프를 소지한 '시수대'를 결성하면서 그 피해는 더욱 증가하였다. 또한 노태우 정권 시기에는 경찰의 총기남용으로 인해 학생이 사망한 경우도 발생하였다.

신체의 자유를 가장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인 인신구속은 학생들에게 매우 큰 피해를 가져왔다. 인신구속의 시작인 수감생활은 피구속자를 사회생활로부터 격리시켰고, 수감생활 도중 금치나 징벌방 등의 비인간적인 인권침해를 가함으로써 더 큰 타격을 가하였다.

수배 역시 피수배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데, 갑작스레 도피생활에 들어서게 된 학생들은 경제적 궁핍과 정신적 불안정에 시달리게 되었다. 게다가 수배는 학생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었다.

10. 연구의의

그 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던 국가폭력의 기제와 그에 따른 학생운동의 희생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고찰함으로써 학생운동 연구에의 새로운 분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학생운동의 희생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제시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1. 제목: 「한국 학생운동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관한 소고: 특히 해방 이후 1974년까지를 중심으로」, 『인천교대 학생생활연구』 4집

2. 저자: 한인수

3. 발행연도: 1986년

4. 쪽수: 26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인천교육대학교

7. 목차

I. 서언

II. 8·15 이전의 학생운동의 기제와 8·15 직후의 좌·우익운동에 나타난 학생운동

III. 국대안파동기에 따르는 학생운동

IV. 4·19의거에 따르는 학생운동

V. 한·일회담반대 학생운동의 역사적 배경

VI. 1970년대 전반기에 나타난 학생운동

VII. 결언

8. 연구목적

8·15 직후부터 1970년대 전반기까지에 전개된 우리의 학생운동의 기본성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그 시대의

역사적 조건과 국내·외의 정치적 조건과의 관련 속에서 밝혀 보고자 함.

9. 연구내용

저자는 학생운동이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역사적인 것이라는 입장에서 한국학생운동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II장에서는 8·15 이전의 학생운동의 기저와 8·15 직후의 좌·우파동기에 나타난 학생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해 소개하고, III장에서는 국대안파동기에 따르는 학생운동의 전개과정을 소개한다. 이러한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좌익계 학생이 제거되고, 이승만 정권 하에서 체제화된 학생단체의 조직화가 형성되었는데, 이는 4·19의거까지 이어지게 된다.

IV장에서는 4·19의거에 따르는 학생운동을 고찰하고 있다. 저자는 4·19의거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하여, 을 반 민족적 행위에 대한 저항, 장기적 자유당정권의 행적에 대한 저항의식에서 4·19학생운동이 제기되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4·19 학생운동의 성격을 민족적 자존과 민주주의회복에 대한 열망, 인권존중, 정의사회구현과 사회발전에 대한 절실한 요구 등으로 정리한다.

다음으로 V장에서는 한·일회담반대에 따르는 학생운동을 다룬다. 저자는 한·일회담의 일차적인 원인이 물론 굴욕적인 회담의 성격에서 유발된 것이기는 하지만, 또한 학생운동을 더욱 격렬하게 만든 것으로서 5·16 혁명세력의 내부적 부정·부패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한·일회담반대를 둘러싼 학생운동의 발단은 한·일회담의 반대를 그 명분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운동의 추세는 그 이상의 문제인 5·16 이후의 국내정치와 관련되고 있었다고 한다. 저자는 이러한 한·일회담반대를 위한 학생운동의 성격을 민족적 자유·자립의 토대를 마련할 것을 기대했던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음으로 VI장에서는 1970년대 전반기에 나타난 학생운동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70년대 학생운동의 전개양상을 학원의 민주화와 노동현실에 큰 관심을 갖고, 대화가 없는 현실비판과 강렬한 실천적 행동으로 일관해 나간 것으로 분석하고, 학원민주화, 근로조건개선, 교련강화반대, 학원자유수호 등과 관련된 학생운동의 전개과정을 소개한다.

10. 연구의의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 전반기까지 학생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격을 간략하게 정리한 글이다. 저자는 학생운동을 파악함에 있어 역사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학생운동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러한 고찰이 단순한 사실의 나열에 그친 감이 있다.

1. 제목: 「학생운동 20년」, 「고대문화」 6집

2. 저자: 김경옥 외

3. 발행연도: 1964년

4. 쪽수: 11쪽

5. 형식: 잡지·저널·기타

6. 발행처: 고려대학교

7. 목차

학생운동의 정점을 찾아서

학원의 전통

학원 외 세력투쟁의 연장
 「목적의식」은 지금과 상통 ……
 이념상실기의 「학운」
 4·19는 「학생혁명」
 독재하엔 조국은 없다
 4·19후의 남북통일론
 4·19의 정의
 4·19는 근대혁명이다
 학원의 실재와 한계
 민족적, 너무나 민족적
 실존사적 의의: 6·6 데모
 4·19의 당연한 귀결
 배반된 마음과……
 학원순수성쟁취운동
 학생운동의 한계성
 6·3은 난동인가?
 학생운동의 「디렘마」와 이념설정
 실패란 없다

8. 연구목적

한일골육외교반대투쟁의 파동이 6·3사태로 변질되면서 학원이 우범지대로 간주된 상황에 직면하여, 학원의 전 통에 대한 평가와, 학원과 사회, 현실참여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함.

9. 연구내용

이 글은 6·3 한일골육외교반대투쟁 이후, 학원의 성격과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형식으로, 좌담참석자들은 주로 총학생회장 및 단과대학생회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자들은 서로 질문을 던지면서, 학원의 성격과 본질의 문제를 고찰하고 있다. 해방 이후 학생운동의 역할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면서, 학원의 역사성을 복원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즉 해방 이후 학생운동의 역할을 통해서 현단계 학생운동의 대사회적 활동을 정당화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평가는 해방 후 학생운동은 학생구성요소로 보나, 쟁점으로 보나 사회정치화한 것이었다는 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좌담 참석자는 4·19정신과 비교하여 해방 후 민족진영사람들도 민주사회건설에 그 목적의식이 있었다고 하면서 독재성, 마키아벨리즘에 대한 반대투쟁이란 점에서 비슷하다고 규정한다.

이들은 4·19를 이승만의 백색독재에 대한 반독재투쟁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투쟁의 주체가 학생이었다는 점, 이념적인 문제에서도 대안이 없었다는 점에서 미완의 혁명이라고 규정한다. 특이할만한 것은 이들이 4·19를 한국적 민주주의의 창조혁명이라고 규정한다는 점이다. 즉 4·19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혁명의 계승이 아니라 한국적 민주주의의 창조혁명이고 또 그후 남북통일론 등으로 민족주의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들은 4·19를 근대혁명으로 규정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4·19는 의식·무의식으로 혁명의식이 조성되어 그것을 뒷받침해서 결정적으로 성공한 근대에 우리 민족이 내부적으로 근대화하는 계기가 된 근대혁명이며 동시에 처음으로 민주주의의 감각을 표출한 민주혁명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흥미로운 것은 5·16혁명[이들은 이를 혁명이라 말한다]에 대해서 이들이 높은 기대를 했었다는 것이고, 당시에는 배반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참신한 정치인인줄 알았던 박정희와 박정권의 민족적민주주의에 일정정도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6·3 한일굴욕외교반대투쟁으로 박정권의 본질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6·3 한일굴욕외교반대투쟁을 한편으로는 실패라고 규정하면서도, 그 동기의 순수성과 합리성을 적극 긍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학생운동에는 실패란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비록 현실구호에서는 실패한 듯 하지만, 그 순수성은 역설적이게도 성공한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정열에서 자유·정의·진리의 의식무장을 굳게한 순수한 학생운동을 지속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10. 연구의의

비록 좌담이기는 하지만, 6·3 한일굴욕외교반대투쟁에 대한 당시 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당시 학생들의 이념적 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글이다.

1. 제목: 「한국 학생운동의 전개와 그 평가: 70년대를 중심으로」, 『전남대 무등학총』 18집

2. 저자: 전남대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생회 편집부

3. 발행연도: 1986년

4. 쪽수: 19쪽

5. 형식: 잡지·저널·기타

6. 발행처: 전남대학교

7. 목차

I. 머리말

II. 학생운동이란 무엇인가?

(1) 전체운동과 부분운동

(2) 학생운동의 특수성

III. 70년대 이전의 학생운동의 전개와 그 평가

IV. 70년대 학생운동의 전개와 그 평가

(1) 70년대 전반 국내의 상황과 모순구조

(2) 70년대 전반 학생운동의 전개와 평가

(3) 긴급조치 9호시대 학생운동의 전개와 그 평가

V. 80년대 전반기 학생운동의 전개와 그 전망

8. 연구목적

학생의 존재적 지위와 학생운동의 역할에 대한 규정을 기초로 하여, 한국학생운동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당면한 정세(85년) 하의 올바른 학생운동의 위상 정립을 모색하고자 함.

9. 연구내용

86년 당시 학생회 일꾼들이 작성한 글로 80년대 학생운동 초반기 운동권의 문제의식을 잘 읽을 수 있는 글이다. 저자들은 전체 운동 중에서 학생운동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논의를 전개하는데, 학생의 존재적 특성을 우선적으로 밝히고 있다. 즉 학생은 근대의 소산물이라는 점과 집단적으로 학문을 연구하고 진리탐구를 한다는 집단적 성격, 그리고 청년층이라는 학생의 특수성에 의해 규정을 받게 되며, 이러한 근대적 성격이 민주 사회에 있어서 학생들의 실제적인 역할을 규정짓는다. 이러한 학생운동의 존재적 특성에서 지식인적, 무계급적인 비노동주체라는 특성에서 유출되는 인식의 운동유발, 지속, 방법론에 미치는 중요성은 학생운동을 이해하는 관건이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학생의 존재 특성을 밝힌 후, 저자들은 6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 학생운동이 전개된 상황 속에서, 당시의 모순구조, 모순에 대한 인식태도, 역사의 주체인 민중에 대한 실천인식태도, 당시 실천에 대한 기본이념과 그 방법, 당시의 이념적 유산을 차례대로 밝히고 있다.

저자들의 4·19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우선 4·19는 분단의 고착화, 외세에의 종속성, 경제의 독점화와 그에 기초한 독재권력의 형성과 같은 구조적 모순구조로 인해 필연적으로 야기된 것이며, 반독재 민주회복의 이념을 그 운동목표로 설정케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적인 열망을 갖는 자유민주주의, 민족주의 등의 실천이념으로서의 소시민적 낭만성을 그 한계로 갖고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4·19의 역사적 의의를 찾는다면, 저자들은 그것의 민중지향성의 맹아에서 찾는다.

다음으로 60년대 학생운동에 대해서 저자들은 물질 토대가 미약한 반독재 민주운동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한계를 안고 1970년대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70년대 학생운동은 60년대를 계승한 반독재 민주회복운동 및 반외세 민족주의 운동의 이념을 전개시키는 한편 민중민주주의의 이념을 전개시켰는데, 70년대 학생운동의 주요한 흐름은 반유신, 반독재,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고 기층민중, 지식인 등과 광범위한 연대를 이룩해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민중지향적 성격이 보다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자리잡기 위한 노력들은 80년대 학생운동의 과제라고 한다.

저자들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 60년대, 70년대에 있어 왔던 학내투쟁지향과 학외 현장 지향에 대한 이론적 작업들이 보다 구체화되어 간다고 보고, 이러한 구체화된 내용들을 낙관론적 입장, 준비론적 입장, 주전론적 입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각각의 장단을 논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85년 당시의 정세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85년 들어서 학생운동의 활발한 전개와 타 운동권의 비약적 발전으로 운동공간의 양적 확산과 운동질의 향상으로 반독재, 반외세 운동은 그 목표달성이 눈앞에 다가오는 듯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들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선부른 판단보다는 실천적 역동성에 있음을 주장하고 글을 맺는다.

10. 연구의의

80년대 학생운동의 형성기에 학생운동권의 특정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글이다. 다소 거친 논리 전개와 주의주의적 편향이 지적될 수 있다.

1. 제목: 『한국학생민주운동사: 1945~1960』

2. 저자: 정국로

3. 발행연도: 1995년

4. 쪽수: 703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도서출판 반

7. 목차

- 제1편 건국 및 호국 학생운동
 - 제1장 주체적 학생 건국운동
 - 제2장 호국 및 구국 학생운동
- 제2편 한국학생 민주화의 대장정
 - 제1장 한국학생 민주 혁명의 역사적 배경
 - 제2장 초기 민주화 학생운동
 - 제3장 경무대앞 총돌 사건과 그 역사적 의의
 - 제4장 자유당정권의 말기적 행태와 필화사건
 - 제5장 4·19 혁명의 전개과정
 - 제6장 4·19에 관한 역사적 시각의 변천

8. 연구목적

대한민국의 건국부터 4·19 민주혁명까지 학생운동을 정리하는 것이다.

9. 연구내용

‘건국 및 호국 학생운동’에서는 해방 초기의 상황, 남북한의 초기 학생운동의 등장, 신탁통치, 국립대학설립안,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 등의 쟁점을 둘러싼 좌우의 학생운동의 대립, 호국·구국 학생운동으로서 학도호국단 활동 그리고 한국전쟁시기 자유수호 학도의 활동을 다룬다.

‘한국학생 민주화의 대장정’에서는 민주화를 추진하는 학생운동이 등장하게 되는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 휴전 이후 학생운동, 자유당의 파행적 작태, 5·15 대선 직전의 공명선거 추진 학생운동, 경무대 앞 총돌사건, 자유당 정권의 말기적 행태와 필화사건, 그리고 4·19 혁명의 전개과정을 다룬다.

특히 4·19 혁명의 전개과정에서는 혁명전의 학생 동향과 혁명 주도세력, 공명선거추진 전국학생위원회의 활동, 3·15 부정선거와 마산 시민의 의거, 이후 학생의 총궐기와 4·19 혁명, 자유당 정권의 붕괴를 자세히 다룬다.

10. 연구의의

철저한 반공주의의 입장에서 1945년~1960년 기간의 학생운동을 정리하였다. 반공주의에 편향된 시각에서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한국학생운동의 역사를 축소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1. 제목: 『한국학생건국운동사: 반탁·반공 학생 운동 중심』

2. 저자: 한국반탁·반공학생운동기념사업회

3. 발행연도: 1986년

4. 쪽수: 684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반탁·반공학생운동기념사업회

7. 목차

- 제1편 반탁·반공 학생운동의 역사적 배경
- 제2편 반탁·반공 학생운동의 전개
- 제3편 북한의 6·25 남침과 학도의 참전

8. 연구목적

1980년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학생운동을 비판하고 반탁·반공 건국 민주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사를 정립하는 것이다.

9. 연구내용

제1편에서는 해방 직후의 정치·사회 격변, 해방 직후 학생 동향, 신탁통치안의 결정과 거족적 반탁운동을 기술한다. 이를 통해 해방 직후 좌우로 분열된 학생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고 이 과정에서 이 글은 신탁통치를 찬성한 좌파를 비판한다.

제2편에서는 반탁·반공 학생운동의 태동, 반탁 전국 학생총연맹의 문화운동과 반탁투쟁, 전국 학생총연맹의 문화·계몽운동과 건국운동, 기타 학생단체, 대한민국 학도호국단의 발족을 기술한다.

구체적으로 제1장에서는 신의주, 평양, 함흥에서의 반소·반공 학생 의거, 조선 유학생 동맹의 반공활동 및 각 전문학교의 반탁 운동을 기술한다. 제2장에서는 반탁 학련의 발족, 1946년 1·18 반공의거, 대북 공작대의 활동, 1946년 3·1절 기념행사, 전국 학생 비상 총결기 대회, 반탁 학련의 계몽·문화운동, 미소공동 위원회 시기 반탁 학련의 활동을 기술한다. 제3장에서는 전국 학련의 결성 및 선언문·결의문, 문화·계몽운동과 건국운동, 국대안 파동 시 전국 학련의 학원 수호투쟁, 전국 학련의 지방 조직 및 그 활동, 전국 학련의 해체 및 반탁 동지회의 발족을 기술한다. 제4절에서는 건설 학생 총연맹, 서북 학생 총연맹 등의 조직과 활동을 기술한다. 제5절에서는 대한민국 학도호국단의 발족을 기술한다.

제3편에서는 북한 공산집단의 도발과 동족상잔의 비극, 자유수호 학도의 참전을 기술한다.

제1장에서는 북한 공산집단의 도발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기술하고, 제2장에서는 자유수호 학도의 참전을 지역별로 다루고 전쟁 시기 전국 학련 구국대, 대한 학도 의용대, 제일 학도 의용군의 활동을 기술한다.

10. 연구의의

이 책은 그 동안 정리되지 않았던 해방 직후 및 한국전쟁 시기의 반탁·반공 성향의 학생운동의 역사를 발굴·정리하였다. 그러나 극단적인 반공주의에 편향된 시각에서 역사를 정리함으로써 반탁·반공을 지향하지 않은 모든 다른 학생운동을 누락시킨 한계를 지니고 있다.

1. 제목: 「미군정기 학생운동에 관한 고찰」

2. 저자: 박재선

3. 발행연도: 1988년

4. 쪽수: 84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중앙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7. 목차

- I. 문제의 제기
 1. 연구목적과 연구문제
 2. 연구방법과 한계
- II. 미군정기 교육정책과 학생운동
 1. 신식민주의와 학교교육
 2. 미군정기 교육정책의 문제
- III. 미군정기 학생운동의 성격
 1. 학원의 민주화와 학생운동
 2. 민족자주성 회복과 학생운동
 3. 학생운동 조직의 분열과 와해
- IV. 요약과 결론

8. 연구목적

미군정기 학교교육과 일반정책을 통하여 필치고자 했던 신식민지 정책과 그에 대항하여 투쟁했던 학생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를 교육부분과 관련지어 학생운동의 교육사적 의의를 찾아보고자 함.

9. 연구내용

저자는 전후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재편을 구식민지적 지배에서 신식민지적 지배로 파악하고, 신식민지 국가들의 교육통제와 이에 저항하는 학생운동에 대한 문제제기를 던지면서 글을 시작한다. 전후 신식민주의 상황하에 있는 국가들은 전후 신식민주의 교육체제로의 불가피한 재편을 가져왔고, 이때 교육개혁의 특징은 구식민주의 교육의 운존 위에 신식민주의 교육을 이식시킨 교육의 중층구조로 귀결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저자는 간략하게 구식민주의 교육의 특징을 탐색하여, 식민주의하의 학교교육이 식민주의 상황을 정당화시키는 정치적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신식민주의 국가의 교육개혁을 정리한다. 신식민주의 정부는 식민주의 교육을 청산하고 민족주의 교육을 실시한다는 미명아래 일련의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시도한다. 그러나 철저한 정치·경제적 혁명을 거치지 못한 신식민주의 상황하에 있는 국가들의 교육개혁의 노정된 방향은 안으로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아래 민중의 요구를 무시한 채 강한 중앙집권적 교육체제의 구축을 꾀하며, 밖으로는 새로운 중심국의 교육을 모방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신식민주의 상황하의 교육의 신식민성 상황과 국가의 교육통제 상황이 결부될 때 학생운동의 지향점이 파악될 수 있다. 즉 학생운동의 방향은 교육의 통제구조와 신식민주의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의 민주화와 민족주의 교육을 지향하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와 같이 학생운동이 신식민주의 교육 통제 상황에서 교육의 민주화와 민족화를 지향한다는 관점 아래에서 미군정기의 교육정책과 관련지워서 학생운동의 성격을 분석하고 있다.

우선 저자는 학생운동의 일반론적 특성과 한국학생운동의 성격을 제시한다. 학생운동은 해방을 목적으로 하는 저항운동의 일환으로서, 학생대중의 지지력을 기반으로 학생에 의해 주도되는 부분적, 지속적 운동을 지칭한다. 특히 한국의 학생운동은 한국 사회구조의 총체적 변혁을 희구하는 운동이며, 이러한 전체운동의 부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재규정하는 운동이라고 한다. 민족사와 관련하여, 한국의 학생운동은 민족사의 좌표를 제시하면서 그 선도성과 민주지향성을 견지하면서 발전하였고, 이 과정에서 객관적·과학적 인식의 지속적인 제공, 이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운동론의 정립, 그리고 이것을 보다 철저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헌신적 자세가 그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저자는 미군정기의 교육정책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선 2차 대전 이후 한국의 정치·경제적 편성과정을 간

략히 고찰한다. 미군정기는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등 광범한 영역에 걸쳐 미국문화의 제도적 수용이 이루어졌던 시기였다. 해방 당시 한국의 교육과제는 일제 교육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의 요구에 기초한 민주·민족교육을 정착시키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의 교육정책은 단지 일제의 교육을 미국식 교육으로 바꾸어 놓는 것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미군정기 교육정책은 학생들의 항거에 부딪치게 된다. 특히 교육정책과 관련된 학생운동은 무허가 학교 폐쇄령에 의한 경성 법정학교의 폐쇄와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안 반대운동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밖에도 청주일중 사건, 숙전 이삼실교수 사건, 서울대 도상록교수 사건 등 학원민주화를 위한 학생들의 노력과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한 학생들의 저항이 미군정기에 활발히 전개되었다.

학원의 민주화와 관련한 학생운동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미군정의 경성법정학교 폐쇄에 대한 저항과 국립 서울대학교 설치안(국대안)에 대한 반대투쟁을 제시하고 있다. 미군정은 좌익성향이 강한 경성법정학교의 인가를 미루다가 폐쇄시켰고, 학생들은 법교 폐쇄반대투쟁위원회를 조직하여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학생들은 미군정의 의도대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식민화를 위한 도구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그러한 학교교육은 미국식 민주주의와 냉전이데올로기를 전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민족의 자주독립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깨닫고 이를 거부한 것이다.

다음으로 국대안은 국립서울대학교 간판 아래 구경성대학을 중심으로 일본통치 시대의 관공립 전문학교를 전부 통합하여 관료 이사회가 대학의 운영권을 장악하는 이사회의 제도 아래 일본식 교육체제를 미국식 교육체제로 바꾸려는 하나의 시나리오이면서, 동시에 남·북한 고정화의 과정과 함께 진행된 학원내 좌익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요소가 있는 것이었다. 즉 학원의 정치적 통제 내지 중앙집권적 교육제도를 구축하려는 요소가 있었던 것이다. 학생들은 국대안 반대 학생투쟁공동위원회를 결성하여 저항하였으나, 미군정의 힘에 의해 결국 국대안은 약간의 손질을 거쳐 시행되게 된다. 이러한 학생들의 국대안에 대한 저항은 학원의 자유와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경성법정학교 폐쇄반대 투쟁과 국대안 설치 반대투쟁과 관련하여, 저자는 해방일보, 조선인민보, 독립신보 등 당시의 일차자료에 근거하여 그들의 성명서를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여 표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저자는 신탁통치로 인해 좌·우로 갈라진 학생운동의 논리를 소개하고, 이를 평가하고 있다. 신탁통치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어 학생들도 찬·반탁 세력으로 서로 나뉘어져 극한적인 투쟁을 전개하게 되는데, 저자는 이들의 주장을 당시의 일차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성명서를 그대로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저자의 특이한 분석은 당시의 학생운동을 단순히 좌·우대립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데 있다. 즉 이들 학생조직의 성명서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탁치에 대해서는 찬·반탁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지만 그들은 민족자결, 자주독립국가 수립, 일제 잔재 해소, 민주적 통일정권 수립 등에 대해서는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비록 찬·반탁 문제와 국대안 문제로 좌·우 대립이 심화되었다 하더라도 찬·반탁을 둘러싼 학생들의 주장과 국대안 반대투쟁 속에 나타난 학생들의 저항은 민족의 자주성을 위한 노력이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고 한다. 저자는 해방후 좌·우익으로 대립하게 된 학생운동 조직들(조선학도대, 조선학병동맹, 재경학생통일촉성회, 서울학생통일촉성회, 조선유학생동맹, 서북학생연맹, 조선학병단, 반탁학생총연맹, 건국학생연맹, 명학동지회, 전국건설학생총연맹, 이북학생총연맹, 전국학생총연맹, 한국반공학생총연맹)을 창립일, 창립목적, 활동내용, 대표자들까지도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계보까지 정리한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분단 직후의 학생운동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분단 직후의 학생운동은 그들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서로 투쟁하고 싸웠지만 학생운동의 공통된 지향점은 분단극복과 민족자주정부 수립이었다. 학생운동은 특정한 이데올로기의 실천운동도 아니며,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폭력적인 운동도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분단 직후의 학생운동은 결과적으로 분단을 고착화하는데 기여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시 학생운동의 궁극적

인 의미는 반외세 자유 민족해방투쟁의 실천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10. 연구의의

비록 학생운동이 해방공간에서 좌·우익으로 대립했던 문제의 심각성을 큰 틀에서 반외세 자유 민족해방투쟁의 실천으로 해소시키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잘 조명되지 않은 해방공간에서의 학생운동의 특징을 1차 자료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글이다.

1. 제목: 『6·3학생운동사』

2. 저자: 6·3동지회

3. 발행연도: 2001년

4. 쪽수: 662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역사비평사

7. 목차

제1부 6·3학생운동의 원인과 배경

제2부 6·3학생운동의 전개

제3부 대학별 6·3학생운동의 실상

제4부 6·3학생운동의 의의와 6·3세대의 임무

제5부 6·3학생운동 관련자료

제6부 6·3동지회 약사와 활동

부록 6·3학생운동의 재조명과 오늘의 좌표

8. 연구목적

6·3운동이 역사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리기 전에 그 실상을 기록으로 남겨 6·3학생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는 계기가 되게 하고자 함. 나아가 민주개혁과 국가발전의 전기가 되기를 기대함.

9. 연구내용

이 책은 6·3세대들이 자신들이 참여한 6·3학생운동의 의의를 역사 속에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방대한 분량의 책자이다. 이 책은 6·3학생운동의 발생원인과 전개과정, 그리고 6·3세대의 임무까지 서술하고, 6·3학생운동과 관련된 광범위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사료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저자들은 6·3학생운동의 원인과 배경으로부터 시작한다. 6·3학생운동의 원인은 직접적으로 군사독재정권의 굴욕적인 한·일 회담에 대한 반대라고 할 수 있고, 보다 크게는 한국 현대사 50년의 민주화과정의 한 계기로 고찰하고 있다. 한·일회담의 경제적 배경은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제성장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에 필요한 해외자본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한·일 회담의 군사·정치적 배경은 냉전 하의 집단안보체제를 확보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의해서 동북아의 안보체제에 일

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정희 정권은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강행하게 되었고, 학생들과 민주세력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저자들은 한·일회담의 구체적인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이의 내용과 쟁점을 기본관계, 대일 재산권 청구 문제,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 평화선·어업 문제, 문화재 반환 문제, 독도의 귀속문제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저자들은 구체적으로 6·3학생운동의 전개과정을 두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로 1964년 굴욕회담 반대운동이고, 둘째로 1965년 한·일협정 비준반대운동이다. 6·3운동은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하고, 한·일협정 비준을 반대한 운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강행한 반민족적인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에 항거한 민족적 민주주의 운동이었다고 평가한다. 6·3운동 세력들은 당시에 한·일회담이 타결되고, 박정희 정권의 반민족성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남에 따라 운동의 목표와 방식을 변화시켰고, 후기로 갈수록 앞선 운동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였다고 한다. 저자들의 논의에 따라 6·3학생운동의 전개과정을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로 1964년의 6·3데모는 ① 3·24시위로 시작하여 4·17시위를 경과한 초기투쟁, ② 5·20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과 5·25 '단국타개학생총궐기대회'로 한·일굴욕회담에 대한 반대투쟁이 연합적 성격을 띠면서 본격화하기 시작한 시기의 투쟁, ③ 6월 2일과 3일의 격화된 시위와 6·3계엄령 선포로 64년의 투쟁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결정적 투쟁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로 1965년 한·일협정비준반대투쟁은 ① 3월 31일 전남대 시위로 시작되어 4월 10일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한·일협정 가조인반대투쟁, ② 5월의 '학원자유수호궐기대회' 등으로 부산했던 5월투쟁, ③ 서울법대생의 200시간 단식투쟁으로 본격화된 대학가의 단식투쟁 등 65년 투쟁의 절정을 이루었던 6월의 한·일협정 정조인 반대투쟁, ④ '정치방학'의 공백을 메운 '한·일협정 비준반대 각 대학연합체'의 한·일협정 비준반대투쟁, ⑤ 대학가의 개학과 더불어 재개된 8월의 한·일협정 비준무효화투쟁, ⑥ 위수령 발동과 '정치교수' 징계, 연·고대의 휴업령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강압적 학원탄압으로 한·일협정 반대투쟁의 파고가 잦아드는 9월 이후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저자들은 이상의 시기구분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들은 박정희정권의 초기집권기였던 6·3학생운동의 기간은 박정권과 학생운동세력 양측 모두에게 매우 중대한 시기였다고 한다. 박정권에게는 6·3학생운동이 아직 공고화되지 않은 권력의 기반을 다져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어려움이 더욱 컸으며, 학생운동세력에게는 5·16쿠데타세력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투쟁이라는 점에서 향후 학생운동의 진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저자들은 6·3학생운동은 학생시위에 대해 정부가 계엄령과 위수령을 발동하게 하는 등 정부의 초강경 진압책을 유발함으로써 박정희 군사정권의 폭력성을 드러내게 하였고, 최초의 집단적 단식투쟁을 전개함으로써 학생운동의 사회적·정치적 파급력을 대폭 높였다고 평가한다.

6·3학생운동은 2년여에 걸쳐 전개된 장기간의 대규모 대중투쟁이었다. 따라서 구속자도 총 500여 명에 이르고 연행자와 부상자 제적생은 수천 명에 이를만큼 커다란 희생을 치렀다. 그러나 저자들은 이러한 수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6·3학생운동이 사회 각계의 지원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땅의 민주주의와 민족자존을 지키는 데 커다란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고 의의를 밝힌다. 6·3학생운동을 통해 형성된 민주주의와 민족자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은 그후의 한국역사에 면면히 살아 지금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책에서는 총론적인 6·3학생운동의 전개과정을 고찰하는데 그치지 않고, 각급 학교에서 어떻게 투쟁이 구체적으로 전개되었는가를 소개하고 있다. 이는 자칫 사라질지도 모르는 각급 학교의 6·3학생운동에 대한 자료들을 취합하여 소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구체적으로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동아대, 명지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전남대, 제주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총 20개 대학의 광범위한 사례를 차례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각급 학교의 투쟁사례 뿐만 아니라, 1964년과 1965년 당시에 존재했던 학생들의 연합조직운동까지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한·일굴욕회담반대학생총연합회,

난국타개전국학생대책위원회, 한·일협정비준반대각대학연합체 등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저자들이 보는 6·3학생운동의 의의와 6·3세대의 임무는 무엇인가? 저자들은 6·3학생운동의 성격과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즉 6·3학생운동은 조국의 민주주의와 민족자존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족자존을 포기한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대항하여 투쟁하였던 운동이라는 것이다. 6·3학생운동이 역대 군사정권 하에서 역사적 조명을 받지 못한 채 묻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러한 상황 때문이었다고 한다. 저자들은 오늘날 문민정부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민족자존이 바로 6·3학생운동이 추구했던 이념과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6·3학생운동이 군사독재에 대한 최초의 항쟁이었으며, 문민정부 수립을 위한 시원적인 운동이었다는 의의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6·3학생운동은 민족운동사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저자들은 6·3학생운동세대의 역사적 사명을 규정한다. 문민 내지 국민정부의 개혁은 우선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일에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곧 민족적 자주와 평화적 통일로 이어지는 민족적 개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개혁을 민주주의와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이라는 국민적·민족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확장시켜 가는 것도 6·3학생운동 주역의 과제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6·3세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첫 번째, 단기적·직접적인 과제로 현 한국정부의 개혁이 계속 확대·발전해가도록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 장기적·포괄적인 과제로 개혁이 갖는 미래지향성이 적극 발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저자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유산으로 인해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개혁이 아직도 헤게모니를 관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명이 더욱 높다고 말하면서 역사적 사명에 대한 입장을 끝맺는다.

다음으로 참고할 만한 것은 이 책의 제 5부에 실린 6·3학생운동 관련자료들이다. 여기에는 6·3학생운동 관련 성명서 및 선언문, 6·3 당시의 사회여론과 학생들의 연구보고서, 한·일협정 전문, 6·3운동 관련일지 등의 1차 자료에 준하는 자료들이 상당히 실려 있다. 6·3학생운동을 다루고자 하는 연구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사료라 할 수 있다.

10. 연구의의

한국학생운동사에 대한 통사가 주를 이루고 각론적인 논의가 부족한 현실에서, 당시 실제로 운동을 주도했던 6·3동지회에서 6·3학생운동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광범위한 책자를 출판했다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크다. 특히 1차 자료와 당시 각 학교별 투쟁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는 2차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 제목: 「'4월혁명기' 학생운동의 배경과 전개: 학원민주화운동과 국민계몽운동을 중심으로」

2. 저자: 정계정

3. 발행연도: 1995년

4. 쪽수: 76쪽

5. 형식: 석사학위논문

6. 발행처: 성균관대 대학원 사학과

7. 목차

I. 1950년대 대학사회와 주도세력의 성장

II. '4월혁명기' 학원민주화운동과 국민계몽운동

맺음말

8. 연구목적

이 글은 1950년대의 학도호국단과 사학재단의 운영, 그리고 '4월혁명기'의 학원민주화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을 고찰함으로써 '4월혁명기' 학생운동의 전체상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9. 연구내용

이 글은 먼저 4월 혁명기 이전의 대학생들이 처해 있던 억압적 상황과 이후 학원민주화운동의 배경을 분석하기 위한 전제로서 1950년대 반공이데올로기를 공고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 학도호국단의 활동 및 당시 사립재단의 부도덕한 학원운영을 고찰한다.

학도호국단은 이승만 정권의 반공문교정책에 의해 1949년 조직되었는데, 군대와 같은 조직으로 철저히 '위계화'되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었다. 이는 50년대 내내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각종 관제 행사에 동원되었으며 학내 학생 회활동에 대한 통제기능을 발휘하였다. 또한 당시 대학과정에서 군사훈련은 필수과목이었고 입대훈련을 기피하는 자는 졸업이 불가능했다.

당시의 사학재단은 설립자의 불법적인 변경, 이사진 구성의 족벌체제화, 학교 운영 과정에서 등록금 유용과 사유 재산화 등의 비리로 점철되었다. 여기에 학교시설의 부족, 무자격·무자격의 교수진 및 교수 부족, 학습에 전념할 수 없는 학생의 조건 등은 대학사회의 문제를 심화시켰다.

이에 따라 50년대 중반 이래 학도호국단과 사학재단에 대한 비판은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학도호국단 간부들 중에서도 이 체제를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 만연은 대학에서는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욕구를 더욱 증폭시켰다. 따라서 학도호국단 간부들 중 일부는 4·19를 전후에 데모를 도모하고 성사시키는데 일정하게 기여하였고 이후 자치학생회의 간부가 되었다.

한편 50년대 후반 대학내 학회와 씨클은 대외적인 활동에 집중했던 학도호국단보다 학생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었다. 이러한 학회 및 씨클의 긴밀한 관계는 4·19 시위에서 대학생들의 동원에 기여하였으며, 1960년 2월 민주당과 재야세력이 결성한 '공명선거추진전국위원회'에서의 활동에도 다수 참여하도록 만들었다.

다른 한편 50년대 중후반부터 반공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진보적 이념에 관심을 가진 학생 씨클—서울대의 신진회, 신조회, 후진사회연구회, 경우회, 사경회, 고대의 협진회 등—이 형성되었다. 이 씨클들은 학생운동적 성격을 지니고 출발한 것은 아니었고 사회과학 연구 모임의 성격을 띠었고, 엄혹한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논의 이상의 실질적인 활동은 하지는 못했다.

다음으로 4월 혁명기 전개된 학생운동은 학원민주화운동, 국민계몽운동, 자주화통일운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학원민주화운동은 전국 63개 대학 중 30개 이상에서 일어났으며 사립대학에서 더욱 심각했는데, 운동의 주 내용은 학도호국단 해체, 자치학생회 건립운동, 어용교수 축출과 부패재단 정화 등이었다.

국민계몽운동은 각 대학의 자치학생회, 학회, 또는 씨클을 중심으로 7·29 총선의 계몽을 위해 시작되었고 지역적 특징에 따라 농촌계몽운동과 신생활운동으로 내용을 달리하였다. 농촌계몽운동의 실질적 내용은 7·29선거의 계몽이었고, 신생활운동은 외제 사치품 배격과 관용차의 사용화 금지 등이었을지라도 원조에 대한 비판과 미약하나마 미국에 대한 경제자립의 요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7·29 총선에서 제기된 통일논의에 영향을 받은 진보적 씨클들은 위의 두 운동에 대해 제한적이지만 긍정성을 인정하면서도 참여하지 않고 학습과 토론을 통해 새로운 운동을 모색하였다. 서울대의 일부 진보 씨클들은 통일운동체인 민통련을 조직하고 민자통이 주도하던 한미경제협정 반대투쟁과 2대약법 반대투쟁 등에 참여하여 대중투쟁을 전개하였다.

결국 이 글은 4월혁명기 학원민주화운동과 국민계몽운동이 1950년대라는 시대적 조건 속에서 운동의 경험과 의식의 성장을 기할 수 없었던 학생들의 역량과 그 밖의 객관적인 조건의 반영, 곧 혁명적 공간에 대한 경험부재와 이

론의 빈곤으로 운동의 전망을 찾지 못한데서 비롯된 과도기적 운동이라고 평가한다.

10. 연구의의

그동안 '4월혁명기'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학원민주화운동과 국민계몽운동을 다루었고, 두 운동의 배경을 이루는 50년대 사학재단의 운영실태와 주도세력의 성장에 최초로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1. 제목: 「민족민주운동으로서의 4·19시기 학생운동」, 『역사비평』 1집

2. 저자: 김동춘

3. 발행연도: 1988년

4. 쪽수: 18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역사비평사

7. 목차

1. 머리말
2. 4·19의 객관적 조건과 운동의 전개과정
 - (1) 사회·경제적 조건
 - (2) 4·26 이후 학생운동의 전개과정
3. 4·19운동의 주체와 이념상의 제문제
4. 4·19 학생운동의 한계 및 이후의 학생운동에 미친 영향
5. 맺음말

8. 연구목적

한국학생운동의 진로모색과 전체 변혁운동의 진로 및 토양으로서 한국사회의 객관적 특성에 대한 해명작업의 일환으로 4·19학생운동을 재조명하고자 함.

9. 연구내용

한국사회에서 학생이 차지하는 위치, 변혁운동의 주체형성의 측면에서 학생운동이 갖는 위상과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1980년대 초반 이후 계속되어 왔고 이러한 논쟁은 4·19 학생운동에 대한 재접근을 더욱 요청하고 있다. 이것이 저자가 4·19학생운동을 조명하는 이유이다. 저자에 따르면 6·25 이후 남한 학생운동의 원류는 4·19에서 찾을 수 있으며 4·19 학생운동은 이후의 학생운동의 전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의 학생운동가 역시 자신의 역사적 정당성을 4·19에서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4·19 학생운동에 대한 재조명 작업은 학생운동의 진로모색을 위한 전제로서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전체 변혁운동의 진로 및 그 토양으로서 한국사회의 객관적 특성에 대한 해명작업의 일환으로도 적극적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특징으로부터 분석을 시작한다. 50년대 한국사회의 구조적 특징은 사회·경제구조의 신식민지적 질서로의 재편, 분단구조의 조건이 초래한 변혁운동세력의 완전한 거세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중들의 사회변혁에의 열망은 사실상 거의 유일한 정치참여 통로인 선거를 통해서 표출될 수밖에 없었다.

선거 자체는 부르주아 질서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기제이지만, 주체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선거제도는 역설적으로 지배집단의 기반을 위협할 수 있는 통로로 기능하게 되었다. 1960년 3·15선거 직전에 형성되었던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기대감은, 단순히 선거를 통한 야당의 승리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사회질서에 대한 희구가 응축된 것이었다. 이러한 선거가 지배집단의 폭력적 선거조작에 의해 좌절되었을 때 그 불만 또한 단순한 선거부정에 대한 비난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저자는 4·19가 선거를 계기로 하여 촉발된 까닭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

‘부정선거규탄’으로 출발한 4·19는 부정선거의 궁극적인 책임자인 이승만과 자유당의 실각만으로도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임에 분명하지만, 4·26 이승만 하야는 운동의 종결이 아니라 운동의 시작이라는 사실은 이후의 운동의 전개 과정 속에서 분명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저자에 따르면, 이후의 학생운동의 전개는 4·19의 진정한 배경이 이승만의 독재가 아니라 사회의 총체적 변혁의 요청이었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이승만 하야 이후 학생들은 학원으로 돌아가 학원민주화 운동에 전념하였는데, 곧 학생들은 4·19에서 그들이 주장한 정치 변혁의 요구는 학원민주화운동만으로는 성취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국민계몽운동, 신생활운동, 7월 총선예의 참가운동은 학생들이 시야를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시키면서 전개한 운동인데, 7월 총선에서 반혁명세력의 존속, 4·19 범법자와 부정축재자의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기성 보수야당의 무능력, 사회에 만연한 부정과 부패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학생들은 문제의 초점을 분단현실로 돌리기 시작하였다. 1960년 8월 18일 발족된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연맹’은 단시일내에 중앙의 9개 대학과 지방의 4개 대학으로 조직을 확대하였고 1961년 5월, 5·16 발생 직전에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으로 발전된다.

이러한 사건의 추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4·19의 주체로서 학생들이 통일문제에 관심을 돌리게 되는 것은 모순의 뿌리가 분단국가의 특성에서 유래되는만큼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신식민지 사회, 그것의 극단적인 형태인 분단사회에서 민주변혁운동의 완수는 곧 민족통일의 실현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민주변혁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요청, 즉 민족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문제제기는 지배계급의 기반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저자는 이러한 위협을 단순한 세대간의 갈등이 아니라 친미, 친일, 단독정부 옹호세력 일반에 대한 민중들의 도전이었다고 평가한다.

저자는 민족통일의 문제제기에서 총괄된, 민주주의변혁·반외세·민족통일의 요구는 일부 독점자본, 친일엘리트, 극우인사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변혁의 객관적인 과제였고, 그것은 다름아닌 4·19의 주체인 학생들에 의해 제기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는 반민주세력의 위기의식과 단합을 촉진하여 결국 5·16 군사쿠데타로 귀결된다. 따라서 권력의 헤게모니는 분단사회를 유지하는 데 좀 더 효율적인 집단인 군부에게로 전이되고 학생, 진보적 지식인은 정치의 장에서 거세되고 민중의 계급적 진출은 좌절을 맛보게 된다. 저자는 당시 학생들의 문제제기가 반외세·민족통일을 통한 식민지유제의 청산과, 자주적 국민국가의 건설이라는 변혁운동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전략적 청사진 속에 올려놓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문제제기만으로도 기존 지배계급을 공포에 떨게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평가한다.

다음으로 저자는 주체의 문제를 고찰한다. 저자에 따르면, 4·19 운동의 주체 문제를 살펴볼 때 4·19에서 등장한 학생세력은 민중의 대리자로서 강조점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시 민중이 성장하지 못했으므로 학생들이 정치의 장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현상적으로는 민중이 가장 억압받는 계층이면서도 능동적 운동세력으로 등장하지 못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이들의 임무를 대리하였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왜 학생들이 민중을 비롯한 국민 대다수의 대리자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문제는 남한사회의 변혁운동의 과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밀으로부터의 민족통일전선 결성에 의한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지 못함으로써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지배질서는 파쇼하의 법령과 같이 전사회를 질식시키는 비민주적인 법에 의해 유지되었고, 민주변혁과 민족해방의 수행이라는 객관적 요청은 국가의 지배력이 가장 미약하게 미칠 수밖에 없는 학생집단에 의해 표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의해 제기된 민주주의 실현의 요청은 서구

식 민주주의를 그대로 실천하자는 것이 아니라, 8·15 이후 여러 조건에 의해 유산된 민주주의변혁을 완수하자는 것이었다.

이제 4·19의 한계를 살펴보면, 이는 학생운동 일반이 갖는 한계 속에서 설명될 수 있다고 한다. 학생은 생산 제 영역에 존재하지 않고, 직접적인 정치세력이 아니므로 그들의 운동은 언제나 여타 계급운동과 접맥될 경우에만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학생은 민중들을 각성시키고, 기존 지배질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계몽적, 폭로적 운동에 스스로를 국한시킬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 민중조직 작업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스스로 민중으로 존재전이를 하지 않는 이상 그의 활동은 학생운동의 일환으로서만 의미를 지닐 것이다. 그러나 당시 4·19의 주체세력인 학생들은 계속해서 운동의 주체집단으로 상정하는 엘리트주의적 발상을 지니고 있었고, 생산계급의 힘과 역할에 대한 인식에는 현저히 도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민중운동, 대중운동의 활성화에 대한 관심의 제고는 4·19 이후 학생운동의 과제이고, 오늘날 학생운동의 고민이기도 하다.

결국 4·19는 분단에 의해 단절된 변혁운동의 흐름을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서 그 출발점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고 저자는 결론 짓는다. 해방 이후 사회변혁운동은 모두 4·19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4·19는 운동의 종결이 아니라 운동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10. 연구의의

4·19의 전개과정에 대한 단순한 현상서술이 아니라 4·19가 가진 당대의 역사적 위상과 한국학생운동의 지위에 대한 면밀한 고찰을 하고 있으며, 4·19 학생운동이 이후에 미친 영향도 정확히 분석하고 있다. 또한 현단계 학생운동의 나아갈 길을 4·19의 경험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1. 제목: 「육·삼학생운동의 전개와 역사적 의의」, 『한국사연구』 88집

2. 저자: 류영렬

3. 발행연도: 1995년

4. 쪽수: 21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한국사연구회

7. 목차

I. 머리말

II. 육삼학생운동의 배경

III. 육삼학생운동의 전개과정

IV. 육삼학생운동의 역사적 의의

8. 연구목적

그 동안 군사정권에 의해 ‘육삼사태’로 평가절하되어 왔던 ‘6·3학생운동’의 배경과 전개과정 및 그 역사적 의의를 고찰하여 정당한 위상을 밝히고자 함.

9. 연구내용

이 글은 1964년 6월 3일 발발한 학생운동이 5·16 군사독재에 대한 최초의 거대한 저항운동이었고 1965년 한일 협정 비준반대운동으로 그 맥이 이어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운동의 배경, 전개과정, 역사적 의의를 설명한다.

우선 6·3학생운동의 배경은 첫째, 미국의 극동방위전략에 따른 한일회담의 추진에서 군사정권의 굴욕적인 자세, 둘째, 일본의 파렴치한 신제국주의적 경제팽창주의, 셋째, 5·16군사정권의 소탐대실의 굴욕적인 한일회담 강행, 넷째, 국민경제의 파탄을 조장하는 매판자본의 발호, 다섯째, 항일운동의 전통과 4·19 학생혁명의 정신 계승이다.

다음으로 6·3학생운동의 전개과정은 시기적으로 초기단계인 3·24데모, 재기단계인 4·19데모, 고조단계인 5·20데모, 절정단계인 6·3데모, 후속단계인 65년 데모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6·3학생운동의 역사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6·3학생운동은 반제국주의의 진정한 민족주의운동이다. 이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모르는 일본지도층의 부도덕성과, 경제원조를 미끼로 다시 대한 경제침략을 노리는 일본의 신제국주의적 작태에 분노와 저항의식을 가지고 민족의 자존과 국가의 이익을 지키려는 반제국주의운동이었다. 또한 우호관계를 저버린 반미운동이 아니라 민족과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원조국인 미국의 간섭에 정당한 비판을 최초로 제기한 민족자주운동이었다.

둘째, 6·3학생운동은 반군사독재의 진보적 자유민주주의운동이다. 학생들은 자유민주혁명을 통해 군사독재정권을 퇴진시키고, 합헌적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셋째, 6·3학생운동은 반매판자본의 건전한 국민경제운동이다. 이는 외국독점자본의 제국주의적 경제침략을 막고 대외적 예속경제에서 벗어나 민족자립경제의 건설을 추구하였으며, 정치와 경제의 '검은 유착'을 배격하고 국내의 매판서 악덕재벌의 횡포를 억제하며,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고 서민생활의 향상과 안전에 역점을 두는 정의로운 국민경제의 건설을 추구하였다.

10. 연구의의

이 글은 운동 발생 30년이 지난 시점인 1995년에 6·3학생운동의 전개와 역사적 의의를 재평가하였다. 그런 만큼 당시에는 주목하지 못했던 운동의 성격과 의의를 새롭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의를 갖고 있지만, 전형적인 사후적 해석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1. 제목: 「70년대 학생운동에 관한 일고찰」, 『고대문화』 24집

2. 저자: 장용수

3. 발행연도: 1984년

4. 쪽수: 21쪽

5. 형식: 잡지·저널·기타

6. 발행처: 고려대학교

7. 목차

I. 머리말

II. 70년대 학생운동의 전개과정

1. 제1기(~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2. 제2기(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 75년 5월 13일 긴급조치 9호 선포)

3. 제3기(75년 5월 13일 긴급조치 9호 선포 ~ 77년 10월 26일 10·26 사태)

III. 70년대 학생운동의 역사적 성격

IV. 맺는말

8. 연구목적

80년 이후의 급격한 정치적 변동 속에서 지나간 시기의 학생운동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70년대의 폭력적 현실 속에서도 씩 없이 투쟁을 전개하였던 학생운동의 여러 경험들을 평가하고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9. 연구내용

이 글은 두 가지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나는 글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70년대 학생운동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간단한 평가와 함께 연대기적으로 소개하고, 후반부에서는 70년대 학생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역사적 의의를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학생운동에 대한 기록이나 평가가 기껏해야 일제하 학생운동이나 4월 혁명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80년대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70년대에 주목한다.

우선 저자는 70년대를 살펴보기 전에 60년대 학생운동을 간단하게 고찰한 후, 70년대 학생운동을 유신헌법의 성립기까지, 그리고 긴급조치 시대, 마지막으로 붕괴기까지 3단계로 나누어 연대기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60년대와 비교되는 70년대의 학생운동의 성격을 규명한다. 즉 70년대로 들어오면서 60년대의 낭만적인 상황인식에서 과학적인 인식으로, 정치문제 일변도에서 사회경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문제의식을 심화시켜 나가는 한편 당시 현저한 사회문제로 나타난 빈민촌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매개로 하여 민중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접하려는 실천적 모색도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여하튼 저자는 70년대에 일어났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소개하는 한편, 매년 매달별로 발생한 사건들을 간략히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70년대 학생운동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에 저항하던 학생운동은 긴급조치 9호로 인하여 침체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긴급조치 9호는 1)유언비어의 날조·유포, 사실의 왜곡 전파 행위, 2)집회·시위 또는 신문·방송·통신 등에 의해 헌법을 부정하거나 또는 폐지를 청원, 선전하는 행위, 3)수업·연구 또는 사전허가를 얻은 것을 제외한 학생들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간여 행위, 4) 동 조치에 대한 비방 등을 금지하고 또 5)이러한 금지를 위반한 내용을 방송, 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전파하거나 그런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 소지하는 행위도 규제의 대상이 되는 등 광범위한 규제내용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이 조치는 79년 10·26사태이후 해제될 때까지 만 4년 6개월 동안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면서 유신체제의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된다. 이러한 긴급조치로 학생운동은 장기간 침체국면을 맞이하게 되고, 77년 들어 다시 활기를 띠게 된다.

결국 박정권은 점증하는 저항세력들의 도전을 폭력적으로 봉쇄하다가, YH사건 및 김영삼 총재 제명 등의 조치로 부마항쟁이라는 민중항쟁에 직면하고, 결국 지배계급 내부의 분열로 인해 몰락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생운동은 79년 10월 16일 이화여대의 시위, 18일 외국어대의 유인물 살포, 19일 서울대의 시위와 전남대 학생지도실 방화, 24일의 계명대 시위 등으로 저항하였다.

저자는 글의 후반부에서 70년대 학생운동의 역사적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70년대 학생운동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민중지향적 성격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학생운동의 민중지향적인 성격은 학생운동이 표방하는 이념의 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60년대의 학생운동에서 나타난 제반 문서들에서는 대부분이 “민족” 또는 “국민”이 상황을 규정하는 기본개념이었으나, 70년대로 들어오면서 “민중”이라는 개념이 역사인식의 기본개념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생운동의 민중지향적 흐름은 학생운동의 내용과 질을 보다 풍부하게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민중을 신비화해 오히려 학생운동의 현실적 의의나 역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결과하여 실제적인 학생운동의 진행을 위축시키기도 하였다. 76년 상반기나 79년 하반기에서 학생운동의 침체는 이와 같은 사실에서 연유하며, 이는 한국 사회 속에서 학생운동의 위치나 역할을 잘못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민중지향의 획득·강화와 함께 70년대의 학생운동은 인식, 조직, 실천 면에서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조직의 측면에서 60년대의 학생운동이 주로 총학생회, 단대학생회 등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단체에 주도되는 것과는 달리, 70년대에는 소규모 이념싸움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것이다. 인식의 면에서는 70년대 들어와서 사회과학적 분석이 심화되고 체계화되었다고 한다. 실천의 면에서는 70년대 학생운동은 60년대의 학생운동과 비교해서 괄목할만하게 전략과 전술적인 발전을 이룩했다고 한다.

저자는 맺는말에서 한국 사회에서 대학의 기능이 사회비판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70년대 학생운동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면서 글을 맺는다. 즉 암흑같은 유신체제하에서도 학생운동은 한국사회에서 부여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사발전의 주체인 민중의 등장을 알리고 그들 편에서 민중의 자기 실현, 즉 보편적 평등과 자유를 실현하려는 노력에 검허하게 동참해 왔다는 것이다.

10. 연구의의

80년대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는 학생운동 관련 문헌의 상황에서 소략하지만 70년대 학생운동을 역사적으로 평가하는 글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저자도 80년대 초반의 상황에서 학생운동에 대한 기록이나 평가가 기껏해야 일제하 학생운동이나 4월혁명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80년대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70년대에 주목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1. 제목: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2. 저자: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
3. 발행연도: 1990년
4. 쪽수: 1652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풀빛

7. 목차

제1부 광주 5월 민중항쟁 일지

- 제1장 전면적인 민중항쟁
- 제2장 계엄군의 발포
- 제3장 무장봉기
- 제4장 해방기간
- 제5장 도청 함락

제2부 광주 5월 민중항쟁 증언

1. 시민수습대책위원회, 학생수습대책위원회, 시민학생투쟁위원회(해설)
2. 무장조직 활동(해설)

3. 시민항쟁
 4. 선전활동(해설)
 5. 중요사건
 6. 지방에서의 항쟁
 7.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구속자
 8. 목격담 및 군관계자 증언
- 제3부 광주 5월 민중항쟁 관련 부록

1. 증언자 개인별 분류번호
2. 증언자 개인별 활동 색인
3. 증언자 개인별 활동 요약
4. 광주 5월 민중항쟁 관계 문헌

8. 연구목적

광주 5월 민중항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결한 투쟁 정신과 그 순수한 열정을 생생하게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기 위함.

9. 연구내용

이 책은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가 광주 5월항쟁 10주년을 맞이하여 광주 5월 항쟁의 생생한 현장을 역사에 남기고자 당시 항쟁 참여자들의 구술을 바탕으로 하여 제작한 방대한 사료집이다. 따라서 학생운동에만 국한된 저작이 아니라 광주 5월 항쟁에 참여했던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선 제1부에서는 광주 5월 민중항쟁 일지가 수록되어 있다. 17일 사건의 발발로 27일 상황이 종료되는 시점까지의 항쟁일지를 시간과 분까지 정확히 기록하면서 구술, 신문, 각종 공안자료 등을 바탕으로 하여 자세히 수록하고 있다. 항쟁의 발단과 전개 종결에 대한 세세한 이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자료이다.

제 2부 광주 5월 민중항쟁 증언에서는 항쟁 참여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수록하고 있다. 이 증언록에 해당하는 부분만 1,417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책의 부록에서는 이 증언에 참가한 사람들을 색인화하여 활동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499명에 달하고 있다.

학생운동과 관련해서는 2부의 1장에서 학생수습대책위원회와 시민학생투쟁위원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다루고 있으며, 2부 3장에서는 5월 18일 이전 광주지역 학내상황, 전남대 시위 등을 다루고 있다. 2부 4장 선전활동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고등학생들의 유인물도 소개하고 있다.

제 3부 부록에서는 증언자들의 개인별 활동을 요약하고 색인하고 있으며, 3부 4장에서는 광주 5월 민중항쟁 관계 문헌을 도서, 대학신문 및 교지, 주요 신문, 주요 월간지 순으로 광범위하게 소개하고 있다.

10. 연구의의

광주 5월 항쟁을 일으킨 항쟁의 주범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시점에서 잊혀질 수 있는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증언자들의 광범위한 증언을 바탕으로 하여 5월 항쟁의 살아있는 역사를 잘 정리한 사료집이다. 1차 자료로서 광주 5월 항쟁을 연구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자료이며, 2차적인 연구를 통해 학문적인 논의를 보다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1. 제목: 『80년대 학생운동사: 사상이론과 조직노선을 중심으로(80~87)』

2. 저자: 강신철 외

3. 발행연도: 1988년

4. 쪽수: 488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형성사

7. 목차

제1부 모색기(1980~1985)

서언 - 80년대 전반기의 학생운동

80년대 이후 학생운동 역량의 확대재생산

목적의식적 변혁운동으로서의 학생운동의 모색

제2부 주체적 변혁이론의 정립기(1985~1987)

반제그룹 등장을 중심으로 본 85년 말의 학생운동

86년 초 학생운동의 투쟁(자민투와 민민투를 중심으로)

NL학생운동의 사상과 이론의 발전·전개

제헌의회 소집론 세력의 활동과 노선에 대한 일고찰

학생운동과 연관된 80년대 노동운동

제3부 부록

사회·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80년대 학생운동의 개략적 고찰

학생운동 일지

자료

8. 연구목적

1980~1987년 초 기간동안 학생운동의 역사를 운동의 중심주체들이 고민하였던 사상·이론적 사고와 투쟁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9. 연구내용

이 연구는 1980~1987년 초까지 학생운동을 시기적으로 ‘모색기’(1980~1985)와 ‘주체적 변혁이론의 정립기’(1985~1987)로 구분하고 그 활동을 다룬다.

제1부 80년대 학생운동의 모색기(80~85)에서는 학생운동의 역량이 확대 재생산되고 과학적 변혁이념이 모색되는 과정을 서술하는데 이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1980~1981년 시기 동안 학생운동은 전두환 정권의 등장과 그들의 강력한 탄압에 의해 중단된 운동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였다. 당시에는 1980년의 패배를 교훈삼아 ‘변혁운동’에 대한 전망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대중노선을 절박히 인식하였다. 그러나 학생운동은 양적 측면에서 아직 충분히 복구되지는 못하였다.

1982~1983년 시기 동안 학생운동은 운동을 대중적으로 확산하고 운동체계를 정비하면서 반합법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대중기반을 확보하려 노력하였다. 또한 내부적으로 학생운동이 일상투쟁(학내, 문화, 대중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 노동운동은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 야학운동은 정치사상교육으로서 양자를 매개해야 한다는 ‘단

계적 투쟁론'이 등장하는 한편, 이를 비판하면서 대중의 일상적 학생운동을 개발하고 객관적 상황에 의해 주어지는 합법적 공간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일상투쟁론'이 제기되었다.

한편 보론에서는 1980년 5월 '서울의 봄' 시기에 학생운동에서 제기되었던 주전론과 대기론 사이의 이론 투쟁을 다룬다.

1984년은 1983년 겨울 전두환 정권이 실시한 구속학생 대규모 석방 및 사면·복권·복학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유화국면'으로 불렸는데, 중요하게는 학생운동이 목적의식적 변혁운동으로 발전하던 시기였다. 당시 학생운동은 올바른 대중노선을 건설하기 위해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다양한 공개대중조직을 개발하였다. 또한 학생운동의 과학성 제고를 위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깃발-민추위' 그룹은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성격을 민족민주혁명으로 규정하고 반파쇼투쟁과 반제투쟁의 동시진행을 주장하였으며 각 대학에 반합법조직의 건설을 통해 통일투쟁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1985년 2·12 총선을 둘러싸고 학생운동 내부에서는 '총선 거부투쟁론'과 '총선투쟁론'이라는 대립되는 견해도 제출되었다.

1985년 전반기의 학생운동은 조직적·이념적으로 발전하고 정치투쟁이 고양되었다. 당시에는 학생운동 내부의 통일된 정치노선을 중심으로 조직되는 전위조직과 그에 의한 이념적, 전략·전술적 지도의 수행을 주장하는 'MT'(민투)그룹과 이를 비판하며 기간활동가들의 공동실천 정도의 활동을 주장하는 'MC'(Main Current: 주류)그룹이 대립하였다. 그러나 양자는 협의를 통해 '민중민주화와 민족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을 주도한다. 이 과정에서 '삼민' 또는 '민중민주주의' 이념이 정립되었고 대중적으로 확산된다. 또한 보론에서는 이 시기 제기되었던 소위 'MC'·'MT'의 논쟁을 자세히 정리한다.

제2부 '주체적 변혁이념의 정립기'는 제헌의회론(Costitutional Asssembly:CA)과 민족민주민중민주주의혁명론(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 NLPDR)으로 분화되는 1985년 이후의 학생운동을 정치노선, 조직, 이론투쟁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1985년 하반기 학생운동은 MC와 MT가 붕괴하면서 삼민투(민중민주민족 투쟁위원회)가 재건되었고 그들의 투쟁조직인 '민민탄'(민중민주운동 탄압 저지투쟁위원회), '민자수'(민족자주권 수호투쟁위원회), '민생투'(민중생존권 쟁취 투쟁위원회)가 건설되었고 이 기구들은 '선도적 정치투쟁론'에 따라 학원안정법, 수입개방 반대투쟁 등을 주도하였다.

한편 1985년 하반기에는 학생운동에 반제(AI: Anti-Imperialism)그룹이 등장하여 기존 학생운동의 민족민주주의혁명(National Democratic Revolution: NDR) 노선을 비판하고 치열한 노선투쟁을 벌였다. 그들은 "한국사회의 기본모순은 한국민중과 미 제국주의 사이의 모순"이라고 주장하고 "국내 독점자본도 제국주의의 앞잡이로서의 매판독점자본으로 규정"한다. 이는 "기본모순은 노·자간의 모순이며 주요모순은 외세와 군부파시즘과 민중간의 모순이고 외세가 군부파시즘보다 더 주도적 측면이지만 양자는 통일적이며 상대적 자유성을 가진다"는 NDR의 주장과 다르다. 또한 그들은 혁명의 첫 단계로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또는 기계적 민중민주주의혁명론을 비판하고 "당면한 한국사회의 변혁은 제국주의의 모든 파쇼적 억압을 물리치고 그에 반대하는 모든 민중세력이 참가하는(민중해방) 민중민주주의운동"(137)이라고 주장하면서 변혁론으로서 NLPDR을 주장한다.

보론에서는 NLPDR 총노선의 개요를 자세히 서술한다.

1986년 초는 변혁운동이론이 어느 정도 정립된 시기로 학생운동은 '헌법제정민중의회'를 주장하는 CA계의 민민투와 NL계의 자민투로 양분되었다. 민민투는 1986년 4월 29일 연세대에서 '반제반파쇼민족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 또는 민민학련)을 발족하여 활동하였는데, 신민당의 직선개헌서명운동을 반대하고 민중의 정치투쟁 및 봉기를 조직화할 '헌법제정민중의회'의 소집을 요구하였다.

한편 NLPDR 계열은 서울대 구국학생연맹, 고려대 애국학생회, 연세대 반미구국학생동맹 등을 건설하여 각 대학 별로 활동하다가 1986년 11월 건국대에서 '전국 반외세 반독재 투쟁연합'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조직이 붕괴되었다.

다른 한편 1986년 5월 본격적 활동을 시작한 '제헌의회소집론'은 당시의 정세를 '혁명을 예고하는 시기'로 규정하

고 노동자계급의 당면 정치투쟁의 전술 슬로건으로 '제한의회소집'과 '임시혁명정부'를 주장하였다. 이는 1905년 전후 레닌의 주장을 추종한 것으로서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하고 도시의 반노동자, 삐띠부르주아 농민, 학생을 동맹세력으로 설정하는 대신 제도권 야당은 배척한다. 그들의 주장은 1987년에는 '민족민주혁명투쟁연합'으로, 그리고 1988년에는 '민중운동연합'으로 변화된다.

'학생운동과 관련된 80년대의 노동운동'에서는 1986년 이전의 노동운동을 지식인 출신 활동가들의 진출로 특징짓고 그 조직과 인식의 변화, 특히 NL의 전파를 중심으로 다룬다.

제3부 부록에서는 80년대의 학생운동을 사회·정치 상황을 고려하여 시기별로 개략적으로 고찰하고, 학생운동 일지 및 학생운동 관련 주요 성명서와 선언서 등의 자료를 수록하였다.

10. 연구의의

이 연구는 1980년 이후 학생운동을 다룬 선구적 업적으로, 학생운동의 흐름을 그들의 사상, 이론적 태도 및 그들간의 상호비판과 발전 과정 등 운동논리를 중심으로 최초로 정리하였고 1980년대 학생운동사에서 중요한 사건 또는 투쟁에서 배포된 유인물들과 주목받은 팸플릿을 수록함으로써 사료적 가치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학생운동을 서울대를 중심으로(간간히 연세대와 고려대가 포함됨) 서술함으로써 1980년대 전국적으로 진행된 학생운동의 전체 역사를 포괄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여러 편의 글을 종합하였기 때문에 내용상 중복이 있는 점도 편집상의 단점이다.

1. 제목: 『민족 민주 민중선언』

2. 저자: 김삼웅 역

3. 발행연도: 1984년

4. 쪽수: 336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일월서각

7. 목차

- I. 4월 민주혁명
- II. 범국민적인 굴욕외교 반대투쟁
- III. 6·8 부정선거 항의
- IV. 3선개헌 반대투쟁
- V. 정권교체를 향한 민주투쟁
- VI. 반유신 저항운동
- VII. 민주회복 국민운동

8. 연구목적

1960년 4월 민주혁명부터 1979년 10·26사태까지 20년 동안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발표된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9. 연구내용

이 책은 1960년 4월~1979년 11월 기간동안의 민주화운동을 “4월 민주혁명”, “범국민적인 굴욕외교 반대투쟁”, “3선개헌 반대투쟁”, “정권교체를 향한 민주투쟁”, “반유신 저항운동”, “민주회복 국민운동”으로 구분하여, 학생, 재야인사, 저항단체 등 당시 각종 운동세력이 발표하였던 선언문, 성명서, 유서, 호소문, 결의문, 양심선언, 법정변론, 진술 등을 수록하였다.

10. 연구의의

1960년대·7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산발적으로 발표되었던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여 당시의 민주화운동의 주장과 의견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료적 가치를 지녔다.

1. 제목: 『서울의 봄 민주선언』

2. 저자: 김삼웅 편

3. 발행연도: 1987년

4. 쪽수: 383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일월서각

7. 목차

제1부 서울의 봄

제2부 민주화의 횃불을 들다

제3부 학원 민주화 투쟁

제4부 노동자·농민 민주화투쟁

8. 연구목적

1979년 10·26 직전부터 1980년 5·17까지 각종 사회·정치 세력(정당, 정치인, 재야인사, 종교단체, 언론사, 재야단체, 학생회, 교수, 노동자, 농민회 등)이 발표하였던 선언문, 연설문, 성명서, 판결문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민주운동사의 역사적 기록을 남기는 것이다.

9. 연구내용

이 시기의 자료를 정치인, 재야인물 및 재야운동단체, 대학(학생운동 및 교수), 노동자·농민 등이 발표하거나 그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자료를 “서울의 봄”, “민주화의 횃불을 들다”, “학원 민주화 투쟁”, “노동자·농민 민주화 투쟁”의 장으로 구분하여 수록한다.

10. 연구의의

1979년 10·26 직전부터 1980년 5·17까지 각종 정치세력이 발표하였던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사료적 가치를 지녔다.

1. 제목: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사건』

2. 저자: 문용식 외
3. 발행연도: 1989년
4. 쪽수: 241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아침

7. 목차

- 80년대 민족민주운동의 흐름과 배경
-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국민주학생연맹(학림) 사건
-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사건
-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 사건
-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 사건
- 구국학생연맹사건(구학련) 사건
- 반제동맹당 사건
- 마르크스·레닌주의당 결성기도 사건
- 제헌의회그룹 사건
- 남부노동자연맹(남노련) 사건

8. 연구목적

‘학림 사건’에서부터 ‘남노련 사건’까지 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에 민족의 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앞장서서 싸우다, 옹공작경으로 몰려 정치적 탄압을 받았던 대표적인 10개의 조직사건을 다룸으로써, 80년대 민족민주운동의 고난에 찬 투쟁과 독재정권이 자행한 탄압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

9. 연구내용

목차와 연구의 목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저작은 학생운동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80년대의 조직사건 일반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이 학생운동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학생운동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며 충분한 사료적 가치가 있는 저서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조직사건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의 초반부에 서술되어 있는 “80년대 민족민주운동의 배경과 흐름”을 먼저 읽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이 부분은 80년대 조직운동의 성립과 전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으며, 학생운동에 대한 역사라고 할 수도 있다. 80년대 초반기 광주민중항쟁의 실패는, 민족민주운동 세력들에게 한국에서 외세의 문제에 대한 각성, 조직운동의 필요성, 투쟁방식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80년대 초 이러한 자각을 제일 먼저 실천에 옮긴 것이 바로 학생운동세력이었다. 80년대 학생운동의 시초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림·학림 논쟁으로부터 시작한 것이다. 이로부터 발생한 학생운동은 80년대 중반 대중적으로 조직이 확산되었고, 가장 활발한 대중투쟁을 전개했다. 이 때 등장한 학생운동의 사상적 경향은 NL, CA로 크게 분류되고, 이후 NL-PD 구도로 정착하게 된다.

본문에서 소개된 각 조직사건들의 서술은 상호간에 일관되게 통일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 각기 다른 저자

들이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10개의 사건 각각에 대한 서술은 각 사건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몇 가지 조직사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국민주학생연맹(학림) 사건: 학생운동과 직접 관련된 사건은 학림 사건이다. 80년대의 학생운동을 다룬 대부분의 책은 이 학림 사건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관례이다. 조직사건을 정리하는 방식의 특징은 주로 공안기관에서 작성된 내용에 근거하여 조직의 발생과 발전과정을 정리하고 있다. 조직체계도를 통해 조직의 구성과 인물이 소개되고, 관련자 명단과 직위, 그리고 형량까지 소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문에서는 이들 조직이 당시 상황에서 갖는 의미,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80년대 학생운동 논쟁의 시작인 '무리-학림' 논쟁을 다루는 부분은 참고할 만하다. 무림은 당시 학내지도부로서 투쟁지양론의 입장을 취했다면, 학림은 무림의 입장을 패배주의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정치투쟁을 주장하였다. 각 조직사건의 말미에는 평가와 교훈에 관련된 내용이 실려 있다. 학림사건에 관련해서는 기존의 일반적인 평가와 함께 그들 당사자들의 내부 반성을 소개하고 있다.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각계각층에서 일기 시작한 민주화투쟁의 확대에 전두환 정권은 반공이데올로기적 공세로써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였는데, 이것이 1985년 9월 9일 발표된 '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저자는 검찰의 공소장, 주요관련자의 상고이유서를 통해서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이 사건이 실제로 간첩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논쟁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들 간첩단 사건의 피의자들이 작성한 「예속과 함성」이라는 팜플렛의 내용을 동시에 분석하면서 일차자료에 근거한 사건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저자는 이 사건이 고문으로 조작된 사건임을 밝히고 있다.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사건: 민청련은 1983년 9월 30일, 70년대 학생운동 출신의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창립한 조직이다. 저자는 민청련이 창설된 시대적 배경을 소개하고, 민청련의 창립선언문 등을 분석하면서 민청련 사건을 서술한다. 분석의 자료는 민청련 창립선언문과 기관지인 『민주화의 길』, 대중신문을 표방한 『민중신문』 등이다. 전두환 정권은 위기 타결책으로 민청련 관련자들을 구속·수사하고, 보안 수사 후에 1985년 10월 29일 대대적인 사건발표를 하였다. 이 때 구속자들의 중심이 된 인물이 김근태였고, 세인의 관심을 끈 것은 이들의 혁명노선이라는 NDR 혁명론이었다. 저자는 당시 검찰측이 각 혁명론을 대비하여 소개한 표까지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도 김근태가 법정에서 고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폭로하면서 고문으로 조작된 사건임이 밝혀지게 된다. 저자는 말미에서 민청련의 의의를 조직의 위기에서도 재정비하여 대처했던 위기관리 능력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로는 청년대중과의 연대라는 과제 모색이라고 지적한다.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 사건: 민추위가 발행했던 팜플렛인 「깃발」로 인해 흔히 깃발 사건으로 칭해지는 사건이다. 저자는 검찰발표문을 소개하고, 검찰이 발표한 민추위 체계도와 민추위 관련 구속자 명단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의 이념적 성향을 소개하고, 주요활동으로 총선투쟁, 미문화원점거농성, 민중연대투쟁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민추위 사건이 당시 학생운동의 이론수준을 일정하게 높였다고 평가하는데, 당시 학생운동권에서 새롭게 등장한 사회구성체논쟁의 초기 이론적 내용들을 소화하고 있었다는 것이 근거이다. 구체적으로 이후 CA 그룹과 NL 그룹의 등장은 이들의 사상투쟁에 의해서 가능했다는 것이다.

구국학생연맹(구학련) 사건: 86년부터 본격적으로 반미 운동이 전개되었다. 「예속과 함성」, 「해방서시」 등의 반미 성향의 팜플렛의 주체들이 조직화되어 본격적으로 자신의 논리로 투쟁을 이끌어 갔던 주체가 구학련이었다. 구학련은 85년 말과 86년 초에 등장하여 각 대학과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는데, 이들의 반미구국통일전선운동은 이후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론)으로 정립되었다고 한다. 즉 구학련은 80년대 후반 다수 운동권의 핵심 이념이었던 NL론의 선두 주자였던 것이다. 저자는 구학련 결성취지문, 강령과 규약, 생활수칙, 조직체계 등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이들이 품성론과 반종파투쟁을 벌임으로써 학생운동사상 최초로 '사상운동'을 전개해 나갔다는 점이다. 이들의 산하 대중조직이 '반미자주화반파소민주화투쟁위원회(자민투)'이고, 그 기관지는 「해방선언」이다. 저자는 구학련의 조직노선과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구학련은 86년 10월 28일 건국대에

서 애학투의 결성식을 집행하다가 1,290여 명의 구속자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해체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저자는 구학련의 의의를 모범성과 헌신성의 태도, 그리고 반미·반제투쟁의 대중적 확산에의 기여 등을 들고 있다.

제헌의회 그룹 사건: 제헌의회 그룹은 86, 87년 헌법 투쟁 시기에 '파쇼하의 개헌 반대, 혁명으로 제헌의회 소집'을 외치며 일사분란한 조직적 대오로 싸웠던 운동세력이다. 이들의 특징은 결합의 방식이 전술적 슬로건에 있었다는 점이다. 즉 이들은 '제헌의회 소집'이라는 전술적 슬로건으로 세상에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이들 스스로 정치적 입장을 준별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전술적 슬로건을 들었다. 제헌의회 그룹은 전위당 건설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의 수단으로 전국적 정치신문 운동을 추진하였다. 저자는 이들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항소이유서와 검찰의 조사결과를 통해 사건을 정리하고 있다. 이 사건 역시 잔악한 고문이 자행된 사건으로 공안기관의 탄압사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10. 연구의의

한국 학생운동의 최전성기였던 80년대 공안기관에 의해서 조작되었던 조직사건들을 공안기관의 발표문과 조직운동원들의 언급과 같은 1차 기록에 근거하여 연구하고 있다는 점은 높은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각 조직의 발생배경과 운동의 전개양상, 조직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 논의의 전개가 치밀하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만 하다. 다만 각 사건들이 상호간 체계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하나의 결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제목: 『전대협』

2. 저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3. 발행연도: 1991년

4. 쪽수: 294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돌베개

7. 목차

전대협 투쟁사

전대협 조직발전사

전대협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운영되는가

전대협과 나

부록

8. 연구목적

전대협 4년의 역사를 통사적으로 정리하고자 함.

9. 연구내용

『전대협 투쟁사』는 전대협이 건설되기까지의 학생운동의 흐름을 간략히 재조명하면서 전대협 건설의 필연성을 도출한 후, 1987년 대통령선거투쟁, 1988년 6·10, 8·15 남북 청년학생회담 성사투쟁, 11월 광주·5공청산투쟁, 1989년 평양축전 참가투쟁, 1990년 광주민중항쟁 10주년 계승투쟁, 8·15 범민족대회 성사투쟁 등을 중심으로 정리

하였다.

‘전대협 조직발전사’는 학생회의 발전을 기초로 한 전대협의 건설, 1988년 전국적 조국통일투쟁을 통한 백만 학우의 사상적·정서적 연대의식의 확산, 1989년 중앙조직 건설을 통한 조직체계의 질적 발전, 1990년 중하부 토대의 강화, 즉 상하 유기적인 조직발전 등의 순서로 전대협의 조직 발전과정을 정리하였다.

‘전대협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운영되는가’는 당시(1991년) 전대협의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전대협의 위상과 자주·민주·통일된 새 조국 건설과 학원자주화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전대협의 10대 강령을 해설하였으며, 제5차 전대협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규약에 의거하여 전대협의 조직체계를 설명하였다.

‘전대협과 나’는 임종석 제3기 의장의 옥중편지와 송갑석 제4기 의장의 제1심 공판 최후진술을 수록했다.

끝으로 전대협의 강령, 규약, 기구표, 가입대학 명단을 수록했다.

10. 연구의의

1988년 이후 전대협의 역사를 조직의 입장에서 정리한 점에서 전대협 운동주체들의 내부자 시각을 엿볼 수 있다.

1. 제목: 『불패의 신화: 전대협 이야기 6년사』

2. 저자: 전대협동우회

3. 발행연도: 1994년

4. 쪽수: 342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두리

7. 목차

전대협이여 영원하라!

전대협1기(87년):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전대협2기(88년): 오월에서 통일로

전대협3기(89년):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 되어

전대협4기(90년): 자주의 시대 승리의 시대

전대협5기(91년): 백만학도의 사랑, 투쟁, 영광

전대협6기(92년): 한순간을 살아도 산맥처럼 당당하게

8. 연구목적

6월항쟁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사회적 세대가 우리 사회와 조국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만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왔는지 보여주기 위해 전대협 6년사를 기록하고자 함.

9. 연구내용

이 책은 전대협 6년사를 다루고 있다. 전대협의 탄생과 한총련으로의 변화 이전까지의 6년사를 사안사안별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1차 자료에 가깝고 2차 연구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80년대 한국학

생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고, 이전의 학생운동의 역사를 총괄적으로 계승했다고 자부하는 전대협 역사를 전대협 당사자들이 직접 다룬 이 책은 사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이 책이 가진 최대의 강점은 각종의 사회적 사건들을 학생운동의 핵심적인 인자들의 내부자적 시각으로 관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87년 6월항쟁, 이후의 7~9월 노동자 대투쟁, 그리고 대통령선거 당시 학생운동권 내부의 활동과 이견 및 대립의 생생한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각 기수별 활동사항에 대한 그들 자신의 평가를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87년은 최초로 전대협 1기가 출범한 해였다. 이전의 경험이 없던 대학생 대표자 회의체를 만들려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법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전대협은 굳건한 중심조직으로 자리났다고 할 수 있다. 저자들은 87년 전대협 1기의 경험이 가지는 최대의 의의를 예전의 메이저, 마이너 개념을 깨뜨렸다는 데에서 찾고 있다. 예전에는 학생운동을 주도하는 몇몇 학교간에 주도권 쟁탈전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의사결정을 큰 규모의 대학 몇 군데서 일방적으로 내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른바 마이너 캠퍼스에게 섭섭함을 안겨주곤 했다. 그러나 지구대협부터 건설되고 전대협으로 오는 동안, 그리고 그 안에서 열성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학교간의 운동역량 격차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 마이너로 분류되던 학교가 오히려 더욱 강력한 운동역량으로 전대협을 받치게 되었다.

1988년에도 전대협의 투쟁은 지속되었다. 6·10, 8·15 그리고 통일선봉대, 전두환·이순자를 백담사로 몰아낸 일, 분단 올림픽 반대 통일 올림픽 쟁취 등의 투쟁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저자들은 이 시기의 성과로 88년에는 최다 전대협 연합집회의 기록을 갖고 있으면서 그 때의 시행착오의 경험을 통해서 이후에 보다 세련된 연합집회를 전개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농촌활동이 전대협 차원에서 힘있게 진행된 첫해라는 점, 마지막으로 전두환·이순자 구속투쟁을 승리로 이끌며 그들을 백담사로 보낸 것 등을 들고 있다.

80년대 마지막 해였던 89년은 6공 정권이 궁지로 몰리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한다. 87년 6월항쟁과 뒤이은 88년 남북청년학생회담 성사투쟁 그리고 전두환·이순자 구속투쟁 등으로 설 땅을 잃은 군부독재는 공안정국이라는 카드를 내밀며 무모한 돌진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전대협은 투쟁을 통해 이러한 공안정국을 패퇴시켰다고 한다. 이 시기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2월 여의도 농민들의 시위, 3월 문익환 목사의 북한 방문과 서경원 의원 방북 사건과 같은 시국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노태우 정권은 문익환 목사의 북한 방문을 기회로 울산의 현대 투쟁을 강압적으로 진압했고 이에 맞선 노동자와 학생을 탄압했다. 급기야 단순한 학내문제로 시작한 동의대 학생들의 시위를 초강경으로 진압하면서 전경들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학생들을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3기 전대협은 명동성당 노천에서 17일간 죽음을 각오한 구국 대단식을 하고, 임수경 대표가 평양축전에 참가하였으며, 전교조 발족식을 지원하고, 89년 민중대회에 참가하는 등의 투쟁을 벌였다. 이를 통해 전대협 3기는 정권의 공안통치를 패퇴시켰다고 스스로를 평가한다.

89년 2학기부터 불기 시작한 공안통치에도 불구하고 90년 4기 전대협이 수립되었다. 이는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민정당, 민주당, 공화당을 통합하겠다는 3당합당을 선언한 지 꼭 한달 후의 일이었다. 따라서 4기 전대협의 투쟁은 3당합당 세력들에 대한 전면적 저항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자당 정권은 재집권의 최대 저항세력인 전대협을 와해하기 위해 전대협의 핵심간부라 할 수 있는 중앙위원과 중앙집행국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광분하였다. 그러나 전대협 중앙간부들은 안기부의 집요한 추적을 뿌리치고 끝끝내 조직중앙을 사수하였으며, 전대협 제5기의 결성을 이루어내었다.

91년 5월 투쟁은 6월 항쟁 이후 최대의 대규모 시위였다. 전국 대학생들의 대표조직인 5기 전대협은 당연히 당시 5월 투쟁에서 학생들의 역량을 총 결집하였다. 5기 전대협은 강경대 사망 이후 이들에 한 번 끌로 대규모 시위를 조직화하여 5월 투쟁의 열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이 책에서는 강경대 열사의 죽음 이후 진행된 투쟁 과정에서 5기 전대협의 역할과 이후 전국연합 창립대회에서의 전대협의 핵심적인 역할 등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6기 전대협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는 92년 범민족 대회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전대협 내의 소수세력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6기 전대협의 활동기에 존재했던, '전대협의 민주적 강화를 위한 전국 총학생회장단 연석회의'가 그것인데, 이른바 PD 계열의 대표자들이 중심이 된 전대협 개혁 세력이다.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다. 몰랐던 진실과 과오를 우리 신체 깊숙한 곳에서 조직의 내부적 운영원리에서 반성하고 극복하는 일이 회상기를 쓰고 그 회상기를 읽는 모든 이들에게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후기에서는 이 책을 내게 된 동기를 서술하고 있다. 즉 이 책은 87년 전대협 1기부터 92년 전대협 6기까지 있었던 청년학생들의 투쟁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 시절을 일방적으로 미화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만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려는 것도 아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때의 정신과 의지가 약해져가는 젊은 세대에게 다시금 그들의 출발점을 보여주기 위한 프리즘으로서, 그리고 우리들이 가야 할 새로운 길의 이정표를 보여주기 위해 준비하였다는 것이다.

10. 연구의의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 한국학생운동의 구심체적 역할을 담당했던 전대협 관련자들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단순한 투쟁의 내용뿐만 아니라 숨은 이야기까지 곁들여 내부자적 시각에서 전대협의 활동을 돌아보게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전대협 내부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보다는 전대협의 영웅적인 활동, 그리고 중앙조직을 찬양하는 등의 서술상의 한계가 보인다.

1. 제목: 『80년대 한국사회와 학생운동』

2. 저자: 한용 외
3. 발행연도: 1989년
4. 쪽수: 414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청년사

7. 목차

들어가는 말

- I. 80년대 학생운동의 전사(前史)
- II. 80년 9월에서 83년 12월까지
- III. 84년 1월부터 86년 2월까지
- IV. 86년 3월부터 87년 12월까지

맺음 말

- V. 88년 1월부터 8월까지

부록차례

부록

8. 연구목적

1980년대의 학생운동을 객관적 정세의 추이, 정치권력의 대응, 학생운동의 전개를 중심으로 정리·기록하고 이를 통해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살아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9. 연구내용

이 책은 1987년말까지 1980년대의 학생운동을 세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로 객관적 정세, 정치권력의 대응, 그리고 학생운동의 전개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이 책은 1980년대의 학생운동이 시대적 상황에 대해 수동적인 대응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 특유의 활동 방식—적극적이고, 선구적인 투쟁을 통해 1980년대의 역사를 만들어왔다고 주장한다. 즉 1980년대의 학생운동은 그 역사적 조건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1980년대를 만들고 꾸려 온 하나의 중요한 ‘주체’라는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먼저, ‘80년대 학생운동의 전사(前史)’로서 10·26에서 5·17까지의 주요한 정치적 사건들과 광주민중항쟁의 과정을 다룬다.

다음으로 80년대 학생운동의 제1기를 ‘80년 9월에서 83년 12월까지’로 구분하고, 신군부의 정권 장악 과정과 미국 레이건 정권 등장, 이후 한미의 밀월관계, 그리고 학생운동의 부활과 성장 과정을 다룬다.

제2기는 ‘84년 1월부터 86년 2월까지’의 시기로 1984년의 유화국면의 본질과 학생운동의 전개과정, 1985년 2·12 총선 과정, 광주민중항쟁에서 미국의 역할, 레이건 정권의 경제 침탈, 통상법안 301조 등 미국과의 정치·경제·군사적 관계, 서울 미문화원 점거사건, 전학련-삼민투의 재건 등을 다룬다.

제3기는 ‘86년 3월부터 87년 12월까지’에서는 1986년 개헌운동, 5·3 인천 집회, 여야의 개헌 협상과 실패, 건국대 사건, 1987년 박종철군 사건, 4·13 호헌, 6월 민주화 대투쟁, 6·29 선언, 7~9월 노동자 대투쟁, 학생운동의 논쟁, 헌법 개정과 선거 전술을 둘러싼 논쟁과 분열, 12월 대선 결과를 다룬다.

‘맺음말’에서는 87년까지 80년대 학생운동의 총괄과 전망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88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시기를 첨가하는데, 노태우 정권의 반동적 성격, 4·26 총선과 여소야대 정국, 5월 투쟁, 조국통일운동, 노 정권의 7·7선언, 노동자 계급의 진출 등을 다룬다.

부록에서는 1980년 5월 21일 ‘민주수호 전남도민 총궐기문’부터 1988년 6월 11일 전국대학생대표자 협의회의 ‘북한의 청년학도에게 보내는 제4차 공개서한’까지 27편의 주요한 학생운동의 선언문과 성명서 전문을 수록했다.

10. 연구의의

이 책은 1980~1988년 시기의 정치사를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정리·기록하였다. 따라서 학술적 연구라기보다는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1980년대의 정치사를 쉽게 정리한 개설서의 성격을 띄고 있다.

1. 제목: 『80년대 학생운동』

2. 저자: 황의봉

3. 발행연도: 1985년

4. 쪽수: 356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예조각

7. 목차

- 제1부 학생운동, 그 격동의 현장
- 제2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 제3부 옥중으로부터의 편지
- 제4부 80년대의 학생운동자료

8. 연구목적

학생운동과 관련되어 1980년대 초까지 왜곡 보도되었던 학생운동을 객관적으로 집필하는 것이다.

9. 연구내용

제1부 “학생운동, 그 격동의 현장”에서는 1980년~1985년 시기의 학생운동을 정리한다.

“제적학생들의 겨울과 봄”, “서울 1984년 대학생 시위”, “대학가의 총학생회 진통”, “전학련·삼민투와 미문화원 사건”에서는 1980년 ‘서울의 봄’ 시기의 학생운동, 1984년 서울지역 대학생의 시위, 1985년 총학생회 건설, 전학련(전국학생연합)·삼민투(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와 미문화원 사건을 사안별로 서술한다. 또한 “학원 자율화에서 「학원법」공방까지”에서는 1983년 말부터 1985년 가을 전두환 정권의 학원안정법 제정 시도까지 학생운동의 주요 사건을, “대학언론과 학생운동”에서는 당시 대학언론과 관련된 여러 에피소드를, “구속학생과 그 가족들”에서는 구속학생 가족들의 의식 변화 및 대응을 기술한다.

제2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서는 학생운동 출신들의 노동현장에서의 삶을 정리한다.

“지식인 노동운동의 현장”에서는 학생운동 출신들의 노동현장 취업과 노조결성 및 노학연대라는 1985년 당시의 쟁점을 대우자동차의 송경평과 홍형표, 통일산업의 문성현, 협진양행의 박애숙 등 개인들의 삶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노동현장에 뛰어든 여대생들”에서는 ‘위장취업’ 곧 지식인의 노동운동을 성심여대 졸업생으로 유니전자에 노동조합을 결성시킨 현윤실의 현장이야기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제3부 “옥중으로부터의 편지”에서는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구속된 유시민, 구로공단 햇불시위로 구속된 이춘,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학련의장으로 활동하다 구속된 김민석, 민정당사 농성사건으로 구속된 신준영, 미문화원농성 사건으로 구속된 장영승 등 시국사건 관련 구속학생들의 편지를 실었다.

제4부 “80년대의 학생운동자료”에서는 서울대프락치 사건의 배경과 본질, 그리고 학생운동의 정당성을 기술한 유시민의 ‘항소이유서’와 1980년~1985년 11월 학생운동일지를 정리한다.

10. 연구의의

이 책은 학생운동 관련자들(학생, 교수, 학부모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1980년대 초중반의 주요한 학생운동 사건을 생생하게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다. 또한 당시(1985년)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노동운동의 현장에 진출한 학생운동 출신들의 활동을 거의 최초로 전달한다. 그리고 주요 시국사건 관련자들의 편지를 수록함으로써 그들의 개인적 고뇌와 결단을 독자들에게 전달한다. 비록 이 책이 체계적이거나 분석적이지 못한 한계가 있으나 책이 출간된 시기(1985년)를 고려한다면 이 책의 장점은 평이하고 쉬운 서술을 통해 독자들이 학생운동에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쓰여졌다는 점이다.

1. 제목: 「한국대학에서의 1980년대 학생운동과 의식화 학습과정 연구」

2. 저자: 성용구

3. 발행연도: 1991년

4. 쪽수: 159쪽/30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일반논문

6. 발행처: 충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사회교육학전공/ 고등교육연구 제3권 제1집

7. 목차

< 학위논문 >

- 1) 의식화 학습의 목표와 조직
- 2) 의식화 학습의 내용
- 3) 의식화 학습프로그램: 학습활동, 시각자료, 문헌자료, 소집단학습
- 4) 의식화 학습의 방법
- 5) 논의 및 결론

< 일반논문 >

- I. 서론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III. 의식화 학습의 목표와 조직
- IV. 의식화 학습의 내용
- V. 의식화 학습 프로그램
- VI. 의식화 학습의 방법
- VII. 논의 및 결론

8. 연구목적

대학생들에게 저항문화가 형성되는 의식화 학습과정이 대학교육의 현장에서 학생운동을 통해 어떻게 진행되고, 학습목표, 학습내용 및 교육방법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함.

9. 연구내용

학위논문의 장 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1) 의식화 학습의 목표와 조직

‘의식화 학습 목표 설정의 원리’는 첫째, 대학에서 의식화 학습의 목표는 국가사회의 제 측면에 대해 부정, 부조리, 부도덕 문제들을 지적하며 이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혁, 개조하는 것, 둘째, 개인이 외부의 억압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를 건설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성취하는 것, 셋째, 해당조직의 노선과 계열에 적합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또한 ‘의식화 학습의 목표’는 첫째, 민중이 지배하는 민중민주주의 국가 건설, 둘째, 반제 민족해방, 셋째, 선진 의식수준의 인간 양성, 넷째, 현 단계의 목표로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이다.

‘의식화 학습의 조직’은 첫째, 학생대중 중심으로 이해를 같이 하는 대중들이 결속하여 공개적으로 활동하며 합법적으로 투쟁하는 학습조직으로 합법조직, 둘째, 의식화의 지도핵심자들이 굳게 결합하여 합법적으로 투쟁하는 학습조직인 반합법 조직, 셋째, 지도핵심이 학생대중과 자생적으로 결합하여 공개·비공개로 활동하며 반합법적으로 투쟁하는 비밀학습조직인 비합법 조직이 존재한다.

2) 의식화 학습의 내용

첫째, '학습내용의 선정원리'는 참신성, 비판성, 현실성, 학생에의 타당성, 팀장에의 타당성 등이다.

둘째, '행동경험의 선정준거'는 능력 이내 접근가능성, 실천기회의 부여, 흥미와 만족감의 부여 등이다.

셋째, '학습내용'은 정치사상(유물론, 철학, 경제, 역사, 혁명론, 계급론, 마르크스와 엥겔스), 투쟁성(헌신성, 일상생활, 내부규율, 재정관), 조직활동(대중활동, 조직운영, 선전, 선동), 전문활동(비밀활동, 가두선동전술, 집회 판짜기) 등이다.

3) 의식화 학습프로그램: 학습활동, 시각자료, 문헌자료, 소집단학습

첫째, '학습활동(행사)'은 MT, 예비대학(신입생 Orientation), 독토(독서토론회), 대동제(축제), 발표회(공연과 행사), 농활(봉사활동), 집회와 시위 등이다.

둘째, '시각자료'는 대자보(벽보), 찌라시와 스티커, 현수막(플래카드), 피켓, 그림 및 글씨 등이다.

셋째, '문헌자료'는 소식지와 학회지, 교지, 신문, 유인물 등이다.

넷째, 소단위학습이 존재한다.

4) 의식화 학습의 방법

첫째, '의식화 학습의 교수원리'는 폭로·비판의 원리, 개별화의 원리, 흥미의 원리, 반성화 사고의 원리, 이론과 실천 통합의 원리, 연속성의 원리가 존재한다.

둘째, '교수·학습방식'은 주제토론방식, 문답방식, 설명방식, 가상실습방식, 비판 사유적 독서방식, 노작학습방식 등이다.

5) 논의 및 결론

서구 대학생들의 저항운동은 대학당국의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행정에 반발하고 보다 폭넓은 학생자치와 자유를 요구하거나, 반전운동 등 광범위한 사회문제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었지만, 한국 대학생들의 저항운동은 현 정권에 도전·항거하여 현 정권을 타도하고 '민중민주주의'라는 정치이념을 지닌 새로운 정치체제로의 변혁을 요구한다고 정리한다.

10. 연구의의

학생운동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의 저항의식이 형성되는 의식화 학습과정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였다는 측면에서 주로 역사적, 이념적 측면에 치우쳤던 기존의 학생운동 논의들에 비해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특정 대학의 학생운동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고, 이후 이 주제와 관련 의식화 학습과정의 변화 및 대학간의 차이 등과 같은 연구 과제를 남겨두었다.

1. 제목: 「80년대 변혁운동에 있어서 학생운동의 역할과 과제」, 『전환: 6월 투쟁과 민주화의 진로』

2. 저자: 권형택

3. 발행연도: 1987년

4. 쪽수: 53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사계절

7. 목차

- 제1장 현 단계 학생운동에 대한 기본관점
- 제2장 80년대 학생운동의 평가와 반성
- 제3장 향후 학생운동의 방향과 과제

8. 연구목적

1980년 '서울의 봄' 이후 7~8년간의 학생운동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향후 학생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전망하는 것이다.

9. 연구내용

제1장 “현 단계 학생운동에 대한 기본관점”에서는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의 입장에서 반외세 반파쇼의 자주화·민주화 투쟁의 경로를 통해 대중이 권력의 주체가 되는 대중관을 수립하고, 중간층적 성격을 지닌 학생대중은 자유성과 자치성의 원칙 아래 수렴하여 ‘학생정치조직’을 건설하며, 학생운동가들을 장기간의 대중적 경험과 대중적 훈련 속에서 인텔리겐차화해야 한다고 기술한다.

제2장 “80년대 학생운동의 평가와 반성”에서는 학생운동의 역사를 시기별로 “역량의 회복과 새로운 전열정비”(1980년 하반기~1983년 상반기), “운동공간 및 기반의 급속한 확대”(1983년 상반기~1985년 상반기), “탄압국면과 질적 발전의 모색”(1985년 하반기~1986년), “6월의 투쟁과 학생운동”(1987년)으로 구분하고, 각 시기 전개되었던 학생운동과 주요쟁점(무리·학림논쟁, 깃발 논쟁, 민주변혁논쟁,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성격에 관한 논쟁, 반외세투쟁과 개헌투쟁의 방향설정을 둘러싼 논쟁, 공동전선의 형성에 관한 문제, 대중관의 문제, 정세인식과 투쟁방향의 문제)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제3장 “향후 학생운동의 방향과 과제”에서는 (1) “향후 학생운동의 기본방향”에 대해 민족민주운동상의 변혁적 과제를 자기화하면서 향후 전체운동 속에서의 자기의 위상과 역할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과 향후 민주적 제 권리 쟁취투쟁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 6월 투쟁이후 광범위하게 폭발한 노동자계급의 사회적·경제적 요구를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2) “현단계 학생운동의 당면과제”에 대해서는 ‘정치사상적 과제’로 주체성과 자주성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노선의 관철을, ‘조직적 과제’로 학생대중조직의 광범한 건설과 여기에 목적의식적 방향성을 결합시킬 학생정치조직의 질적 심화를, ‘당면투쟁에서의 과제’로 민주적 제 권리 쟁취투쟁을 통한 ‘과도민주내각수립’, 반외세투쟁의 대중화, 기층민중과의 공동투쟁을 주장한다.

10. 연구의의

1987년 6월 민주화 대투쟁을 승리로 이끈 시점에서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NLPDR)의 입장에서 1980년대(1980년~1987년)의 학생운동을 정리하고 이후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1. 제목: 『1980년대 한국의 정치변동과 학생집단』, 『명지대 사회과학논총』 13집 2호

- 2. 저자: 김도중
- 3. 발행연도: 1997년
- 4. 쪽수: 28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명지대학교

7. 목차

I. 서론

II. 한국학생운동에 관한 기존 연구

(1) 학생운동의 원인에 대한 기존연구

(2) 한국학생운동의 영향과 특징에 대한 연구

III. 80년대의 한국학생운동

(1) 주도체나 선도체나?

(2) 시위의 양태

(3) 학생운동의 수준

IV. 학생운동에 대한 재조명

8. 연구목적

한국학생운동과 관련된 기존연구와 자료를 바탕으로 80년대 우리사회의 정치변동과정에서 보여준 학생집단의 역할과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함.

9. 연구내용

지난 80년대 초 학생운동권의 논쟁은 학생집단이 한국사회변혁운동에서 선도적이어야 하느냐 주도적이어야 하는냐 하는 당위성과 운동전략의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 당시 학생운동주체들은 5·18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민중의 역량이 부족한 현실상황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내부적으로 대립을 보였다. 저자는 이러한 평가에 근거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저자에 따르면, 주화론으로 알려진 주도성 강조측은 민주화 운동 단계에서 통일적 지도부와 전국민적 조직기반의 부재에 주목하고 학생운동을 전체 운동의 전위로 보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전위형성의 주요모체가 될 가능성을 갖고 있으므로 단위 소그룹의 형성과 학생대중조직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시위만능주의는 불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주전문을 강조하는 측은 전체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정치의식화, 조직화되어 있는 학생집단이 끊임없이 투쟁을 통해 지배세력의 본질을 폭로하고 민중항쟁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학생대중조직 또한 투쟁 속에서 그 토양이 형성된다는 학생운동의 선도성 논리를 내세웠다.

저자는 선도성-주도성 문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논쟁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어느 사회에서나 사회변혁의 “선도”는 의식수준이 높은 지식인 집단이 맡게 마련이며 이것이 운동차원으로 발전될 때는 이들 지식인들 중 행동력과 대중동원력을 확보하고 있는 학생집단이 앞서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운동의 선도성은 여기에서 입증된다고 한다. 그런데 80년대 한국사회현실에서 변혁운동을 주도할 세력은 학생운동 외에는 없었다는 한국사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학생운동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다. 개발독재에 순치되어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고 있는 노동자, 정부에 빚을 지고 있는 농민, 숫적 열세에 기회주의적 선택을 강요받는 도시빈민 등 소위 기층민중 세력 중에 사회운동을 주도할 집단이나 계층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80년대 사회변혁운동은 학생이 주도했던 것이다. 저자는 이를 통계자료로도 입증하는데, 80년대 시위발생현황이나 학생희생의 숫자, 직업별 양심범의 숫자 등에서 여타 사회계층에 비한 학생운동의 월등한 주도성은 충분히 입증된다고 한다.

저자는 80년대 중반 확고하게 형성된 대항연합전선의 투쟁에서 학생들이 중추세력으로 자리잡았음을 지적하고,

이로부터 학생들이 진보운동의 중추라는 인식이 생겼다고 말한다. 이로부터 한국학생운동은 여타의 나라들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저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학생운동의 공통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을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학생운동은 주요 일류대학이 선도하며 대규모 캠퍼스를 중심으로 발생한다. 둘째 학생운동가를 보면 주동자들은 인문-사회과학계통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셋째 참여학생들을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월등히 많다. 마지막으로 학생운동은 계절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학생운동은 8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제한성을 벗어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즉 학생운동의 무차별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학생운동의 전개가 전국 모든 대학으로 확산되었다. 과거 서울대, 연대, 고대 등이 선도적으로 주도하고 여타 대학과 지방대학들이 추이를 보아 시차를 두고 이를 따라오던 방식은 사라진 것이다. 둘째 운동가들의 전공 배경도 무차별화 되었다. 셋째 운동의 계절성이 없어진 것은 다른 외국의 사례에서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학기 중은 물론 방학 기간 중, 시험 기간 중, 일년 내내 학생시위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한국학생운동의 확대는 집권세력에 큰 부담을 주어 결국 80년대 후반 권위주의의 붕괴에 큰 기여를 했다. 과거에는 소위 “메이저 캠프”의 동향만 파악하면 집권세력은 대부분 학생시위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으나, 시위 발생이 전국적-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되면서 모든 대학들이 감시의 대상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체제유지 비용의 엄청난 증가를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다음으로 저자는 학생운동의 수준이라는 차원에서 80년대 운동을 평가한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학생운동은 운동 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즉 일제 하의 ‘①동원화’, 해방 공간에서의 건국투쟁과정 중의 ‘②참여화’, 4·19를 시발로 한 1960-70년대의 ‘③정치화’, 80년대 학생들의 이념화와 운동권의 조직화가 이루어지면서 ‘④제도화’ 수준으로 발전되었다. 여기에서 학생운동이 제도화되었다는 것은 학생이라는 행위자와 그들 행위의 대상과의 정형화된 관계 내지 양식이 마련되어 그 양식이 가치를 인정받고 안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자는 지난 80년대 한국학생운동집단은 꾸준한 정치투쟁 속에서 그 운동수준이 제도화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후 외부환경의 변화와 내부모순에 의해 지난 90년대 초부터 탈제도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결론을 짓는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한국학생운동이 미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한국학생운동이 민주화에 기여한 바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분단구조 속에서 폐쇄적인 사고유형을 강요받았던 우리 사회에 인식의 지평을 넓힌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계층을 비롯한 사회 소외세력의 잠재된 의견을 대신 주장해줌으로써 계급갈등적인 직접 충돌을 피하고 따라서 정치투쟁을 벌이면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결과를 낳았다고 한다.

그러나 동시에 부정적인 측면도 지적하는데, 시위의 만성화-고질화, 비제도적인 정치참여 수단의 확산 등으로 법치주의의 원칙을 위협하고 이에 따른 사회비용의 부담을 높은 부작용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부정의 논리’가 지배해옴으로써 ‘권위의 부재’와 ‘권위의 부인’ 현상을 만연시켰다고 한다. 결국 학생운동은 사회의 전문성을 이끌어 나가야 할 대학의 기능을 왜곡, 마비시킴으로써 심각한 사회위기의 단초를 제공하였다고 지적하면서 글을 맺는다.

10. 연구의의

80년대 한국학생운동을 저자의 이론적 분석들에 비추어 해석하고, 한국학생운동의 특수성을 적절하게 고찰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정치변동에 미친 학생운동의 역할을 잘 규명하고 있으며, 후반부의 학생운동의 공과에 대한 설명도 객관적이라 할 수 있다.

1. 제목: 「80년대 학생운동의 전개과정」, 『역사비평』 1집

2. 저자: 김민호
3. 발행연도: 1988년
4. 쪽수: 26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역사비평사

7. 목차

1. 서론
2. '서울의 봄'의 좌절과 광주항쟁 시기의 학생운동
 - (1) 80년대 학생운동의 성격을 규정한 70년대 학생운동의 진행과 성과
 - (2) '민주화의 봄'과 학생운동
 - (3) 광주항쟁 시기 학생운동의 역할
3. 학생운동의 재건을 위한 모색
 - (1) 80년투쟁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모색
 - (2) 부산 미문화원방화투쟁과 자주화투쟁의 전개
 - (3) 소책자 논쟁과 '투쟁성의 회복'
4. 학생운동의 대중적 전개와 이론전선의 가열
 - (1) 유화국면의 전개와 학생운동
 - (2) 전학련 건설과 「깃발」논쟁
 - (3) 전학력-삼민투 건설과 반독재 대중투쟁의 전개
5. 학생운동의 분화와 이론투쟁의 격화
 - (1) 자민투, 민민투의 결성과 이론논쟁의 격화
 - (2) 탄압시기 학생운동의 전개
6. 6월항쟁 시기의 학생운동
 - (1) 대중노선의 새로운 대두와 대중투쟁의 진행
 - (2) 6월항쟁 시기 학생운동의 특징
7. 80년대 학생운동에 대한 총괄과 약간의 전망

8. 연구목적

학생운동이 80년대에 겪어 온 사상·이론적, 조직·실천적 행로를 되돌아 봄으로써 80년대 우리나라 변혁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함.

9. 연구내용

저자는 80년대 변혁운동의 정립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글을 시작한다. 즉, 외세와 독재의 억압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통일을 쟁취하려는 한국 민중의 투쟁은 전쟁에 의한 단절 이후 자생적 저항운동의 단계를 극복하고 80년대에 이르러 변혁운동으로 정립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 중 80년대 학생운동은 전체 민주화운동 중에서 조직화·의식화가 가장 진척되어 있고 또한 항상 대중투쟁의 선봉에서 싸워왔던 부분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80년대 학생운동을 저자는 다음과 같이 시기 구분한다.

첫째 시기인 79. 10. 26~80. 5. 27은 70년대 학생운동의 축적과 유신독재의 몰락이라는 조건하에서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투쟁하던 시기였다. 둘째 시기인 80. 5. 27~83. 12. 22는 5·17쿠데타로 수립된 전두환 정권의 탄압 아래서 학생운동의 재건을 모색하는 시기로서, 과학적 운동론을 추구하고 학생운동의 대중적 전개를 위하여 이론과 실천 양 방면에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투쟁력을 회복한 시기였다. 셋째 시기인 83. 12. 22~85. 10은 정권이 창출한 유화국면하에서 학생운동이 조직운동을 전개하고 전국적 학생운동조직을 건설하는 한편 선도적인 여러 투쟁을 통해 대중적 학생운동을 재건하는 데 성공한 시기였다. 넷째 시기인 85. 10~86. 11은 개헌국면이 전개됨과 아울러 학생운동이 분화·발전하고, 이론논쟁이 가열화되는 시기였다. 특히 학생운동이 전체 민중권력수립을 위해 정치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견해와 반외세자주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견해가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전체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시기는 86. 12~87. 6로서 대중의 이해와 요구에 입각해서 운동을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가 널리 확산되면서 6월항쟁을 통해 전체민중의 민주화투쟁과 결합되는 시기였다. 이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시기의 학생운동도 주목하여야 하겠으나 아직 전체적인 평가를 내리기에는 상황과 시기상으로 이른 감이 있다.

저자는 이와 같이 진행된 80년대 학생운동을 총괄하고 약간의 전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80년대 학생운동은 이념적 지향을 확고히 하였다. 우리나라 변혁운동이 외세로부터 해방되어 민중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나아가 조국의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인식이 광범하게 공유된 것이다. 80년대 초반 민족주의·민주주의·민중 주체의 과제를 단순히 나열하던 것을 험난한 반외세반독재투쟁의 전개를 통해 극복하고, 민족해방과 민중민주주의는 하나이고 이를 전체 애국민중이 단결해서 진행시켜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것이다. 나아가 민족해방운동의 올바른 전통 속에 변혁운동을 세우려는 노력은 전체민주화운동내에 모범을 창출하게 되었다.

둘째, 학생운동의 조직전망을 올바르게 세우게 되었다. 81년의 '전민학련', 84년의 '민추위'가 음모적이고 하향적인 조직운동을 시도한 이후, 86년의 '구학련'은 강령·규약을 갖춘 대중조직을 구상하고 적절한 시기에 반합법적 형태로 공개하고자 시도했다. 물론 만연된 분파주의로 말미암아 좌절되었지만, 이러한 경험은 87년에 이르러 학생대중조직과 밀착하여 분산된 다핵의 지도중심을 건설하고, 학생대중운동의 발전과 긴밀하게 결합하여 조직운동을 시도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이는 선진적 학생운동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학생대중조직의 외부나 상부에서 침투·지도하는 방식보다 발전된 형태의 노력이라 하겠다.

셋째, 80년대 학생운동은 전국적 조직을 건설하거나 이를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전체변혁운동의 어느 부분운동도 적극적 전망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데 비하여 학생운동은 전국적 대중조직화를 시도하였다. 84, 85년의 '전학련'은 각 대학 총학생회장의 협의체 수준의 내용에 전학련의 형식을 부과한 것이고, 86년의 '민민학련', '애학투'는 소수 선진학생운동가의 비공개 연대를 골간으로 반합법 공개연합체를 건설한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87년의 '전대협'은 대학 대표자협의회라는 내용과 형식을 통일하고 전국적 연합을 지향한다는 것을 천명하여 주목된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부터는 지역과 전국적인 조직화 수준에 조응하여 지역연합체—전국협의체 혹은 지역연합체—전국연합체의 형식으로 전국적 학생운동조직건설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80년대 학생운동은 전체 변혁운동의 선봉대적 위치를 실천의 과정에서 획득하였다. 80년의 패배의식을 극복한 것도, 85년 2·12 이후 반독재투쟁의 고양도, 86년 이후 반외세투쟁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도 모두 학생운동의 정치투쟁력에 근거한 것이다. 학생운동의 선도적이고 비타협적인 정치투쟁은 전체 변혁운동에서 탄압기를 가르는 햇불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다만 87년 하반기에 이르러 학생운동이 선봉대적 역할과 후비대적 역할을 통일하지 못하여 대중투쟁의 후미에 머무르며 오류를 범하는 것은 차후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생운동은 전체 애국민중운동세력을 단결시키는 교량자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80년 민주세력의 단결된 연합건설에 실패한 과오는 그 후 교훈으로 남아 단결과 연합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학생운동의 교량자적 역할을 촉구하여 왔다. 85년 미문화원농성을 통해 애국민중연합의 단초를 창출하고, 이러한 성과는 87년 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부터는 학생운동은 지역차원의 민중운동의 연합체 건설에도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전체 변혁운동의 불균등한 발전을 극복하는 데에도 적극 기여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80년대 학생운동은 학생대중과 전체 민중의 대중투쟁의 전개에 대한 교훈을 획득하였다. 80년대 초반 학생대중투쟁과 선도적인 정치투쟁을 분열적으로 인식하는 초기적 혼돈을 겪었으나 이는 창조적으로 극복되었다. 자주·민주·통일 지향의 총노선하에서 학생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른 것은 큰 발전이다. 그러나 학생대중의 근본요구가 사회제도의 억압을 자주적으로 타파하고 민주사회를 건설할 때에만 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각은 여전히 확고히 견지되어야 한다. 선도적인 정치투쟁과 대중투쟁은 결국 하나의 주체가 수준과 목표를 달리하여 전개하는 투쟁을 현상적으로 파악한 것에 불과함으로 더욱 분명히 자각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대중을 앞질러 구호를 남발하다가 결정적 시기에 대중의 후미를 추종하는 편향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저자는 수많은 실천적 경험과 반성과 자기정리를 경과해 온 80년대 학생운동은 앞으로 전체운동의 사상적 진로를 분명히 하여 이론적 향도를 제시하고 투쟁과 조직의 성숙한 전형을 창출함으로써 학생운동사는 물론 전체민중이 자주적으로 역사의 주인이 되어가는 역사에 빛나는 장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글을 맺는다.

10. 연구의의

79년 10월부터 87년 6월 항쟁까지 가장 격동적인 시기를 5개로 단계별 시기구분을 시도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결론부의 80년대 학생운동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가 주목할 만하다.

1. 제목: 『한국민족자주화운동사(II): 80년대 학생운동의 발전을 중심으로』, 『민족자주화운동론 I』

2. 저자: 조진경

3. 발행연도: 1988년

4. 쪽수: 78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백산서당

7. 목차

제1절 전제적 논의

제2절 80~83년 : 이론투쟁의 준비기

제3절 84~85년 하반기 : 1단계 이론투쟁

제4절 86~88년 : 2단계 이론투쟁기 - 새로운 지도사상의 정립·발전기

제5절 맺음말

8. 연구목적

1980~1988년 학생운동사를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NLPDR) 노선의 형성·전개·발전의 관점에서 정리하고자 함.

9. 연구내용

이 글은 NLPDR을 ‘올바른 지도사상’으로 전제하고 80년대 학생운동의 흐름을 이 노선의 형성·전개·발전의 측면에서 조망한다.

이 글은 80년대의 학생운동을 1986년 민족해방(NL)론의 등장을 계기로 전후 2단계로 구분하고, 보다 세분하여

“80~83년: 이론투쟁 준비기,” “84~85년 하반기: 1단계 이론투쟁기,” “86~현재: 2단계 이론투쟁기-새로운 지도사상의 정립·발전기”로 구분하여 서술한다.

학생운동은 198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80~83년까지는 학생운동의 위치와 역할에 관해 논쟁이 벌어졌다. 초기의 무림·학림 논쟁은 「야학운동비판」과 「학생운동의 전망」의 대립으로 발전하였다.

84~85년 하반기의 1단계 이론투쟁기에는 주로 학생운동의 투쟁노선, 조직노선을 둘러싸고 시민민주주의변혁론(CDR), 민족민주변혁론(NDR), 민중민주주의변혁론(PDR)간의 이론투쟁이 벌어졌다(‘CNP’ 논쟁). 85년 하반기는 주로 개헌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제반 논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반제운동론이 맹아적으로 대두됨으로써 2단계 이론투쟁의 토대가 마련되었던 시기였다.

86~88년 2단계 이론투쟁기는 ‘새로운 (지도)사상’이 정립되는 시기인데, 이 과정에서 지도핵심그룹인 ‘구국학생연맹’이 큰 기여를 하였다. 이 사상은 86년의 선도적인 투쟁을 통하여 급속히 확산되었고, 87, 88년의 실천을 통해 검증되면서 이후 확고부동한 학생운동의 지도이념으로 정착되었다.

이렇게 80년대의 학생운동사를 NLPDR 노선의 발전으로 인식하면서 이 글이 맺는 결론은

첫째, 지도사상의 측면지도사상의 부재에서 출발하여 철저하게 ‘계급적’ 사상이 자리 잡았고, 그것이 다시 민족허무주의와 교조주의로 전락하자 우리 운동사에 뿌리를 둔 지도사상이 정착되어 갔다.

둘째, 정치노선의 측면에서 80년대 전기에는 총체적 전망의 결여·운동의 사회경제적 근거의 해명 부족, 구체적 전략전술론의 부재상태에서부터 CD-ND-PD 논쟁, 사회구성체 논쟁 등을 거치면서 총체적인 정치적 전망이 획득되고, 민족문제를 전면화시키고, 「강령」적 내용이 구체화되는 발전이 있었다.

셋째, 투쟁노선의 측면에서 80년대 전기에는 경제투쟁·정치투쟁 분리론, 계급투쟁·민주주의투쟁 분리론이 주류였다가, 양자의 결합과 ‘두 개의 전선’ 형성의 필요성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노학연대 투쟁과 선도적 정치투쟁노선이 주류로 되었다가, ‘혁명적 균중노선’으로 다시 발전하게 되었다.

넷째, 조직노선의 측면에서 대중조직과 전위조직의 건설과 상호 관계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천이 발전하였다. 초기에는 ‘선전위조직건설론’(하향식론)과 ‘선대중조직건설론’(상향식론)이 대립되다가, ‘분리건설론’이 주류를 이루었고, 그것이 경제주의로 비판되면서 ‘동시건설론’(서노련의 MPO론)이 풍미하였으며, 다시 전국적 정치신문 중심 전위조직결성론·지역전위조직건설론·기층단위건설우선론 등으로 나뉘었다가, 대체로 양자의 ‘분리·동시 건설론’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0. 연구의의

1980년 이후 학생운동사를 NLPDR이라는 80년대 후반에 존재하던 하나의 정파의 입장에서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다. 그러나 1980년 이후의 학생운동을 NLPDR 노선의 완성을 향한 발전과정으로 보는 시각은 자신들의 노선만을 정당화함으로써 다른 노선을 비과학적이거나 부차적인 노선으로 평가절하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1. 제목: 「80년대 학생운동의 이념적·조직적 발전과정」, 조희연, 『한국사회운동사』.

2. 저자: 최연구

3. 발행연도: 1990년

4. 쪽수: 40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한울

7. 목차

- 1) 운동사 정리의 기본관점
- 2) 80년대 학생운동의 전개과정
- 3) 학생운동 조직노선의 전개과정

8. 연구목적

1980년대까지 변혁운동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 학생운동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이다.

9. 연구내용

이 책은 먼저 학생운동사를 정리하기 위한 기본관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사회역사를 민중의 지위와 역할이 증진되어 민중이 역사의 주인으로 되는 합법칙적 발전으로 보는 관점.

둘째, 객관적 사회역사의 발전법칙과 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확신, 즉 혁명적 낙관주의.

셋째, 운동의 제 조류 중 진정으로 민중의 요구와 지향을 체현하고, 운동의 지도적 위치, 중핵적 역할을 담당한 (주류)운동세력을 판별·확정하고 이러한 세력의 입장(주류적 당파성)에서 역사를 이해하고 서술하는 것(서술의 당파성).

넷째, 변혁운동과 지도사상(지도이념)을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관점.

이러한 관점에 따라 이 책은 1980년대 학생운동의 전개과정을 다음과 같이 다섯 시기로 구분한다.

첫째, 10·12 ~ 83년 하반기: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시기.

둘째, 83년 말 ~ 85년 상반기: 기반을 확장하면서 전진하는 시기.

셋째, 85년 하반기 ~ 86년: 질적 발전을 모색하는 시기.

넷째, 87년 6월 항쟁과 대통령선거투쟁: 대중운동의 새로운 장을 연 시기.

다섯째, 88년 ~ 89년: 반외세반독재 통일운동의 선봉에 선 시기.

또한 이 책은 학생운동 조직노선의 전개과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첫째, 80년 이후 ~ 85년 하반기까지를 씨클주의 노선의 시기로 규정하고 1980년 5월 이후 학생운동세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 속에서 비합법 이념 씨클이 등장하여 학생운동의 양적 팽창과 질적 발전을 가져왔다고 평가한다.

둘째, 1983년 이후를 지도조직 결성시도의 시기로 규정하고, 1983년 말 전두환 정권의 학원자율화 조치 이후 학생운동은 본격적인 대중운동으로 변화 발전하기 위해 '총학생회 -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을 위한 투쟁위원회(삼민투) -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라는 형태의 조직체제를 건설하였다고 서술한다.

셋째, 1986년 이후의 RMO(혁명적 대중조직)를 설명하는데, 이 시기에 학생운동은 민추위 붕괴 이후 지도구심이 부재한 상황에서 단일 정치적 지도하에 대중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총학생회 - 투쟁위원회(자민투) - 비합법지도조직(서울대의 '구국학생연맹', 연세대의 '반미구국학생동맹', 고려대의 '애국학생회)'의 조직체계를 구축하였다.

넷째, 1986년 11월 이후 등장한 선진대중조직인 비밀학생회론을 설명하는데, 학생운동은 1986년 11월 건국대 사건을 계기로 총학생회를 단순한 외곽 학생자치조직이 아닌 대중정치조직으로 인식하면서 '총학생회 - 비밀학생회 - 사상씨클'의 조직체계를 건설하였다. 그런데 이는 선진적 대중들이 비밀학생회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학생회를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형태였다고 평가한다.

다섯째, 1987년 상반기에 제기된 총학생회 강화론 - '전투적 학생회론'을 설명하는데, 이 시기 학생운동은 조직운 영상의 권위주의적·음모적인 사업작풍을 불식하고 운동의 올바른 사상성 및 주체역량 강화라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총학생회 강화론 - 전투적 학생회론이 등장하였다. 전투적 학생회는 단일한 사상체계를 가진 지도핵심을 중심

으로 전체 학생대중이 참여하는 학생회를 구성하고, 높은 수준의 사상의식적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조직으로 구상되었다. 이는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NLPDR)계열 학생운동 조직노선의 기본이었다.

여섯째, 기타의 총학생회론인 반합법 대중정치조직론, 민중민주학생회(민주적 총학생회)론을 설명하는데, 반합법 대중정치조직론은 1989년 5월 발족한 '서울지역 민주주의학생연맹(서민학련)'의 조직노선이다. 이 노선은 학생회가 대중적 정치투쟁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기에 대신 진보적 학생대중조직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민주적 학생회론, 민중민주학생회(PDH)는 반제반독점 NLPDR, 정통 ML주의를 표방하는 PD진영의 주장으로 '다수자에 대한 소수자의 복종, 소수자의 의견 존중'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민주적 학생회는 '민중지향성'을 내용적으로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PDH론자들은 학생회의 정치적(민중민주적) 강화를 통한 대중노선의 구현과 활동가들의 미공개 구조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10. 연구의의

이 글은 주사파의 입장에서 1980년대 학생운동의 전개과정과 조직을 정리하였다. 학생회의 조직노선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는 측면은 새로운 시도이다. 그러나 주사파의 입장만을 올바른 입장으로 인식하였기에 다른 입장을 경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1. 제목: 『대중과 폭력: 1991년 5월의 기억』

2. 저자: 김정환

3. 발행연도: 1998년

4. 쪽수: 229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이후

7. 목차

제1장 현재 속의 역사

1. 이론의 정세

2. 91년 5월투쟁이 던지는 세 가지 질문

제2장 대중과 대중운동

1. 91년 5월투쟁의 발발, 전개, 소멸

2. 대중, 민중, 계급, 시민

3. 대중운동: 대중의 내재적 경향

제3장 대중과 폭력

1. 91년 5월투쟁의 담론

2. 폭력과 비폭력

3. 대중의 양면성

제4장 수수께끼를 향하여

8. 연구목적

91년 5월 투쟁의 사례를 대중이라는 새로운 이론적 개념으로 고찰하고, 이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운동을 대중운동의 관점에서 해석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글.

9. 연구내용

한국 현대사에서 대중운동은 폭발적으로 발생했다가 사라지는 순환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운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서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 책은 대중운동을 91년 5월투쟁을 중심으로 구체분석한 체계적인 연구서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특히 기존의 학생운동이나 대중운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라는 것이 시계열적인 사건의 단순 기록에 그쳐온 반면에, 이 글은 시계열적 서술과 이론적 고찰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저자도 머리말에서 91년 5월투쟁의 분석이 시계열적 분석과 담론 분석의 두 가지 방법이 병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의 이론적 쟁점으로 대중의 개념화, 대중운동의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 오래된 화두로서 폭력과 비폭력의 문제를 다룬다고 지적하고 있다. 요컨대 이 글은 사건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체를 조망하면서 91년 5월투쟁의 여러 가지 내적인 단편들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하겠다.

저자는 91년의 투쟁을 분석함에 있어 대중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포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계급, 민중, 시민의 범주를 떠나서 대중이라는 개념이 갖는 유용성, 현실 설명력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고민은 빠져 있다. 그 대중의 다수가 학생이었다는 점이다. 명지대 강경대의 죽음 이후 진행된 일련의 사건의 전개에서, 저자가 핵심 주체로 상정한 대중은 곧 학생과 등치시켜도 무방한 것이다. 계급, 민중, 시민과의 차별성을 시도하면서 대중이라는 개념에 집착하는 저자는 대학생이라는 한국 운동사의 핵심주체와 대중과의 연결 내지는 구분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저자가 자료로 제시한 “91년 5월투쟁의 주요 집회·시위 일지”(46)에서는 그 대중들이 곧 기층민중일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는 한다. 그러나 조직된 기층민중의 지휘부의 행동에 최대의 인적 동원을 제공했던 것은 학생운동이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2장 “대중과 대중운동”에서는 91년 5월투쟁의 발단과 전개, 그리고 소멸까지의 전과정을 간략하되, 생생하게 서술하고, 대중 개념의 적실성을 91년 5월투쟁을 계급운동, 민중운동, 시민운동, 시민사회의 저항 등으로 분석하는 기존의 논의들을 비판하는 과정 속에서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저자의 정치학적 지식이 동원되면서 대중 개념이 재발견되고, 이를 통해 91년 5월투쟁을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기본 자원이 마련된다. 그리고 대중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에서는 대중운동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자들인 르페브르, 로자 룩셈부르크, 스피노자를 통해서 자신의 대중개념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이 중에서 저자는 스피노자가 말하는 교통(communication)에 의해 형성되는 ‘대중의 역능’으로부터 가장 큰 이론적 자원을 획득한 듯하다.

3장 “대중과 폭력”에서도 91년 5월투쟁의 전과정이 다시 소개된다. 그러나 2장에서 진행된 시계열적 서술이 아니라, 자신의 이론적 문제들(대중개념의 재발견)을 통해서 다시 정리되고 재구성된 상태에서 서술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저자는 91년 5월투쟁의 여러 담론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지배세력과 저항세력의 담론이 특정한 의미계열로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저항세력에게 있어 지배세력인 노태우 정권의 폭력성은 ‘노태우 정권=살인 정권=폭력 정권=재벌 정권’이라는 의미계열을 통해 비판되었고, 그 희생자는 ‘강경대=분신=학생=노동자=민중=시민’이라는 의미계열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지배세력의 폭력성에서 저항세력의 폭력성으로 폭력의 의미 부여가 전도되는 부분에 대한 서술은 이 책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수세적이었던 지배세력이 저항세력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유서 대필” 조작 사건과 외대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저자는 죽음과 폭력의 의미계열이 전도되는 전 환과정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지배와 저항담론의 명백한 시각차에 대한 서술, 즉 지배세력에게 강경대 사건이 ‘우발적 사건’이었다면, 외대 사건은 ‘계획적 사건’이었으며, 사회운동세력에게 강경대 사건이 ‘필연적 사건’이었다면, 외대 사건은 ‘우발적 사건’이라는 저자의 분석은 절대적 진리와 정의의 문제를 떠나있는 지배세력과 저항세력간의 담론투쟁의 특성을 정확히 꼬집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담론투쟁에서 저항세력은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고, 결국은

패배하게 된 것이다.

저자는 여기에서 폭력과 비폭력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파헤침으로써 당시 저항세력의 비폭력 노선이 내적으로도 실패할 수 밖에 없었으며, 외적으로도 지배세력이 정한 폭력의 경계선에서 조종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패배한 것임을 논증한다. 그러한 이론적 탐색의 결과 제기되는 최종적인 결과는 대중의 폭력에 대한 재정의, 재구성이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서술될 수 있지만, 핵심은 한가지이다. 즉 저항세력의 폭력, 즉 대중의 역능을 폭력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단으로부터 나오는 대중운동에 대한 하나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지배적 권력질서의 전화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선형적으로 특정한 실천 형태만을 수용하거나 배제해서는 안되며, 각각의 정세와 관련하여 모든 가능한 형태의 실천들에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가능한 실천에 바로 대중의 역능, 우리가 저항세력의 폭력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 ‘역능’이 과연 세간에서 인식하는 ‘폭력’과 어느 정도로 엄밀하게 구분될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10. 연구의의

이 책은 한국현대사에서 중요하지만 크게 기억되지 않고 있는 91년 5월투쟁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론적 시도, 즉 대중의 역능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저작이다. 또한 91년 5월투쟁에서 함께 했던 대중들의 많은 부분이 학생들이었다는 점에서 학생운동에 대한 분석으로도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1. 제목: 『청년학생운동: 90년대의 도약』

2. 저자: 김태호

3. 발행연도: 1993년

4. 쪽수: 362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도서출판 힘

7. 목차

제1장 변혁운동의 도약

제2장 사상의 대중화

제3장 청년학생운동의 진로(1)

제4장 청년학생운동의 진로(2)

제5장 통일전선과 청년학생운동

제6장 노학연대

제7장 청년학생의 조직화

제8장 혁명적 조직생활

보론 학습의 혁신, 사람의 혁신

8. 연구목적

변혁운동의 사상적 해명에 입각해 밝혀진 청년학생의 지위와 역할에 기초해서 운동의 실천적 진로를 모색하고 아울러 운동의 대중화와 통일·단결의 실현의 원칙과 방도를 수립하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민중의 자주적 삶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연구자·대중, 특히 청년학생들에게 청년학생운동의 이론과 실제에 걸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

9. 연구내용

이 책은 주체사상을 지도원리로 하는 청년학생운동의 진로를 모색하는 글이다. 저자는 변혁운동에서 지도와 대중의 결합으로 주체사상이 지도이념으로 정립되었으며 자주·민주·통일의 과제가 각계 애국민중의 공동의 강령으로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민중의 변혁운동은 단순한 반파쇼민주화운동의 차원을 넘어 반미자주화운동으로 심화되고 연공통일운동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그것은 소수의 운동이 아니라 다수의 운동으로, 어느 한 계급계층에 국한된 운동이 아니라 각 계층을 망라하는 대중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변혁운동의 도약기에 저자가 내세우는 변혁운동의 3대 선결과제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할 것, 민족해방운동노선을 견지할 것, 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할 것 등이다.

저자는 우선 사상의 대중화를 강조한다. 저자에 따르면, 해방후 45년간의 사상의 혼미 과정을 거쳐 이제 참된 해방의 지도사상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한다. 저자는 혼미한 사상으로 미제국주의의 숭미공미사대주의 및 반공반북이 데올로기를 비롯해서 종속이론, 해방신학, 네오마르크스주의, 뉴 레프트 등의 다양한 조류를 일체 포함시키고, 참된 사상으로 자주사상의 진리성과 당위성을 적극 피력한다. 자주사상이란 다음아닌 주체사상이다. 따라서 저자는 자주사상을 우리 변혁운동의 지도이념으로 확고히 정립하고 이를 대중 속에 널리 전파하여 민중들을 민족자주의식화하고 단일한 정치적 역량으로 묶어 낼 것을 주장한다. 자주사상, 즉 주체사상의 핵심원리는 혁명적 수령관이기 때문에 저자는 혁명적 수령관을 바로 세우는 것까지 강조한다.

저자는 혁명적 수령관의 오해를 불식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어떠한 해명과 근거도 없이 수령론의 당위성만을 강조한다. 그는 개인과 노동계급의 수령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동계급의 수령은 근로대중의 최고 뇌수이고,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역사발전과 변혁운동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에 남한의 노동계급은 수령을 가장 위대한 분으로 진심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받드는 자세와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저자는 그럴 때에만 노동계급의 자주성이 창조적으로 발현된다면서 주체사상의 최대 약점인 수령론의 공색함을 반복한다.

이러한 주체의 혁명이론에 근거하여, 저자는 청년학생운동의 진로와 역할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첫째 청년학도와 애국민중들은 우리시대의 향도이념인 자주사상으로 투철히 정신무장하고 사상을 투쟁의 지도이념으로 확고히 정립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한국사회의 예속성과 식민지적 체제를 올바르게 투시해 볼 수가 있고, 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반미반독재통일구국투쟁을 곧바로 전진시켜 나가고 그 승리를 앞당길 수가 있다. 둘째 변혁운동의 궁극적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운동의 대중화와 통일단결을 이룩해야 하며, 청년학생운동의 선각적 선진일꾼들의 치열한 고민과 새로운 활동의 모색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반성하기 위해, 저자는 변혁운동사와 86년 이후 반종파투쟁에 대한 성과와 한계와 오류를 평가한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주장은 종파투쟁을 통해서 자주대로 대동단결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저자는 통일전선운동에서의 학생운동의 지위를 주력군으로 상정한다. 단순히 노동자와 농민의 보조역량으로서가 아니라 민족해방운동에서 학생운동은 주력군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발전된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학생운동이 통일전선적 관점을 확고히 견지하고 노동자 농민과의 결합을 강화함으로써 주력군의 역량강화에 복무함과 함께 현시기 민족민주전선을 튼튼히 지켜낼 수 있고 반미구국통일전선의 건설을 위한 토대도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도출되는 올바른 통일전선사업은 첫째로 명확한 주체를 확립할 것, 둘째로 노학·농민연대를 강화할 것, 셋째 지역단위의 통일전선적 토대를 구축할 것, 넷째 통일전선운동의 모범을 창출할 것 등이다.

이어 노학연대의 당위성을 피력한다. 노학연대는 실제 가장 전투적으로 투쟁을 선도하는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의 연대로서 전략적·전술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입장에서 노학연대의 역사적 흐름과 노학연대의 의의와 그 수행방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노학연대의 의의는 첫째로 학생들이 노동대중과 변혁운동에 다리를 놓아주게 된다는 것이고, 둘째로 학생운동이 노동대중의 운동과 결합될 때 무엇보다도 사회의 기본계급인 노동대중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자기들의 투쟁을 힘있게 벌여 나갈 수 있고 자기의 당면요구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인간의 역사가 산업자본주의 시대, 독점자본주의 시대, 제국주의 시대를 거쳐 주체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주체의 시대에 걸맞는 조직이론을 체현할 것을 주장한다. 저자는 역사적으로 전개된 다양한 조직이론들을 소개하고, 현단계 청년학생운동 조직화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89년은 망국적 분열 분파 놀음이 대중운동에 미친 해악을 엄중히 평가해야할 시점이라고 하면서, 기존의 비합대오라 자처했던 단위는 첫째 자기중심적인 체계와 질서에 얽매이지 말고 변화된 사람, 개조·혁신된 사람을 중심으로 단결할 것, 둘째 자그마한 차이를 들어 단결을 저해하는 잡사상을 청산할 것을 주장한다. 이어 저자는 보다 구체적인 조직생활의 원칙들로서 ①지도자에 대한 충실성을 배양할 것, ②혁명적 영도체계를 확립할 것, ③혁명적 조직관을 확립할 것, ④혁명적 조직규율을 강화할 것 등을 열거한다.

10. 연구의의

이 책은 주체사상의 입장을 받아들인 변혁운동진영의 청년학생운동에 대한 사상, 이론, 운동, 조직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글이다. 이 책은 명확한 주장으로 전개되어 있으나 주장의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주의주의적인 원칙 천명만을 제시하고 있어 논리적 방식을 통해 독자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 글의 독자가 일반 독자가 아니라 주체사상의 입장을 어느정도 체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해준다.

3. 학생운동과 한국사회(여타 운동부문, 정치변화, 사회구조 등 환경과의 관련성)

1. 제목: 「언론의 학생운동조직 관련 보도에 관한 연구」

2. 저자: 박종대

3. 발행연도: 1998년

4. 쪽수: 95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7.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논의

제3장 정치권력과 학생운동조직의 통일운동

제4장 내용분석 방법

제5장 분석결과

제6장 결론

8. 연구목적

분석축점이 국가-학생운동-언론 간의 3각 관계에 맞춰져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언론 보도의 내용을 양적, 질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9. 연구내용

이 논문은 대표적인 사회운동조직인 학생운동조직에 대한 언론의 보도 내용의 특성을 국가의 억압성과 관련하여 분석하되, 1988년과 1996년의 통일운동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의 주된 관점은 국가-학생운동-언론 간의 3각 관계에 맞춰져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언론 보도의 내용을 양적, 질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운동의 전개 과정과 특성에 대한 논의는 부차적으로 처리되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학생운동이 운동을 전개할 때, 필연적으로 부딪치게 되는 국가와 언론이라는 외적 대상과의 관련성을 사례분석을 통해 논의하고 있는 만큼 유용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이 논문은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정치권력(국가)-사회운동(학생운동)-언론간의 3각 관계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소개하는 부분이다. 두 번째는 정치권력과 학생운동간의 관계를 1988년과 1996년의 한국의 대표적인 학생운동조직인 전대협과 한총련의 통일운동과 관련하여 소개하는 부분이다. 세 번째는 이 시기의 학생운동에 대한 언론의 보도 내용의 특성을 분석하는 부분이다. 이 중에서 이 논문이 집중하는 것은 바로 세 번째 부분이다.

우선 정치권력-사회운동-언론간의 3각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사회운동을 정의하고, 국가권력과 사회운동이 맺는 관계를 유형별로 다루면서, 한국의 사회운동과 국가권력의 특성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1987년 민주화의 경험을 통해 탈권위주의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의 분석대상이 1988년과 1996년의 학생운동의 통일운동인만큼 탈권위주의화의 과정에 있는 국가와 학생운동간의 관계를 주로 분석하고

있다고 하겠다. 저자의 독특한 시각은 언론의 대응에 대한 분석이다.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면, 1996년이 1988년보다 보다 민주화된 문민정부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다 민주화되고 언론이 더욱 자유화되었을 것이라 추측하기 쉽다. 그러나 저자는 오히려 그 반대로 1988년의 국가권력이 보다 학생운동에 유연하게 대응했으며, 1996년의 김영삼 정권이 보다 보수적인 정책으로 학생운동을 탄압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도 1988년에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학생운동에 호의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1996년에는 언론이 학생운동에 거의 비판적이었던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학생운동과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1988년과 1996년의 대표적인 학생운동조직인 전대협과 한총련의 통일운동에 대한 것이다. 특히 이 논문에서 주목한 것은 정권의 민주화과정과 체제위기, 그리고 보수적인 민주화에 따른 학생운동의 위상 변화이다. 이와 관련하여 얻을 수 있는 통찰은 왜 한국의 학생운동이 민주화 이후 위상이 더욱 약화되었는가에 대해서 저자는 민주화 이후 보수화된 정권의 학생운동에 대한 억압성의 강화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학생운동에 관련해서만큼은 노태우 정권이 보다 유화적이었던 것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타당성을 가질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한총련에 대한 김영삼 정권의 강경대응이 국가의 억압이기는 하지만, 또한 전반적인 민주화 이후 변화된 국민적, 시민사회적 정서에 의해 지지를 받은 정책이었다는 점을 저자는 분석해내지 못하고 있다. 즉 체제의 억압성의 수준은 노태우 정권이 김영삼 정권보다 훨씬 높았으나, 시민사회에서의 취약성으로 인해서 노태우 정권은 전대협의 통일운동에 유화적이었던 반면에, 김영삼 정권은 시민사회의 일정한 지지를 바탕으로 한총련을 탄압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현상분석에 근거하여, 유화적인 1988년의 노태우 정권 하에서 언론의 보도는 학생운동에 대해 긍정적인 보도를 더 하게 되고, 억압적인 1996년의 김영삼 정권 하에서 언론은 학생운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라 추론하고, 그것의 결과를 실제 분석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다.

이 논문의 제 4장 2절에서는 “학생운동조직의 통일운동”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전대협의 건설에 대한 간략한 소개도 곁들여져 있다. 1988년 전대협의 ‘6·10 남북학생회담’과 ‘8·15 남북학생회담’ 운동의 구체적인 전개와 국가의 대응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1996년 한총련의 ‘범민족대회’ 행사 추진의 과정과 국가의 대응도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사례가 특정한 부분에 너무 한정되어 있어, 한국학생운동의 전체 역사와 관련된 맥락적 서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세력들간의 역학관계도 학생운동과 국가간의 대립관계만이 부각되어 서술됨으로써 현실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감이 있다.

논문의 후반부는 1988년과 1996년의 언론에 대한 실증분석에 할애되고 있다. 분석대상이 되는 신문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국가소유신문으로 <서울신문>, 사적 자본 소유 신문으로 <조선일보>, 국민주 방식으로 <한겨레신문>을 선정하여, 국가와 자본, 국민적 정서를 반영하는 언론의 보도 특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로 권력구조가 분산되고, 정부와 정치권력이 통일에 관하여 유연한 태도를 나타낸 1988년 전대협의 통일운동에 관한 신문의 보도가 1996년 한총련의 통일운동에 관한 신문의 보도보다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권력구조가 분산되고 정부와 정치권력이 유연한 태도를 보인 1988년 전대협에 대한 보도에서 나타난 3개 신문사간의 전대협에 대한 평가 차이의 폭이 정부가 강경진압정책을 사용한 한총련의 1996년 통일운동 보도에서 나타난 3개 신문사간의 한총련에 대한 평가 차이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내적 논리에 있어서는 가능한 평가이며 동시에 개연성이 있는 평가이기는 하다. 그러나 학생운동에 대한 국가의 억압성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국가 이외의 여타의 영역에서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 분석이라 할 것이다.

10. 연구의의

총론적으로 이 논문은 학생운동에 대한 언론 보도의 특성을 국가의 성격에 의해 분석한 글로서 일관된 논리 전

개에 따라 충분한 함의를 끌어낸 글이지만, 국가라는 변수이외의 국가가 포함된 사회전체의 구조와 의식 변화에 따른 언론의 학생운동에 대한 보도 분석이 아쉬우며, 학생운동의 통일운동에 대한 분석 역시 한국 학생운동의 전개과정과 관련하여 맥락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지녔다고 하겠다.

1. 제목: 「한국의 대중운동이 정치변동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2. 저자: 서정안

3. 발행연도: 1989년

4. 쪽수: 109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국방대학원 안전보장학과 국제관계전공

7.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대중운동의 이론적 배경

제3장 한국사회의 성격과 학생운동 개관

제4장 학생운동이 정치변동에 미친 영향

제5장 결론

8. 연구목적

한국의 국내정치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쳐온 학생운동이 한국의 정치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1945년부터 1988년 2월까지의 시기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함.

9. 연구내용

이 글은 한국 정치체제와 학생운동의 연관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한국의 학생운동은 한국의 특수한 분단상황, 급속한 산업화, 전통적인 정치문화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권위주의적 정치·사회구조의 현실과 학생들이 학문을 통해 배운 이상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였다.

둘째, 정부는 집권초기에는 대체로 안정되고 발전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권위주의적인 체제의 강화로 인해 '독재성'이 증가하면서 학생운동과 정부의 강경대응 사이에서 진압과 반발의 악순환이 발생하여 학생운동이 만성화되었다.

셋째, 학생운동이 계속되면서 학생들이 주장하는 정치적 대의명분에 전 국민이 호응하고 동참할 때에는 정치불안이 가중되어 결국 정치변동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국민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의 강경한 진압을 초래하고, 정부의 억제력이 미약할 때에는 더 강한 정치집단을 출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학생운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세력을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인정하고 정당활동을 장려함으로써 학원은 면학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동시에 재야세력은 약화되고 제도권 정치가 활성화됨으로써 한국의 정치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0. 연구의의

정치체제의 변화와 학생운동의 상호관련성을 역사적으로 고찰하여 그 유형을 정리하였고, 학생운동의 정치세력화 및 정당활동을 인정하는 전향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1. 제목: 『민주화와 학생운동의 방향』

2. 저자: 김영국

3. 발행연도: 1991년

4. 쪽수: 186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대왕사

7. 목차

서론

제1장 한국학생운동의 성격

제2장 한국학생운동의 역사적 고찰

제3장 외국의 학생운동: 60년대 스튜던트 파워와 신좌익

제4장 한국에 있어서 민주화와 학생운동의 방향

결론

8. 연구목적

민주화가 정착되어 가고 통일의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는 단계로 접어든 새로운 시대에 학생운동이 지향하는 민주화와 통일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학생운동의 위상을 제시하고자 함.

9. 연구내용

이 책은 총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학생운동의 성격을 다루는 부분, 한국학생운동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다루는 부분, 외국의 사례, 그리고 앞으로의 학생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이 그것이다.

한국의 민주화는 이 시대의 젊음이 고귀한 희생을 치르면서 이룩하여온 불멸의 금자탑이다. 한국현대정치사에 끼친 학생들의 공헌은 그만큼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국의 학생운동은 다음과 같은 고유한 특성을 나타낸다. 첫째, 학생운동을 하나의 역사적인 당위로서 해석하고 있는 데에서 볼 수 있듯이 강한 역사의식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둘째, 열렬한 선구자적 사명감과 순교자적 지사정신에 의해 추진된다. 셋째, 강렬한 민족애 내지는 민족주의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이와 같은 특성에 기초하여 한국의 학생운동은 기본적으로 한국민족주의가 추구하는 삼대이념인 독립, 반독재, 평등을 실현하는 도정에 있어서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학생운동은 급진성과 좌익편향성이라는 일반적 태도와 함께 행태적 측면에서의 아노미적 행위와 과격성 및 폭력성으로 인해 대중성과 폭넓은 이데올로기적 포섭력을 확보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운동을 약화시키는 경향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학생운동의 성립 배경을 살펴보면, 분단구조, 자본주의의 파행적 발전구조, 지배구조 및 계급구조 등의 구조적 차원과 공동체적 삶의 의미, 비판주의적 반항심리, 불안정한 심리구조 등의 심리적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학생운동의 역사적 과정을 고찰해 보면, 1960대의 학생운동의 이념은 반독재민주주의와 반외세민주주의였으며, 70년대는 60년대보다 보다 민중지향성이 확대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학생운동은 이념의 급진화와 대중화, 운동의 대중화, 현실인식의 과학화와 아울러 주체사상의 대두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저자는 80년대의 학생운동의 전개과정을 여타의 학생운동사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소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학생운동의 전개과정은 80년대 말과 90년대 초 당시 NL과 PD로 분열되었던 학생운동 진영의 현실까지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학생운동의 사적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에 이어, 외국의 학생운동을 다루고 있다. 신좌파 운동의 태동 이후 활발해진 학생운동의 사례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사례를 주로 소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60년대 학생운동은 유토피아적인 이념적 경향성과 조직적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결국 퇴조의 길로 접어들었다. 학생운동이 실패한 공통된 요인은 대중성 확보의 실패와 급진성 그리고 운동방법론상의 오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서구학생운동의 사례에 근거한 학생운동 퇴조의 원인 진단은 한국학생운동에 대한 이후의 평가에도 그대로 연결되는 것 같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은 책의 제 4장 “한국에 있어서 민주화와 학생운동의 방향”이다. 앞의 내용들은 사실상 충분한 기존의 논의가 이루어진 부분을 단순히 소개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자의 독자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곳은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한국학생운동이 한국민주화의 견인차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일단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 지적하고, 새로운 방향설정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960년 4·19혁명 이후 한국학생운동은 근 30년 동안 줄곧 민주화운동을 이끌어 왔고 또한 지식인 계층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의 전폭적 지지와 참여를 확보해 1987년 6·29선언을 도출해 낸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 논의를 활성화시킨 기폭제로서의 공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화의 문턱을 넘어선 오늘날의 한국학생운동은 60년대 서구학생운동이나 최근의 중국학생운동의 경험을 교훈삼아 새로운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새로운 방향설정이란 다름아닌 체제전복이나 혁명을 목적으로 하는 급진 운동을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제도화와 개혁의 추구를 위해 현실적인 전략전술적 목적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운동은 현실점에서 정치적 경쟁의 규칙을 제도화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학생운동이 수행한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만, 80년대의 주사파 학생운동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80년대 초반 반미운동은 민주화운동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6·29선언 이후 반미운동은 민주화운동에서 이탈되는 경향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반미운동은 더 이상 민주화운동의 일환이 아니라 사회혁명의 일환으로 추구되었던 것이다. 전대협시대로 대변되는 80년대 후반의 학생운동은 북한의 혁명노선을 그대로 추종하는 NLPDR론을 통해 체제전복세력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대체로, 80년대의 학생운동의 특징은 급진성·편향성·과격성 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주사파를 비롯해 혁명론을 실천하려는 급진세력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을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다는 데 상황의 심각성이 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비록 학생운동이 그들 세대에 있어서 가장 의식화되고 적극적인 학생들의 운동이라고 할지라도, 현재의 학생운동의 혁명적 투쟁노선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역사적 현실을 고려해 볼 때, 90년대의 한국은 국내외상황의 지속적 변화 속에서 민주화와 통일의 전망을 조심스럽게 낙관할 수 있을 것이고, 자본주의의 발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90년대 학생운동은 당연히 대중성 확보와 민주성확립을 당면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90년대 초반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정에서 학생운동의 위상 정립을 제시하고 있지만, 80년대 후반의 학생운동을 지나치게 급진·과격·좌경의 시각으로만 재단하고 있음.

1. 제목: 「1980년대 한국학생운동에서 나타난 반미의식: 그 전개과정과 사상적 배경을 중심으로」

2. 저자: 노인영

3. 발행연도: 1988년

4. 쪽수: 44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연세대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7. 목차

- 1) 1980년대 이전의 한국학생운동 역사
- 2) 80년대 한국학생운동에서의 반미운동 전개과정
 - (1) 반미운동의 사상적 배경
 - (2) 운동의 전개양상
 - (3) 반미운동의 평가
- 3) 결론: 향후 올바른 한미관계 전망을 위한 관점을 제시

8. 연구목적

1980년대 학생운동의 반미문제를 중심으로 학생운동이 미국을 적으로 평가하는 논리와 이 운동의 전개양상을 밝히는 것이다.

9. 연구내용

첫째, '1980년대 이전의 한국학생운동 역사'에서는 일제시대, 해방이후의 학생운동사를 정리한 후, 80년대 이후 학생운동의 성격변화를 i) 과학화된 이념으로 철저히 무장 ii) 과격성, iii) 연합성, iv) 대중조직과 투쟁조직의 상호보완으로 정리한다.

둘째, '80년대 한국학생운동에서의 반미운동 전개과정'에서는 먼저, 반미운동의 사상적 배경으로 80년대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이 도출되기까지의 두 차례의 사상논쟁(C-N-P 논쟁, NL-CA 논쟁)을 정리하고, 80년대 학생운동의 전개양상을 i) 행동으로서의 반미태동기(1980-83; 부산미문화원방화), ii) 전체 학생투쟁조직하의 반미표출기(1984-85; 서울미문화원 점거농성), iii) 전면적 반미투쟁기(1986-87; 반제그룹의 반외세 자주화투쟁)로 구분하여 시대적 특징을 요약한다.

셋째, '반미운동의 평가'에서는 반미운동의 편향성 및 운동의 한계를 지적하고 향후 반미운동의 전망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향후 올바른 한미관계 전망을 위한 관점을 제시한다.

10. 연구의의

1980년대 이후 학생운동을 반미운동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의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내용

이 발굴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1. 제목: 「80년대 이후 한국학생운동의 정치이념 분석: 「민족문제」를 중심으로」

2. 저자: 박정수

3. 발행연도: 1994년

4. 쪽수: 120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서강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7. 목차

I. 서론

II. 학생운동과 「민족문제」의 대두

1절. 60·70년대 학생운동의 「민족문제」 인식: 80년대 전사

2절. 광주민중항쟁이 「민족문제」에 끼친 영향

III. 「민족문제」와 반미운동의 등장: 1980~1986

1절. 반미운동의 성격과 전개 과정

2절. 「민족문제」에 대한 이론적 모색: 반제노선의 등장 배경

IV. 「민족문제」와 주체사상의 수용: 1987~현재

1절. 주체사상 수용의 계기 및 성격

2절. 「민족문제」에 대한 주체사상의 인식

V. 결론

8. 연구목적

1980년 이후 「민족문제」에 대한 학생운동의 인식 변화와 그 내용을 고찰한다.

9. 연구내용

1980년 이후 학생운동의 「민족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 및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80년 「광주민중항쟁」이후 학생운동은 사회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변혁운동의 전략, 전술을 도입하였다. 곧 기존 지배계급을 부르주아적 권력으로 정의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대체권력」에 대한 전망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둘째, 80년대의 학생운동은 사회주의 이념을 기초로 민족문제를 새롭게 해석하여 한국사회에서 「제국주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는 미국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가져왔다. 곧 미국을 자신의 이해를 옹호하기 위해 독재정권을 지원하는 제국주의 세력으로 인식하였다.

셋째, 80년대의 학생운동은 반공이데올로기를 정면 공격하였고 북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모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운동 세력들은 「주체사상」을 운동이념으로 수용하였다.

따라서 80년대 학생운동은 한국사회 변혁의 중심과제를 자본주의 확립에 따른 계급문제로 보는 세력과 제국주의 지배에 의한 「민족문제」로 보는 세력으로 분열되었다.

이를 통해 도출된 1980년대 학생운동의 성과 및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80년대의 학생운동은 60·70년대의 선언적이고 일회적인 운동 방식 및 형태를 극복하고 자신의 운동 노선에 정치이념을 도입함으로써 변혁운동에 대한 전망을 마련하였다.

둘째, 80년대의 학생운동은 기존의 학생운동에 부재하였던 미국에 대한 제국주의적 인식을 확립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인 영향력 및 관계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대미인식의 발전을 가져왔다.

셋째, 80년대 학생운동의 대미인식 전환은 그 동안 지배계급이 변혁운동세력 탄압의 명분으로 사용했던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지형을 제거하는데 기여하고 북한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민족통일'의 문제를 국민대중에게 확산시키고 통일운동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결론적으로 80년대의 학생운동은 이전에 비해 인식의 전환을 이루었는데, 그것은 사회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제국주의/민족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 것이고, 또 이에 기반하여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혁의 과제를 고민한 것이었다.

10. 연구의의

민족문제를 준거로 1980년대 학생운동의 활동 및 성과를 역사적으로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의를 갖고 있다.

4. 학생운동 비판 문헌(대공관련, 기타)

1. 제목: 『레드 바이러스』

2. 저자: 박홍·남용우 역

3. 발행연도: 1997년

4. 쪽수: 455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거목

7. 목차

글을 열며

글 길라잡이

민중 민주주의 민족혁명

주체사상

학생운동권의 실체

문화 사회주의

레드 바이러스 비판

회두(回頭)

통일의 새세대를 위하여

부록

8. 연구목적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구현을 위해 불의를 정의로, 폭력을 비폭력으로, 불신을 신뢰로 군부독재와 부정부패에 대해 온 한국 학생운동의 전통이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 폭력성과 좌경사상성(친북·반정부 반미 폭력투쟁)으로 변화하게 된 근원적 뿌리 및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레드바이러스의 항체를 형성하게 하고자 함.

9. 연구내용

이 책은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의 학생운동과 관련 비판적 성격을 띤 글을 모았기 때문에 일관된 체제를 갖 추고 있지는 못하다. 개별 목차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글을 열며”에서는 책의 출간 목적 및 박홍 신부 개인을 다룬 인터뷰를 실었다.

“글 길라잡이”에서는 레드 바이러스의 실체로 맑스·레닌 사상,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칭하고, 한국 대학생 운동권의 정체를 민중, 민주, 민족해방의 추구로, 그리고 학생운동의 전술을 학내투쟁, 학부제 반대와 순수학문주의를 비판 하는 전술로 설명한다.

“민중 민주주의 민족혁명”에서는 한국 변혁주의 운동의 전략과 전술 및 한국 민중 민주주의 민족 혁명 운동을 위한 혁명론자들의 전략을 소개하고 좌익운동권 사용 용어를 설명한다.

“주체사상”에서는 「조선일보」, 「월간조선」, 「한국논단」 등에 실렸던 주체사상과 관련된 박홍, 김수환 추기경, 황장

엽, 대남 공작원 출신 귀순자 김수재 등의 원고, 강연, 기사 등을 실었다.

“학생운동권의 실체”에서는 ‘한총련의 노선, 기치’, ‘운동권의 세상 바라보기’, ‘운동권의 진실 왜곡, 자기 논리의 미화 포장’, ‘그들의 전략과 전술’, ‘전투조직 기원의 역사’, ‘범민련 사업계획과 관제’ 등의 제목으로 한총련 관련 자료와 글들을 실었다.

“문화 사회주의”에서는 박홍과 양동안의 글을 실었다.

“레드 바이러스 비판”에서는 한총련 유인물과 북한방송의 비교를 통해 ‘한총련의 이적성’과 ‘좌경세력 연방제 통일논리 부당성’을 설명하고 한총련 및 학생운동권을 비난하는 이광훈, 김지하, 정의채 신부, 송복, 양호민, 권영빈, 조돈만 및 일반 시민·학생의 ‘신문사설’과 ‘학생들의 소리’를 실었다.

“회두”에서는 주체사상으로부터 전향한 학생들의 글을 실었다.

“통일의 새세대를 위하여”에서는 통일문제에 대한 박홍의 원고 및 강연을 실었다.

“로동신문”에서는 한국 학생운동의 실체를 발견하기 위해 반미, 반정부, 친북 용공 투쟁을 주장하는 북한의 「로동신문」을 실었다.

“신문자료”에서는 학생운동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신문기사들을 실었다.

10. 연구의의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주사파’ 학생운동을 비판하기 위해 주제와 관련된 여러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다. 그러나 편파적이고 편협된 반공주의의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써 당시 학생운동이 주체사상을 수용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였다.

1. 제목: 「한국 좌익학생운동에 관한 연구」

2. 저자: 원천희

3. 발행연도: 2000년

4. 쪽수: 77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7. 목차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제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장 한국학생운동권의 분파현황 및 계파별 형성과정

제 1절 좌익학생운동권 체계현황

제 2절 계파별 형성과정

제 3장 좌익학생운동권의 혁명전략과 북한과의 연계성

제 1절 좌익학생운동의 혁명전략 유형

제 2절 계파별 혁명전략

제 3절 각 계파의 혁명전략의 차이점 분석

제 4절 좌익학생운동권과 북한과의 연계성 검토

제 4장 좌익학생운동의 전망과 대책

제 1절 좌익학생운동의 전망

제 2절 좌익학생운동에 대한 대책

제 5장 결론

8. 연구목적

좌익학생운동권의 문제를 정의하고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않은 좌익학생운동권의 각 계파별 혁명전략을 비교분석하고 더 나아가 한국 내 좌익학생운동권과 북한과의 연계성을 검토해보고 그 대책을 강구해보고자 함.

9. 연구내용

이 논문은 “좌익혁명세력이라 부르는 자들은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으로 한국의 자유민주체제전복을 노리는 세력들”이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공간기관의 문건과 비슷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대학가, 노동현장, 집회시위현장 등에서 유포되었거나 이러한 사회주의 혁명을 지향하던 단체나 이러한 단체에 속해있던 구성원들이 소지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유인물, 책자, 각종 이론서적 등을 가능한한 많이 수집하여 좌익운동권이 구사하는 혁명전략을 분석하고 이들과 북한과의 연계성에 대해 좌익운동권에서 배포한 책자의 내용을 분석,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저자는 서론부에서 이 논문의 유용성을 적극 피력하는데, 그것은 첫째 좌익세력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알려 더 이상 기만당하지 않게 하는 것, 둘째 공안행정분야 종사자들이 좌익학생운동세력들의 정체파악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것, 셋째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체제의 수호와 발전에 이바지하고 온 국민들이 분단된 조국의 평화통일에 슬기롭게 참여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거창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하는 이 논문은 그 기본의도가 학생운동 중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력들에 대한 강한 외재적, 이데올로기적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저자는 현재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학생운동권의 조직재편 구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학생운동권의 계파별 분파상과 조직실체 및 활동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즉 북한 및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있는 ①NL 주사파와, 맑스-레닌주의를 추종하는 ②NDR파 ③PDR파, 트로츠키노선을 추종하는 ④트로츠키파 및 NL과 PD 세력의 연합세력인 ⑤21C파 및 기타 소분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각 계파들은 한국의 현체제를 타도하고 계급투쟁에 의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자는 데는 일치하나,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성사시키느냐의 문제를 놓고 계파간 심한 노선상의 차이를 보여준다. 저자는 이러한 분류기준에 의거하여 이들의 현황과 형성과정을 매우 간략하게 소개한다.

다음으로 좌익학생운동권의 혁명전략을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는데, 연속2단계 혁명론과 1단계혁명론으로 구분한다. 연속2단계 혁명론은 PD파 및 트로츠키파를 제외한 모든 세력(NL주사파, ND파, NL비주사파)들이 채택하고 있는 혁명전략으로, 한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 먼저, ‘민주화 쟁취, 독재타도’라는 명목 하에 수단적인 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고(1단계 예비혁명), 다음에 ‘사적 소유 전면 철폐, 부르주아지 타도,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본격적인 사회주의혁명을 진행시키는 전략(2단계 목적혁명)이다. 1단계 혁명론은 PD파와 트로츠키파에서 채택하고 있는 혁명전략으로 노동자계급이 빈농만을 동맹군으로 삼고 소부르주아지 계급을 고립화시켜 ‘사적소유 철폐, 부르주아지 타도,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혁명을 직접 진행시키는 전략이다.

저자는 이러한 혁명전략을 보다 구체화하여 소개한다. 저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좌익운동권 사이에서 추종되고 있는 혁명론은 연속 2단계 혁명론인 ①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NLPDR) ②민족민주혁명론(NDR)과, 1단계 혁

명론인 ③민중민주주의 혁명론(PDR) ④국제사회주의 혁명론(ISR) ⑤기타(반제-반독점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 등이 있다. 저자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혁명론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들 계파들간의 혁명전략의 차이점을 남한사회의 성격규정, 모순 관계, 투쟁대상 설정, 혁명역량 편성, 혁명과정, 통일관 등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다음으로 좌익학생운동권과 북한과의 연계성을 검토한다. 저자는 좌익운동권들의 팜플렛의 내용과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별함으로써, 좌익학생운동권이 북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논증한다. 좌익학생운동과 북한은 궁극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목표로 한다는 점, 현단계혁명을 반제·반파쇼민족민중혁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혁명정권기의 성격을 민중연합 독재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 혁명역량을 편성하는 데 혁명의 주력군을 노동자로 하고 예비군으로는 농민, 도시빈민, 학생 등이며 지원역량으로는 북한과 국제사회주의 역량을 포함한다는 점, 혁명의 수행방법으로 혁명적 방법과 폭력혁명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등을 들고 있다.

이어 저자는 좌익학생운동권의 활동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체제 내부의 모순과 불합리 제거, 올바른 대공·대좌익 정책 수립과 실행, 범국민적 대좌익 세력 구축, 국제적 상황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 관행적인 수사방법 개선을 통해 좌익학생운동권의 확산 요인을 없앨 것을 제시한다.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좌익학생운동권과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제거하고, 좌익학생 운동권을 발본색원할 것까지 주장한다.

10. 연구의의

국내 학생운동진영의 논리를 국제사회주의 조류의 관점에서 분류·정리하여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음. 그러나 과거 독재정권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여 학생운동의 긍정적인 측면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탄압할 것을 주장하는 수구적인 논리로 일관하고 있음.

1. 제목: 『‘전대협’은 순수운동조직인가』

2. 저자: 국가안전기획부

3. 발행연도: 1991년

4. 쪽수: 59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국가안전기획부

7. 목차

- (1) 역대 ‘전대협’ 의장은 주사파 지하조직원
- (2) ‘정책위원회’는 주사파 지하조직원으로 구성된 ‘전대협’의 사령탑
- (3) ‘조통위’위원실에도 주사파 지하조직원이 침투, ‘전대협’의 연북통일투쟁 지도
- (4) 주사파 지하조직이 ‘전대협’을 장악하는 과정
- (5) ‘한민전’의 투쟁지침을 그대로 추종
- (6) 주사파는 ‘한민전’의 전사를 자처
- (7) 김일성을 수령으로 추앙
- (8) 북한의 ‘혁명적 수령관’에 따라 의장을 예우
- (9) 북한만을 정통정부로 인정
- (10) 북한방송 청취팀을 운영

- (11) 북한의 고려연방제를 유일한 통일방안으로 신봉
- (12) “통일대축전”은 연방제 통일론을 선전하는 장
- (13) 북한과 직접 연계를 위해 밀입북을 자행
- (14) ‘범민련’을 통해 북한 및 해외친북세력과 연계
- (15) ‘전대협’이 가입한 ‘범민련’의 성격
- (16) 농촌활동까지도 친북 의식화 활동에 이용
- (17) 북한영화를 밀반입, 상영
- (18)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선전 내용

8. 연구목적

국민들에게 민주화 투쟁세력으로 가장된 ‘전대협’의 정체를 폭로하여 그 실체를 알리기 위해 제작됨.

9. 연구내용

이 책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전대협’을 조사한 과정에서 드러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서술된 것이다. 이 책은 역대 전대협 의장이 모두 주사파 지하조직원이었다는 주장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87년 5월 전대협 1기부터 91년 6월 현재 전대협 5기까지 역대 전대협 의장들인 이인영(고대), 오영식(고대), 임종석(한대), 송갑석(전남대), 김종식(한대)이 모두 주사파에서 사전에 철저히 교육시켜 의장으로 만든 지하조직원들이다.

5기 전대협 정책위원회에 대한 분석에서는, 지하조직원들로 구성된 ‘정책위원회’가 전대협을 장악하고 있는 실질적인 중앙지도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정책위원회에서는 전대협의 정책과 시기별 투쟁계획 등 투쟁 노선을 입안하고, 시위, 집회의 목적 등에 대한 총괄적인 방향 지도 등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전대협 내 통일투쟁을 전담하는 중앙위원회 직속의 특별기구인 ‘조통위’(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학생추진위원회)는 철저하게 북한의 대남통일전략을 수용, 추종하고 있다고 한다.

주사파 지하조직이 전대협을 장악하는 과정은 ① 대상자 선발 → ② 사상학습, 핵심인자로 양성 → ③ 지하조직원으로 인입 → ④ 전대협 간부로 내정 → ⑤ 전대협 침투, 지도부 장악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이 글에서는 신입생이 입학 이후에 어떻게 주사파가 되는지를 월별로 분석하고, 전대협 의장과 같은 핵심인물의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전대협은 북한 한민전이 “구국의 소리방송”을 통해 국내 좌익세력에게 신년초 및 학기초, 4~5월 노동운동시기 등 정치·사회적 계기시마다 제시하고 있는 ‘한민전’의 투쟁전략전술적 지침을 그대로 수용, ‘전대협’의 투쟁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인 근거로 한민전 “91년 신년맺세지”와 전대협 “91년 신년서한”을 비교하여 소개하고 있다.

전대협 조통위 위원장 및 전대협 의장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이들 주사파들이 한민전의 전사임을 자처한 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별도로 한민전의 실체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한민전은 북한의 대남 흑색선 전기구로 국내 좌익세력을 한민전의 지도이념으로 규합, 체제전복투쟁의 전위세력화를 위해 좌익세력에게 시기별 투쟁지침을 제시하는 조직이다.

자민통 조직원과 4기 전대협 의장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이 김일성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김일성 일가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등 김일성을 수령으로 추앙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의 진술과 결의문, 맹세문 등을 소개하고 있다.

북한의 혁명적 수령관은 첫째로,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가장 올바른 견해와 관점 및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자세와 입장이며, 둘째로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절대적 지위

를 차지하고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대협은 주요 간부들은 이러한 북한의 수령관을 그대로 체현하여, 전대협 의장에 대해서도 수령으로서 예우하고 있다고 한다.

전대협 4기 의장은 “북한은 정의와 자주권이 보장되어 있는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정부이며 북한에 의한 통일만이 진정한 조국통일이다”라고 주장하는 등, 전대협은 북한만을 정통정부로 인정하고 있다.

전대협은 자민통, 조통그룹 등 주사파 지하조직이 한민전 명의로 북한이 운영하는 대남 흑색방송인 ‘구국의 소리 방송’을 청취, 그들이 제시한 각종 투쟁지침을 그대로 수용하여 당면 투쟁과제와 목표를 설정하고 매시기 투쟁방향을 결정해 왔다고 한다.

이 글에서는 또한 전대협은 연북통일투쟁 지도부인 ‘조통위 정책실’에서 작성한 “전국 통일일꾼 전진대회 자료집” 등 각종 투쟁지침서의 내용을 소개한다. 남·북한의 제통일방안 비교를 통해, 남한 당국이 제시한 통일방안들은 분단 지향적인 반면 북한의 방안은 평화적·민주적 원칙에 입각한 통일방안이라고 찬양하고, 북한이 제시한 “고려연방 공화국 창립방안”과 동일한 1민족, 1국가 2개 제도, 2개지역 정부형태의 “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애국 애족적이며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라고 선전하고 있다고 한다.

전대협이 서울에서 개최를 추진중인 “남·북·해외 청년학생 통일대축전”은 범민족대회의 분위기 조성 및 정부의 통일창구 단일화 정책 무력화 및 연방제 통일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통일투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 한다.

전대협은 88년부터 반미청년회, 조통그룹 등 지하조직의 배후조종으로 통일투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명분 하에 전대협 대표단을 일본, 독일 등 제3국을 통해 밀입북시키거나 기도하여 왔다고 한다.

전대협은 북한이 해외 친북세력과 국내 전민련 등 문제권과의 통일전선 형성 공작을 위해 결성한 조국통일 범민족연합에 가입하였다고 한다. 이에 전대협은 범민련을 조국통일투쟁의 구심체로 규정, 범민련 사수 강화 투쟁을 선동하는 등 범민련을 친북통일투쟁의 중심 고리로 설정하고 있다고 한다.

전대협은 농촌활동 기간을 이용하여 의식화 학습, 불순 VTR상영, 풍물놀이, 유인물 살포 등을 통해 연방제 통일논의를 선전하고, ‘농민 통일선봉대’를 조직하는 등 농민의식화 및 친북 연대세력화에 주력해 왔다고 한다.

전대협은 북한과 동일한 선전 내용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남·북한 유엔 가입에 대해, 미군·핵문제와 관련, 반미투쟁, 한국군을 미국의 용병으로 매도, 팀스피리트훈련을 북한에 대한 “침략전쟁훈련”으로 매도, 남·북한 통일정책에 대해, 정권 타도 투쟁에 대해서 각각 북한과 전대협 선전 내용의 유사성을 비교하여 소개하고 있다.

10. 연구의의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의 전대협에 대한 비판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소책자로서, 대표적인 공안기관의 학생운동조직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소략하게 소개되고 있으나, 주장과 근거가 비교적 명확하다.

1. 제목: 「80년대를 중심으로 한 한국 좌경학생운동의 선도방향 연구」

2. 저자: 김병준

3. 발행연도: 1992년

4. 쪽수: 59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7. 목차

- 제 I 장 서론
- 제 II 장 좌경학생 운동의 개념
- 제 III 장 좌경학생 운동의 기본시각
- 제 IV 장 80년대 좌경학생운동의 변천과정
- 제 V 장 좌경 의식화 과정의 실태
- 제 VI 장 좌경학생운동의 각계 침투실태
- 제 VII 장 좌경학생운동의 원인과 대책
- 제 VIII 장 결론

8. 연구목적

극렬 좌경학생운동 가운데에서도 80년대를 중심으로 좌경학생운동의 개념, 좌경학생운동의 각계침투실태, 좌경학생운동의 원인과 대책 등을 소개함으로써 좌경학생운동의 선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9. 연구내용

이 논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전반부에서는 좌경학생운동과 관련한 여타의 개념 정의와 80년대 좌경학생운동의 간략한 전개과정, 후반부에서는 좌경학생운동의 발생원인에 대한 진단과 이에 해결책 모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논문의 제목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논문은 좌경학생운동을 사회의 부정적 병리현상으로 보고, 이를 선도해야하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저자의 인식은 저자의 주관적인 가치관에 일차적으로 근거하고 있으면서, 논문 초반부에서의 연구의 목적과 후반부의 참고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객관적인 자료의 선정에 의해서도 그러한 방향성을 예고하고 있다.

저자가 참고한 문헌들을 살펴보면, 국가안전기획부, 공안문제연구소, 대공간부연구소, 치안본부 등에서 간행한 자료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학생운동에 대한 관변, 그것도 가장 보수적인 집단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 논문은 자료선정에 있어서 균형을 상실하고 있으며, 연구대상의 일면만을 고찰하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한국학생운동에 대한 일면적인 분석 시각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III장(좌경학생 운동의 기본시각)과 IV장(80년대 좌경학생운동의 변천과정)의 내용은 비록 공안기관의 문건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80년대 급진적인 학생운동의 등장과 변천과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III장과 IV장에서만큼의 논의는 특별한 저자의 가치 개입없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서술한 느낌을 많이 주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는 좌경학생운동의 이론적 기초로서 사적유물론, 사회주의혁명론, 계급투쟁론, 제국주의론 등을 다루고, 그들의 남한사회의 성격규정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80년대 학생운동의 초기 형태라 할 수 있는 학림과 무림사건으로부터 NL, PD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변천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문건과 같은 소략한 서술로 인하여, 이들 학생운동내의 다양한 입장의 차이를 비교 고찰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통칭하여 좌경학생운동이라는 하나의 범주에 포함시켜 이해하는 문제점이 있다.

10. 연구의의

이 논문은 공안기관의 문건과 같은 느낌을 주는 글로써, 학생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5. 학생운동의 의식 및 의식형성과정

1. 제목: 『학생운동의 사상적 배경분석』, 『성균관대 사회과학』 28집¹⁸⁾

2. 저자: 이명영

3. 발행연도: 1988년

4. 쪽수: 36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성균관대학교

7. 목차

- I. 문제의 제기
- II. 정부의 반공정책과 학생운동
- III. 학생운동의 사상적 연원
- IV. 북한의 통일정책과 학생운동
- V. 결론

8. 연구목적

오늘날 학생운동의 주도 세력은 혹은 “반미자주화”와 “반파쇼민주화”를 고창하면서 혹은 “반제반파쇼 민족민주투쟁”을 절규하면서 겉으로는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속으로는 이 나라를 북한에 병합케하기 위한 혁명에 열중하고 있음. 언제부터 이 나라의 학생운동이 이렇게 되었으며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밝히고자 함.

9. 연구내용

저자는 학생운동의 연공·연복적 성격을 실증적으로 밝혀내기 위해 글을 전개하고 있다. 저자의 역사인식을 우선 살펴보면, 저자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나, 6·25전쟁의 경험이나 국민의 절대 다수가 공산주의를 반대하며 공산당을 싫어하는 사상의식으로 무장되어 왔던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의 학생운동세력들은 반공주의 사상으로 무장되기보다는 어느 순간부터 친공적 사상으로 무장되어 왔다. 이는 전후 지속된 반공이념교육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의 원인을 한편으로 반공주의 교육을 담당한 사람들의 능력 부족, 다른 한편으로 성장일변도의 경제개발정책이 가져온 부작용 속에서 정부가 부적절하게 힘으로만 통치를 한 것에서 찾는다. 이 과정에서 학생운동은 민주화를 지향하는 저항을 하게 되었고, 때마침 해방신학, 민중신학, 종속이론 등의 자본주의 비판 사상이 유행하게 되었는데, 북한은 이를 적절히 포착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70년대 말로 접어들면서 점점 더 학생운동의 중심부는 공산주의 혁명 이론으로 무장되어 갔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저자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한다. 1980년 10월에 조선노동당 제6차 당대회는 남한에서는 “이미 반공방파제가 무너지고 국내외에서 용공통일의 세찬 물결이 넘쳐흐르고 있다”고 호언 장담했다. 이는 남한 사회의 움직임 특히 그 학생운동의 흐름으로 볼 때 의미심장한 선언이었는데 70년대 후반이래 학생 운동의 흐름은 이 북한의 분석을 수긍케 하는 요소들로 점철되어 오다가 드디어 80년대에 들어서서는 바로 공산 통일 이론으로 직행하였

18) 학생운동 비판 문헌의 내용도 다루고 있음.

다는 것이다. 학생운동은 이후 더욱 과격해지고 조직화되어 더욱 뚜렷이 북한의 남조선해방통일노선으로 밀착해 갔으니 그만큼 남한의 반공 정책은 유명 무실해진 것이라고 한다.

저자는 이러한 학생운동의 사상적 연원을 살펴보니, 학생운동의 사상적 흐름을 관찰하는데 있어 의미있는 자료는 1980년 4월 1일자 서울대학교신문 논설 “4월 혁명 20주년을 맞는 우리의 자세”라는 글이었다고 한다. 이 논설의 논리는 한마디로 한국은 미제국주의의 비호 하에 친일 분자와 지주들로 이룩된 나라이며 6·25전쟁도 그들의 이익을 위해 치뤄졌으며 그들이 공산주의세력을 말살시켜 분단을 고착시켰으며 또한 반대 세력을 옹공으로 몰아 탄압했으므로 그들을 타도하여 민족 통일을 쟁취하려 했던 것이 바로 4월 혁명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서의 민족 통일이 공산 통일을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한데, 이러한 사상의 발생은 1960년 8월 14일의 평양의 해방 15주년 경축대회에서의 김일성의 연설과 1955년 김일성의 4월 테제에 영향을 받아 1961년 서울대학교의 제2선언문에서 나타난 사상적 변화로부터 연원한다고 한다. 김일성의 연설내용과 4월 테제는 1961년의 서울대학 4월 혁명 제2선언문에 이르러서 “반봉건 반외세 반매판의 민족 혁명을 통한 민족 통일”의 요구로 표현되었으며 이 논리가 해마다 거듭된 4월 혁명 선언에서 점점 더 심화 강화되는 과정을 밟다가 1980년 4월 혁명 20주년 논설에 이르러 4·19의 의미를 “반봉건 반외세 반매판의 민족 혁명”이라고 규정지음으로써 반제 반봉건의 북한식 4·19평가와 같은 사상적 시각을 보여 주었다.

4월 혁명 20주년 논설은 80년대 학생운동은 첫째 “내외적 분단 유지 세력을 압살시켜 가는” “민족 운동”을 지향해야 하며 둘째 “평등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 운동”을 지향해야 하며 셋째 “민중 운동” 등 “진보적 사회 운동”을 지향해야 하는 바 그것은 “민족주의의 구현도 민주주의의 달성도 기층 세력의 의식화 조직화를 통한 하부 구조의 혁명적 변혁 없이는 실패의 운명을 걷는 수밖에 없다는 4·19가 준 생생한 교훈”을 살려 “노동자가 지배하는 사회를 창출”하는 일을 핵으로 삼는 그러한 사회 운동이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내외적 분단 유지 세력”이란 미국과 남한의 지배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김일성의 4월 테제 이래 정형화된 북한의 대남 선동 명제의 하나이다. 또 “4·19가 준 생생한 교훈”이란 것도 노동자 농민의 참여가 없었기 때문에 4·19가 실패했다고 했던 김일성의 해방 15주년 기념 연설에서 부각된 북한측 논리의 복창이다.

또 하나 저자가 주목하는 문건은 1980년 5월의 광주 사태 후에 학원가에 은밀히 나돈 「민중·민주주의·민족 혁명 운동의 기본 개념을 정리하자」란 지하 문건이다. 이 문서는 남한의 과제는 민중민주주의민족혁명의 과제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민중이란 노동계급, 빈농계급, 도시빈민계급을 주로 지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민중이 주체가 되어 반제반매판자본주의혁명을 하여 민중이 지배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민중민주주의민족혁명이란 것이다. 요컨대 노동자 농민을 주축으로 하여 반미자본주의혁명을 한다는 것인데 북한의 대남 전략과 똑 같다. 저자는 이 문서가 과거에 대학가에서 나왔던 성명서나 논설류와는 달리 적은 부피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책자로 되어 있으며 동시에 제법 그럴 듯한 틀을 갖춘 계급 혁명의 이론서로 학생들의 작품은 아니라고 추측한다.

또한 동년 12월 11일에 서울대학에서 나온 「반파쇼 학우 투쟁 선언」이란 유인물은 70년대 후반 이래의 학생들의 혁명적 주장을 집약적으로 대변한 것으로서 공산주의 혁명 이론 자체였다고 한다. 이는 한국 사회를 사회주의 혁명의 전야인 “국가독점자본주의에 기초한 파시즘”으로 규정한 위예다가 조선노동당의 ‘남조선 혁명론’을 덧붙인 것이었다. 여기서도 당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의 남한혁명론을 따르는 한은 당의 문제란 제기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당은 남한의 지하에 잠복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래로 학생 운동의 주된 슬로건은 “매판 독점 자본”과 “전두환 파쇼 집단”에 대한 반대 투쟁을 외치는 것이었다.

1984년 봄에 나돌았던 술한 유인물 중에 대표적인 것은 5개 대학(서울대·성대·고대·연대·이화여대) 학도호국단 주최 공동 학술 심포지움의 주제 논문이란 형식으로 간행된 「한반도의 위기 상황과 민족 통일」이란 책자였다. 반공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민족의 화합과 생존을 위한 통일의 길로 나가야 하며 민족의 분단을 영구화시키고 민족과 국토를 외국에 팔아먹으려는 매판 세력을 극복하고 통일 운동을 재확립시켜야 한다는 서문으로 시작된 이

책자의 내용은 한반도의 위기 상황은 주한 미군 때문이란 것이었다. 미군은 1945년에 해방군으로서가 아니라 침략군으로 진주했으며 6·25는 남한의 매판 세력 때문에 일어난 것이며 북한이 제의한 삼자회담은 미군과 그 핵무기를 철수시켜 핵전쟁을 예방하고 한민족을 지키기 위한 제안이며 남북한 교차 승인이나 UN 동시 가입은 영구 분단 책동이란 것이다. 학생들 작품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 이 책자는 북한측 주장을 충실히 대변하고 있다.

학생들은 통일 문제에 있어서만 북한측 이론에 동화된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 역사인식에 있어서 먼저 북한측 주장에 동화되어 있었다. 1985년 봄에 나돌았던 전국학생총연합이 내놓은 「광주민중항쟁의 민중운동사적 조명」이란 책자가 그것이다. 이 책자는 간략하나마 일제 때로부터 1985년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의 「민중운동사」를 서술하고 있는데 일제 때의 역사를 독립운동 또는 항일투쟁 또는 광복운동 등의 이 나라 학계나 사회의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하지 않고 민족해방투쟁이란 북한식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민족해방투쟁의 주체를 한민족으로 파악하지 않고 민중, 즉 노동자·농민·도시 빈민 등으로 파악함으로써 독립 운동 즉 민족 해방 투쟁의 본질을 계급 투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북한식 주장에의 동조이다. 특히 해방 후의 남한의 역사를 여전히 민중에 의한 민중 해방 투쟁사로 보는 시각같은 것은 북한측 이론 그대로이다. 이 책자도 물론 학생들 작품은 아닐 것이다. 혁명 공작의 이론 선전 담당 팀 정도가 아니고서는 이런 수준의 책자란 그리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

1986년부터 더욱 많은 혁명 문건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반전반핵 투쟁을 외치는 문건 같은 것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그 내용은 1984년 8월 7일에 평양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내놓은 반전반핵 투쟁 호소와 똑 같은 것이었다.

1987년부터는 자민투와 민민투라는 학생운동 단체가 등장하였다. 자민투는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을 목표로 한다. 남한은 계급 모순보다 민족 모순이 더 근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미군을 축출하는 민족해방투쟁이 최우선 과제이며 그렇게 될 때만이 미국의 지원을 받는 군부 독재도 타도된다 해서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를 으뜸가는 노선 및 구호로 삼는다. 이 노선, 이 구호는 북한의 대남 공작 노선 및 그 구호와 똑 같다.

민민투는 민족민주혁명을 주장하는데 계급 모순을 근원적인 것으로 보아 계급해방투쟁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자민투와 같은 과도정부의 시기를 배경하며 곧바로 무장 봉기로 혁명 정부를 세우고 제헌의회를 구성, 민중 민주 공화국을 수립하며 동시에 미국을 내쫓는다는 것이다. 이들 이론의 출발점은 계급 혁명의 여건이 성숙됐다는데 있다. 그래서 아직은 덜 됐다고 보는 자민투와의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두 파 모두 한국을 부정하고 계급 혁명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며 북한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을 성취하자는 데 있어서는 이론이 없다.

저자는 이상과 같이 학생운동과 북한의 연계성을 밝히고 정부의 대응과 학생운동권의 변화를 촉구한다. 이제 한국 학생 운동은 정치적 민주화가 이룩될 상황에서 택해야 할 새로운 진로 모색에 직면하고 있다. 새로운 반정부 투쟁의 전술 이론을 구축해야 하며 새로운 운동의 고조를 조성해야 한다. 이때라고 해서 북한이 수수 방관할 리는 만무하다. 저자는 1960년의 4·19에 한국 학생의 위력을 감지한 이래 학생의 힘을 한국 혁명의 주력으로 삼으려는 전략을 쓰기 시작했던 조선노동당의 대남 정책은 드디어 1987년에 이르러 그들 노선을 추종하는 세력이 정치 변혁을 일으키는 데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고야 말았다고 한다. 이 추세를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데 북한이 더욱 전력 투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저자는 이 막중한 정세에 직면하여 한국이 해야 할 일은 학생운동의 흐름부터 방향 전환시켜야 하는 일이라고 단언한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정치와 교육이 그 책임을 다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혁명 대신 혁신을 지향케 하며 나아가서 조선노동당남조선분국으로 하여금 발붙일 곳을 없게끔 할 전략과 전술을 강구하여야 한다면서 글을 맺는다.

10. 연구의의

한국학생운동의 사상적 배경을 북한의 혁명전략과 연관시켜 상호간 관계를 고찰한 글이다. 그러나 이 상호관계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실증 자료만으로 학생운동의 연공성을 논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며, 특히 자민투와

민민투의 차이보다는 공통점을 너무 부각시켜 학생운동 내의 균열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1. 제목: 「한국 대학생의 학생운동 이념 변천에 관한 정책 연구: 학생 운동에 관한 유인물, 전단의 내용별 계량 분석과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울산대 연구논문집』 21집 2호

- 2. 저자: 이병철 · 박양수
- 3. 발행연도: 1990년
- 4. 쪽수: 68쪽
- 5. 형식: 일반논문
- 6. 발행처: 울산대학교

7. 목차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 2. 연구의 목표
 -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II. 한국대학생의 학생운동 이념변천
 - 1. 학생운동의 일반적 의미
 - 2. 한국학생운동 이념변천의 과정과 평가
- III. 일본 및 구미의 학생운동이념 변천과정과 평가
 - 1. 일본학생운동
 - 2. 미국학생운동
 - 3. 유럽학생운동
- IV. 학생운동에 관한 유인물 및 전단의 내용별 계량분석
 - 1. 연구분석체계
 - 2. 분석
- V. 한국대학생의 학생운동에 관한 의식조사
 - 1. 연구방법
 - 2. 분석
- VI. 종합평가
- VII. 전망 및 정책제언

8. 연구목적

한국 대학생의 학생운동의 흐름을 시대별로 분류하고 시대에 따른 학생운동의 변천과정과 학생운동의 주요쟁점 그리고 이것을 낳게 한 중요한 이념이나 사상적 배경, 운동조직관, 투쟁전략 등을 분석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키 위한 정책적 좌표를 제시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9. 연구내용

이 글은 학생운동의 유인물과 전단 등의 문헌분석을 내용별 계량분석 방법과 현지조사를 통한 질문지 조사방법으로 실증적으로 연구한 논문이다. 저자들은 이러한 연구분석과정에서 도출된 학생운동의 흐름과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특성 및 문제점들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처방전으로 문제해결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저자들이 한국학생운동의 흐름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제기된 몇가지 특징을 평가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상 일제시대부터 학생운동의 효시로 기산하고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의 학생운동은 해방이후부터라고 사료된다.

둘째, 해방직후의 좌우학생운동은 과도기의 이념적 혼란에서 빚어진 것으로서 좌우이념대립이 가져온 산물이라 할 수 있겠고 50년대는 관재동원의 결과로서 학생들에게 소외의식을 느끼게 한 시기로 평가된다.

셋째, 1960년대는 민주주의, 헌법, 그리고 자유, 평등, 진리, 정의 등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되었고 70년대의 주요 쟁점은 민족주의, 자유, 투쟁, 혁명이며 80년대는 경제, 매관, 노동, 투쟁, 혁명 등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60년대가 다소 당위적이고 이상적인 입장에서 민주주의나 자유를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표현하는 헌법에 관한 문제에 집착한 반면 70년대부터는 물론 민주주의나 자유를 이상으로 하되, 투쟁이나 혁명을 수단으로 한 현실참여라는 점을 학생운동이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하며 80년대에 와서 이론이 보다 구체화되어 직접 현실 참여의 목적과 연관된 매관, 통일 및 노동문제에 관해 쟁점화하여 들고 나오고 있고 이러한 궁극적 목적을 쟁취키 위한 수단도 이상적이거나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투쟁이나 혁명을 수단으로 하는 좌파적 성향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60년대와 70년대는 주로 민주주의, 자유, 독재, 부정부패, 선거 등이 주요쟁점으로 제기되나 80년대에 와서는 민주주의, 매관자본, 노동문제, 통일, 투쟁, 민족자결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모색으로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문제제기가 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학생운동의 방향이 어느 한 특정한 이상적 쟁점의 범주에서 탈피하여 현실적응적인 쟁점으로 다원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1960, 70년대가 다분히 자유나 평등, 진리, 정의 등을 구가하며 독재정권의 타도를 통한 궁극적인 민주사회건설이라는 다분히 낭만적인 학생운동의 흐름이었다고 한다면 80년대는 이러한 낭만성에서 벗어나 외세축출과 자본주의체제의 제모순에 관한 문제를 쟁점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60년대, 70년대는 학생운동의 이념적 이론무장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무림과 학림사건을 계기로 학생운동을 추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의 시각과 방법론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어 균형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열띤 이념논쟁이 뒤따르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학생운동의 방향성이라 할 수 있는 학생운동이념이 창궐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념적 흐름은 「무림-학림」, 「야비-전망」, 「깃발-반깃발」, 「C-N-P논쟁」 등을 거쳐 80년대 중반의 「삼민투」 그리고 「민민투」, 「자민투」간의 이론 논쟁으로 이어지며 좌파적 사회주의운동의 이론적 기초형성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구미의 학생운동의 흐름을 살펴볼 때, 대개 학생운동의 진앙지는 학내문제가 불씨가 되는 경우가 많다.

여덟째, 내용별 계량분석을 통해 유인물을 분석한 결과 문헌분석에서 제기한 학생운동의 흐름의 맥이 많은 부분에 걸쳐 일치하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이론적 접근을 통한 문헌분석에서 발견된 사실들이 실증적 검증과정을 거쳐 사실로서 확인되어졌음을 의미하며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제시된 한국에 있어서의 학생운동의 흐름 속에서 제기된 제 특성은 나름대로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아홉째, 현지조사를 통한 질문지방법도 현재 학생들의 상당수가 소위 운동권학생들의 학생운동쟁점에 동감을 표하며 나아가 이들과 유사한 시각으로 사회나 국가, 그리고 학교를 쳐다보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운동권의 이념적 색채로 채색되어지고 있으며 그들과의 심리적 공감대도 서서히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근본적 원인으로 바로 체제나 사회제도의 문제나 모순이 이를 더욱 부채질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자들은 이와 같이 한국학생운동의 흐름상에서 도출된 특징에 대해 살펴 본 후에는 이에 근거하여 향후 학생운

동의 방향이 어떠한 식으로 전개되어 나갈지에 대한 전망을 해본다. 그것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90년대에도 학생운동의 이념적 논쟁은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내다볼 수 있다. 그리고 투쟁은 더욱 강성을 띄게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학생운동의 이념투쟁노선, 전략·전술들이 보다 노골적이고 표면화될 것이다. 민주화 추세에 따른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판단된다.

셋째, 학생운동의 쟁점으로는 군부독재타도, 파쇼타도, 외세배격, 민족자주통일, 매판자본가 타도, 계급타파 등으로 집약될 것이나 이 이외의 여러 가지 쟁점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될 것이다.

넷째, 주된 쟁점은 독재파쇼정권의 타도라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선화하여 민족통일, 외세배격, 매판자본가 타도 등으로 귀착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학생운동의 흐름이 80년대 초, 중반엔 과격하고 급진적인 강성을 띤 내용으로 점철되었으나 8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쟁점자체가 다원화되고 학내문제를 포함한 보다 이론을 의식한 학생운동으로 방향을 정립하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는 전체운동에 대한 부분운동으로서의 학생운동은 전위세력으로서의 기능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저자들은 이상의 전망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운동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 정치적 안정이 요구된다 하겠다.

둘째, 경제적인 분배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이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국민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이념이나 생활신조가 창출되어야 하고 이것이 생활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나 기업이 솔선수범을 하여야 한다.

넷째, 국민들이 보다 올바른 방향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통일방안이 국민의 합의 위에서 정립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과 유관관계기관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학의 문제를 대학자체의 문제만으로 축소시켜 생각하고 대응하는 발상에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데 대학본부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수 그리고 정부, 기업, 유관관계기관의 관심과 성원 등 엄청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문제화된 운동권 학생들을 극단적으로 고립화시키거나 적대시하지 말고 이들의 운동동기들을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요구를 사전에 해소시켜주는 방안을 개발하여 이들의 의식화를 예방함으로써 이들의 운동역량을 약화시키고 지나친 대응전략을 지양하고 보다 예방적 차원 그리고 시의적절한 적실성 높은 대응전략을 사용하여 대중요법적 일회적 대응전략에서 야기되는 역기능을 최소화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일부 불순한 세력이나 재야세력은 전략전술이나 이해타산으로 순수한 동기의 학생운동을 왜곡화시켜서는 안되며 정부는 과감성과 소신을 가지고 이러한 학생운동의 왜곡화를 극소화하는데 진력하여야 할 것이다.

10. 연구의의

한국학생운동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계량적 문헌분석 및 질문지 방법과 같은 실증적 기법을 도입하여 새로운 연구방법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 제목: 『잊혀진 것들에 대한 기억: 1980년대 한국 대학생의 하위문화와 대중정치』

2. 저자: 김원

- 3. 발행연도: 1999년
- 4. 쪽수: 278쪽
- 5. 형식: 단행본
- 6. 발행처: 이후출판사

7. 목차

- 발문
- 머리말
- 프롤로그 - 그때, 그 사람들
 - I. 잊혀진 것들에 대한 회상
 - II. 공동체, 하위문화, 대중정치
 - III. 1980년대 한국 대학생의 운동문화
 - IV. 급진적 정치의 한계: 제도화
 - V. 광기의 복원을 위하여

8. 연구목적

1980년대 학생 대중의 급진화의 형성과 쇠퇴를 설명하기 위해 하위문화의 분석을 통해 대중의 일상적 저항 과정에서 나타났던 집단적 실천과 문화적 정체성 형성의 역동적 과정을 밝히는 것이다.

9. 연구내용

1980년대 학생운동과 관련하여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첫째, 학생운동의 주체는 민중적이고 집단적인 민주적 가치를 지향했고 이는 상상된 민중의 상으로서 ‘민중공동체’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둘째, 이러한 공동체를 둘러싸고 엘리트는 운동의 지식, 가치, 문화를 통해 대중을 규율화 시키고 공식조직인 학생회를 유지함으로써 학생운동 정치를 ‘대중정치’가 아닌 ‘제도화된 정치’로 전락시켰다.

셋째, 공동체를 둘러싼 내부 갈등에도 불구하고, 80년대 학생운동에서 대중 저항의 물질적 기반은 급진적 이데올로기나 80년대의 파시즘적 억압 조건 때문만이 아닌 학생운동이 발명한 상상된 민중공동체와 운동문화로서의 하위문화다.

이상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80년대 대학생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것은 마르크스주의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라 ‘상상된 민중공동체’를 지향하는 학생 공동체의 문화였다. 그들의 민중공동체는 “노동자와 농민의 계급적·저항적 경험, 비참했던 노동 현장의 실상, 파시즘의 가시적 억압, 기성세대의 권위적인 모습, 구래부터 내려온 민중적 의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진 ‘상상적인 구조물’”이다.

이에 따라 80년대 학생 대중들은 노동자의 단순함, 거친 면, 투박함을 선호했고 자신이 대학에 다니는 것 자체를 하나의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회의하거나 비관했으며 교수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사회적으로 공인되는 제도화된 권위를 무시했다. 이러한 그들의 가치, 도덕률 그리고 문화는 술자리와 과방(학과의 방)을 통해 형성되고 재구성되었다.

또한 80년대 학생 대중은 학회나 세미나와 같은 공식적 과정, 선배의 헌신성 및 후배의 동경심이라는 인간적인 신뢰, 거리에서의 투쟁 경험, 하위문화로서의 운동문화 등을 공유함으로써 성원들간의 동지애를 형성하였다. 특히 그

들간의 연대와 동지적 관계의 형성에서 풍물, 민속춤, 쟁가(투쟁가) 등과 같은 다양한 급진적 의례들은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80년대에는 한 평범한 대학생이 80년 광주의 진실에 대한 분노, 5월 투쟁, 철거반대투쟁, 공부방, 야학, 가두투쟁, 교내 투쟁, 농활 등의 통과 의례를 거치면서 맹렬한 학생운동가로 변신하였다.

둘째, 80년대 초반의 학생운동은 엘리트에 의한 선도 투쟁과 야당을 통한 제도화된 투쟁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전체운동의 전위로 사고하였는데, 이는 수차례에 걸친 군부의 집권이 초래한 '제도·정상 정치'의 실종에 기인한 것이다. 80년대의 학생운동은 83년까지는 학생 대중조직의 활성화를 일차적 과제로 삼았고, 이후에는 대중자치조직으로서의 학생회 부활과 반합법 투쟁위원회의 건설을 통해 정치투쟁과 민중연대투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도투쟁, 비제도적 실천은 1986년 일부 학생운동세력이 전술적 과제를 개헌문제로 한정 지우면서 '제도화 전략'을 채택한다.

그러나 80년대 학생운동의 실천은 결과적으로 실패하였다. 물론 보수 일변도의 한국 정치 이데올로기 지형이라는 특수성이 실패의 중요한 이유이지만 학생운동이 물질적 생활관계에 천착하지 못하였고 계급운동의 미분화 상황에서 지식과 논리 중심으로 운동을 진행하였다는 점 역시 대중운동 정치의 한계로서 매우 중요한 실패 이유이다.

또한 학생운동의 실패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학생운동 지도부의 제도화 전략의 한계 때문이다. 이는 1987년 6월 항쟁 시기 대중 진출을 제어하고 선거라는 공식과정으로 편입된 사례와 1991년 5월 투쟁에서 대중의 생존권적 요구와 결합하는데 실패한 사례에 의해 입증된다.

한편 공식조직의 차원에서 학생운동 실패의 원인은 먼저 학생회 조직의 관료·제도화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생회 엘리트들은 민주집중제라는 이름 하에 조직 내 형식적 또는 다수결 민주주의를 허구적이라고 부정하였고, 대중을 학생회 조직의 주체가 아닌 투쟁과 정치사업의 동참 대상으로 사고하였으며, 학생회가 대중조직임에도 일상적인 대중사업을 무시하는 경향을 띠었다. 이렇게 학생회가 관료화, 제도화 경향을 띠게 되자 대중들은 비공식적으로 저항하면서 학생회의 참여자가 아닌 관객으로 전략하였다. 또한 학생회나 공동체 내의 핵심적 공간인 과방에도 위계 질서와 역할 분담이 존재했고 학생회 내부에도 성적 차별과 같이 "근대정치를 괴롭히는 억압들"이 존재했다는 점도 실패의 주요인 중 하나이다.

다음으로 학생운동 실패의 또 다른 원인은 학생운동 그리고 그 하위조직인 학생회 혹은 공동체 내부의 갈등과 균열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은 학생회 선거인데, 원론적으로 선거는 대중들로부터 운동의 정당성을 검증받는 장이지만 점차 정치세력들간의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경쟁의 장이 되었고, 이는 대중들의 눈에 운동엘리트간의 세력 다툼으로 비쳐졌다. 또한 학생회의 의사결정과정과 투쟁을 위한 대중동원에서 운동 세력내 분파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이는 80년대 후반까지 재생산되면서 공동체 내의 균열을 가져왔다.

셋째, 일상적인 삶의 측면에서 학생운동 실패의 원인은 엘리트와 대중의 차별에 기인한다. 운동 엘리트들은 일상의 생활방식, 사고방식 등에서 의식적으로 대중과 차별을 두었다. 그들의 티내기, 차별화는 대중의 자발성이라는 능동적 힘을 간과하도록 만듦으로써 대중을 지도의 대상으로 제도화·고정화시켰다. 또한 그들은 '지식'을 독점화하는 과정에서 대중을 규율하였고, 자신들이 독점한 운동문화를 통해 공동체 내 권력 관계를 재생산하였다. 따라서 대학 내 하위문화로서의 운동문화는 대중의 실천으로 전화되지 못한 채 공동체의 유지수단으로 전략하였다.

결국 80년대 학생운동은 '상상된 민중공동체'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성장하였지만 87년 이후 대중과의 구체적인 결합 지점을 찾는 데 실패하면서 소수 운동엘리트간의 이데올로기, 사상운동으로 전략하였다.

10. 연구의의

학생운동을 성공으로 간주하고 그 역사와 전개과정을 다루었던 기존 연구와 달리 학생운동의 실패 원인을 1980년대 학생운동의 지향, 문화, 위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망하였다. 특히 학생운동 엘리트, 대중, 운동문화와 학생회

간의 총체적 관계로 학생운동 정치의 '동학'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학생운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1. 제목: 「학생운동과 집단 창작에 대한 연구: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 문예운동과 집단 창작의 구조를 중심으로」

- 2. 저자: 이준석
- 3. 발행연도: 2000년
- 4. 쪽수: 126쪽
- 5. 형식: 학위논문(석사)
- 6. 발행처: 서강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7. 목차

- 제1장 들어가며
 - 제1절 왜 다시 집단창작인가
 - 제2절 연구 문제 및 연구방법
-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 개념
 - 제1절 공동체와 계층의식의 형성
 - 제2절 대안매체, 상호작용성과 하이퍼텍스트
- 제3장 공동체의 건설
 - 제1절 80년대 학생운동과 문화
 - 제2절 문예 운동의 출현, 집단 창작의 제기
- 제4장 집단 창작의 문화와 구어 중심 커뮤니케이션
 - 제1절 집단 창작의 속성과 구조
 - 제2절 생산자와 수용자, 구어 중심 커뮤니케이션
- 제5장 맺으며

8. 연구목적

80년대 대학생의 하위 문화—학생 운동 집단의 공동체 문화와 그것의 대중화 및 확대 재생산 과정을 분석하고, 이런 공동체 문화 속에서 출현한 집단 창작의 구조와 속성, 커뮤니케이션의 특징들을 분석하고자 함.

9. 연구내용

저자는 자신의 연구문제를 2가지로 나눈다. 연구문제 1은 “80년대 독특한 정치·문화적 맥락 하에서 어떤 공동체가 형성되었는가, 또한 80년대 대학생들의 공동체, 특히 문예 집단 내부에서 운동은 어떻게 대중화되었는가”이다. 연구문제 2는 “집단 창작 행위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즉, 집단 창작 행위를 경험하면서 구성원의 정치 의식, 예술적 역량과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어떻게 재구성되어 갔으며, 어떻게 공동체를 재생산하였는가? 궁극적으로 그것은 인터넷 미디어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구조와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이 글의 연구방법은 구술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저자는 구술사가 '밑으로부터의 역사'로서 대항역사, 대항담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연구의 대상이 되는 80년대 대학생들의 문화 범주가 하위문화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구술사를 채택하는 것이 타당한 연구방법이 된다고 한다.

저자는 80년대 운동권들이 국가의 공식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민중적 이데올로기의 전통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민중적 상상'을 발명했다고 주장한다. 이 '민중적 상상'을 발명하는데 있어 당시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역사적 조건은 '80년 광주 항쟁'과 '87년 민주화 운동'이다. 또한 상상적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문화적 맥락을 지적하는데, 그것은 자유로운 토론과 문제제기, 반공 이데올로기에 대한 적대시로 대표되는 기성 세대에 대한 멀리, 남성적인 힘에 기반한 폭력적인 의례, '대동'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각종 전통적이고 민속적인 것들에 대한 집단적인 추구하고 재발명, 개인적인 취향의 거부 등이다. 이를 통해 80년대 대학생들은 그들만의 하위문화를 만들어 나갔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저자는, 80년대 대학생들의 집단창작이 오늘날 인터넷상의 정보 생산·유통 구조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인 상호작용성(interactivity)과 하이퍼텍스트(hypertext)의 속성이 유사하게 발견된다는 점이다. 80년대 집단창작행위에서 상호작용성이 실천되고 있었는데, 형성된 네트워크 상에서 격렬한 토론과 교양학습이 이뤄졌고, 결과로 성원들 모두의 다수 대 다수 식의 커뮤니케이션망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인쇄 미디어의 가장 큰 특징인 시작과 끝이 분명한 구조라기 보다는 귀속적이고 다양한 주제들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구어(oral)중심적 구조를 집단 창작 행위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저자는 학생운동이 대중화된 계기를 87년 6월 항쟁으로 잡고 있다. 즉 87년 6월 항쟁 기간 동안 본래 학생운동을 했던 소수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대규모로 집회와 시위에 참여하는, 이른바 학생운동의 대중화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중성은 9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고, 이런 대중화된 힘의 결집이 전국 대학생대표자협의회와 같은 학생 정치 조직을 건설하게 한 힘의 뿌리였다고 한다.

우선 저자는 80년대의 학생운동의 특성을 서술한다. 엠티문화, 술문화, 조직문화 등의 서술을 통해 집단적인 공동체 문화가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가를 당시에 일어났던 문화적 행태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80년대는 분명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의 기간이었지만, 저자는 이 과정에 학생운동 내부에 싹튼 권위주의의 복종, 전근대적 가부장성을 지적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면서 반민주적인 가치에 기반한 행위 전략을 견지했다는 점에서 당시 학생운동의 문화를 '유사 저항 담론'이라고 규정하고, 합리적 근대성의 추구하고 전근대성이 모호하게 결합된 당시 공동체 지향성이 학생운동의 한계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이런 모순적인 측면들은 강제적인 집단 중심주의와 공동체에 대한 식상함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90년대의 대학생들에게 전면적으로 부정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7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학생운동 내에서 문예운동은 부수적인 지위만을 차지하거나 배척되었다. 오직 사회과학습을 중요시하고, 직접적인 거리투쟁만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87년 6월항쟁을 계기로 자주적 문예 운동론이 등장하게 되고, 문예운동도 하나의 운동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자주적 문예 운동론은 학생 운동 내 주류인 NL계열의 문학 청년들에서 제기되었지만, 그 폭발력은 노래, 풍물, 영상, 탈, 무용, 미술 등의 전체 문예패와 학생운동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자기 삶을 통해, 문학 예술 행위를 통해 운동에 복무한다는 자주적 문예 운동론의 제안으로 인해 학생운동 내부에서의 문학 예술 역량 역시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이 와중에서 문예역량을 더욱 고양시키고자 하는 시도들이 고민되었고, 이에 관련한 무수한 논쟁과 고민들에 대한 대안 중의 하나가 집단 창작이었다. 집단 창작은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와 문예운동론을, 특히 자주적 문예 운동론을 총화시키는 과정에서 출현하였다.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집단창작의 속성 및 구조, 그리고 당시 커뮤니케이션의 특징들을 서술하고 있다. 집단창작의 속성으로는 북한식 속도전과 기념비적 대작으로 특징되어 진다고 서술하고, 실제로 존재했던 여러 단체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를 논증하고 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전술했듯이, 오늘날 인터넷 시대의 특징이 당시에 실험되었음을 주장한다. 저자는 이를 구어 중심 커뮤니케이션, 합평·의식·역량 상승과

단위 동아리의 활성화 공간, 반(反)자본 대안 매체, 메타문서 등의 용어로 설명한다. 즉 집단창작의 핵심은 시작과 끝이 분명한 구조라기보다는 자유로운 토론과 합평 등을 수행하는 구어 중심 구조에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 속에서 공동체는 성원들을 재생산해내고, 새로운 성원들은 (문예)운동의 주체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한다. 구어 중심 미디어 소비는 전자 미디어 시대의 한 특성이기도 하다. 저자는 80년대 구어 중심 미디어 소비가 한국에서의 현재 미디어 소비 성향과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글을 맺으면서 저자는 본 논문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구술사 면접을 통해 생산된 본 논문의 의의는 구술사 자체의 의의와 연관이 깊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본 논문은 기록화되지 않고 잊혀졌던, 그러나 당시의 행위자들의 기억에 가장 강렬하게 기억되어 있던 독특한 문화 현상을 다시 끄집어냈다는 데서 1차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더불어 본 논문의 2차적인 의의는, 80년대 후반의 독특한 문화 현상의 한 전형으로서 집단 창작이 자리잡고 있음을 규명하였다는 데 있다.”

이 논문에는 부록으로 “연구대상자 심층면접 녹취 및 정리”가 들어 있다. 구술사라는 방법을 택한 저자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자료로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10. 연구의의

80년대 학생운동의 대중화 과정에서 나타난 운동의 형태로서의 집단 창작 운동의 특성을 구술사라는 방법으로 복원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본문의 내용에서 구술면접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느낌을 주며, 당시의 커뮤니케이션 형태를 오늘날 인터넷 시대의 커뮤니케이션과 과도하게 연결시킨다는 점이다.

1. 제목: 『1980년대 학생운동의 성격분석: 대학생들의 학생운동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77집

2. 저자: 신명순
3. 발행연도: 1987년
4. 쪽수: 42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고려대학교

7. 목차

- I. 서론
- II. 연구방법
- III. 1980년대 학생운동의 특징
- IV. 현실인식과 가치관
- V. 학생시위참여도
- VI. 학생운동에 대한 인식
- VII. 학생운동의 원인에 대한 견해
- VIII. 학생운동의 수단에 대한 인식
- IX. 학생운동의 효율성 인식과 전망
- X. 학생운동의 해결방안

XI. 결론

8. 연구목적

1980년대 우리나라의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그 성격을 구명함과 아울러, 학생운동 및 학생시위에 대하여 일반대 학생들이 어떠한 의견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구명하고자 함.

9. 연구내용

이 연구는 학생운동과 학생시위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식·태도·평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바탕하여 진행되었는데, 이 설문조사는 전국의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추출한 2천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II장에서는 이 실증적 연구에 사용된 연구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III장에서는 1980년대 학생운동의 특징을 다루고 있는데, 우선 저자는 현상적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의 학생운동은 운동형태의 다양화, 주장내용의 급진적 변화, 조직의 세련화, 그리고 당면과제와 정치적 입장을 둘러싼 학생운동권내부의 사상투쟁 등으로 나타나며 이것은 1970년대까지 나타났던 동일한 내용의 단순재생산 형태의 운동과는 질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다음으로 저자는 80년대 학생운동의 성격변화를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이념성, 과격성, 연합성, 조직성 등으로 제시하고, 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IV장에서는 현실인식과 가치관을 분석하는데, 여기에서는 국민의 여론 반영정도, 우리 사회의 사회정의 확립 정도, 국가와 개인의 상대적 중요성, 평등에 대한 인식, 혁명에 관한 인식, 반공이념교육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한다. 저자는 이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대학생들의 현실인식은 국민여론의 반영, 사회정의의 실현 등에 관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제도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강한 비판의식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국가의 발전보다는 개인의 자유나 권리·평등 등의 가치에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한국사회에서의 혁명적 변화와 기존에 이룩된 발전간의 관계에서도 양자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보인다고 분석한다.

V장에서는 학생시위 참여도를 분석한다. 저자는 대학생들의 시위 참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학내집회, 연합집회, 가두집회의 참가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적극적인 학생운동권은 전체 대학생들의 10% 정도의 규모라는 추론을 내린다. 다음으로 저자는 시위 참여의 동기와 비참여의 이유 등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밝히고, 끝으로 사회계층적 배경과 대학생들의 시위참여와의 상관관계를 밝힌다. 여기에서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이 시위에 주로 참여한다”는 가설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다.

VI장에서는 학생운동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다룬다. 저자는 이 부분에서 학생운동을 긍정적으로 보는지 부정적으로 보는지, 학생운동의 급진적 주장에의 동조 여부, 학생운동과 외부세력과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 등을 다루는 설문조사 결과를 밝히고 있다. 이 장의 결론은 학생운동 자체에 대해서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학생운동이 추구하는 구체적 목표와 방향, 학생운동의 독자성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 못지않게 부정적 반응을 높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일반학생들은 현재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학생운동에 대해 비판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한다.

VII장에서는 학생운동의 원인에 대한 견해를 다룬다. 이를 밝히기 위해 저자는 학생들에게 학생운동이 지속되는 원인을 묻는 설문을 실시했고, 그 결과 학생운동이 지속되는 원인은 역시 정치문제 때문이었다. 그것의 내용은 민주화의 지연과 현 정권의 비민주적 통치, 민주주의의 미확립, 현 정권의 정당성 부재 등으로 모두 민주주의의 문제와 관련된다. 저자는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에 바탕하여, 학생운동이 지속되는 원인은 현실 정치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크게는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못하고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구체적으로는 현 정권에 의한 정치가 학생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VIII장에서는 학생운동의 수단에 대한 인식을 다루고 있다. 이 장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학생들의

노동활동 참여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저자는 이에 대해서 현재의 학생운동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운동권의 전략이 일반대학생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일반 대학생들은 학생시위에서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는데 대해 찬성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IX장에서는 학생운동의 효율성인식과 전망을 다룬다. 이 부분에서는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평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학생운동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며, 학생운동의 전망에 대해서는 학생시위가 계속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

X장에서는 학생운동의 해결방안을 다룬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생운동의 해결방안을 정치문제의 해결에서 찾고 있다. 즉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때에만 학생운동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저자는 학생운동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즉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은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지적하는 학생운동의 원인을 해소하는 일이며, 이러한 과정은 정부·정당·국회 등의 정치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정이며 학생들이 주도적 세력이 되어야 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0. 연구의의

비교적 과학적인 표본추출과 설문조사라는 실증적 기법을 동원하여 학생운동권을 포함한 일반 대학생들의 학생운동관을 면밀하게 고찰한 연구이다. 다만 저자의 해석이 적고 설문조사 결과를 그대로 소개하였다는 느낌은 있지만, 한국 대학생들의 학생운동관에 대한 실증적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고, 앞으로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글에 담긴 조사결과와 결론들은 이 글이 발간된 시점(1987년)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1. 제목: 「한국의 학생운동에 관한 연구: 행동주의자의 의식과 태도를 중심으로」, 『고려대 아세아연구』 77집

2. 저자: 이효선
3. 발행연도: 1987년
4. 쪽수: 62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고려대학교

7. 목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2. 개념설정의 문제
-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의 선정
 2. 조사영역
 3. 분석방법

IV. 결과와 분석

1. 대학생의 가치관과 사회관
2. 성별·학년별·전공별 가치관과 학생운동에 대한 태도
3. 적극적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태도
4. 행동주의자의 계층

V. 학생운동의 전망

VI. 결론

8. 연구목적

학생운동에의 적극적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참여도에 따른 학생집단들의 의식·태도·행동의 차이를 보고자 함.

9. 연구내용

본 연구를 위한 조사 대상자는 전국의 10개 대학에서 추출된 2,011명의 대학생이다. 이중 남학생은 1,590명이고 여학생은 421명이다. 현재 전국의 대학생수는 약 100만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성별, 학년별, 전공별 요인 등을 고려해서 표본이 선정되었다. 또한 이 설문조사는 대체로 학생들의 (1) 가치지향과 이념성향을 보기 위한 문항, (2) 교육환경에 대한 문항, (3) 학생운동의 목적과 수단, 지속되는 원인, 시위규모, 시위의 종류, 과외활동의 실태, 운동의 성격과 전망 등을 포함한 문항과 (4) 학생들 개인의 계층배경, 부(父)의 학력과 직업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 등 4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저자는 연구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가 학생운동의 참여도에 따른 학생집단들의 의식·태도·행동의 차이를 보려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은 집단으로 나누어 우선 성별, 학년별, 전공별에 따른 차이를 보고 있다. 그리고 참여도의 차이와 의식과 태도와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적극적 참여자', '소극적 참여자', '비참여자'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 분류는 시위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참여의 정도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 '적극적', '소극적', '아주 소극적', '전혀 없음'의 5가지 카테고리 되어 있는 교내시위, 연합시위, 가두시위의 각 문항들을 모두 고려한 총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반면에 '행동주의자'와 '비행동주의자'들간의 차이를 좀 더 명확히 보기 위해서 시위에 참여한 경험의 유무(有無)만을 기준으로 하여 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양분해서 성별, 학년별, 전공별, 계층별 및 가정배경 등의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방법으로는 백분율 χ^2 , 변량분석(ANOVA)과 같은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기법을 통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대학생의 가치관과 사회관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정도에 대해 대단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학생운동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64%에 이르고, 일반국민의 의견이나 희망이 나라의 정치에 아주 잘 반영된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하나도 없었으며, 우리사회에서 사회정의가 확립되어 있다고 보는 학생들은 6%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반공이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57%의 학생들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다음으로 성별·학년별·전공별 가치관과 학생운동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간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들은 남학생들 보다 서구의 개인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사회정의가 확립되어 있는 정도에 대해서도 남학생들보다는 많은 비율이 긍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다. 학생운동에 대한 태도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학생운동의 목표와 수단은 본질적으로 민주적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학년별 태도를 살펴보면, 2학년과 3학년, 특히 2학년이 모든 면에서 비판적이고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학년은 사회현실 등에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동적인 면에서 상당히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 1학년

은 타학년에 비해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공별 태도의 경우에는 인문계와 자연계 사이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인문계는 상대적으로 사회 현실에 대해 비판적이며 특히 반공이념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반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비율에 이르고 있다. 특히 학생운동에 대한 태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자연계의 학생들은 학생운동의 목표가 정치체제를 변혁시키는데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인문계보다 불찬성을 나타내고 더욱이 그 목표가 노동자와 학생을 연계시키는데 있다는 주장에는 더욱 동의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인문계 학생들은 그 두 목표에 대해서 자연계보다는 더 찬성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인문계 자체 내에도 노동자와 학생 연계에는 반대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적극적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태도의 차이를 살펴보자. 여기에서 적극적 참여주의자들은 교내시위, 가두 시위, 연합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고, 소극적 참여주의자들은 각종 시위에서 자신들이 소극적 내지 아주 소극적 참여자라고 표명한 학생집단이다. 한편 비참여주의자들은 시위에 일체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다.

시위에 적극 참여하는 집단일수록 서구의 개인주의를 보는 태도가 부정적이다. 반면에 소극적 참여자와 비참여 주의자 간의 차이는 근소하다. 그러나 반공이념교육에 대해서는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행동주의자들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서 큰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교과내용, 교수의 질, 학교행정에 대해서는 시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 집단일수록 불만족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교우관계에 있어서는 행동주의 정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구의 경우 행동주의자들은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한 사람으로 분류되는데, 한국의 학생운동을 이끌고 있는 행동주의자들은 그러한 소외된 집단은 아닌 것 같다. 또한 학생운동의 목표와 수단이 민주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시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 집단일수록 민주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집단일수록 학생과 근로자를 연계시키자는 의견에 찬성하고 있고 실제로 행동면에서도 적극적 행동주의자들의 참여도가 소극적 참여자들과 비참여자들 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음으로 행동주의자들의 특성을 성별, 학년별, 전공별, 계층배경, 부(父)의 학력, 부(父)의 직업, 주거상황 등으로 확인해 보았다. 이에 따르면, 남학생은 여학생들보다 61.9% 대 42.8%로 훨씬 행동주의자들이 많았고, 학년별로는 3학년과 2학년이 62.9%와 62.8%로 가장 행동주의적 경향을 보였다. 전공별로는 인문·사회계 학생들이 자연계 학생들 보다 63.2% 대 52.5%의 비율로 더욱 행동주의자들이 많았다. 학생들의 계층배경은 자신이 속한 계층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한 결과, 상류층·중류층·하류층의 비율이 각각 5%, 78%, 17%로 나타났다. 이것을 다시 행동주의자와 비행동주의자로 구분해 보면 하류층, 중류층, 상류층은 70.3%, 55.7%, 50%의 비율로 행동주의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생활수준이 하류층인 경우 다른 계층보다 더 많은 비율의 학생들이 행동주의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한국의 학생운동이 1980년 5월 이후 계속 급진화, 과격화, 이념화, 연계화의 경향을 띠면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다고 진단하고, 이 연구는 그러한 성향을 재확인 해주고 그에 대한 대응이 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임을 상기시켜 준다고 피력한다. 이 연구는 또한 학생운동의 중심세력으로 일부 학생들의 의식성향과 행동의 유형을 밝혀 주고 있다. 즉 인문·사회과학을 전공하면서 중하층 이하의 가정 배경을 가진 3학년과 2학년의 남학생들이 다른 어떤 학생집단 보다도 학생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오늘날의 우리 사회 현실에 깊은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불만은 이 학생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거의 모든 학생들간에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문제제기의 차원을 넘어서 문제해결을 위한 폭력의 사용과 노동운동에 깊이 몰입하는데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을뿐 민주화를 향한 사회·정치·경제의 영역에 있어서 대폭적인 개혁과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생들 모두가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저자는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민주화는 구조적 요인의 핵이며 다른 요인들에도 파급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학생운동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민주화에 대한 진지한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 둘째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노동 및 복지정책의 많은 혜택들이 상대적 빈곤감으로 큰 격차 의식을 느끼는 중하층이나 하류층에 우선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할 것, 셋째 대학에는 학문적인 차원에서 비판의 자유와 학원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제안하면서 글을 맺는다.

10. 연구의의

단순한 문헌검토나 학생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체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한 표본추출에 근거하여 실증적인 연구조사를 수행하였다. 다만 표본추출에 있어 전체 지역과 대학생들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학생운동과 관련된 이러한 형식의 조사중에서 선구적이라 할 수 있다.

1. 제목: 「변혁운동으로서의 청년학생 노동운동과 대학졸업생들의 사회진출사업의 필요성」, 『서강』 19집

2. 저자: 이상수

3. 발행연도: 1989년

4. 쪽수: 11쪽

5. 형식: 잡지·저널·기타

6. 발행처: 서강대학교

7. 목차

- I. 들어가는 말
- II. 한국사회변혁운동의 발전과 사회진출 사업에 대한 요구
 1. 한국사회변혁운동의 발전양상
 2. 청년학생운동에 대한 새로운 요구
 3. 사회진출사업의 필요성
- III. 대중적 사회진출에 대하여
 1. 사회진출사업이란
 2. 올바른 사회진출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가
 3. 올바른 사회진출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 현시기 변혁운동에서 제기되는 사회진출사업에 관하여
- IV. 마무리하는 말

8. 연구목적

학생운동에서 사회진출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진출사업발전의 배경과 사회진출사업의 본질과 성격 그리고 사회진출사업의 내용과 그 방도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에서 글을 씀.

9. 연구내용

학생대중의 변혁운동에 대한 새로운 참여 방식으로 사회진출사업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사회진출사업의 본질과 성격, 사회진출사업의 내용과 방도를 정리한 글이다.

저자는 사회변혁운동이 최근 많은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고, 오늘날 학생운동에게 요구되는 운동은 사회진출사업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진출사업이 새로운 운동방식으로 제기되는 이유는 그 동안의 선도투쟁론의 경향이 극복되면서 대중운동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즉 그 동안의 선도투쟁론은 나라와 민족 전체의 문제를 고민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고민을 사회로 확장시키지 못하고 고립된 지식청년으로 남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청년학생의 사회적 역할 즉, 학생의 선봉성과 사회에서의 운동의 매개자·촉매자로서의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는데 있어 결정적 한계와 문제로 제기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대중적인 사회진출 사업은 이러한 그간의 청년학생운동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청년학생들에 부여되고 있는 시대적 역할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특히 '대중적' 사회진출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우선 좌·우적 편향을 비판하는데, 좌익적 편향이란 남한사회의 변동에 따른 노동계급의 일 부대로서 사무·전문·기술직 노동운동을 바라보며, 이들 운동에 활동가들이 개인적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운동을 한정짓는 경향이며, 우익적 경향은 단순한 학생운동 속에서 4학년 학우들의 대중사업을 추동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졸·준·위'사업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을 극복하면서, 저자가 제시하는 올바른 사회진출사업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즉, 사회진출사업이란 남한 매판경제의 종속성의 심화와 제국주의 자본에 의한 계열화에 의해 필연적으로 노동자화할 수밖에 없는—또는 예전의 특권을 박탈당하고 노동자계급에 점점 근접할 수밖에 없는—학생대중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하여 이를 4학년 학우들의 대중투쟁으로 발전시켜내며 이를 학생운동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차원에서도 통일·집중시켜냄을 통해 구국운동에 일익을 담당케 하는 목적을 지니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저자는 사회진출사업에서 우선 확고히 견지해야 할 원칙으로, 첫째 예비노동자로서의 확고한 자기의식을 갖춰 나갈 것과, 둘째 진출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들고 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사상적 준비를 견실히 할 것을 주장한다. 세 번째로 제시하는 과제는, 이상의 문제를 집단적으로 풀어나가려는 자세와 각 부분의 독자성을 민주적 집중의 기초아래 보장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개괄적 차원에서 올바른 사회진출사업의 방법을 논하고 있다. 첫째는 기간의 청년학생운동의 성과 속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 둘째는 업종, 직장별 지향에 맞게 사업을 행해야 한다는 것, 셋째는 이러한 실천 단위를 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상적 중심을 조직적으로 마련하려는 노력이 의식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 넷째는 사회운동과의 광범위한 연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현시기 사무·전문·기술직 노동자운동의 현실적 과제를 정리한다. 그것은 첫째로 기존노조의 하부대중을 튼튼한 노동자의식으로 무장케하는 것과 운동을 이끌어갈 조직 대오를 꾸려내는 것이다. 둘째로 청년운동의 전망 속에서 제기되는 중요성을 파악하는 것, 셋째로 올바른 사회진출사업은 학생운동의 대중적 토대를 굳건히 획득하는데 관건이 되는 문제중의 하나라는 점, 넷째로 식민통치의 명맥을 끊을 수 있는 전략적 사업장과 대중적 사업장 등 미조직 사업장에 자주적 민주노조를 건설해 낼 수 있게 준비하는 것 등이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현단계 학생운동 주체들이 사회진출사업의 배경과 그 의의, 목적 등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주인·주체로서 확고히 섬으로써 우리 역사와 사회가 요구하는 청년학생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글을 맺는다.

10. 연구의의

1980년대 후반기 쟁점이 되었던 NL계열의 애국적 사회진출운동의 한 단편을 현장운동가의 시각으로 읽을 수 있는 글이다.

1. 제목: 『그러나 지난 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게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1991년 5월』

2. 저자: 91년 5월 투쟁 청년모임 편

3. 발행연도: 2002년

4. 쪽수: 259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이후

7. 목차

I. 사건과 담론

1. 한국의 국가폭력과 ‘잊혀진’ 91년 5월 투쟁 - 조현연
2. 권력은 주체를 슬프게 한다: 91년 5월 투쟁 읽기 - 김정한
3. ‘6·3외대 사건’에 대한 언론의 ‘상징폭력화’과정 - 이유경
4. 91년 5월 투쟁, 그 열려진 ‘역사적 의미짓기’의 장으로 들어서기 - 김윤철

II. 성찰적 반성과 희망의 모색

5. 80년대와 90년대의 결절점 - 김원
6. 죽음의 정치에서 삶의 미학으로: 91년 5월에 대한 문화적 접근 - 권경우
7. 알리바이, 죽음, 공간의 복원 - 하승우
8. 서독 68과 한국의 91년 5월: 폭력과 도발의 문제설정 - 유진홍
9. 91년 5월 투쟁과 민주주의: 한국민주주의 연구를 위한 시론 - 이승원

8. 연구목적

잊혀진 91년 5월 투쟁의 기억을 여러 주체들의 시각을 통해서 되살려 내고, 이의 역사적 의미를 재해석하고자 함.

9. 연구내용

이 책의 연구내용은 필자들을 대표하여 김윤철이 쓴 ‘퍼내는 글’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하여 실었다. 이 책의 저자들은 대부분 서울·경기 지역에서 대학생 신분으로 학생운동을 하면서 91년 5월 투쟁을 경험한 이들이며, 대부분 대학원이라고 하는 제도교육권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연구자들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91년 5월 투쟁에 대한 기억을 온전하게 되살리지는 못할지라도, 가능한 91년 5월 투쟁에 대한 여러 주체들의 각각의 기억에 의존하여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 책의 1부는 네 개의 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조현연은 87년 6월 항쟁 이후 점차 망각되고 있던 국가권력의 폭력성이 91년 5월 투쟁이라는 ‘사건’으로 다시 전면으로 드러났음을 강조하면서, 그런 망각이 한국 사회에서 해방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가폭력에 대한 ‘사회적 침묵의 카르텔’에 의한 것임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김정한은 죽음과 폭력의 이미지로 덧칠되어져 있는 91년 5월 투쟁에 대한 지배세력과 저항세력 모두의 상식적인 ‘해석’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사실들’을 탐색하면서 보다 ‘의식적인 사색’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글은 그가 발표한 『대중과 폭력: 91년 5월 투쟁에 대한 기억』(이후 1998)에 바탕한 것으로서 91년 5월 투쟁에 대한 거의 최초의 ‘학술적’ 탐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다.

이유경은 한국의 주류 언론이 91년 5월 투쟁기 전반에 걸쳐, 특히 강기훈 유서 대필사건 및 외대 정원식 총리 폭행 사건을 계기로 하여 지배작동기제로서 실제로 어떤 담론들을 양산, 유포시키면서 저항을 거세해내고자 했는지를 충실한 기사 모니터링 작업과 매우 치밀한 서술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윤철은 91년 5월 투쟁이 87년 6월 항쟁 이후 성립된 ‘가짜 민주주의’체제에 대항한, 생존권적 요구를 중심으로 한 저항이었다고 강조하면서, 그 역사적 의미를 주로 사회운동사적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다. 또한 91년 5월 투쟁을 대안권력에 대한 욕망의 표출이라는 점에서도 조명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그는 91년 5월 투쟁이 남겨놓은 과제가 대안권력의 창출을 위한 사회세력화와 정치적 구심의 형성이라고 주장한다.

2부에서는 다섯 명의 필자가 저마다의 경험에 바탕을 둔 ‘독특한’ 관점과 방식으로 91년 5월 투쟁의 이러저러한 의미에 접근하고 있다. 우선 김원은 주로 학생운동의 관점에서 91년 5월 투쟁이 80년대와 90년대의 사회운동사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고백조’의 어투를 빌어 담담하게 그려낸다. 이 글은 91년 5월 투쟁을 전체 한국 정치의 맥락, 그리고 사회운동사적 관점에서 자리매김 하고자 할 때 훌륭한 참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김원의 글은 당시 저항운동의 성패가 ‘민중성’의 담지 여부에 달려있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한국 사회운동의 주요 특징인 ‘노동만의 노동운동’과 ‘시민없는 시민운동’을 고려할 때 귀기울일 만한 부분이다.

다음에 권경우는 91년 5월 투쟁 이후 변화한 문화 지형에 주목하면서 희망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삶의 정치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민중성에 대한 강조의 맥락에서 지배와 저항의 정치가 단지 권력의 문제만이 아닌, ‘생활’의 문제를 포괄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승우는 91년 5월 투쟁의 비극성을 상징하는 젊은 대학생들의 분신자살이라는 죽음의 형태에 대하여, 그것은 부당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알리바이에 의해 잉태된 것이며, 또한 그 죽음은 지배의 알리바이를 분쇄하고 ‘미래의 문’을 열어제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 죽음은 단지 잊혀질 것이 아니라, 그 의미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91년 5월 투쟁에 대한 탐색과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미래의 문제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진홍의 글은 91년 5월 투쟁에 대한 논의의 지평을 보다 확장시키는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해외 사례와의 비교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나중에 그가 제기하고 있는 연구과제, 즉 “국가폭력과 저항 형식 사이의 관계와 저항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에 대한 정확한 해명”의 문제가 좀 더 발전된 논의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승원은 91년 5월 투쟁이 ‘민주주의의 형식성과 허구성과의 싸움’이었다고 말하면서, 반공주의, 경제 발전, 사회 안정과 같은 ‘전체주의적’ 가치들을 포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적 환상’을 제거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민주주의의 이행과 공고화를 위한 새로운 실천적 계기와 조건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논의는 91년 5월 투쟁이 87년 6월 항쟁의 신비화에 따른 민중들의 억압에 대한 저항이었고, 그리하여 ‘진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었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김윤철의 주장과 상통하는 것으로 읽혀질 수도 있다.

10. 연구의의

91년 5월 투쟁 당시에 직접 활동했던 경험자들이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년연구자로서의 보다 성숙된 시각으로 과거를 다양한 관점에서 되돌아보고, 이를 통해 오늘날의 의미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글이다.

1. 제목: 「삶의 전기(轉機-turning point)로서의 학생운동 경험과 일상생활」

2. 저자: 신선영

3. 발행연도: 1997년
4. 쪽수: 95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7. 목차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2. 이론적 자원
 - 1) 사회구조와 행위와의 관계
 - 2) 생활전기론과 생활사 연구
 - 3) 미지자원동원론
3. 자료수집 및 개인적 특성
 - 1) 자료수집 및 방법
 - 2) 면접 지침
 - 3)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4. 학생운동 참여의 계기
 - 1) 사회적 사건
 - 2) 중요한 타자
 - 3) 조직
 - 4) 소결
5. 학생운동활동과 갈등
 - 1) 사회인식과 개인적 갈등
 - 2) 운동의 일상화: 또 다른 양상의 갈등
6. 운동 경험과 일상생활의 변화
 - 1) 운동 경험과 현재
 - 2) 일상생활과 삶의 전망
7. 결론

8. 연구목적

80년대 중반 대학에 들어와 대중투쟁을 통해 운동이 확산, 고양되는 과정을 경험한 운동주체들의 일상생활의 변화를 알아보고, 이들이 운동을 접하게 된 계기와, 학생운동이 이들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재구성하게 했는지를 알아보고자 함. 학생운동 지도부로 적극적인 활동을 한 연구대상자들의 운동 경험이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삶의 전기로서 작용한 전형을 발견하고자 함.

9. 연구내용

이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로 연구대상자들에게 획기적인 전기로서 학생운동 경험이 삶의 변화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두 번째 부분의 중심 내용은 운동을 접하면서 발생하는 인식의 갈등과 그 극복과정을 통해 운동이 일상화되어 가는 과정을 알아본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운동 경험이 현재의 삶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자들의 삶의 설계를 살펴본다.

이 연구에 동원된 이론적 자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우선 첫째로 베버가 구분한 인간 행위의 사회적 유형 중 가치합리적 행위에 주목한다. 둘째로 오오쿠보 고지가 제안한 전기(轉機-turning point)라는 개념에 의거하여, 개인의 경험을 분석한다. 셋째로 미시자원동원론에 근거하여 학생운동이 이전부터 존재하는 조직, 비공식적 연결망, 자신들의 하위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집단들의 동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연구는 이상의 이론적 자원에 의존하여, 부산지역 학생운동 활동가 출신 5명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이들의 개인적 특성을 그들의 개인적 역사를 통해 우선 이해한 후, 그들이 어떻게 학생운동을 접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었는지를 분석한다. 따라서 글은 면접대상자들의 구술에 근거하여, 해석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저자는 연구대상자들이 운동을 하게 되는 계기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그것은 1) 사회적 사건, 2) 중요한 타자, 3) 조직인데, 대체로 단일한 요인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저자는 사회적 사건이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면접조사결과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80년대 학생운동 진영은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던 세력 중 하나였기 때문에 사회적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신속하게 대처했다. 이 시기의 운동주체였던 연구대상자들 또한 민주화 투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회적 사건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저자는 구체적으로 85년부터 91년까지의 80년대와 90년대 초반의 굼직굼직한 사건들에 대한 면접대상자들의 술회를 정리하여, 해석하고 있다. 예컨대, 80년대 학생운동의 분출하는 대중투쟁의 열기는 연구대상자들에게 대중투쟁 경험으로, 학생운동에 한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었다. 6월항쟁을 통해서 학생운동에 투신하려는 결심을 하기도 하고, 대통령 선거 등에서 나타난 학생운동의 분열을 통해서 자신의 사상을 정리하는 것도 한 개인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이다. 저자는 사회적 사건과 개인사가 동떨어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결국 즐기적 흐름의 개인사가 모여서 시대사라는 큰 물줄기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저자는 학생운동의 경험에 있어 '중요한 타자'의 역할을 중시한다. 이 중요한 타자는 지속적인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단 한번의 만남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친척 누나의 영향,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만난 선배의 권유, 동문 선배의 단 한마디 질문이 모두 학생운동을 하게 된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연구대상자들의 사례를 통해 삶의 전기에서 중요한 타자가 하는 역할을 살펴보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주변사람의 영향으로, 그리고 자신이 속한 조직의 선배를 통해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고 한다.

그 다음으로 학생운동의 경험에서 중요한 것은 조직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익숙한 여러 학생 정치운동 조직들이 아니라, 면접대상자들에게 자신들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 조직에 한정하고 있다. 저자의 면접 결과 면접대상자들은 동아리나 동문회 등 일상적인 생활공동체가 학생운동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를 술회하고 있었다.

저자는 이제 학생운동 활동과 갈등을 다룬다. 자신의 안정된 미래와 불안한 현실의 운동 간의 갈등, 집안문제, 종교문제, 서클 선배들과의 갈등에 대한 면접대상자들의 솔직한 자기 고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학생운동이 일상화되면서, 조직 내의 노선투쟁과 선배들과의 갈등, 비민주적인 조직 운영으로 인해 회의를 느끼게 되는 일상의 고민들도 확인할 수 있다. 저자는 이런 갈등의 여파가 동료들간의 사소한 다툼의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운동경험이 현재에 미친 영향을 살피고 있다. 그것은 연구대상자의 운동 경험이 평범한 생활인으로서 일상을 재구성하는 데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업체에 취직하면서 사회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간다. 그러나 이들은 대학시절에 운동에 전념하느라 취업준비를 제대로 못했고, 게다가 구속, 수감을 비롯한 운동경력으로 인해 기업체 취업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여건 속에서 학생운동의 중심부에서 활동하던 연구대상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운동을 지속하면서, 생활인으로서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해 고심했다. 이런 고민 속에서 연구대상자들의 운동 경험은 노동운동, 지역사회운동, 정치운동, 전문가운동 등의 다양한 모색과 착수로 특징되는 현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결론부에서 저자는 연구대상자들이 자신의 세계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 학생운동 경험에 의해 지금의 삶을 선택해서 충실히 살아가는 모습은 의식이 삶에 영향을 미친 좋은 예가 되며, 이들의 삶이 구조와의 갈등 속에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대한 고찰은 일상생활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를 확인하게 한다면서 글을 맺는다.

10. 연구의의

운동사적인 고찰에 그친 학생운동에 대한 기존연구에 비해서, 심층면접조사라는 방식을 통해서 미시적인 차원에서 행위자의 의식을 추적하고, 현재적 의의까지 서술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다만 저자의 해석이나 의견이 조금은 자의적이라는 생각이 들며, 면접대상자의 수를 조금 더 늘렸으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했을 것이다.

6. 학생운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

1. 제목: 「한국 학생운동의 평가와 전망」, 『연세대 사회과학논집』 24집¹⁹⁾

2. 저자: 한흥수·김도종

3. 발행연도: 1993년

4. 쪽수: 38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연세대학교

7. 목차

- I. 머리말
- II. 한국 학생운동의 발생원인: 기존연구의 재음미
- III. 한국 학생운동이 걸어온 길
 - (1) 학생운동의 발전과 변동추세
 - (2) 지나온 학생운동의 정치사회적 영향
- IV. 앞으로의 한국 학생운동 전망
 - (1) 역사적 차원
 - (2) 구조적 차원
 - (3) 심리적 차원
- V. 한국 학생운동이 나아가야 할 길
- VI. 맺는말

8. 연구목적

과거의 학생운동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학생운동의 발생원인을 살펴보고 학생운동의 변동추세를 살펴보면서 학생운동이 끼쳐온 정치사회적 영향을 평가하고자 함.

9. 연구내용

우선 저자들은 기존의 학생운동에 대한 연구들 중에서 학생운동의 발생 원인에서부터 전개과정과 양상, 그 영향력, 향후 전망에 이르기까지를 포괄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설명해주는 독자적 이론이 아직 없다는 논의에서 출발한다. 저자들은 그 이유를 학생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너무 많아 여러 나라의 사례연구를 통해 발견해 낸 사실들을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는 점, 학생운동은 즉발적이고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서 폭발적인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부족하다는 자료의 한계, 그 사회에서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 운동의 성격과 영향력의 커다란 편차를 보이게 된다는 점등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저자들은 학생운동에 대한 기존의 주요 접근방법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크게 구조적 차원과 심리적 차원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구조적 분석이란 사회적 모순이 학생운동을 야기시킨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

19) 학생운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 및 연구동향, 학생운동의 역사·이념·조직의 내용도 다루고 있음.

것이고 주로 후진국의 학생운동을 분석하는 데 채택되고 있다. 심리적 접근이란 젊은이들로 구성된 학생들의 심리적 성향이 기존 권위에 대한 도전을 촉발시킨다는 전제가 연구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이외에 학생운동 연구에 활용되는 연구방법들은 세대갈등론, 사회심리론, 구조-기능론, 사회발전론, 사회병리론, 계급갈등론, 다원이익집단론, 군중심리론 등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기존의 이론적 접근방법에 근거하여 저자들은 한국학생운동의 발생원인을 구조적 원인, 역사적 원인, 심리적 원인의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한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구조적 차원에서 근대화 과정 속에서 누적되기 시작한 사회-경제적 모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집단은 한국사회 내에서 학생층 밖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둘째, 역사적 차원에서 한국학생들에게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역사적-문화적 유산으로서의 '저항정신'이 계승되어 왔다는 점을 제시한다. 셋째, 심리적 차원에서 한국학생운동의 과격화는 기존 가치관의 부인에 따른 일탈적인 행위라는 점을 설명한다.

이어서 저자들은 한국 학생운동의 전개과정을 특히 유신체제 붕괴 이후의 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 저자들이 단순한 사건의 제시가 아니라 한국학생운동에 대한 이론화를 시론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유신체제 붕괴이후 학생운동의 발전과정을 이념화 → 조직화 → 제도화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최근의 흐름을 탈제도화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80년대 초반 급진이념의 유입으로 인해 이념화가 이루어지고, 80년대 학생운동의 조직화가 시작되어, 전대협이 결성으로 제도화의 완성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그 뒤 한총련으로의 자기 혁신과정을 도모했으나, 퇴조현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탈제도화에 들어갔다는 것이 이론화를 통한 한국학생운동에 대한 저자들의 설명이다.

저자들은 탈제화를 제도화의 완성에 따른 필연적 결과물로, 제도화를 조직화와 이념화의 결합물로 규정한다. 즉 학생운동이 일정 수준의 제도화 단계에 이르면 교조화와 관료화의 경향이 드러나게 되고 이는 대중성의 상실을 불러 탈제도화로 이어진다는 설명인데, 이를 한국학생운동의 사례에 적절히 대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저자들은 지나온 학생운동에 대해서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나누어 설명한 후, 이후의 전망을 역사적 차원, 구조적 차원, 심리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한국학생운동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바는 효율성의 정치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는데, 효율성의 정치란 대안의 제시를 전제로 한 정치참여를 의미하며 이는 부정적 투쟁이 아닌 긍정적 사고를 요구하는 작업이라고 한다.

10. 연구의의

한국학생운동에 대한 여러 연구들 중에서 보기 드물게 이론적 자원을 동원하여 해석하고 분석 및 전망을 하고 있는 글이다. 아직까지 총체적인 분석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 학생운동 연구에 있어 각론적인 연구의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1. 제목: 『오래된 습관 복잡한 반성: 90년대 학생운동에 대한 성찰과 반성』

2. 저자: 도서출판 이후 편
3. 발행연도: 1998년
4. 쪽수: 304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이후

7. 목차

머리말: '오래된 습관' 혹은 '복잡한 반성'을 가로지르기

I부. 총론

대학문화의 사회학: 객관적 기회와 주관적 희망/ 이철승 외

필요한 것은 '운동'이다/ 장석준

II부. 각론

꼬뮌 혹은 헤테로토피아를 위한 정치학/ 이재원

멍든 학회에 대한 기억: 90년대 학회의 투사/ 학회평론

인터뷰1 학회의 현장

다시 우리는 대중문화의 늪에 빠지고: 대학문화는 생성할 수 있는가/ 홍창욱

인터뷰2 동아리의 현장

모든 사회적 금지에 대한 도전으로서의 운동/ 이가진

III부. 인터뷰/기고

인터뷰3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이진경

학생운동을 위해 논의하고 싶은 열 가지 주제/ 태재준

인터뷰4 사회운동단체

IV부. 1998, 전국 대학 총학생회 선거 결과

8. 연구목적

80년대의 관성을 이어오고 있는 90년대 학생운동의 관성을 반성하고 새로운 학생운동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함.

9. 연구내용

이 책의 연구내용은 이후 편집부에서 작성한 머리말에 잘 소개되어 있으므로, 그에 바탕하여 정리하였다. 1부 총론은 '대학의 조건과 학생운동 역사의 재구성'을 주제로 한다. 「대학문화의 사회학: 객관적 기회와 주관적 희망」은 90년대 중반 이후의 대학사회를 부르디외의 시각을 빌어 꼼꼼하게 분석한 뒤, 소비대중문화와 학점중심주의라는 대학문화의 특징을 이끌어내고 있다. 운동의 지평을 새롭게 구성하려는 학생운동가들에게 대학을 이해하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석준의 「필요한 것은 운동이다: 90년대 학생운동의 비판적 회고와 전망」은 80년대와 90년대의 학생운동을 '대학사회로부터의 모순'에 천착하여 의도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이전까지의 통사적 접근을 통한 미미한 결론과는 색다른 함의를 도출해내고 있다. 이 글 역시, 대학 내의 저항주체 형성 양식에 고민하는 이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2부 각론은 네 개의 소주제로 다시 나뉘고 있다. 학생회, 학회, 문화운동, 신좌파운동 이 네 개의 주제는 각각 기존의 운동 패러다임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기획되어졌다고 한다. 학생회 패러다임에 대한 탁월한 분석을 보이고 있는 이재원의 글은, 학생회중심 운동론이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었던 대의제의 문제를 맑스의 꼬뮌주의를 경유한 '꼬뮌'과 푸코식 공간 사유에서 차용한 '헤테로토피아'라는 개념을 등장시켜 직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와의 가능성과 현실성이라는 딜레마에 봉착해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학회평론』 편집실은 지금까지의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학회에 대한 공식적/통사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역사적 궤적을 따라 또 학회의 개념, 작동원리를 규명하는 작업을 따라가다 보면 현재의 학회상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사회평론 길』의 파리통신원으로 있는 이가진의 글은 시간과 공간을 자유로이 넘나들면서 68혁명에 대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쉽고도 상세한 보고서이다. 특히 신좌파운동에 관심을 둔 이들은 68혁명의 전개과정과 노학연대, 우리 학생운동과의 차이점에 대한 서술을 통해 몇 가지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학 문화운동의 몇 가지 편향에 대해 따끔한 지적과 하나의 좋은 방향까지 담고 있는 홍창욱 씨의 글은, 문화담론의 범람이 대학을 휩쓸고 간 뒤에 남은 허전함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왜 문화적 행위가 무엇인가를 생성하는 정치적 행위가 되지 못하고 대중문화 상품들을 소비하기만 하는 수동적 행위로 전락했는가”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문화정치’로 이어지는 생산적 논의를 보여준다.

그리고 학회 글과 문화운동 글 뒤에는 ‘학회의 현장’, ‘동아리의 현장’을 인터뷰한 지면이 붙어 있다. 지금 실제 학회와 동아리의 모습을 가감없이 담아보려한 결과이다.

3부 인터뷰와 기고는 다소 이채롭게 꾸며져 있다. 선배 운동가들과의 대화를 시도해보았고 사회운동단체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태재준의 글은 주로 현재의 한총련 주류를 염두에 두고 전개되었는데, 그의 의심할 바 없는 학생운동에 대한 애정과 염려를 성실하게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진경은 인터뷰에서 ‘탈주’와 ‘이행’ ‘횡담의 정치’ 등의 개념과 학생운동의 접속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행간에 감추어져 있는, 자신의 작업이 학생운동 진영에 온전히 이해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금속산업연맹의 이창환과 참여연대의 김기식, 청년회의 최혁의 인터뷰는 학생운동과 사회운동과의 연대에 대한 원리와 프로그램을 고민해 보는 자리이다.

10. 연구의의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전환되어야 했음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90년대 학생운동의 관성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담겨 있는 글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한 곳에 모아 잘 정리하고 있다.

1. 제목: 『오래된 습관 복잡한 반성 2: 학생운동의 감추어진 일상문화』

2. 저자: 이재원 외

3. 발행연도: 1988년

4. 쪽수: 344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이후

7. 목차

머릿말

제1부 연대, 하나의 모호한 개념: 현재의 논쟁을 중심으로

제2부 학생운동의 감추어진 일상문화

제3부 인터뷰

제4부 참여와 반론

8. 연구목적

학생운동 진영의 감추어진 일상문화를 통해 문제점을 드러냄으로써 대안 모색의 공론장을 제공하고자 함.

9. 연구내용

제1부 ‘연대, 하나의 모호한 개념: 현재의 논쟁을 중심으로’는 총론격의 글로서, 최근 학생운동 진영 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연대’(solidarity)의 개념을 화두로 삼고 있다. 여기서는 연대를 “자기보존을 지향하는 역능들을 지닌 구체적 개인들의 집단적인 상호교통”이라고 정의한 후, 연대를 실물화해 내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혁명’이 보다 발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2부는 ‘학생운동의 감추어진 일상문화’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변방 소묘: 절망과 희망 크로키’는 ‘지방에서 학생운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 성찰한 글이다. 필자는 스스로 ‘변방’이라고 지칭한 지방 대학의 학생운동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대 학생운동을 위한 구체적인 제언을 제시한다. 특히 이 글은 학생운동 내부에 또아리를 튼 위계화·서열화의 문제를 예리하게 폭로하고 있다.

보론과 함께 실린 ‘전문대 운동, 또 다른 경계 긋기?’는 전문대와 일반 대학의 교육 구조와 운동 구조의 차이를 서술하면서, 전문대 운동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몇 가지 쟁점들을 제시한다.

‘여성이 운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 안의 성차별주의를 넘어 여성운동과 학생운동의 동등한 연대로’는, 학생운동 내에서 활동가들의 가부장성을 지속시키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 측면을 분석한다.

‘학생회 권력 구조의 재구성을 위한 단상’은, 학생회의 한해살이를 꼼꼼히 뒤쫓아가며 기존 학생회 운영의 여러 미숙함들, 가령 학생회 업무 인수 과정의 불철저함, 예산집행의 불투명성, 사업진행 과정에서 빚어지는 의지의 과잉, 학생회 선거의 스펙타클화 등을 밝힌다. 글의 후반부에서는 학생운동의 재구성—실업대책위와 교수학생공동학사위원회 등의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제언을 제시한다.

‘단절의 역사, 역사의 단절: 학생사회와 학생회 선거의 다른 질서를 위하여’는, 왜 학생운동 활동가들이 학생회 선거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가를 분석한다. 선거마다 등장하는 ‘학생회론’이 각 정파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기간의 학생회론이 담고 있는 근본가정과 현실적 무의미함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재의 관성적 학생회 선거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총체적인 학생 사회의 질서재편에 관한 프로젝트가 시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당한 자기 위치 찾아가기: 90년대 학생운동 활동가의 진출과 전망’은, 90년대 학생운동 진영의 사회진출이 ‘대중운동적’ 혹은 ‘활동가적’ 사회진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하고 조심스럽게 반문하는 글이다. 글의 후반부에는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박석운, 이창근, 김상현—과의 짧은 인터뷰를 실었다.

제3부는 대학교육개혁과 관련된 강내희 교수, 그리고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강수돌 교수의 인터뷰를 실고 있다.

제4부는 새로운 ‘행동그룹’인 <새로운 대학질서를 연구하는 모임 대학유감>, <학생운동의 새로운 실천을 모색하는 모임 행동과 연대>가 『오래된 습관, 복잡한 반성: 90년대 학생운동에 대한 성찰과 전망』을 읽고 보내준 글과 기존의 학생정치 조직인 <자유로운 인간들의 공동체를 향한 전국학생연대>, <민중정치 실현의 대장정 학생연합>, <21세기 진보학생연합>의 학생운동에 대한 분석, 비판 그리고 대안을 실고 있다.

10. 연구의의

1990년대 학생운동의 문제를 일상문화를 통해 드러내고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장래 학생운동의 기반과 역할 확대의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특히 다양한 차원에서 학생운동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학생운동의 장래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1. 제목: 『희망에 반하여 희망하라: 한총련을 위한 변명』

2. 저자: 최진섭
3. 발행연도: 1999년
4. 쪽수: 312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살림터

7. 목차

- 추천사
- 지은이의 말
- 제1장 영화 <쉬리>와 조국통일만세!
- 제2장 한 청년이 북쪽으로 간 까닭은?
- 제3장 박노해와 한총련의 닮은 점과 다른 점
- 제4장 개량주의 논쟁과 조지훈의 「지조론」
후기를 대신하여

8. 연구목적

한총련을 남한 내 무장공비로 여겨 수 년째 탄압하고 있는 정권의 논리에 대응하여 한총련의 정당성을 일반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

9. 연구내용

저자는 한총련이 사라져야 할 사회혼란 세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정받고, 발전시켜야 할 조직으로 상정하면서 논의를 시작한다. 그에 따르면, 한총련이 이어가는 것은 동학혁명, 3·1정신, 4·19혁명정신, 5·18항쟁의 정신이다. 한총련을 죽이는 것은 이들 역사의 기운을 끊는 것이며, 한총련을 살리는 것은 혁명정신, 항쟁정신을 후손에게 전수하는 것이다. 한총련의 명줄을 끊으려는 사람들은 한총련이 실현하려는 자주·민주·통일의 숨통을 조이려는 음모에 가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저자는 전대협 1기 당시 송실대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던 개인사적 경험을 이어 전대협을 계승한 한총련의 정당성을 역사적 정당성으로 승화시켜 적극 옹호하면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저자가 글을 서술하는 방식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한총련의 입장에 대해서 자신이 개입하여 그것을 설명하고, 한총련의 입장을 되도록 대중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맨 첫 번째 다루어지는 “영화 <쉬리>와 조국통일만세!”에서는 전국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화 <쉬리>에 대한 한총련의 비판을 옹호하는 식으로 전개된다. 영화감독, 영화배우, 그리고 대중들, 그리고 언론들까지 열광하였지만, 한총련은 이를 냉철하게 비판하고 영화 속의 반통일논리를 꼬집어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의 논의들도 이러한 패턴을 유지한 채로 진행되고 있다. 진중권이 한총련을 봉건적 파시스트라고 부른 것에 대해 저자는 반대로 공간감사식 글읽기, 개인주의의 황폐함 등의 논리로 역비판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저자의 글은 현실의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에세이다. 직접 한총련의 시위 현장에서, 그리고 각종의 사건들 속에서 느낀 감상들을 유려한 필체로 쏟아 내고,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독자들에게 생각할 여유의 공간을 배치해 주기도 한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총련에 대해서 등을 돌린 지금, 같은 문제를 놓고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한다.

80년대 사회구성체논쟁에서 NL과 PD는 각기 다른 사회과학적 세계관으로 대립하고, 논리적, 이론적 대결을 벌였다. 그러나 그것이 가진 고도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현실문제에 대한 적실성이 항상 논란이 되어 왔다. 그런데 저

자의 글은 반미의 문제, 지식인의 문제, 학생들의 문제를 민족자주의 문제로 투영시켜 설명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손쉽게 다가온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한총련에 대한 변명이라면 북한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저자는 대담하게 한총련 7기 지도부가 주체사상을 수용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가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전제하에, 진정한 한국적인 사상을 창조하기 위해서라면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함을 말한다. 운동권 학생들이 스스로 주체사상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소극적인 사상의 자유 운동을 벌이는 것과 달리, 저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체사상이면 어떠하냐는 논리로 나아간다. 물론 이는 주체사상에 대한 일방적인 옹호는 아니다. 한국인의 좌뇌와 우뇌의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만 진정 한국적인 사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논리에 입각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기독교와 주체사상의 대화 가능성으로까지 이어진다. 또한 김일성이 적극적으로 단군릉 복원 작업을 추진한 것의 긍정성을 피력하는 데에서도 드러난다.

저자는 한총련이나 북한을 무조건 옹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은 한총련이 때때로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적극 비판하기도 하고, 북한의 봉건적 여성관에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10. 연구의의

진보언론지 종사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책이다. 그러나 한총련 및 북한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이 주로 소개되어, 균형을 잃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

1. 제목: 『새로운 학생운동을 위한 제안』, 『다시 출발하는 학생운동』

2. 저자: 경실련 대학생회

3. 발행연도: 1993년

4. 쪽수: 16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비봉출판사

7. 목차

1. 새로운 모색과 실천

2. 한국사회와 대학사회의 변화

3. 새로운 학생운동의 방향설정을 위한 제안

(1) 점진적인 구조개혁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2) 대중들의 관심과 참여를 중심에 놓는 접근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3)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4) 보통학생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5)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6) 기층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시민계층 및 시민운동과 연대해야 한다

8. 연구목적

87년 민주화 이후 변화된 한국사회와 대학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학생운동이 변해야 할 상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9. 연구내용

이 책은 민주화 이후 새로운 학생운동의 전망을 모색하는 일환으로 작성된 글로 당시 신운동권으로 불리던 경실련대학생회의 입장으로 정세를 파악하고 새로운 학생운동의 상을 제시하고 있는 글이다. 우선 경실련대학생회는 학생운동의 역할을 인정하지만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 학생운동의 현상향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물론 학생운동의 희생적 실천으로 1987년 민주화 대항쟁을 가능하게 하였지만, 학생운동은 오히려 자신들의 지난한 실천을 통해 쟁취한 오늘의 현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못함으로써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변화된 현실은 새로운 실천방법론을 요구하기 때문에 학생운동도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자신들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한국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그것은, 첫째로 1980년대 후반을 경과하면서 한국경제는 비록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지만 생산력의 양적 증대에 성공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절대 빈곤의 문제를 해소, 생활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면서 사회구성원들의 관심수준을 상승시키고 관심의 영역을 다양화시켰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1987년 민주화항쟁 이후 그 동안 국가권력이 관철되는 최하부 단위로서 피동적으로만 존재하여 오던 시민사회가 자율적 영역을 확대해 가면서 사회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이러한 시민사회의 확장에 발맞추어 학생운동은 시민사회의 자율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가권력의 사회적 분산과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사회개혁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로 1987년 6월 민주화항쟁 이후 한국사회는 부분적이고 완만한 속도이지만 법과 제도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다. 따라서 충분한 합의도출 과정 없이 전개되는 집단행위는 그 집단의 이기주의로 낙인찍히게 되고 다른 사회집단의 동의 없이 문제가 해결되기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넷째로 남북관계의 향상, 소련과 동유럽의 대변혁은 이념과 사상의 획일화를 붕괴시켰다는 것이다. 관변 이데올로기인 매카시즘적 반공주의도 더 이상 설득력을 상실했으며, 대항논리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왔던 사회주의 이념도 그 매력을 상실해 버렸다고 한다.

다섯째 한국사회는 대량소비사회로 진입하면서 예전처럼 생산과정에서의 착취와 노·자 갈등이라는 단순도식으로 환원되기 어려운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한다. 인류의 생존과 지속적 발전을 근본에서 위협하는 환경문제, 그리고 교통문제, 소비자문제, 교육문제, 쓰레기문제, 보건문제, 흉악범죄문제, 주거문제 등 시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저해하는 생활적 제 문제들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여섯째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더 이상 군부의 물리력이 권력의 토대가 되지 못하게 되자 지배세력은 새로운 권력의 토대를 형성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즉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간의 유착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지배블록이 형성되고 있으며, 재벌은 정치권력의 재벌편향적 정책에 힘입어 사회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민주적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강력한 집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일곱째 지배세력은 군부, 경찰, 정보사찰기구 등을 통한 폭압적 통치가 불가능해지자 보다 교묘하고 은폐된 방식으로 시민들을 지배하려 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법과 제도를 통해 사회의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봉쇄하고, 일반국민들을 철저히 분열시키며,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덟째 이러한 사회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대학사회도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재정권의 폭압적 통치를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대항적 이념과 비전이 존재했던 지난 시기에는 실천에의 참여 여부를 떠나 대다수의 학생들이 진보적 지향과 의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독재권력의 폭압적 탄압이 피부에 와닿지 않게 되고 그간 대학사회를 지배했던 진리와 당위의 잣대가 위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대학사회는 급속하게 건강성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관심사가 정치 사회적인 문제들에서 개인적이고 실용적인 부문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와 같은 사회와 대학의 변화에 대응하여 저자들이 지적하는 새로운 학생운동의 방향설정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로 전체주의적 권력이 법과 제도를 무시한 채 군과 경찰, 정보사찰기구 등 물리력과 억압적 지배수단으로 국민들을 통치하며 어떠한 비판과 반대의견도 용납되지 않던 시대에는 점진적인 개혁의 여지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87년 민주화 이후 시대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학생운동의 운동방식은 근본적으로 점진적인 구조개혁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현재의 학생운동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현안을 이슈로 제기하고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구하는 데 있어 대단히 비대중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변화된 갈등구조에 조응하는 운동전선의 다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그 동안 학생운동은 실현 가능하지 않은 대안을 주장해 왔는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저자들은 학생운동이 내세우는 주장이 사회적인 합의에 입각해 있는지를 검증해보고, 새로운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항상 사회적 합의의 형성과정을 거침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넷째로 소수의 운동권 학생들뿐만 아니라 보통학생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 절차의 정당성에 기초한 합법, 평화운동을 전개해야 하고, 학생들의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하며, 학생들의 참여의지, 관심과 취미에 따른 다면적 접촉영역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전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제시한다.

다섯째로 자신의 안일과 성장만을 추구하는 개인주의가 급속하게 번져가고 공동체적인 건강성이 상실되고 있는 오늘의 대학사회에 있어 이러한 잘못된 변화의 흐름을 차단하고 변화된 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가치체계와 윤리로 재무장할 것을 제안한다.

여섯째로 저자들은 시민운동과 학생운동의 연대활동을 통해 새로운 학생운동은 시민계층, 특히 시민운동과 광범위한 연대활동을 전개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10. 연구의의

80년대 변혁운동의 한계를 지적하고 90년대 새로운 학생운동의 가치를 들었던 경실련대학생회의 당시 입장을 잘 드러내고 있는 글이다. 변혁운동을 중심으로 소수의 운동가 중심의 운동을 진행했던 학생운동의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하고 학생운동의 다변화와 시민운동과의 연대라는 새로운 운동방식에 대한 고민이 잘 드러나 있는 글이다.

1. 제목: 『80년대 이후 학생운동세력의 사회진출: 고민과 모색』, 『역사비평』 39집

2. 저자: 김기식

3. 발행연도: 1997년

4. 쪽수: 15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역사비평사

7. 목차

1. 80년대 이후 학생운동가의 사회진출 양상

1) 1987년 6월항쟁 이전

2) 80년대 후반

3) 90년대

2. 90년대 학생운동 출신자의 동향

1) 몇 가지 특징적 현상

2) 소위 '세대론'의 허와 실

3. 새로운 모색

8. 연구목적

80년대 이후 학생운동세력의 사회진출 현상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앞으로 학생운동세력의 사회진출의 올바른 방향설정을 제시하고자 함.

9. 연구내용

1987년 6월항쟁 이전까지 80년대 초·중반 학생운동가의 사회진출 양상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대규모의 '현장투신'이라 할 것이다. 저자는 80년대 초·중반의 현장투신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그것은 첫째 이전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적이었다는 점, 둘째 그 양상이 개인적 결단의 차원을 넘어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셋째 학생운동가의 현장투신이 뚜렷한 목적지향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80년대 초·중반 현장투신은 물론 무수한 오류와 실패가 뒤따르기는 하였지만, 역사적으로 오늘의 민주노총이 탄생하기까지 큰 기여를 하였다고 저자는 평가한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학생운동가의 현장투신은 점진적으로 축소되기 시작하여 90년대에 이르러서는 급속히 감소하였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을 당시의 정치·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공개적인 반합법 정치운동, 사무직 노조운동의 활성화 등 운동영역이 확장되고 다변화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진단한다. 또한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운동이 대중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학생 출신의 현장활동의 필요성과 그 역할이 감소하게 되고 직접적인 현장활동보다는 학생운동 출신자의 정치적, 정책적 역할이 더 중요하게 부각된 노동운동 내부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학생운동가의 사회진출은 애국적 사회진출론과 청년운동론이다. 당시 학생운동의 주류인 NL그룹은 애국적 사회진출론을 제기함으로써, 과거 운동의 포기로 받아들여졌던 다양한 사회분야로의 취업이 운동적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규정되도록 하였으며, 청년운동론은 청년세대의 운동적 역할과 위상을 조직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제기되었는데, 6·29 선언 이후 시국사건으로 구속된 학생들이 대규모로 복학함으로써 공론화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의 결실은 사무직노조운동의 활성화와 전반적인 운동의 대중화에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고 한다.

저자는 90년대 학생운동가의 사회진출이 80년대와 달리 개인적이고 비조직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한다. 대부분의 학생운동가들은 이제 일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취업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80년대 후반의 애국적 사회진출론과 같이 사회진출을 조직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조차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의 원인을 저자는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그것은 첫째 90년대 대학사회는 민중문화에서 상업문화로의 역전현상을 경

험하고 있고, 둘째 자본주의 질서에 대학사회가 편입되고 있으며, 셋째 학생운동 선배들의 개인적인 삶의 모습에 대한 판단이 후배 학생운동가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90년대 학생운동 출신자들의 상당수는 정치운동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나아가 직접적인 정치적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정치적 진출과 관련된 움직임은 크게 기성 제도정치권으로의 참여와 대안적 정치세력화를 지향하는 흐름으로 대별되는 바, 양자 공히 제도정치권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한다. 저자는 이러한 변화가 80년대 운동권이 대체로 제도정치권에 대단히 비판적이었고, 정치세력화의 경로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전선이나 비합법 전위정당을 중심으로 사고하면서 선거를 통한 제도권 진출을 부차시하거나 이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커다란 변화라고 지적한다.

저자는 80년대 후반부터 다양하게 형성된 청년조직의 경우에도 대중적으로 이미 그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조직적, 운동적 전망을 정치운동 쪽으로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이들이 1997년 당시 대선 과정을 통해 노동운동과 함께 국민후보의 주된 대중적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1998년 지자체선거를 통해 대대적인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1995년 지자체 선거와 1996년 총선을 전후하여 제기된 세대론에 대해서 저자는 비판적인 평가를 한다. 세대론이 과연 현실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의문을 던지는데, 그 논거는 우선 80년대 학생운동 출신자들의 현재 삶을 일반화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질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무직 노조운동이나 시민운동가들은 오히려 과거 학생운동에 깊이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셋째 많은 학생운동 출신자들이 여전히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태도를 보여주지만, 개인적 생활영역에서는 보수적이고 현실타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또한 넷째로 우리 사회 시민들의 무임승차주의, 개인주의, 가족주의적 모습은 그들에게도 예외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80년대 학생운동 출신자들 역시 생활의 영역에서, 또한 자본주의사회의 경쟁체제에 적응하고 생존하며 개별화되고 파편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결국 저자는 세대론이 정치운동의 동원이데올로기적 측면이 강하다고 단정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4·19세대, 6·3세대, 민청학련세대, 유신세대 등 소위 세대론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정치적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80년대 세대론 역시 정치적 차원이었다고 한다.

최종적으로 저자는 새로운 운동의 방향설정을 제시한다. 즉 90년대 시대환경의 변화는 학생운동의 자기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의 학생운동가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은 더 이상 학생운동이 전체운동의 정치적 주력부대이거나 선도투쟁체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학생운동은 과거와 같은 정치적 역할로부터 자기의 위상과 역할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저자는 학생대중의 관심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환경, 복지, 성, 인권,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운동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글을 맺는다.

10. 연구의의

학생운동 이후의 전망에 대한 운동권들의 다양한 고민들을 소개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는데, 특히 90년대 세대론(386세대론)의 허실을 정확히 비판하고, 올바른 사회진출의 방향을 제시하는 점이 인상적이다.

1. 제목: 『붉은악마 현상』은 사회 변동의 동력일 수 있는가?, 『기억과 전망』 창간호

2. 저자: 김정훈

3. 발행연도: 2002년

4. 쪽수: 16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7. 목차

대 ~ 한민국

단순화를 넘어서

이제 놀 때가 됐다

새로운 감수성은 사회를 변화시키는가?

붉은악마 현상과 시민운동

8. 연구목적

2002년 6월 '붉은악마 현상'이 시민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사회개혁의 에너지가 될 수 있는지를 밝히
고자 함.

9. 연구내용

2002년 6월 월드컵 기간 중 등장한 '붉은악마 현상'에 대해 많은 해석이 제기되었다. 문화적 해석은 6월의 거리
응원을 축제로 해석한다. 곧 우리의 삶이 너무 억압되어 있는 반면 배출구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해 붉은악마 현상을
일상적 억압의 배출로 설명한다. 정치적 해석은 붉은악마 현상이 우리에게 깊이 내재한 민족의식의 발로였고, 거리
응원을 통해 민족적 동질감을 확인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글은 붉은악마 현상의 원인이나 결과를 한 가지로 단순화시킬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그 특징을 '모호
함'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붉은악마 현상을 특정한 기의로 고정시키려는 상징투쟁의 장으로 해석하면서 여기에
참여했던 'R세대'나 'W세대'라 불리는 대학생들의 의식의 모호함을 지적한다.

먼저, 이 글은 붉은악마 현상이 가능하게 한 아주 직접적이고 명확한 사실로서 국가대표팀의 예상을 초월한 성
적, 축구를 좋아하는 서포터 그룹인 붉은 악마의 존재, 국가·자본·미디어의 총체적인 선전, 거리응원의 재미를 제
시한다. 또한 구조적 원인으로는 억압적 일상에서의 탈출 욕구, 민족주의, 과거 독재정권이 만들어 놓은 스포츠 공화
국, 인터넷과 핸드폰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발달을 제시한다. 곧 붉은악마 현상은 이 모든 것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조적 원인이 항상 존재했던 것인 만큼,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응원의 즐거움에 있다. 이
는 학생들의 보고서에 의해 뒷받침된다.

그리고 이 글은 이러한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와 응원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 혹은 애국심을 느끼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느낀 것은 민족 및 국가에 대한 사랑만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었다고 한다.

붉은악마 현상의 주 원인이 민족주의가 아니라 즐거움에 대한 추구였다면 이 현상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먼
저 민족주의는 단지 기표라는 사실이다. 곧 민족주의는 사람들을 불러모은 것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붉은 악마의
응원구호에 따라 국가대항전을 즐기다 보니 나타나게 된 현상이다. 다음으로, 붉은 악마 현상이 즐거움에 대한 추구
였다면, 이는 우리 사회도 '놀 때가 됐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결국 붉은악마 현상은 정치·경제적 현상이라기보다
문화적 현상이다.

그러면 붉은악마 현상에서 한국사회의 발전동력을 찾을 수 있는가? 진보주의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붉은악마
현상에서 사회개혁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도출하는 것은 무리이다. 자발성, 광장성, 민족적 자긍심이라는 6월에 획
득한 새로운 감수성이 시민운동의 자발성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정치적 광장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매개가

필요하며 민족적 자긍심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속단할 수 없다. 따라서 붉은 악마 현상을 사회개혁과 시민 운동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 이를 정확히 분석하고 시민운동의 동력으로 만들어가려는 시민운동의 몫이다.

결론적으로 붉은악마 현상과 시민운동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러나 시민운동이 시민사회라는 운동장에 '사회 변동을 위한 붉은악마'를 더 많이 불러낼 수는 없을지라도, 시민들을 쫓아내지 않기 위해서는 6월의 결과인 민족주의를 시민운동적 관점에서 재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운동이 민족주의에 시민적·개방적 내용을 접합시킬 수 있다면, 6월의 경험은 시민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10. 연구의의

2002년 6월 월드컵 기간 중에 일어났던 붉은악마 현상의 원인을 정리하고 그것과 사회개혁 및 시민운동과의 연관성을 보다 분석적으로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7. 각국 학생운동 비교분석

1. 제목: 「한일 학생운동의 전개와 특징에 관한 비교연구」, 『국제정치논총』 32집 1호

2. 저자: 김도중

3. 발행연도: 1992년

4. 쪽수: 23쪽

5. 형식: 일반논문

6. 발행처: 국제정치학회

7. 목차

- I. 서론
- II. 연구방법 및 분석의 틀
- III. 일본학생운동
- IV. 한국학생운동
- V. 비교
- VI. 결론

8. 연구목적

한국학생운동이 일본학생운동의 궤적을 답습했다는 한일학생운동의 유사성 테제를 검증하고자 함.

9. 연구내용

이 글은 한일학생운동의 역사를 간략히 정리하고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설명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학생운동은 19세기 초 근대화과정에서 국가발전, 국민계몽 등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출발하였고 자연권, 저항권 같은 계몽주의 사상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와 휴머니즘을 기반으로 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가 되면 학생운동은 자본주의화에 따른 계급 모순 및 국제 사회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으면서 급격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탐구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주의적 이념성은 학생운동의 독자성 부재 및 국가기구의 폭압성으로 인해 전 전에는 학생운동 조직과 같은 제도화로 전환되지 못하였다.

2차대전 패전 이후 학생운동은 사회주의라는 사상적 전통을 이어받았고 1948년에 전국적 조직인 전학련(전일본 학생자치총연맹)이 등장할 정도로 조직과 인원 면에서 급격히 발전하였다. 이후 60년대 안보투쟁을 거쳐 60년대 말 도시게릴라 형태의 급진모험주의파가 등장하는 시기까지 내부적으로 노선투쟁과 주도권 싸움으로 인해 분화가 거듭 되었고 그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는 전후 학생운동이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단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강경 파가 주도권을 장악하고 과격한 투쟁을 이끈 결과였다. 과격한 투쟁은 도리어 대중성의 상실과 학생운동의 고립화를 가져왔다.

한편 쟁점 범주를 통해 일본학생운동의 변화를 정리하면 학생운동은 초기에는 학내문제를 중심으로 한 개별 대학 내 학내투쟁에서 출발하였고, 점차 비슷한 쟁점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여러 대학들 간의 연대투쟁, 곧 학간(Inter-mural) 투쟁으로 범주가 확대되었으며, 이에 정부당국이 개입하면서부터 쟁점이 정치화되고 투쟁은 학외투쟁(Extramural Struggle)으로 발전되었다.

한국학생운동은 19세기 말 독립협회의 반외세 민족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1919년 2·8독립선언, 3·1운동, 1926년 6·10만세운동, 1929년 광주학생운동, 그리고 1930년대 국민계몽운동으로 이어졌으나 해방 이후에는 좌우갈등으로 잠정되었다. 이후 1960년까지 긴 동면에 들어갔으나 4·19 이후 80년대 하반기까지는 학생운동이 정치화되면서 한국정치의 주요 정치세력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1980년 광주사태를 계기로 학생운동은 이념화(Ideologization)되어 독재타도나 인권보장과 같은 개방적 무정형 목표에서 미체축출, 민중정부수립을 위한 제한의회소집 등 폐쇄적이고 정형화된 목표로 전환되면서 조직-이념화, 즉 제도화되었다. 1980년대 한국학생운동은 87년 6월 민주화투쟁에서 절정을 이루었으며 그 후 일련의 평화통일 캠페인을 거쳐 1991년 소위 명지대생 강경대군 치사사건을 시발로 한 5월 투쟁을 고비로 현재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이와 같은 학생운동의 약화추세는 이념에 바탕을 둔 학생운동이 일정수준의 제도화 단계에 올라가게 되면 자만감과 수준 유지를 위해 교조화 현상 및 강경투쟁을 낳게 되고 이는 학생운동권의 관료화와 대중성의 급격한 상실을 가져온 점에 기인한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학생운동이 일본학생운동의 탈제도화 전례를 답습하였음을 보여준다.

한일학생운동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먼저 전개과정과 운동양상에서 나타난 특징으로 그 지속성이다. 한일 학생운동의 지속성은 다른 국가에 비해 특별한 사례인데, 정예주의(Elitism)라는 학생들의 자기인식에 근거한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젊은 세대의 이상주의적 행동주의와 결합하여 사회모순에 저항하는 원동력을 제공한다. 또 다른 유사성은 운동방법의 과격성이다. 학생시위가 연례화, 일상화되면서 투석, 가두행진, 도로점거가 등장했고 직접폭력, 테러까지 등장하였다.

한일학생운동의 가장 큰 차이는 운동수준의 변천과정에서 일본학생운동의 정치화 경험이 한국에 비해 매우 약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학생운동이 운동과정에서 4·19 등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력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된 반면 일본학생운동은 전전에는 기성정당의 지도하에 이루어지거나 노동계층과 연계투쟁을 벌였기에 학생운동 고유의 위상과 정체성을 확보할 기회와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또한 전후에도 일본학생운동은 독립성과 독자성을 확보하였지만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대중의 이탈과 일반여론의 외면을 자초했다. 곧 일본학생운동은 투쟁의 계속적 실패로 정치적 영향을 스스로 증명해 볼 기회를 갖지 못했다.

또한 전개과정상의 한일학생운동의 차이는 이념화의 동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일본학생들의 이념화가 “계급모순”에 동기부여 받은 것이라면 한국학생들은 식민지배에 따른 “민족모순”의 극복을 위해 사회주의적 편향성을 보였다. 이러한 민족모순은 식민통치가 종식된 이후에도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에 기인한 이념모순이 중첩되어 새로운 의미의 민족모순으로 재포장된 채 학생들에게 문제의식을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환경 역시 양국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영향을 미쳤는데, 일본의 경우 학생집단의 팽창이 급격히 일어난 50년대를 거쳐 1960년 안보투쟁이라는 운동의 절정기를 맞게 됐고 한국은 1981년부터 시작된 대학정원의 배증정책 이후 학생운동이 격화되다 1987년 민주화투쟁이라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

10. 연구의의

비슷한 궤적을 그린 한일학생운동의 역사를 비교적 시각에서 이론적 틀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갖고 있다. 그러나 제한된 지면에서 양국 학생운동의 내용을 다루다보니 과도한 생략과 일반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보충 독해가 필요한 단점을 갖고 있다.

1. 제목: 「한·일 학생운동의 비교 고찰」

2. 저자: 한점수

3. 발행연도: 1992년

4. 쪽수: 100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연세대 행정대학원

7.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의 학생운동

제3장 일본의 학생운동

제4장 한·일 학생운동 비교

제5장 결론

8. 연구목적

지리적 인접성, 의식성향의 유사성, 그리고 체제변혁의 추구라는 공통점에 착안하여 한·일 학생운동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한국학생운동의 전망과 바람직한 지도대책을 제시하고자 함.

9. 연구내용

이 글은 한국의 학생운동을 해방이전, 해방이후 70년대까지, 그리고 80년 이후로 구분한다. 해방이전의 학생운동은 3·1운동, 6·10만세사건, 광주학생운동 등 민족해방을 위한 애국주의적 민족운동의 성격을 띠었다.

해방이후 70년대까지의 학생운동은 해방직후 좌우의 대립 기간을 제외하면 60년부터 민족·민주의 대의에 어긋나는 통치나 사안 발생시 반대·규탄에 주력하는 등 반독재 투쟁이 중심이 된 낭만적 성격을 띠었다.

80년 이후의 학생운동은 민족혁명이념을 지닌 조직이 상설화되어 학내문제, 계급모순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를 갖고 시위나 집회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특히 87년 조직된 대학생연합조직인 「전대협」을 중심으로 한 학생운동은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 반제반파쇼 민중민주주의 혁명론(PDR) 등에 입각하여 이른바 ‘반미·통일·민중생존권 지원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이 글은 일본의 학생운동을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이후 및 학생운동의 침체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전전의 학생운동은 민주주의, 사회주의, 애국주의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일부는 국제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일본공산당에 큰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전후 학생운동은 초기에는 일본 공산당에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곧 「전학련」의 주도로 공산당의 혁명이론에 만족하지 않고 극좌적인 혁명이론을 추구하는 ‘신좌익’ 운동으로 전환하였다. 이후 학생운동은 60년대 안보투쟁과 반월남전투쟁 그리고 노선차이에 따른 당파간 대립 등으로 혼미와 침체를 겪었고, 무당파적 급진파인 「전공투」 운동 및 대학투쟁의 시기를 거친 후 「적군파」 등 ‘과격무장투쟁그룹’이 극렬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로 인해 학생운동은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면서 지지세력의 이탈을 가져왔고, 결국 70년대 종반 이후 침체되었다.

이상에서 고찰한 양국 학생운동의 특색 및 유사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한국학생운동은 첫째, 반외세 민족주의, 반독재 민족주의, 민중적 사회정의가 학생운동의 일관된 지도이념이라는 점, 둘째, 애초부터 정치운동을 자신의 운동과정으로 삼은 점, 셋째, 이타적·몰아적 순수성, 자율적 자발성, 낭만적 이상주의, 진보적 급진주의를 지닌 점, 넷째, 커다란 정치사건에서 전체 민중봉기를 점화시키는 전위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다섯째, 장구한 역사적 배경과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계기적·지속적 운동인 점을 특색으로 갖고 있다.

일본학생운동은 전전과 전후의 차이가 매우 큰 점이 특색이다. 첫째, 사상적 측면에서 활동가의 사상은 전전에는

공산주의였고 전후에는 극좌적 혁명이론이었다. 또한 일반학생들은 전전에는 국가주의였고, 전후에는 혁신적이며 반권위주의적 의식성향이였다. 이는 전후 학생운동이 활동가와 일반 학생의 '사상적 이중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조직적 측면에서 전전에는 임의의 회원을 기반으로 하는 씨클 중심이었고 전후에는 입학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가입하는 학생자치회가 학생운동조직의 기반이 되었다. 셋째, 행동양식에서 전전의 학생운동은 소수 정예적 활동이었는데, 전후에는 대중운동으로 전진하였다.

한일학생운동의 유사점은 화염병 투척·방화·경찰납치 등 급진·폭력적 시위 수단의 사용, 재야·공산당 등 학외 세력과의 연계활동, 공산주의 이념 중심의 사상적 배경 등이고, 차이점은 학생운동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일본정부는 강경하게 일관된 학원정책을 유지한 데 비해 한국정부는 제적·휴교와 자율화·복학 등 강경·유화정책으로 일관성을 결여한 점, 한국의 경우 노조활동의 제약으로 "위장취업"의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일본은 노조의 정착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점, 그리고 일본의 학생운동은 국민의 지지 상실, 정치적 안정으로 침체된 반면 한국에서는 아직도 통일·반미 등을 쟁점으로 학생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점등이다.

이를 통해 바라본 한국의 학생운동에 대한 전망은 단기적으로 '반미·통일·학원자주화'를 내세운 투쟁이 지속될 것이나, 장기적으로 남북대화의 진전·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퇴조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다.

10. 연구의의

한일학생운동의 역사와 특징, 그리고 양국의 차이와 유사점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지만 한일학생운동에 대한 이해가 피상적이고 단편적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IV. 참고문헌

1. 학생운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 및 연구동향

(1) 개괄 - 단행본

- 고판정현, 1984, 『학생운동의 허상과 실상』, 단대출판부
김도종 편역, 1993, 『세계의 학생운동』, 힘
김영국, 1991, 『민주화와 학생운동의 방향』, 대왕사
박창희, 1989, 『갈등과 소외』, 단대출판부
서울대 학생문제연구소 편, 1970, 『학생연구』, 서울대학문제연구소
영남대학교 학생지도연구소, 『학생연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 1970, 『학생문제연구』
이상안, 1986, 『(한국학생)집단행동론』, 형설출판사
이상안, 1989, 『학생운동과 규제정책: 규제효과의 실증적 분석』, 대영
조가경 외, 1969, 『스튜던트 파우어』, 배영사
한국정치학회, 1995, 『한국의 정치와 학생운동: 학생운동의 비교실증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2) 개괄 - 학위논문

- 조금주, 1987, 「한국학생운동에 관한 교육사회학적 접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상진, 1972, 「한국학생운동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개괄 - 일반논문

- 김도종, 1992, 「학생운동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학생운동을 중심으로」, 『연세대 사회과학연구』 3집
김동일, 1984, 「산업사회에서의 학생운동의 특성에 대한 조명」, 『이화여대 학생생활연구』 20집
김한구, 1989, 「한국 학생운동의 사회인류학적 고찰」, 한양대학교한국학연구소, 『한국학논집』 15집
배찬복, 1987, 「급진사상과 스튜던트 파우어」, 『명지대 사회과학논총』 2집
배찬복, 1987, 「학생운동과 네오마르크스주의」, 『자유공론』 240집
유석춘·박병용, 1991, 「한국 학생운동의 구조와 기능」, 한국사회학회, 『현대한국사회문제론』, 한국복지정책출판부
이재봉, 1990, 「한국학생운동의 연구경향과 역사적 전개에 관한 연구」, 『춘천교대 교육연구』 8집
이치수, 1986, 「한국의 대학과 학생데모에 대한 정치·행정적 접근」, 『상명여대 학생생활연구』 6집
임경택, 1990, 「한국학생운동의 성격에 관한 연구」, 『국민윤리연구』 29집 1호
최문성, 1987, 「한국학생운동연구」, 『한국정치의 현대적 조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흥수·김도종, 1993, 「한국 학생운동의 평가와 전망」, 『연세대 사회과학논집』 24집

(4) 개괄 - 잡지 · 저널 · 기타

장을병, 1985, 「학생운동의 개념과 성격」, 『연세』 21집

(5) 1960~70년대 - 일반논문

이태원, 1985, 「한국학생운동의 연구를 위한 시론: 60~70년대를 중심으로」, 고래대사회학 연구회, 『고려대 고려사회 학논집』, 3집

(6) 1990년대 이후 - 일반논문

유석춘, 1990, 「대학생의 이념적 지향과 정치적 선택」, 『연세사회학』, 제10-1호 합본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이건만 · 김기정, 1992, 「대학생의 사회적 · 정치적 현실인식과 정치적 행동에 관한 연구」, 『서원대 교육발전』 11집

2. 학생운동의 역사 · 이념 · 조직

(1) 개괄 - 단행본

- 고준석, 1976, 『남조선학생투쟁사』, 사회평론사
- 권형철, 1990, 『한국변혁운동논쟁사』, 일송정
- 김범우, 1989, 『실천적 대중 운동론』, 아침
- 김영철, 1993, 『한국 기독교 청년 학생 운동사: 1897~1987』,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김용호 편역, 1986, 『민족운동론 연구』, 세계
- 김윤환, 1995, 『학생운동』, 서울: 민문고
- 김형룡, 1964, 『남조선 학생 운동』, 조선로동당
- 나상조 외 공편, 1995, 『한국가톨릭 학생운동사(상)』, 흥익재
- 민족사바로찾기국민회의, 1995, 『학생운동』, 민문고
- 민족운동총서편찬위원회, 1981, 『학생운동』, 민족문화협회
- 민중사상연구소, 1989, 『사상과 정치노선』, 참한
- 배규한, 1999, 『학생운동과 대학생자치활동』, 나남
- 배규한 · 한도현 · 백진아, 1996, 『한국학생운동의 시위유형과 이념적 지향에 대한 연구』, 교육부
-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1998, 『부산 민주운동사』, 부산광역시
- 사상계 편집부, 1988, 『항소이유서』, 사상계
- 선우기성, 1977, 『한국청년운동사』, 금문사
- 세계 편집부, 1986, 『공안사건기록』, 세계
- 이재오, 1987, 『해방후 한국학생운동사』, 형성사
- 이정식, 1993, 『새로운 학생운동사』, 힘
- 이주현, 1991, 『한국전위조직 운동사』, 동해
- 이진경 외, 1990, 『주체사상비판2』, 버리
- 이철, 1987, 『꺼질 수 없는 불길로』, 일월서각
- 일송정 편집부 편, 1988, 『팜플렛 정치노선』, 일송정
- 일송정 편집부, 1988, 『철학논쟁 I』, 일송정
- 일송정 편집부, 1988, 『팜플렛 조직노선 I』, 일송정
- 일송정 편집부, 1988, 『팜플렛 조직노선 II』, 일송정
- 일송정 편집부, 1988, 『학생운동논쟁사』, 일송정
- 일송정 편집부, 1991, 『학생운동논쟁사2』, 일송정
- 재경광주학생운동동지회, 1970, 『학생운동』, 재경광주학생운동동지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사업국 저, 1990, 『학생자치활동 1』, 푸른나무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사업국 저, 1990, 『학생자치활동 2』, 푸른나무
- 전택부, 1994, 『한국 기독교청년회 운동사』, 범우사
- 정세현, 1982, 『학생운동』, 민족문화문고간행회
- 정준기, 2001, 『기독교학생운동사』, UBF출판부
- 조민해, 1988, 『제안: 사상통일과 민족통일전선의 전략적 기초를 위하여』, 백산
- 조영진, 1989, 『대중활동가론』, 두리
- 조영환, 1989, 『주체사상과 한국의 학생운동』, 현대사회연구소

조진경, 1988, 『민족자주화운동론 I』, 백산
 조진경, 1988, 『민족자주화운동론 II』, 백산
 조한백, 1990, 『새날을 여는 청년에게』, 백산서당
 조희연, 1993, 『현대 한국사회운동과 조직-통혁당, 남민전, 사노맹』, 한울
 주치호, 1988, 『학생운동 필사』, 대구: 삼성문화사
 한겨레, 1986, 『신식민주의론』, 한겨레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50주년 기념사업회, 1998,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50년사』, 다락원
 한국역사연구회 근현대청년운동사 연구반 저, 1995, 『한국 근현대 청년운동사』, 풀빛
 한민, 1988,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변혁론』, 기획출판 한
 허성혁, 1988, 『민중민주운동론』, 참한
 현대사연구회, 1988, 『해방후 무장투쟁연구』

(2) 개괄 - 학위논문

김승호, 1986, 「한국학생운동의 성격변천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용재, 1995, 「학생운동의 변천에 관한 연구」, 단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길, 1973, 「한국학생운동의 역사적 고찰」,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평국, 1986, 「한국대학생들의 학생운동에 관한 일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한보, 1992, 「한국 학생운동 변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기천, 1985, 「한국학생운동에 관한 사적접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병완, 1993, 「한국학생운동의 이념과 그 변천에 관한 연구」, 인하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연, 1975, 「한국학생운동에 관한 연구: 민족운동과 자유민권운동에 관하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해영, 1976, 「한국학생운동의 사적 전개: 일제하에서부터 한일회담반대까지」,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봉영, 1989, 「한국학생운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개괄 - 일반논문

강문규, 1983, 「전후 학생운동과 청년운동」, 『기러기』 212집
 고영복, 1982, 「한국대학생의 의식과 사상」, 『현대사회』, 봄호, 현대사회연구소
 공종원, 1983, 「학생운동의 재조명」, 『건대문화』 12집
 김남필, 1985, 「70년대 이후의 학생운동: 학생과 정치」, 『광장』 140집
 김동춘, 1989, 「남한사회 변혁론 연구의 제문제」, 『경제와사회』, 6호
 김석형, 1991, 「혁명적 학생운동의 출발」, 『우리사상』, 창간호
 김성식, 1969, 「학생운동의 사적 개념: 학생과 역사창조」, 『기독교사상』, 13집 4호
 김세원·한상구, 1991, 「4월혁명 이후 전위조직과 통일운동: 사회당·인혁당·남민전」, 『역사비평』 15집
 김중석, 1997, 「대학에서 학생운동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성격고찰」, 『충남대학생활연구』 24집
 김한구, 1989, 「한국학생운동의 사회인류학적 고찰」, 『한양대 한국학논집』 15집
 박성수, 1983, 「한국 근대사와 학생」, 『대학문화』 6집
 서의남, 1988, 「한국학생운동의 좌경화에 대한 현대사적 조명」, 『정신전력연구』 9집
 서중석, 1988, 「3선개헌반대, 민청학련투쟁, 반유신투쟁」, 『역사비평』 1집

- 서중석, 1997, 「1960년대 이후 학생운동의 특징과 역사적 공과」, 『역사비평』 39집
- 손호철, 1989, 「주체사상의 연구방향에 관한 일 제언」,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29집 2호
- 신성중, 1987, 「학생운동과 해방신학」, 『자유공론』 240집
- 신정길, 1981, 「기독교학생운동의 신학적 기초」, 『기독교사상』 276집
- 양무진, 1986, 「한국 학생운동의 양상과 그 방향」, 『경남대 경대문화』 19집
- 양병기, 1999, 「한국의 군부통치와 학생운동: 이념정향의 비교」, 한국정치학회 99년도 춘계학술회의 한국정치50년의 성찰
- 유광진, 1987, 「학생운동과 종속이론」, 『자유공론』 240집
- 유도진, 1986, 「청년학생운동사 1945-1979」, 한국정신문화원, 『한국의 사회와 문화』, 6집
- 유석춘, 1990, 「대학생의 이념적 지향과 정치적 선택」, 『연세사회학』, 제10-1호 합본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 유영익, 1987, 「한국학생운동사 개관」, 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연구』, 30권 1호
- 이기옥, 1987, 「한국학생운동 변천사」, 『자유공론』, 3월
- 이병철·박양수, 1990, 「한국 대학생의 학생운동 이념 변천에 관한 정책 연구: 학생 운동에 관한 유인물, 전단의 내용별 계량 분석과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울산대 연구논문집』 21집 2호
- 이상우, 1984, 「한국 학생운동 40년사: 제 1부」, 『학원』 297집
- 이성환, 1988, 「신좌익사상과 한국좌경학생 운동」, 『유군제삼사관학교 논문집』 26집
- 이영미, 1997, 「노래로 본 학생운동의 역사」, 『역사비평』 39집
- 이영일, 1984, 「우리나라 학생운동 30년의 성찰」, 『현대사회』 4집 1호
- 이응호, 1957, 「기독교 학생운동」, 활천사, 『활천』 283집
- 이재봉, 1986, 「한국학생운동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연구: 학생운동의 과격성을 중심으로」, 『춘천교대 논문집』 26집
- 이재봉, 1990, 「한국학생운동의 연구경향과 역사적 전개에 관한 연구」, 『춘천교대 교육연구』 8집
- 이태건, 1996, 「‘주사파’와 학생운동」, 『학생생활연구』, 16집 1호
- 이해찬, 1987, 「한국학생운동이 걸어온 길」, 『민족지성』 14집
- 이희환, 1987, 「한국학생운동의 역사적 개관」, 『군산대논문집』 14집
- 이희환, 1989, 「한국학생운동의 역사적 성격」, 『군산대논문집』 16집
- 전재호, 2002, 「한국민주주의와 학생운동」, 조희연 편,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 함께읽는 책
- 정천구, 1987, 「학생운동과 신제국주의론」, 『자유공론』 240집
- 최찬영, 1956, 「해방후의 한국학생운동」, 『새벽』
- 한인수, 1986, 「한국 학생운동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관한 소고: 특히 해방 이후 1974년까지를 중심으로」, 『인천교대 학생생활연구』 4집
- 한흥수·김도중, 1993, 「한국 학생운동의 평가와 전망」, 『연세대 사회과학논집』 24집
- 현승일, 1990, 「한국학생운동 30년」, 『사상과정책』, 봄호

(4) 개괄 - 잡지·저널·기타

- 고형석, 1983, 「한국의 학생운동」, 『서울시립대 대학문화』 6집
- 김경옥 외, 1964, 「학생운동 20년」, 『고대문화』 6집
- 김대상·정세현, 「한국학생민족운동사」(1~10), 『사상계』, 통권 제 179~188권
- 박경리, 1989, 「프로레타리아 계급과 당파성: 노동계급의 당파성과 학생운동」, 『경희대 고향』 34집
- 이기옥, 1987, 「한국학생운동의 변천사」, 반공연맹자유공론, 『자유공론』, 3월호
- 이민우, 1996, 「신좌파운동과 한국 좌파학생운동의 전화에 관한 시론: 패러디의 미학인가? 소멸의 징후인가?」, 『고대 문화』 44집

이영일, 1984, 「우리나라 학생운동 30년의 성찰」, 현대사회연구소, 『현대사회』
 이철, 1985, 「한국학생운동의 성격과 변천」, 서강대, 『서강』, 15호
 이철승 외, 1987, 「한국의 학생운동 (좌담)」, 『민족지성』 14집
 이태건, 1987, 「학생운동과 매판자본론」, 『자유공론』 240집
 이현복, 1989, 「남한 학생운동사」, 서울시립대, 『대학문화』, 12호
 전남대인문사회과학대학학생회편집부 편, 1986, 「한국 학생운동의 전개와 그 평가」, 『전남대 무등학총』 18집

(5) 1960년(4·19이전) - 단행본

김성식, 1974, 『일제하 한국학생 독립운동사』, 정음사
 이종오, 1991, 『1950년대 한국사회와 4.19 혁명』, 태양
 정국로, 1995, 『한국학생민주운동사, 1945~1960: 전개과정중심』, 서울: 반
 한국반탁·반공학생운동기념사업회 편, 1986, 『한국학생건국운동사: 반탁·반공 학생 운동 중심』, 한국반탁·반공학
 생운동기념사업회 출판국
 한정일, 1981, 『일제하 광주학생 민족운동사』, 전예원

(6) 1960년(4·19이전) - 학위논문

김호일, 1988, 「한국근대학생운동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재선, 1989, 「미군정기 학생운동에 관한 고찰」,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 1960년(4·19이전) - 일반논문

김천배, 1979, 「한국의 학생기독교운동: 1945~1960」, 『기독교사상』, 252집
 박철하, 1995, 「1920년대 후반 서울지역 학생운동의 양상과 성격 변화」, 『향토서울』 55집
 장석흥, 1999, 「조선학생전위동맹의 조직과 활동」, 『국민대 한국학논총』 22집
 홍석울, 1991, 「1940~45년 학생운동의 성격변화」, 『서울대 한국사론』 24집

(8) 1960년(4·19이전) - 잡지·저널·기타

김성식, 1951, 「최근 학생운동의 성격과 방향」, 『사상계』, 1월호

(9) 1960~70년대 - 단행본

4월의 탑 편찬위원회 편, 1967, 『4월의 탑』, 세문사
 6·3동지회, 2001, 『6·3학생운동사』, 역사비평사

71동지회 30년 기념문집 동지회 편, 2001, 『나의 청춘 나의 조국』, 나남출판
 강만길, 1985, 『4월혁명론』, 한길사
 권일영 외(대학생논문집), 1983, 『4월혁명』, 청사
 김경동, 1982, 『한국사회 60년대, 70년대』, 범우사
 김동춘·박태순, 1991, 『1960년대 사회운동』, 까치
 김성환 외, 1983, 『1960년대』, 거름사
 대동 편집부, 1989, 『통혁당』, 대동
 대한가톨릭 학생총연합회, 1966, 『가톨릭 학생 운동 교본』, 가톨릭출판사
 사월학생혁명동지회, 1965, 『4월혁명』, 사월혁명동지회출판부
 사월혁명연구소, 1990,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한길사
 신동호, 1996, 『(인물로 보는) 오늘의 한국정치와 6·3세대』, 예문
 이하수, 1985, 『4월혁명: 정치행태학적 연구』, 평민서당
 일월서각 편집부, 1983, 『4·19혁명론』, 일월서각
 학민사 편집부 편, 1983, 『4월혁명 자료집: 혁명재판』, 학민사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3, 『1970년대 민주화 운동과 기독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0) 1960~70년대 - 학위논문

김재경, 1985, 「한국학생운동과 근대화: 1961년부터 1979년까지」,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병도, 1982, 「사일구학생 운동의 정치사적 고찰」,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계정, 1996, 「'4월혁명기' 학생운동의 배경과 전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 1960~70년대 - 일반논문

김동춘, 1988, 「민족민주운동으로서의 4·19시기 학생운동」, 『역사비평』 1집
 김성태, 1960, 「4·19 학생봉기의 동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논문집』, 제 5집
 남재희, 1969, 「60년대 학생운동에 관한 단상」, 『기독교사상』 13집 12호
 류영렬, 1995, 「육·삼학생운동의 전개와 역사적 의의」,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 88집
 박종열, 1979, 「4·19이후의 학생 기독교운동」, 『기독교사상』, 252집
 박희성, 1960, 「위대한 비극: 4·19 학생운동의 의의」,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철학연구』
 안병용, 1990, 「남민전: 유신말기 대표적 '반독재·반제' 지하투쟁조직에 대한 본격 조명」, 『역사비평』 10집
 이재오, 1985, 「4·19혁명의 새로운 인식」, 경희대 편집부, 『민주공화국 40년』, 중원문화
 정계정, 1997, 「'4월혁명기' 학원민주화운동과 국민계몽운동」, 『성대사림』 12·13집
 정기영, 1990, 「4·19 주도세력과 변혁이념」, 경향신문사, 『사상과정책』, 봄호
 조희연, 1990, 「60년대 조직사건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연구: '통혁당'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6집
 조희연, 1991, 「1970년대 비합법전위조직의 이념에 대한 연구: 남민전을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5집
 청주대학교 편, 「60·70년대 학생운동의 성격」, 『청주대 청대춘추』 31집

(12) 1960~70년대 - 잡지·저널·기타

Sinott James, 1989, 「인혁당사건을 증언한다」, 『사회와사상』 10집
 남재희, 2000, 「4·19 민주학생혁명을 다시 생각한다」, 『관훈저널』 75집
 박태순·김동춘, 1990, 「‘인혁당’ 사건과 60년대의 정신사」, 『월간중앙』 176집
 백낙환, 1999, 「국가 발전과 학생운동의 전망: 4·19를 생각한다」, 『국회보』 390집
 손학규, 1989, 「60, 70년대 사회운동의 검토」, 『대학신문』, 5월 15일
 오태규, 1995, 「김택수, 민청학련 자금줄이었다」, 『한겨레21』 80집
 유인태, 1988, 「내가 겪은 민청학련 사건」, 『월간중앙』 148집
 이철, 1991, 「‘민청학련’사건에서 사형수가 되기까지」, 『역사비평』 14집
 장용수, 1984, 「70년대 학생운동에 관한 일 고찰」, 고려대, 『고대문화』, 24호
 정민수, 1988, 「유신 최후의 “희생양” 남민전 사건」, 『월간경향』 283집
 최문환, 1960, 「4·19혁명의 사회사적 성격」, 『사상계』 7월호
 최석우, 1996, 「신군부에 맞서 싸웠던 학생운동 비밀지도부의 증언: 아, 통한의 5·15 회군 …」, 월간사회평론 길, 『월간 사회평론 길』 96집 1호

(13) 1980년대 - 단행본

강신철 외, 1988, 『80년대 학생운동사-사상이론과 조직노선을 중심으로(80-87)』, 형성사
 김삼웅, 1987, 『서울의 봄 민주선언』, 일월서각
 김삼웅 편, 1984, 『민족·민주·민중선언』, 일월서각
 김영하, 1992, 『무협 학생운동』, 아침
 김형균 편, 1993, 『(우리들이 쓰는 80년대)학생운동사』, 여름3미디어
 남대협투쟁국 편, 1990, 『전투조직 건설의 이론과 경험: 오월대, 녹두대 사례를 중심으로』, 남대협투쟁국
 동아일보사, 1990, 『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중운동』, 동아일보사
 문부식 외, 1988, 『항소이유서』, 공동체
 문용식 외, 1989, 『10대 조직사건』, 아침
 사계절 편집부, 1987, 『전환: 6월 투쟁과 민주화의 진로』, 사계절
 사회와사상, 1989, 『80년대 사회 운동 논쟁』, 한길사
 오근석, 1988, 『80년대 민족민주운동』, 논장
 이신행 편, 1989, 『80년대 한국대학생의 정치의식』, 전예원
 일송정 편집부, 1991, 『학생운동논쟁사2』, 일송정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1991, 『전대협』, 돌베개
 전남사회문제연구소, 1988, 『5·18 광주민중항쟁 자료집』, 전남사회문제연구소
 전대협동우회 편, 1994, 『불패의 신화(전대협이야기6년사)』, 두리
 정해구 외, 1990, 『광주민중항쟁연구』, 사계절
 조지훈, 1989, 『80년대후반 청년학생운동·투쟁, 조직, 그리고 전망(87-89)』, 형성사
 중앙일보사, 1990, 『80년대 한국사회 대논쟁집』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8, 『1980년대 민주화운동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7, 『6월 민주화대투쟁』, 민중사
 한국현대사상연구소, 1989, 『80년대 학생운동의 실체와 그 전망』, 출판지
 한국현대사상연구소, 1990, 『광주5월 민중항쟁』, 풀빛
 한용 외저, 1989, 『80년대 한국사회와 학생운동』, 청년사
 황의봉 저, 1986, 『80년대의 학생운동』, 예조각

(14) 1980년대 - 학위논문

- 성용구, 1991, 「한국대학에서의 1980년대 학생운동과 의식화 학습과정 연구」, 충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허준혁, 1989, 「한국학생운동의 성격변천에 관한 연구: 제5·6공화국때의 이론투쟁을 중심으로」, 단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1980년대 - 일반논문

- 강형민, 1990, 「1980년대 조직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경제와 사회』, 제 6집
강형민, 1990, 「이른바 ‘민중적 통일방안’에 대한 비판」, 『현실과 과학』, 7집
권형택, 1987, 「80년대 변혁운동에 있어서 학생운동의 역할과 과제」, 『전환: 6월 투쟁과 민주화의 진로』, 사계절
김남수, 1987, 「80년대 학생운동 방향성 정립」, 『경남대 경대문화』 20집
김도중, 1997, 「1980년대 한국의 정치변동과 학생집단」, 『명지대 사회과학논총』, 13집 2호
김도중, 1997, 「1980년대 한국의 정치변동과 학생집단」, 한국정치학회 97년 연례학술대회
김동춘, 1990, 「레닌주의와 80년대 한국의 변혁운동」, 『역사비평』, 11호
김민호, 1988, 「80년대 학생운동의 전개과정」, 『역사비평』 1집
김성보, 1989, 「80년대 반미운동사」, 『사회와사상』 5집, 한길사
김영일, 1984, 「서울대 김상진군의 죽음」, 『양심선언』, 민맥
김재기, 1989, 「80년대의 사회변혁 운동과 주체사상」, 철학연구회, 『철학연구』, 천지
김진철, 1987, 「80년대 학생운동사」, 『한신학보 자료집』
김찬석, 1989, 「80년대 학생운동 리더쉽의 변혁이론 논쟁」, 『중앙대정경논집』 23집
김태환, 1986, 「학생운동과 제5공화국」, 『국제문제』 187집
박경서, 1987, 「80년대 학생운동논쟁사」, 『한신학보』, 7월
박영하, 1988,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현황과 진로」, 『광장』 181집
박효용, 1989, 「80년대 중반이후의 한국학생운동에 관한 고찰」, 『정치논총』, 24집 1호
백태웅, 1997, 「‘제헌의회’ 노선을 다시 생각한다」, 『역사비평』 37집
손문호, 1988, 「80년대 학생운동에 대한 일고」, 『학생생활연구』, 6집 1호
손봉국, 1990, 「80년대 한국학생 운동의 전개 과정연구: 계보분석을 중심으로」, 『공안연구』 6집
이산, 1989, 「80년대 변혁운동에서 ‘품성’에 관한 연구」, 『녹두서평』 3
이신행, 1989, 「87년 정치변동에 나타난 학생운동의 성격」, 『한국정치의 민주화- 현실과 과제』, 법문사
이신행, 1994, 「1987년을 전후한 학생운동의 상징」, 『연세대 사회과학논집』 25집
이재오, 1988, 「80년대 학생운동의 사조에 관한 소고」, 『현상과 인식』 12집 4호
장준오, 1995, 「사회운동 및 환경사회학: 80년대 학생운동의 담론 분석 - 분석의 대준거틀로써의 민주주의」, 한국사회학회 95년 전기사학회대회
정육상, 1991, 「학원가 학생운동권의 실상과 그 대응책 연구: 80년대 이후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집
정창민, 1987, 「80년대 학생운동의 논리와 현실」, 공동체
조광, 1989, 「CNP논쟁」, 박현채·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I), 죽산
조진경, 1988, 「한국민족자주화운동사(II): 80년대 학생운동의 발전을 중심으로」, 『민족자주화운동론 I』, 백산서당
조희연, 1988, 「80년대 학생운동과 학생운동론의 전개」, 『사회비평』, 창간호
조희연, 1989, 「80년대 사회운동과 사회구성체논쟁」, 박현채·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I), (II), 죽산

조희연, 1992, 「사노맹: 비합법 전위조직에 대한 조직사회학적 분석」, 『역사비평』 18집
 최연구, 1990, 「80년대 학생운동의 이념적 발전과정」, 조희연 편, 『한국사회운동사』, 죽산
 한일, 2001, 「10·28 건대항쟁의 정치사적 의미」, 『사회과학논총』 25집, 건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황인성, 1989, 「양극화 상황 속에서의 학생운동」, 『기독교사상』 367집

(16) 1980년대 - 잡지·저널·기타

강영진, 1989, 「80년대 학생운동 리더들의 계보와 현주소」, 『신동아』, 4월호
 고려대학교 고대문화 편집위원회 편, 1988, 「반종파투쟁과 투쟁노선」, 『고대문화』 28집
 고려대학교 고대문화 편집위원회 편, 1988, 「전투적 학생회론의 제기」, 『고대문화』 28집
 고려대학교 고대문화 편집위원회 편집실 편, 1987, 「'86년 학생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맞으며: 사상의 통일과 과학적 실천을 위해」, 『고대문화』 27집
 고려대학교 고대문화 편집위원회, 1988, 「반종파투쟁의 전개과정」, 『고대문화』 28집
 김부겸, 1988, 「학생운동, 민중연대 선언」, 『월간경향』 285집
 김재명, 1989, 「미문화원과 반미운동」, 『월간중앙』 158집
 김재명, 1989, 「유신 독재의 제물 인혁당사건」, 『월간중앙』 157집
 김재율, 1990, 「80년대 학생운동 그 조직운동의 발전! 그리고 후퇴!!」, 『연세』 30집
 김종철, 1985, 「80년대 한국학생운동의 현황과 전망」, 『연세』 21집
 류정환, 1990, 「80년대 학생운동 총화 서설」, 연세대, 『연세』, 30호
 박덕건, 1989, 「학생운동의 새흐름 PD 그룹」, 『월간중앙』 160집
 신준영, 1986, 「학생운동의 변화와 발전」, 『연세』, 23호
 신중영, 1990, 「미문화원 투쟁에서 민정당연수원 점거까지: 학생운동야사」, 『말』 48집
 안창훈, 1989, 「학생운동 조직논쟁의 혼란」, 『고대문화』 31집
 연세대학교 편, 1985, 「학생운동의 논리적 기초와 방법론」, 『연세』 21집
 연세대학교 편, 1985, 「학생운동의 실천인식 변혁과정」, 『연세』 21집
 이상호, 1992, 「6월항쟁으로 승화한 박종철·이한열의 죽음」, 『역사비평』 16집
 월간정치사 편, 1990, 「80년대 학생운동」, 『월간정치』 11집
 유청하, 1988, 「전두환·이순자 처벌투쟁」 학생운동의 향방」, 『신동아』 350집
 유청하, 1988, 「학생운동의 새 이슈 '통일투쟁」, 『신동아』 345집
 윤석진, 1988, 「80년대 학생운동사, 이론과 실제」, 『월간중앙』, 3월호
 윤석진, 1989, 「학생운동 지도부, 바뀌고 있다」, 『월간중앙』 156집
 이민승, 1989, 「한국 학생운동과 혁명적 청년의 임무: 노동계급의 당파성과 학생운동」, 『경희대 고향』 34집
 임경민, 1989, 「NL이나 PD나, 학생운동의 노선투쟁」, 『신동아』 358집
 전만길, 1987, 「박종철군, 고문치사에서 추도집회까지」, 『신동아』 330집
 조성관, 1989, 「김현장과 문부식: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그후 7년」, 『월간조선』 106집
 최민해, 1989, 「현단계 이데올로기 투쟁의 현황과 쟁점: 노동계급의 당파성과 학생운동」, 『경희대 고향』 34집
 최상재, 1984, 「80년대 상반기 학생운동에 관한 평가」, 『고대문화』 24집
 최선우, 1987, 「학생운동이 달라지고 있다」, 『신동아』 333집
 최영선, 1988, 「80년대 학생운동론 형성을 위한 시론」, 『인하』, 24호
 황의봉, 1985, 「전학련·삼민투와 미문화원 사건」, 『신동아』 310집

(17) 1990년대 이후 - 단행본

- 국민연합사무처, 1991, 『새로운 시작 민중승리를 위하여: 5, 6월 투쟁과 상설연합』, 일송정
김정현, 1998, 『대중과 폭력』, 이후
김태호, 1993, 『청년학생운동: 90년대의 도약』, 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선거관리위원회, 1997, 『5기 한총련 의장후보 공동선거 자료집』,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선거관리위원회

(18) 1990년대 이후 - 일반논문

- 김동춘, 1998, 「90년대 학생운동의 현황과 전망」, 『황해문화』 10집

(19) 1990년대 이후 - 잡지·저널·기타

- 강영진, 1990, 「학생운동, 판도가 바뀌고 있다」, 『신동아』 364집
고광일, 1991, 「'91년 상반기 운동 평가: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대학문화』 15집
권기흥, 1977, 「한국에서의 새로운 학생운동의 새물결 운동」, 『아주』 2집, 아주공과대학 학도호국단
김동훈, 1997, 「'한총련 개혁'에 한 목소리: 97 대학 총학생회 선거」, 『신동아』 448집
김미숙, 1996, 「연세대 사태를 계기로 본 '학생회 운동」, 『고대문화』 44집
김소희, 1992, 「대학의 창: 학생운동,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월간사회평론 길, 『사회평론』 92집 6호
김진언, 1992, 「전문대 학생운동의 현주소」, 『말』 76집
김혁, 1991, 「학생운동: 학생회로 몰려오는 '비운동권' 의 정체」, 월간사회평론 길, 『사회평론』 91집 4호
김혜숙, 1992, 「총선평가 엇갈리는 학생운동」, 월간사회평론 길, 『사회평론』 92집 5호
박용현, 1999, 「사상의 자유시장에 한총련을 초대하라: 이적단체 규정 대물림, 강령 채택할 대의원대회까지 봉쇄…… 검거선봉에 인권과 법치주의 원칙 추락」, 『한겨레21』 258집
박정철, 1997, 「방황하는 학생운동: 최대 위기상황…… 새 길 모색중」, 『주간한국』 1666집
사회평론 학회자료, 1992, 「학생운동 6단체 좌담 - 학생운동의 위기극복과 대선방침」, 월간사회평론 길, 『사회평론』 92집 11호
서강대총학생회, 1991, 「소련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소련사태에 대한 각계의 시각 - 학생운동계(서강대 총학생회)」, 월간사회평론 길, 『사회평론』 91집 10호
서울대총학생회 『자주관악』 편집부, 1991, 「소련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소련사태에 대한 각계의 시각 - 학생운동계(서울대 총학생회)」, 월간사회평론 길, 『사회평론』 91집 10호
송현순, 1998, 「양심수II: '한총련 딱지'는 천형인가」, 『한겨레21』 195집
양난주, 1993, 「학생운동의 김영삼정부 성격논쟁」, 월간사회평론 길, 『월간 길을 찾는 사람들』 93집 5호
우한기, 1993, 「학생운동의 문민정부 맞이」, 월간사회평론 길, 『월간 길을 찾는 사람들』 93집 2호
이강, 1997, 「한총련 하부구조 붕괴, 비운동권 목소리 커진다」, 『월간동화』 10집 1호
이상엽, 1992, 「90년대 학생운동의 새흐름」, 월간사회평론 길, 『사회평론』 92집 10호
이한기, 1992, 「대학문화의 새바람, 학생운동이 변하고 있다」, 『말』 72집
정종오, 1997, 「대학가 탈한총련 탈정치투쟁 가속화: 올해 들어 전국 30여개 대학 탈퇴 - 새로운 '협업체' 결성 추진」, 『뉴스피플』 265집

- 정종오, 1997, 「대학생 운동권 조직 '핵분열' 가속화: 전국 30여개 대학 '새미총' 결성 움직임 한총련내 NL·PD계열 갈등도 증폭」, 『뉴스피플』 273집
- 정진욱, 1992, 「학생문예운동의 현단계」, 『고대문화』 35집
- 조진한, 1993, 「학생운동의 신세대가 몰려온다」, 월간사회평론 길, 『월간 길을 찾는 사람들』 93집 6호
- 최용범, 1996, 「새롭게 형성되는 학생운동의 지도: 한총련 민족해방파의 분화와 신좌파 학생운동의 새로운 모색」, 월간사회평론 길, 『월간 사회평론 길』 96집 7호
- 한정희, 1997, 「'96 총학생회 선거: 학생운동, 새로운 화두를 던져라」, 월간사회평론 길, 『월간 사회평론 길』 97집 1호
- 홍승기, 1992, 「학생운동 정치조직들의 통합논의」, 월간사회평론 길, 『사회평론』 92집 9호
- 황상철, 1999, 「NL운동권, 극단의 분열: 기존 정치노선 비판하는 '북한 민주화론자들' 돌출 …… 정치적 동지에서 적으로」, 『한겨레21』 276집

3. 학생운동과 한국사회

(1) 개괄 - 단행본

- 경향신문사 편집국, 1982, 『대학과 사상』
그날 편집부, 1989, 『변혁과 통일』, 그날
김영수, 1989,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의 모색』, 백산
김장호, 1990, 『한국사회성격 논의의 재조명』, 한
대동 편집부, 1988, 『민족과 경제』, 대동
대학 이데올로기교육 교수협의회, 1984~1987, 『대학사회와 이데올로기』, 대학이데올로기교육교수협의회
대학생 글모음, 1984, 『상황과 인식』, 거름
박현채·조희연 편, 1990,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현대문학
백인우, 1988, 『변혁운동의 방법론 비판』, 버리
백호민, 1987, 『민족이여 통일이여』, 풀빛
사회문화연구소 편, 1993, 『사회운동론』, 사회문화연구소
송건호, 1987, 『변혁과 통일의 논리』, 사계절
신상석, 1989, 『민족논쟁의 결산』, 일송정
열사람 편집부, 1989, 『민족해방운동의 사상과 이론』, 열사람
이신행, 1997, 『한국의 사회운동과 정치변동』, 민음사
이진경, 1991, 『한국사회와 변혁이론 연구』, 민맥
조진경, 1987, 『한국사회의 성격과 운동』, 공동체
조희연 외, 1990, 『한국사회운동사』, 죽산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1986, 『한·미 관계의 재조명: 예속과 저항의 역사』,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한국정치학회, 1995, 『한국의 정치와 학생운동: 학생운동의 비교실증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2) 개괄 - 학위논문

- 박종대, 1998, 「언론의 학생운동조직 관련 보도에 관한 연구: 1988년과 1996년 학생운동조직의 통일운동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정안, 1989, 「한국의 대중운동이 정치변동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국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개괄 - 일반논문

- 고영복, 1986, 「학생운동의 배경은 뭔가」, 『정경문화』 252집
고영복, 1988, 「한국의 사회구조와 학생운동」, 『중앙대 사회과학연구』 2집
김동일, 1990, 「한국사회의 변화와 학생운동」, 『한국논단』 8집
김동춘, 1990, 「사회구조와 학생운동」, 『사상과 정책』, 봄호

- 김재경, 1996, 「청년사회학: 한국학생운동과 사회변동」, 한국사회학회 96년 전기사회학대회
- 김종길, 1991, 「대학과 학생운동」, 『새교육』 443집
- 박경리, 1989,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당파성: 노동계급의 당파성과 학생운동」, 『경희대 고향』 34집
- 배찬복, 1995, 「한국대학생 통일운동에 관한 연구: 남·북대학생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북방학회, 『한국북방학회논집』 1집
- 손봉호, 1988, 「기독교학생 사회참여」, 『고신대 학생생활연구』 3집
- 송건호, 1985, 「분단, 민족사회, 학생운동」, 『한국사회연구』, 한길사
- 신명순, 1985, 「우리나라의 정치시위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 여름호, 현대사회연구소
- 오재식, 1970, 「사회발전과 학생운동」, 『기독교사상』 14집 2호
- 이영석, 1985, 「학생운동과 야당과의 관계」, 『광장』 147집
- 이원술, 1970, 「스튜던트 파우어와 한국정치」, 『영남대학교 논문집』, 제 4집
- 임중빈, 1970, 「사회참여를 통한 학생운동」, 『다리』 1집 3호
- 전택부, 1979, 「한국교회와 학생운동, 다시 산다는 것」, 『기도』 189집
- 한정일, 1983, 「한국민족주의운동과 학생과의 관계」, 『국제정치논총』, 23집 1호
- 현종민, 1991, 「노동, 학생운동과 계층정치」, 『경희대 사회과학논총』 9집

(4) 개괄 - 잡지·저널·기타

- 권오현, 1989, 「대학의 현실참여와 노동, 학생운동에 대해」, 『경북산업대 효목문화』 5집
- 김경옥, 1964, 「민족분열과 학생운동」, 『고대문화』 6집
- 김진규, 1984, 「학생운동과 민족통일의 과제」, 『통일론』 4집 1호
- 김진만 외, 1968, 「한국·대학·대학생」, 『고대문화』 9집
- 오세철, 1981, 「대학생의 사회인식과 사회참여, 현대사회의 학생운동의 방향」, 『월간조선』 2집 7호
- 이원영, 1999, 「오늘날의 계급 구성에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관계 재정립에 관한 시론」, 『고대문화』 49집
- 장정훈, 1990, 「대학의 사회적 기능과 민주주의」, 『고대문화』 32·33집
- 조영식, 1985, 「사회운동과 학생운동」, 『연세』 21집

(5) 1960~70년대 - 학위논문

- 김유찬, 1987, 「1970년대 한국정치체계에 미친 학생운동의 영향분석」,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순, 1986, 「한국학생운동과 정부대응에 관한 연구: 제 3, 4공화국을 중심으로」, 건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태길, 1969, 「오늘의 한국과 대학의 사명」, 아세아학술연구회, 『아세아학보』, 제 6집

(6) 1960~70년대 - 잡지·저널·기타

- 유재호, 1963, 「학생운동과 한국의 현실」, 『고대문화』 5집

(7) 1980년대 - 단행본

김영국, 1991, 『민주화와 학생운동의 방향』, 대왕사
김진균·조희연 편, 1990, 『한국사회론: 현대한국사회의 구조와 역사적 변동』, 한울
박현채·조희연, 1989-1992, 『한국사회구성체논쟁 I, II, III, IV』, 죽산

(8) 1980년대 - 학위논문

노인영, 1989, 「1980년대 한국학생운동에서 나타난 반미문제: 그 전개과정과 사상적 배경을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정수, 1995, 「80년 이후 한국학생운동의 정치이념 분석: '민족문제'를 중심으로」, 서강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1980년대 - 일반논문

윤우경, 1986, 「한국 사회의 변동과 학생운동」, 『이화여대 사회학연구』 18집
이영춘·이근식, 1987, 「급진과격학생운동의 사회·문화적 배경고찰: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인천교대 논문집』 21집

(10) 1980년대 - 잡지·저널·기타

박진태, 1988, 「위장취업의 현장」, 『월간중앙』

(11) 1990년대 이후 - 단행본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8, 『90년대 한국사회와 변혁운동: 운동주체들의 정세인식과 투쟁전략』,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2) 1990년대 이후 - 일반논문

김명호, 1991, 「한국사회의 제 갈등 국면과 학생운동의 새 방향」, 『자유공론』 294집

(13) 1990년대 이후 - 잡지·저널·기타

유강문, 1996, 「한총련, 그들이 적군인가: 폭력 질타 여론 업고 경찰 최대의 강경 대응」, 『한겨레21』 123집
유병진, 1992, 「고민하는 학생운동의 사회 진출」, 월간사회평론 길, 『사회평론』 92집 3호

4. 학생운동 비판 문헌

(1) 개괄 - 단행본

- 경찰청, 1992, 『해방이후 좌익운동권 변천사: 1945~1991년』, 경찰청 보안국
공안문제연구소, 1992, 『좌익혁명세력의 전략전술 및 활동실상』, 공안문제연구소
교육부, 1994, 『급진학생운동의 실상』, 교육부
남북통일문제연구소, 1988, 『한국사회 좌익운동의 사상과 논리』,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내외정책연구소, 1986, 『좌경세력의 사적고찰과 전망』, 내외정책연구소
대공간부연구소, 1987, 『좌경학생 운동사』, 대공간부연구소
대공간부연구소, 1987, 『현대좌경 이론』, 대공간부연구소
대공간부연구소, 1990, 『좌경운동의 실체』, 대공간부연구소
문교부 학생사상연구반, 1981, 『불순이념조직과 용공학생의 실상: 대학좌경사건의 수사 및 공판과정을 통하여 본』,
문교부 학생사상연구반
박흥, 1997, 『레드 바이러스』, 거목
북한 연구소, 1988, 『좌경세력의 학원·노동계 선동실태』
송대성, 1987, 『좌경 이데올로기: 그 주장과 현장』, 명성출판사
유동렬, 1995, 『한국 좌익학생운동의 이론과 실제』, 민족정론사
정경연구소, 『좌경: 그 실상과 음영』, 1989, 정경연구소
치안본부 대공경찰교양자료, 1991, 『좌익세력의 실태와 맥락』, 치안본부
한국반공연맹, 1987, 『국내외 좌경운동의 비교분석과 그 대책』, 한국반공연맹홍보교육국
한국정책개발원 편, 1985, 『학원급진사상비판』, 신원문화사

(2) 개괄 - 학위논문

- 박유순, 1992, 「좌경세력의 실상 및 정책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원천희, 2000, 「한국 좌익학생운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개괄 - 일반논문

- 공안문제연구소 편, 1991, 「주요 좌익간행물 분석」, 『공안논총』 3집
김호성, 1991, 「한국 학생운동 무엇에 저항하고 무엇을 따를 것인가」, 『향군』 216집
민준기·정동귀·이원봉·정현수, 1987, 「한국학생운동의 대처방안: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3집, 경희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소
백겸훈, 1990, 「반사회학생운동발생요인분석: 청년학생의식 구조의 비교론적 고찰」, 『공안연구』 6집
백상창, 1990, 「학생운동의 사회병리학적 시각」, 경향신문사, 『사상과정책』, 봄
백승훈, 1990, 「반사회학생운동발생요건분석」, 『공안논총』 2집
안수현, 1990, 「국내 학생운동에 대한 고찰」, 『공군평론』 86집

양동안, 1985, 「전위적 학생운동을 해부한다」, 『정경문화』, 7월
 염형철, 1988, 「급진좌경학생운동의 이론과 투쟁 양상 I, II, III, IV」, 이념문제연구소, 『이념과 현실』
 이명영, 1988, 「학생운동의 사상적 배경분석」, 『성균관대 사회과학』 28집
 이신범, 1989, 「한국의 급진사상과 학생운동」, 『한국논단』 2집
 장관영, 1996, 「좌경세력이 학습하는 공산주의 이론의 핵심과 그 모순」, 『공안연구』 44집

(4) 1960~70년대 - 잡지·저널·기타

이상우, 1985, 「1970년대 반체제세력」, 『신동아』, 4월호
 이상우, 1985, 「민족일보·인혁당 사건의 전말」, 『신동아』 309집

(5) 1980년대 - 단행본

국가안전기획부, 1990, 『국내 반미운동의 실태』,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안전기획부, 1991, 『전대협은 순수 학생운동조직인가』, 국가안전기획부
 국제과학문화소, 1989, 『학원좌경세력 의식화 MT 실태분석』, 국제과학문화소
 내외정책연구소, 1986, 『최근학생운동의 실태분석』, 내외정책연구소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1985, 『3민투란 무엇인가?』,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치안본부, 1988, 『자민투·조통특위는 무엇인가?』, 치안본부

(6) 1980년대 - 학위논문

김병준, 1992, 「80년대를 중심으로 한 한국 좌경학생운동의 선도방향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1980년대 - 일반논문

김광변, 1984, 「학생운동과 최근의 학원문제」, 『수사연구』 8집
 김동규, 1986, 「급진좌경 학생운동과 오도된 민족주의」, 『광장』 155집
 김승호, 1989, 「학생운동의 통일인식과 평양축전」, 『공안연구』 3집
 나동진 외, 1988, 「1980년대 학생운동의 변화와 지도방안」, 『전북대학생활연구』 16집
 나창주, 1986, 「급진학생 운동의 실상과 허상」, 『문교행정』 51집
 류동열, 1990, 「'사노맹' 연구 1」, 『공안연구』 8집
 류동열, 1990, 「'사노맹' 연구 II: 북한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공안연구』 11집
 박성수, 1988, 「학생운동의 지도문제와 대학의 교육적 사명」, 『대학교육』 36집
 백병훈, 1989, 「급진학생 운동 연구의 새로운 비판적 시각: 신계급 이론을 중심으로」, 『공안논총』 1집
 북한연구소, 1992, 「지하 사회주의혁명 조직 '사노맹'의 전모」, 『북한』 246집
 손봉국, 1990, 「80년대 한국학생 운동의 전개 과정연구: 계보분석을 중심으로」, 『공안연구』 6집
 오문균, 1989, 「1980년대 대학의 이념투쟁 실상」, 이념문제연구소, 『이념과현실』, 12월

- 오문균, 1989, 「80년대 학생운동의 이론과 실상」, 『광장』, 8월
- 오문균, 1991,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 제2호"의 분석」, 『공안연구』 16집
- 유범상, 1987, 「레닌의 민주주의 혁명단계에서 전술적 방침과 '민민투'의 제헌의회 소집전술」, 『안보이념논총』 1집 2호
- 정육상, 1991, 「학원가 학생운동권의 실상과 그 대응책 연구: 80년대 이후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집
- 최승규, 1988, 「삼민투·민민투·자민투·전대협·서건추·서총련·조통특위 등은 어떤 조직인가」, 『경찰고시』 289집
- 최영환, 1990, 「학생운동권의 윤리분석: 대학교지 내용을 중심으로」, 『공안논총』 2집

(8) 1980년대 - 잡지·저널·기타

- 강인덕, 1982, 「미문화원 방화사건의 충격, 복귀의 기도에 영합하는 행위」, 『공산권연구』 39집
- 김광남, 1989, 「전대협이 주도하는 학생운동」, 『현대공론』 1집 10호
- 동화연구소, 1991, 「베일벗은 '박노해'와 '사노맹'의 정체」, 『월간동화』 4집 5호
- 윤재걸, 1986, 「한국의 급진세력과 반체제단체」, 『신동아』, 6월호
- 이준구, 1988, 「학생운동과 폭동 불가피한 관계인가」, 『통일』 83집

(9) 1990년대 이후 - 단행본

- 공안문제연구소, 1993, 『한총련의 출범과 그 전망』, 공안문제연구소

(10) 1990년대 이후 - 일반논문

- 김승호, 1997, 「한총련 전략의 지속과 변화: 97년 한총련의 전망」, 『공안연구』 45집
- 김승호, 1998, 「법칭학련의 내분분석과 전망」, 『공안연구』 50집
- 김승호, 1998, 「새 정부하 6기 한총련의 총노선 분석」, 『공안연구』 52집
- 김승호, 1999, 「99년 운동권 실태 분석과 전망」, 『공안연구』 59집
- 김승호, 1999, 「한총련의 99년 항쟁화 전략전술 분석」, 『공안연구』 58집
- 김승호, 2000, 「2000년도 학생회 선거 분석」, 『공안연구』 60집
- 김승호, 2002, 「2002년 운동권의 정세전망과 투쟁계획」, 『공안연구』 14권 2호, 공안문제연구소
- 김승호, 2002, 「2002년도 전국대학 학생회 정파 분석」, 『공안연구』 14권 1호, 공안문제연구소
- 김승호·유동렬, 1993, 「'한총련'의 출범과 그 전망」, 『공안연구』 25집
- 김영학, 1996, 「한총련 주도하는 주사파의 실상」, 『군사논단』 8집
- 김영학, 1996, 「한총련의 "이적성" 시비: 국민적 해체요구와 관련하여」, 『민족정론』 40집
- 김윤영, 1997, 「97년도 '한총련'의 투쟁분석과 전망」, 『공안논총』 9집
- 김윤영, 1997, 「한총련과 북한의 주한미군철수 주장 비교연구」, 『공안연구』 45집
- 김윤영, 1998, 「제6기 '한총련' 재건투쟁 분석: '대경총련 간부학교'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공안연구』 51집
- 김윤영, 1999, 「'한총련'의 신입생 의식화 분석」, 『공안연구』 59집

- 김윤영, 1999, 「'한총련'의 총학생회 선거투쟁 분석」, 『공안연구』 56집
- 김윤영, 1999, 「학생운동권의 조직동향과 투쟁 분석: 한총련을 중심으로」, 『공안연구』 55집
- 김윤영, 2000, 「국내 학생운동권의 문화투쟁 연구: 최근 '전대기련' 투쟁 분석을 중심으로」, 『공안연구』
- 김윤영, 2001, 「2001년 국내운동권 투쟁 분석」, 『공안연구』 65집
- 김종우, 1997, 「한총련의 과격투쟁 부추기는 검은 세력들」, 『자유공론』 364집
- 남병근, 1998, 「학생운동 분석 및 향후대책」, 『경찰대논문집』 16집
- 노수정, 1991, 「'90년대 학생운동의 전망과 대책」, 『국방연구』 34집 2호
- 박정식, 1996, 「사범부가 한총련을 키웠다」, 『자유공론』 356집
- 박정인, 1996, 「'한총련' 사태의 교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한국논단』, 87집
- 송경호, 1999, 「전대기련 자료집 분석」, 『공안연구』 59집
- 송경호, 1999, 「제7기 한총련의 총노선 분석」, 『공안연구』 56집
- 안수현, 1998, 「국내 학생운동에 대한 고찰: 한총련을 중심으로」, 『공군평론』 102집
- 오문균, 1996, 「'96 운동권의 투쟁전망」, 『공안연구』 40집
- 오문균, 1997, 「남한내 좌익세력 확산의 구조와 투쟁전망 연구」, 『공안연구』 45집
- 오문균, 1997, 「무산된 8·15투쟁과 한총련의 실체」, 『새물결』 197집
- 유동렬, 1997, 「'97년 학생운동권 활동 전망」, 『민족정론』 43집
- 유동렬, 1997, 「한총련은 해체되어야 한다」, 『자유공론』 365집
- 유동렬, 1997, 「한총련의 사상·조직·자금: 한총련의 친북폭력투쟁과 북한과의 연계실상」, 『북한』 307집
- 유동렬, 1998, 「최근 학생운동권의 조직재편 동향」, 『공안연구』 52집
- 유동렬, 2000, 「2000년 학생운동권의 현황 분석」, 『공안연구』 61집
- 유성식, 1990, 「'90년대 한국 학생운동의 전망」, 『한국논단』 8집
- 이강산, 1997, 「'한총련' 해체 단정, 아직은 이르다」, 『자유공론』 366집
- 이강산, 1997, 「한총련 변화할 것인가」, 『자유공론』 358집
- 이강산, 1998, 「대학운동권의 분열: 조직재편의 결과 속」, 『자유공론』 374집
- 이강산, 1998, 「친북 투쟁행태 못버리는 한총련: 6기 출범식에 따른 활동전망」, 『자유공론』 376집
- 이원홍 외, 1996, 「대학문화 죽었다: 한총련과 오늘의 대학 문화」, 『한국논단』 88집
- 이조원, 1999, 「'전국학생회협의회' 투쟁 분석」, 『공안연구』 58집
- 자유민주민족회담, 1997, 「한총련은 잘못된 교육의 소산물 국사교육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자유민주민족회담 질의에 대한 교육부의 답변내용 해설(상)」, 『민족정론』 45집
- 자유총연맹, 1996, 「한총련의 이적성」, 『군사논단』 8집
- 장관영, 1998, 「학생운동권의 98 자주교류투쟁 양태」, 『공안연구』 53집
- 장관영, 1999, 「최근 학생운동권 투쟁 분석」, 『공안연구』 59집
- 장관영, 2000,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전학협' 투쟁 분석」, 『공안연구』 64집
- 장관영, 2000, 「제 8기 한총련 투쟁 분석」, 『공안연구』 62집
- 장관영, 2002, 「2002년 『전대기련』 투쟁 분석」, 『공안연구』 14권 2호, 공안문제연구소
- 장수련, 1997, 「한총련의 실상: 북한의 통일전략과 국내 좌익세력 2」, 『새물결』 192집
- 정용석, 1998, 「'한총련'의 과격투쟁 양태와 전망」, 『공안연구』 51집
- 조원석, 1998, 「한총련은 '이적단체'인가 '미래개혁의 주체'인가」, 『자유공론』 380집
- 최경환, 1998, 「'사람사랑파'의 이념과 투쟁노선 분석」, 『공안연구』 51집
- 최명재, 1997, 「한총련의 모든 것: 폭력집단 '한총련'은 '조선로동당' 전위대」, 『한국논단』 95집
- 최병철, 1992, 「좌경구속학생의 교화방안에 대한 연구」, 『안보연구논총』 6집 2호
- 한진우, 1997, 「여전히 북동조·이적노선 견지: 제 5기 한총련 출범과 투쟁 방향」, 『민족정론』 46집
- 허만위, 1997, 「대학생들을 좌경에서 막자」, 『북한』 303집

(11) 1990년대 이후 - 잡지 · 저널 · 기타

- 고동우, 1997, 「학생운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3: 6월항쟁 세대의 이의제기 - 지금 학생운동에는 ‘학생’도 없고 ‘운동’도 없다」, 월간사회평론 길, 『월간 사회평론 길』 97집 7호
- 공군본부 편, 1996, 「한총련 밀입국 대학생 체북활동 실태」, 『군사논단』 8집
- 김종현, 1996, 「한총련은 북한의 전위부대이다: 산중의 적보다 심중의 적이 무섭다」, 『군사세계』 19집
- 김진욱, 1996, 「‘한총련 어떻게 볼 것인가’ 등」, 『군사세계』 19집
- 동화연구소, 1996, 「남총련의 자금조성과 ‘민족해방군’의 실체」, 『월간동화』 9집 12호
- 심윤중, 1991, 「학생운동, 폭력은 안된다」, 『신동아』 382집
- 오문균, 1998, 「올봄 치안전선에 이상 없을까?: 운동권의 투쟁 실태와 전망, 그리고 그 대응책」, 『월간동화』
- 우종창, 2001, 「강경 주사파 특세 …… 이적단체 한총련이 김정일의 ‘혁명 전위대’로 등장: 국가정보원 내부 자료의 충격적 내용,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학가 급좌회전」, 『월간조선』 252집
- 우형석, 1991, 「재야·학생운동권의 자금원」, 『월간동화』 4집 4호
- 유동렬, 1997, 「친북 좌익세력의 혁명음모, 5월 위기설의 ‘몸체」, 『월간동화』, 10집 4호
- 이기원, 1996, 「‘한총련’의 진면목, 그들은 ‘빨치산’ 후예들인가」, 『월간동화』 9,10
- 이명영, 1996, 「한총련의 실체」, 『치안문제』 180집
- 이상민, 1998, 「한총련, 그 식지 않은 ‘붉은 용암’ 터질날을 기다리고 있다」, 『월간동화』 11집 8호
- 정정근, 1996, 「한총련 사태와 정부와 국민의 대응방안」, 『치안문제』, 180집
- 정종오, 1997, 「“폭력성 한총련 - 존립이유 없다”: ‘젊은 생명’ 희생 잇따르자 시민들 분노의 한목소리」, 『뉴스피플』 273집
- 진희정, 1995, 「대학내 좌경세력의 폐해 정말로 심각하다: 대학교정에 인혁당 주모자 추모기념비 건립 사건을 보면서」, 『민족정론』 24집
- 최영재, 1996, 「대학 운동권, 벼랑 끝에서 ‘방향’: 친북·강경 투쟁으로 국민 외면 …… 4개 계열로 갈려 ‘통일운동 노선’ 제 각각」, 『시사저널』 357집
- 한기홍, 1996, 「한총련 핵심 주사파의 실체: 자금줄에서 행동양식까지 …… 조직원 양성은 어떻게 하나」, 『뉴스메이커』 189집
- 한기홍·원희복, 1996, 「조롱 당하는 공권력: 파출소 경관살해·조직적 폭력 시위 등 ‘호전적 행위’ 왜 일어나나」, 『뉴스메이커』 188집
- 한병훈, 1996, 「한총련과 독일 커넥션」, 『치안문제』, 180집

5. 학생운동의 의식 및 의식형성과정

(1) 개괄 - 단행본

- 김봉걸, 1997, 『한국의 대학,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대학서림
대학생 글모음, 1984, 『상황과 인식』, 거름
서강대학교 사회문제연구소, 1974, 『한국대학생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안청시·최일섭 편, 1987, 『전후세대의 가치관과 이념』, 집문당
장을병, 1985, 『대학인의 정치시각』, 성균관대학교출판부
한완상, 1973, 『현대사회와 청년문화』, 법문사
한완상, 1984, 『현대 젊은이의 좌절과 열망』, 배영사
현대사회연구소, 1991, 『대학생 의식조사 연구』, 현대사회연구소

(2) 개괄 - 일반논문

- 김기환, 1996, 「학생운동과 국민윤리교육」, 『한국아동복지학』 4집 1호
김성식, 1969, 「한국학생운동의 사상적 배경」, 『아세아연구』, 고대아세아문제연구소
이건만·김기정, 1992, 「대학생의 사회적·정치적 현실인식과 정치적 행동에 관한 연구」, 『서원대 교육발전』 11집
이명영, 1988, 「학생운동의 사상적 배경분석」, 『성균관대 사회과학』 28집
이병철·박양수, 1990, 「한국 대학생의 학생운동 이념 변천에 관한 정책 연구: 학생 운동에 관한 유인물, 전단의 내용별 계량 분석과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울산대 연구논문집』 21집 2호
이영미, 1997, 「노래로 본 학생운동의 역사」, 『역사비평』 39집
이화수, 1986, 「학생운동의 양상-심리적 기원을 중심으로」, 『건국대 현대이념연구』, 4집
장이권 외, 1994, 「한국 대학생 문화의 저항적 성격: 생성과 표출을 중심으로」, 『대구교대 학생생활연구』 20집
전웅, 1990, 「한국대학생 의식구조와 학생운동」, 『사상과정책』, 봄호
조명현, 1988, 「한국대학생의 정치의식과 시민불복종운동」, 『충남대논문집』 16집
최운미 외, 1993, 「반정부 시위에 대한 태도와 행동변화: 고등학생으로부터 대학생까지」, 『강원대 학생생활연구』 13집
한승조, 1981, 「학생운동과 국민윤리교육」, 『국민윤리연구』, 12집 1호
한완상, 1991, 「한국사회에서 세대갈등에 대한 한 연구」, 『계간 사상』, 봄호
허재영, 1987, 「한국학생운동의 사상과 현실인식」, 『민족지성』 14집
허철부, 1987, 「학생운동의 사회심리학」, 『계간경향』 17집

(3) 개괄 - 잡지·저널·기타

- 이명영, 1989, 「학생운동의 사상적 배경 분석」, 『의정뉴스』 11집

(4) 1960~70년대 - 단행본

김태길, 1967, 『한국대학생의 가치관』, 일조각

(5) 1960~70년대 - 일반논문

문승익, 1978, 「정외과 학생들의 태도분석」, 『한국정치학회보』 12집

(6) 1960~70년대 - 잡지·저널·기타

남재희, 1970, 「학생운동과 청년문화」, 『고대문화』 11집

(7) 1980년대 - 단행본

김원, 1999, 『잊혀진 것들에 대한 기억』, 1999, 이후

(8) 1980년대 - 학위논문

성용구, 1991, 「한국대학에서의 1980년대 학생운동과 의식화 학습과정 연구」, 충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송도영, 1986, 「학생운동 집단에의 참여과정에 관한 연구: 한 노래집단의 사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준석, 2000, 「학생 운동과 집단 창작에 대한 연구: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문예운동과 집단 창작의 구조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1980년대 - 일반논문

김종섭, 1990, 「1980년대 학생운동을 통해 본 대학생의 의식구조」, 『한성대학생생활연구』 3집

도홍렬·이희덕, 1988, 「대학생의 현대사인식과 의식화 정도: 대학생의 이념정향조사연구에 관한 분석자료」, 『현대사회』, 8집 3호, 가을

박상섭, 1988, 「대학생 세대의 대미관에 대한 일연구」,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논문집』, 12호

성용구, 1991, 「한국대학에서의 1980년대 학생운동과 의식화 학습과정 연구」, 『고등교육연구』 3집 1호

신명순, 1987, 「1980년대 학생운동의 성격분석: 대학생들의 학생운동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연구』 77집

이산, 1989, 「80년대 변혁운동에서 '품성'에 관한 연구」, 『녹두서평 3』

이창호, 1989, 「교수와 학생의 학생운동에 관한 의견조사」, 『성균관대 학생지도연구』 8집

이효선, 1987, 「한국의 학생운동에 관한 연구: 행동주의자의 의식과 태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연구』 30집 1호

이훈구, 1987, 「학생운동 참여자 및 비참여자의 심리학적 특성비교」,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연구』 30집 1호
최연구, 1990, 「80년대 학생운동의 이념적 발전과정」, 조희연 편, 『한국사회운동사』, 죽산

(10) 1980년대 - 잡지·저널·기타

김상준, 1986, 「反美는 어디에서 오는가」, 『신동아』, 7월호
박상섭, 1988, 「반미감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월간중앙』, 7월호
신명순, 1987, 「학생시위 어떻게 변할까: 대학생 설문조사에 나타난 학생운동의 방향과 성격」, 『조선』 86집
우상수, 1989, 「변혁운동으로서의 청년학생 노동운동과 대학졸업생들의 사회진출사업의 필요성」, 『서강』 19집

(11) 1990년대 이후 - 단행본

91년 5월 투쟁 청년모임, 2002, 『그러나 지난 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게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91년 5월』, 이후

(12) 1990년대 이후 - 학위논문

신선영, 1997, 「삶의 전기(전기-turning point)로서의 학생운동 경험과 일상생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 1990년대 이후 - 일반논문

이병철, 1990, 「사회주의 변혁과 학생운동의 방향」, 『사상과 정책』, 봄호
이상빈, 1992, 「대학생의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전문대학생을 중심으로」, 『장안논총』 12집

(14) 1990년대 이후 - 잡지·저널·기타

고동우, 1997, 「한 여학생의 죽음이 던지는 문제: 학생운동, 희망인가 절망인가」, 월간사회평론 길, 『월간 사회평론 길』 97집 4호
김성훈, 1994, 「연세대 총학생회 스스로가 말하는: 우리가 신운동권으로 나서기까지」, 월간사회평론 길, 『월간 길을 찾는 사람들』 94집 2호
박용현·김은형, 1999, 「진보운동의 틀을 바꿔라: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드러난 대학의 민심 …… 반운동권 기류는 어디서 오는가」, 『한겨레 21』 286집
박찬희, 1986, 「오늘의 대학생 무엇을 생각하나」, 『월간조선』, 7월호
박홍, 1993, 「통일과제와 대학생의 참여」, 『통일로』 61집
허영, 1993, 「신세대문화와 학생운동」, 『고대문화』 38집

6. 학생운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

(1) 개괄 - 학위논문

이시우, 「한국 학생운동의 배경과 전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개괄 - 일반논문

김운동, 1961, 「우리나라 학생운동의 경로와 성격과 그 장래」, 『동국정치』 3집

김충기, 1988, 「대학의 학생생활과 학생운동의 건전화방안: 문제요인과 해결책을 중심으로」, 『건국대학예지』 32집

김충기, 1993, 「대학의 학생생활과 학생운동의 건전화 방안: 문제요인과 해결책을 중심으로」, 『건국대학생활연구』 5집

이용선, 1989, 「대학과 학생운동」, 『한국민주화의 주요쟁점과 과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흥수·김도종, 1993, 「한국 학생운동의 평가와 전망」, 『연세대사회과학논집』 24집

(3) 개괄 - 잡지·저널·기타

김석환, 1988, 「4·19, 6·3, 5·18세대」, 『월간중앙』, 3월호

(4) 1960~70년대 - 일반논문

김동길 외, 1979, 「한국기독교학생·청년운동의 새진로 모색」, 『기독교사상』, 252집

정가은, 1969, 「학생운동과 새 윤리적 향방: 학생과 역사창조」, 『기독교사상』 13집 4호

(5) 1980년대 - 일반논문

고영우, 1986, 「최근 학생운동에 대한 성찰과 지도개선 방안」, 『제주대 학생생활연구』 8집

김유혁, 1986, 「학생운동, 그 새로운 지평」, 『문예행정』 54집

박형규, 1990, 「학생운동의 동향과 지도방안」, 『전주교대 논문집』 26집

(6) 1980년대 - 잡지·저널·기타

김원, 2000, 「대학문화, 운동문화를 위한 변명: 1980년대를 반추하며」, 『고대문화』 51집

이철상, 1995, 「전대협 선배가 한총련 후배에게: 학생운동 8년이 준 다섯가지 깨달음」, 월간사회평론 길, 『월간 사회

평론 길』 95집 4호

최상재, 1984, 「80년대 상반기 학생운동에 관한 평가」, 『고대문화』 24집

(7) 1990년대 이후 - 단행본

경실련 대학생회 편저, 1993, 『다시 출발하는 학생운동: 전환기 한국사회와 새로운 학생운동의 모색』, 비봉출판사

이후 편집부, 1998, 『오래된 습관 복잡한 반성2』, 이후

이후 편집부, 1998, 『오래된 습관 복잡한 반성』, 이후

전국대학교 학생처장협의회, 1997, 『한총련 이후, 새로운 모색』, 전국대학교 학생처장협의회

최진섭, 1999, 『희망에 반하여 희망하라: 한총련을 위한 변명』, 살림터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편, 1998, 『(21세기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한국학생운동의 과제와 방향』,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8) 1990년대 이후 - 일반논문

경실련 대학생회, 1993, 「새로운 학생운동을 위한 제안」, 『다시 출발하는 학생운동』, 비봉출판사

김기식, 1997, 「80년대 이후 학생운동세력의 사회진출: 고민과 모색」, 『역사비평』 39집

김도중, 1992, 「한국 학생운동의 퇴조와 그 전망」, 『연세 진리·자유』, 연세대학교

김도중, 1992, 「한국학생운동의 쇠퇴와 전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16집

김도중, 1996, 「학생운동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여의도정책논단』 11집

김동춘, 1998, 「90년대 학생운동의 현황과 전망」, 『황해문화』 10집

김원, 2000, 「학생 권력: 무반성의 신화들」, 『당대비평』 11집

김정훈, 2002, 「'붉은악마 현상'은 사회 변동의 동력일 수 있는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창간호

김창수, 1997, 「한총련의 통일운동 평가: 통일문제에 대한 발상 전환이 요구된다」, 『통일한국』 163집

유초하, 1997, 「학생운동의 새로운 지평」, 『대학교육』 89집

이근철, 1994, 「통일대비를 위한 학생운동의 방향」, 『인천교대 대학생활연구』 8집

이상민, 1998, 「IMF시대 이후, 학생운동권의 행선지는 어디로?」, 『북한』 324집

이수강, 2000, 「대학의 '1990년대'는 언제까지일까: 대학사회의 변화에 대한 단상」, 『당대비평』 10집

이인영, 1997, 「학생운동: 선도투쟁에서 대중성 강화로」, 『역사비평』 37집

조대엽 평, 1999, 「학생운동: 현실적 관심과 연구의 심화를 위하여: 『학생운동과 대학생 자치활동』, 배규한 편저」, 『한국사회학』 33집 4호

한흥수, 1993, 「한국 학생운동의 방향」, 『내나라』 3집 2호

(9) 1990년대 이후 - 잡지·저널·기타

김인해, 1991, 「학생운동의 혼란, 그 극복을 위하여」, 『고대문화』 34집

박주민, 1997, 「학생운동 이렇게 해봅시다」, 『고대문화』 45-46집

박흥환, 1997, 「박흥 전 서강대 총장 인터뷰: 대학가 탈정치화 추세 사회적 뒷받침 있어야」, 『뉴스피플』 265집

손호철, 1997, 「학생운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2: 운동권에서 사회의 미래가 사라졌다 - 한총련 망국론」, 월간사회

평론 길, 『월간 사회평론 길』 97집 7호

유시현, 1992, 「올바른 대선 문예실천과 학생문예운동의 조직적 전망 모색을 위하여」, 『고대문화』 36집

이근철, 1994, 「통일대비를 위한 학생운동의 방향」, 『대학생활연구』, 8집 1호

이은옥, 1992, 「진보적 학생 문예운동의 방향과 시립대 문예운동의 문제점과 전망」, 『서울시립대 대학문화』 16집

장석준, 1997, 「대학사회의 위기와 학생운동의 진로」, 『경제와사회』 33집

장필선, 1992, 「위기시대 학생운동의 현장」, 월간사회평론 길, 『사회평론』 92집 1호

장필선, 1992, 「학생운동의 위기, 그 극복의 현장」, 월간사회평론 길, 『사회평론』 92집 2호

허문영, 1990, 「침체 학생운동의 고민과 항방」, 『월간중앙』 176집

황상철, 1999, 「변화의 가능성을 보라: 한총련에 바라는 대학의 소리 …… 민주적 의견수렴 구조와 토론문화 재건해야」, 『한겨레21』 258집

황은영, 1990, 「청년학생운동의 통일단결을 위한 제언」, 『경남대 경대문화』 24집

7. 각국 학생운동 비교분석

(1) 개괄 - 단행본

김도중 편역, 1993, 『세계의 학생운동』, 힘
배규한, 1999, 『학생운동과 대학생자치활동』, 나남
서시주, 1986, 『세계학생운동 격돌의 현장』, 백양출판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신좌파운동의 국제적 비교와 한국학생운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 개괄 - 학위논문

김용재, 1995, 「학생운동의 변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점수, 1992, 「한·일 학생운동의 비교 고찰」,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개괄 - 일반논문

김도중, 1992, 「한·일 학생운동의 전개와 특징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32집 1호
김억환, 1987, 「학생운동의 발전과정과 유형에 관한 비교분석: 미국, 프랑스, 독일」, 『건국대학교육연구소논문집』 11집
김일철, 1984, 「외국과의 비교에서 본 한국 학생운동」 『목화』 12집
김태환, 1987, 「학생운동과 뉴레프트사상」, 『자유공론』 240집
민준기·정동귀·이원봉·정현수, 1987, 「한국학생운동의 대처방안: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3집, 경희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소
박종삼, 1984, 「세계학생운동의 동향과 그 의미」, 『송실대 논문집 사회과학편』 2집
신광영, 1993, 「서구 사회운동의 발전추이와 한국사회운동의 특수성」, 나라정책연구회 편, 『한국사회운동의 혁신을 위하여』, 백산서당
안재웅, 1979, 「제3세계의 학생기독교 운동」, 『기독교사상』 258집

(4) 개괄 - 잡지·저널·기타

정미경, 1985, 「제3세계 학생운동과 고대」, 『고대문화』 25집

(5) 1980년대 - 일반논문

이상안, 1986, 「우리나라 학생집단행동의 행태분석(80년대)과 외국과의 비교」, 『경찰대 치안논총』 3집

8. 기타

(1) 개괄 - 단행본

서울대 민주열사추모회, 1984, 『산자여 따르라』, 거름
서울대출판부, 1980, 『대학·자유·지성』, 서울대 대학신문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연구실, 1981, 『갈등과 권력』, 법문사
서울지역 교지편집인 연합회 편, 1988, 『백두에서 한라까지』, 돌베개
이시재, 1992, 『사회운동과 사회개혁론』, 전예원
전국대학연합 통일문제연구회, 1985~1987, 『민족과 지성』, 제1~3호, 전국대학연합통일문제 연구회
한국민중사연구회 편, 1986, 『한국민중사 I』, 풀빛
한국민중사연구회 편, 1986, 『한국민중사 II』, 풀빛

(2) 개괄 - 일반논문

이계윤, 1963, 「대학생들의 과제」, 『경희대 정경논집』 2집
이병호, 1989, 「한국사회성격과 변혁이론에 대한 일 고찰」, 『녹두서평 3』
이성형, 1988, 「신식민지파시즘론의 이론구조」, 『현실과 과학』 2호
이화수, 1989, 「학생운동과 학생생활 지도」, 『아주대 학생생활연구』 4집
이효선, 1984, 「학원의 갈등: 그 성격과 대응」, 『한국사회학』 18집 4호
이효선, 1985, 「한국사회의 학원갈등」, 『한국사회의 갈등의 연구』, 한국사회학회

(3) 1960~70년대 - 잡지·저널·기타

남재희, 1971, 「학생운동과 대학신문」, 『동국대 혜정』, 5집

(4) 1980년대 - 단행본

강철우, 1989, 『세계 청년학생축전과 청년운동』, 사회과학출판사

(5) 1980년대 - 일반논문

서중, 1990, 「청년학생들의 애국적 사회진출을 위하여」, 『경남대 경대문화』 24집
조희연, 1989, 「현단계 한국사회구성체논쟁의 구도와 쟁점에 관한 연구」, 박현채·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
(I), (II), 죽산

(6) 1980년대 - 잡지·저널·기타

- 강신옥, 1987, 「누가 박종철군을 죽였는가」, 『신동아』 330집
- 고려대학교 고대문화 편집위원회 편, 1988,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고대문화』
- 김당, 1995, 「박종철군 사건 전모 밝힌 안상수 변호사: “전두환·노태우씨 개입 여부 밝혀야”」, 『시사저널』 286집
- 김일동, 1988, 「박종철사건의 재판 ‘명로열군 고문치사’」, 『신동아』 343집
- 이부영, 1991, 「80년대 재야운동과 세 차례의 투옥: 이돈명변호사구속사건과 박종철고문치사 배후폭로의 진상」, 『역사비평』 13집
- 이선민, 1990, 「사로맹핵심 박노해」, 『월간조선』 129집
- 이신행, 1987, 「건국대 사건을 보는 감회」, 10월
- 임영상, 1989, 「개혁시대 학생운동과 지식인」, 『외대사학』 2집 1호
- 정동우·황호택, 1988, 「박종철 사건은 살해직후 조작되었다」, 『신동아』 341집
- 조돈만, 1987, 「박종철의 22년」, 『조선』 84집
- 함영준, 1990,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조작사건 제보자는 이부영」, 『월간조선』 125집
- 황호택, 1985, 「‘미문화원사건’ 재판 공방시말」, 『신동아』 314집

(7) 1990년대 이후 - 잡지·저널·기타

- 고동우, 1997, 「학생운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4: 인터뷰 / 한총련 이강민 연대사업위원장 - “이석씨 앞에 무릎 꿇을 순 있어도 정권 앞에 무릎 꿇을 수는 없다”」, 월간사회평론 길, 『월간 사회평론 길』 97집 7호
- 박용현·김규원, 1999, 「위기의 대학, 낡은 틀 깬다: 제2대학·가로지르기 등 다양한 활로 찾기 …… 교육개혁 5개년 계획은 결사반대」, 『한겨레21』 257집
- 박찬수, 1999, 「잊혀지는 5월 고개드는 5공」, 『한겨레21』 259집
- 서경민, 1990, 「이제 학생운동에 대한 사고는 전환되어야 한다: 학생운동 지도조직 건설을 제기하며」, 『고대문화』 32-3집
- 신운동욱, 2001, 「수배 도미노 ‘이적 한총련’: 기수별 고려없이 이적단체 규정 적용 …… 언제까지 대학생 수배자를 양산할 건가」, 『한겨레21』 369집
- 이은미, 1990, 「학원민주화를 위한 쟁점 연구」, 『고대문화』 32·33집
- 정종주, 1993, 「6월항쟁 그 6년 후 3: 당시 학생운동의 주역들 이인영, 이상호 - 생활하며 운동하는 법을 배우다」, 월간사회평론길, 『월간 길을 찾는 사람들』 93집 6호
- 차영진, 1997, 「학생운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 열흘간의 살육전」, 월간사회평론 길, 『월간 사회평론 길』 97집 7호
- 최영재, 1996, 「한총련 정명기 의장 인터뷰 “김대중 총재의 사과를 요구한다”: “해산 요구는 부당” …… “자수 의사 없다”」, 『시사저널』 360집
- 최영재, 1998, 「백태웅 전 사로맹 중앙위원장 인터뷰 “사회주의 포기, ‘통 큰 진보’ 지향”」, 『시사저널』 461집

한국 학생운동 관련 문헌 해제

발행일: 2003년 04월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T: 02-3709-7500 E-mail: edit@kdemo.or.kr F: 02-3709-752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빌딩 A동 6층

이 책자의 내용은 본 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

본 연구소의 승인 없이 전재 및 인용을 금함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